

I . 임진왜란

1. 왜란 전의 정세
2. 왜란의 발발과 경과
3. 강화회담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4. 왜란중의 사회상
5. 왜군 격퇴의 전략 · 전술

I. 임진왜란

1. 왜란 전의 정세

1) 교린정책과 외변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事大와 交隣이었다. 사대정책은 명과의 관계였고, 교린정책은 왜·여진·유구와의 관계였다. 이 중 일본과의 교린정책은 조선왕조가 주로 倭寇를 막기 위한 회유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羈縻정책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경계는 하였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오지 않는 한 외교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는 소극적인 외교를 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나 외교적 요청이 없는 한 그들의 국내정세를 굳이 알고자도 하지 않았고 또 알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은 조선 초 태종대에 熊川 개항과 세종 때 三浦 개항 이래 三浦倭亂 후 임진왜란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주로 對馬島主 宗氏를 중계로 하여 전개되어 조선이 종씨에게 歲遣米를 하사하고 무역에 특혜를 인정하였고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를 교린이라 하여도 上國으로서 자처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왜구의 약탈은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러 점차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왜구의 위협은 상존하였고 조선 초기 이후에도 간헐적인 왜구의 침공이 있었다. 왜구의 소굴은 농산물의 소출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였으나 이외에 五島열도·구주지방 등지에도 왜구의 근거지가 있었다. 이러한 왜구에 대하여 태종은 상왕이 된 후 강경책과 온건책을 함께 구사하여 세종 원년(1419) 李從茂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케 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게 하는 한편 乃而浦·富山浦·鹽浦 등 3포를 열고 倭館을 두며 1년에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고 圖書(통행증) 소지자만의 왕래, 체류일수의 제한 등을 내용

으로 한 癸亥約條(세종 25년 ; 1443)를 체결하여 대마도주의 제한적인 무역을 허락하는 회유책을 폈다. 이로써 대마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왜구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의 강·온 양면정책은 중종 5년(1510) 4월에 이르러 3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일으킨 삼포왜란으로 인해 파탄에 접어들게 되었다. 왜인들은 釜山僉使 李友曾을 죽이고 薺浦를 점령하여 첨사 金世鈞을 납치하였으며, 웅천성을 포위하여 성 밑의 인가를 분탕하는 등 3포의 군민을 도륙하고 가옥을 분탕하였다. 대마도주가 부산포·제포·巨濟 등지에 분견한 병선은 수백 척으로 왜세는 한때 기세를 올렸으나 곧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조선조정은 삼포를 폐쇄하고 왜인과의 교통을 단절하였다. 대마도는 이로 인해 물자의 곤란을 받게 되자 일본정부를 통하여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일본의 室町(足利)幕府에서는 日本國王使 弼中을 2차에 걸쳐 조선에 파견하여 강화를 시도하였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찬·부의 양론이 있었으나 야인으로 인한 북방의 긴장고조, 왜구의 재발 가능성과 약제 수입들의 필요에 따른 실리적인 강화론이 우세하여 중종 7년 8월에 이르러 壬申約條를 맺게 되었다. 조선은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삼포왜란의 주모자를 처단하여 수급을 보내고, 조선측의 포로를 송환하며, 盛親이 직접 와서 사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첫째 조건은 약조를 체결한 후에 이루어졌고, 셋째 조건인 성친의 親來陳謝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둘째 조건이 해결되어 임신약조가 체결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세견선을 종전의 50척에서 25척으로, 歲賜米豆를 2백 석에서 1백 석으로 각각 반감하고, 特送船制를 폐지하며, 삼포 중에 단지 제포만을 개항한다는 것이었다.

이 임신약조는 왜인에 대하여 삼포왜란 전보다 더 많은 제약과 구속을 가한 것으로 왜란에 대한 징계와 제한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한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중종 36년 제포에서 대마도 왜인과 관병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이것을 문제로 삼아 제포에 거주하는 대마도 왜인 전부를 방출하고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에서는 거둬 사신을 보내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간헐적으

로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을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하여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1〉 중종·명종대 倭船의 출몰 상황

일 시	왜 선 규 모	침 입 장 소
중종 17년 6월 丙戌	12척	전라도 新達梁
6월 乙丑	10~15척	전라도 草島・甫吉島・楸子島
18년 5월 癸巳	1척	전라도 草島
5월 丙申	1척	황해도 豊川
20년 9월 戊寅	4척	전라도 世尊巖
36년 6월 壬午	1척	경상도 薺浦 근처
39년 4월 乙酉	20여 척	경상도 蛇梁鎭
명종 7년 5월 辛亥	1척	제주도 旌義縣 川尾浦
8년 6월 丁亥	1척	제주도, 전라도 珍島
9년 6월 丁丑	2척 1척	제주도 전라도 甫吉島
10년 5월 己酉	70여 척	전라도 達梁浦
11년 6월 戊子	1척	경상도 蔚山
6월 辛丑	5척	제주도 濟州・旌義・大靜
7월 甲子	1척 1척	전라좌도 三島 전라우도 靑藤島
7월 辛未	12척	제주도
7월 癸酉	1척	전라도 甫吉島・作只島
12년 6월 壬寅	2척	청흥도 泰安
7월 乙卯	2척 2척	전라도 舒川 辛山浦
7월 戊午	1척	전라도 草島
14년 5월 丁酉	1척	청흥도 藍浦
6월 丙午	다수	전라도 仇助島・三島・安馬島, 제주도 등지

〈표 1〉과 같다.

왜구의 침입 중 크게 문제시된 것은 중종 17·18년(1522·1523)의 침입, 蛇梁倭變(중종 39), 乙卯倭變(명종 10; 1555)등을 들 수 있다. 10년 내지 20년의 간격을 두고 대거 침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간에 일본은 중국 등지로부터 화약과 병기의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견고한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점차 강성해져 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랑왜변 후 조선은 일본국왕사 이외의 왜인의 입국을 거절하는 강경책을 썼다.

명종 10년에 발생한 을묘왜변은 삼포왜란보다 피해가 심각하였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왜선 70여 척이 전라도 해남 達梁浦에 침입하여 전라병사 元續과 장흥부사 韓蘊을 살해하고 영암까지 침입하는 등 연해를 횡행하며 약탈과 살륙을 자행하였다. 이 왜변으로 놀란 조정에서는 왜구의 침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다만 당시 영의정 沈連源이 왜구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조선기술을 배워 왜선이 견고해지고 銃筒을 쓰는 법도 지극히 정교하여 왜세가 삼포왜란 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해져서 조선의 병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여 왜구의 강성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¹⁾ 그러므로 삼포왜란 때처럼 왜선을 제압하지 못하고 회유책을 사용하여 동년 10월 대마도주에게 세전선 5척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에도 당분간 왜침은 계속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날로 강성해져 가는 일본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전선의 건조를 시도하여 임진왜란 중에 큰 활약을 한 板屋船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형의 총통과 승자총통 등 화기의 개발에도 주력하였다.²⁾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실정막부가 붕괴되고 각지의 봉건영주가 할거하는 전국시대에 돌입하게 되자 豐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이 일본을 통일할 때까지 약 30년간 일본과의 정식외교는 일체 단절되었고 武備에는 소홀해졌으며 일본의 국내사정을 모르는 채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1) 《明宗實錄》 권 18, 명종 10년 5월 기유.

2)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研究》(一潮閣, 1977), 67~73쪽.

2) 일본의 국내정세

16세기의 일본사회는 應仁・文明의 난(1467~1477) 이후 약 100여 년간 하극상의 동란기인 전국시대로 들어갔다. 종래의 室町幕府의 중신이었던 守護大名들이 약화 내지 소멸되고 戰國大名이라 불린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전국대명들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느린 소속 영토의 경영에 힘써 제방 구축・수로 부설・농토 개간 등을 추진하고, 家臣・營民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성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전국대명들의 영주국 안에는 「城下町」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전국대명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영토를 지키는 곳인 동시에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다. 전국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도시가 생겼으며 항구에는 무역항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 중 「사카이[堺]」는 그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또한, 자치・자유도시로서 국내상업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스페인상인을 상대로 남방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번영하였다. 또 전국시대에는 불교교단・농민・무사 등 여러 계층에 의한 「잇키(一揆)」가 각처에서 일어났다. 織田信長(오다 노부나가)과豊臣秀吉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유도시 사카이와 잇키를 제압하여야 하였다.

한편으로 포르투갈・스페인 등 서양세력의 동진에 따른 이들과의 무역과 서양문물의 전래가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43년 포르투갈인이 種子島에 내항한 후 서양인과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에 의해 鐵砲(鳥銃)가 전래되었다. 당시의 일본은 전국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인 조총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활발히 수입되었으며 자체 생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총의 보급에 의해 종래와 같은 전문적인 전투집단보다는 조총으로 무장한 보병집단에 의한 전투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 준 것은 1575년 「長篠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직전신장의 첩포대는 그 무기의 위력을 크게 과시하여 기병을 주력부대로 한 상대방의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조총의 보급은 축성술에도 변화를 가져와 종

래처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城보다는, 보병부대의 전개에도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평야와 인접한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성을 쌓는 平山城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조총의 위력을 막기 위하여 성벽을 이중으로 하여, 그 사이에는 돌을 넣어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대명의 가신들은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 전투배치가 가능하도록 성의 주변에 거주할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천주교단의 예수회 전래도 또한 일본사회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1549년 예수회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Xavier)는 포교의 허가를 얻고자 京都에 도착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포교하기 힘들어 山口縣에서 포교의 허가를 얻었다. 무장층의 신자가 늘어나고 경도와 그 근교에 교회당까지 건립하게 되었다. 구주지방의 대명들은 외국무역에 의한 이익의 획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영토 밑에 포르투갈 무역선을 유치하기 위해 예수회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불교도와와의 충돌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선교사와 예수회 신자들이 점차 長崎로 옮겨 살게 됨으로써 장기는 항구도시인 동시에 천주교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587년 풍신수길³⁾이 선교사의 국외추방을 명하고 장기를 예수회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직할령으로 삼음으로써 예수회는 일본 내에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전국대명 중의 小西行長(고니시 유키나가)은 독실한 천주교신자였고 조선침략군 중 약 2천명의 장병이 영세교인이었다.³⁾

이상과 같은 변화 속에서 전국시대의 통일은 직전신장에 의하여 추진되어 풍신수길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직전신장은 1568년 반대세력들을 물리치는 한편 경도에 입성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畿内の 반대세력을 정복하고 자유도시인 사카이를 굴복시키는 한편 여러 영주국의 關所를 폐지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상업을 진흥시켰다. 그러나 직전신장이 1582년 살해당하자 풍신수길이 그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면서, 3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大阪城을 쌓고 통일사업 추진을 위한 본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관동의 대명 徳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과 화평을 맺는 한편 천황에게 접근하여 1585년 7월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關白이 되어 1587년 구주정벌을 끝내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통일 사업을 완수해 나갔다.

3) 박철, 《세스페데스》(西江大 出版部, 1987), 49~50쪽.

이같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결코 富商의 협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들은 군수물자의 보급과 수송을 담당하였다. 특히 풍신수길은 堺・博多・長崎 등지의 무역항을 직할지로 삼아 경영하였기 때문에 군자금도 윤택하였다. 한편 풍신수길은 정권의 기반인 토지와 농민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檢地를 실시하였다. 이 검지사업은 정비된 통일기준에 따라 1582년부터 시작되어 풍신수길이 죽을 때까지 16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檢地帳에 作人으로 등록된 자는 경지의 보유권이 보장되었지만 반면 토지에 속박되어 직업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그러면서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항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1587년 그들로부터 칼・창・활・총 등의 무기를 거두어들이는 「刀狩令」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1591년에는 小田原征伐이 끝난 것을 계기로 이후 백성들이 전토를 버리고 상업이나 임대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侍人・仲間・奉公人이 새로 백성이나 町人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도시에 유입된 백성들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분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호구조사를 단행하여 家數人數臺帳도 제출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이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을 앞두고 군대・인부의 징발 등의 동원계획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풍신수길은 전국의 통일이 끝나자 구상중이었던 대륙의 침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선에서는 물론이며 일본의 유학자들도 풍신수길이 「명분없는 전쟁」을 도발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학자들 사이에서도 임진왜란의 원인으로 풍신수길의 개인적인 공명심과 영웅심, 대명무역 확대, 해외 발전 또는 봉건영주들의 세력 약화를 위한 것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소설가인 司馬遼太郎은 그 이유를 경제에서 구하려고 해도 구름잡는 것과 같고,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풍신수길의 정권은 겨우 10년이었으나 그는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가 되었다. 여러 봉건영주를 복속시킨 후 그의 권력은 무제한의 宙空에 떠서 무중력적 기분이 되어 망상세계의 병자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하였다.⁴⁾ 이는 역사가가 아닌 작가로서 흥미로운 분석이기도 하다.

4) 《文藝春秋》68-11(東京; 1990. 10), 77~79쪽.

풍신수길은 임란 6년 전, 1백여 년간 군웅이 서로 할거하던 일본의 진국 시대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大唐入」을 호언했다고 한다. 풍신수길은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그가 일본의 최고권자에 오른 다음에는 일본에서 가장 고귀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풍신수길은 조선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중국의 山海關이나 만리장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였다. 그렇다고 임란의 원인을 풍신수길의 개인적 심리에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그의 조선침략에 대해서 후세의 역사가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풍신수길의 소위 대명정벌을 위한 전쟁준비는 선조 19년(1586) 포르투갈 선교사 가스파르 고에리오(Gaspar Coello)에게 군함 2척을 주문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직전신장도 외국원정을 말한 적이 있고, 풍신수길도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를 완전히 통일하지 못한 때라 구체적 복안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선조 20년 구주지방 토벌중에 대마도주 宗義調와 宗義智 부자를 불러 명 원정의 계획을 말하였다.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마도주는 2백여 년간 조선왕조의 무상원조인 歲賜米와 무역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심 놀라면서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조 20년부터 해마다 조선에 3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 그는 조선왕을 일본에 오도록 하라는 풍신수길의 명령을 받았지만 조선에 와서는 통신사의 파견만을 간청하였다. 결국 조선은 선조 22년 9월에 통신사로 정사 黃允吉과 부사 金誠一을 파견하였다.

풍신수길이 조선통신사를 만난 선조 23년은 일본 전국 66국을 완전히 통일한 이후라, 그는 오만불손하였다. 그는 인도와 필리핀에 사신을 보냈는데, 필리핀총독에게 보낸 서간에서 ‘천하가 내 손안에 들어왔는데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정벌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

풍신수길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력한 봉건영주 소서행장의 딸 마리아(천주교 영세명)를 종의지에게 시집보냈다. 종의지는 장인 소서행장에게 왜군이 쉽게 조선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주었으며 자신도 선봉대에 참가하기를 자원했다. 이러한 보고가 풍신수길에게 전해지자 풍신수길은 몹시 기뻐하였고 소서행장에게 선봉장의 명예를 주었다.

이후 풍신수길은 관백의 지위를 조카인 秀次(히데츠구)에게 물려주고 조선 침략에 몰두한 것 같다. 선조 24년(1591) 8월에 이르러 풍신수길은 조선침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전국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봉건 영주들 중에는 내심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영토를 몰수당하든가 처형될까 두려워 직언할 수가 없었다. 일본에 체재 중이던 포르투갈 신부 프로이스(Luis Frois)는 이 때의 상황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가 없었다’는 우화에 비교하였다. 풍신수길은 교활한 정치가였다. 반대하는 자를 단호히 처단하는 한편 일본인의 마음이 집단적으로 스스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교묘히 이용하였다. 즉 이제까지 멀리하였던 자들을 가까이 불러들여 은총을 베풀고 높은 자리에 앉혀 반대세력을 억압하였던 것이다. 또 富士山 아래에서 봉건영주들을 모아 큰 수렵잔치를 베풀어 2,500마리의 큰 새를 잡아 금박을 한 긴 대나무 꼬치에 꽂아 행렬함으로써 일본 역사상 최대의 성사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의 최고급 무장에게 사냥개의 고삐를 잡고 견제하여 신분이 높고 권세있는 자라 하여도 자기 앞에서는 천직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과시하였다. 이후부터 조선침략에 반대하던 봉건영주들도 절대 충성을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갔다.⁵⁾

풍신수길은 1591년 정월 전국에 걸쳐 군량·병선·군역의 수를 할당하였으며 구주의 한 촌락이었던 名護屋에 행영본부를 축성하여 조선침략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다.⁶⁾ 그리고 8월 23일에는 조선침공의 날짜를 다음해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다음해인 1592년 정월에는 일단 수륙침공군의 군대편성을 마치고 다시 3월에 재편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육병은 침공군인 1번대에서 9번대까지 총 158,700명이고, 명호옥을 비롯한 일본국내 잔류병력은 118,300여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선봉대로서 최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小西行長을 주장으로 하는 1번대의 18,700명, 加藤清正(가토 기요마사)이 주장인 2번대의 22,800명과 黒田長政(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 11,000명 등 52,500명이었다. 그리고 九鬼嘉隆(구키 요시다카)·脇坂安治(와키자카 야스하루)·加藤嘉明(가토 요시아키라)·藤堂高虎(도토 다카도라) 등의 수군장이 별도로 수군을 편성

5) 松田毅一·川崎桃太 譯, 《フロイス日本史》(中央公論社, 1981), 195~202쪽.

6) 中村質 等編, 《文祿・慶長の役城跡圖集》(佐賀縣教育委員會, 1985) 참조.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대명들은 할당된 병사를 충당할 수 없어서 실제 군사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침략군은 치밀한 침공계획하에 침공 중계지인 대마도로 속속 집결하여 풍신수길의 ‘渡海’ 중에는 한 필의 군마도 손실하여서는 안된다’는 엄명에 따라 침공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3) 조선의 국내정세와 군사준비 실태

16세기 조선사회는 점차 쇠퇴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安邦俊은 《隱峰全書》에서 임진왜란 전의 주요 사건을 열거하면서 조선의 국내정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萬曆 임진년 4월 일본적이 대거 入寇하였다. 이보다 10년 전 粟谷 李珣선생은…10만의 병과 都城戍軍 2만 명을 양성할 것을 청원하였는데…갑신(1584) 정월 율곡이 돌아갔다. 뒤에 당국자들은 오직 偏黨을 逢迎하는 데 힘쓰고 또 역적의 술수에 빠져들어 있었으며 鹿屯島의 屯田과 海西地方의 蘆田으로 백성을 이사시키고 玉非의 자손을 추쇄하는 일로 능사를 삼으니 팔도의 인심이 크게 이반되었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서남 연해의 鮑人들은 수령이 침탈함으로써 일본에 도망해 들어가 강진의 沙火同같은 자가 곳곳에 있어도 조정이 걱정으로 여기지 않았다. 5년 뒤인 정해년(1587) 봄 3월에 왜적선 16척이 영남 외양으로부터 곧바로 興陽 損竹島에 와 닿으니…조야가 크게 놀랐다…이 해 9월 平秀吉이 사신을 보내 화친하기를 바랐다(安邦俊, 《隱峰全書》 권 6, 記事 壬辰記事).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지배층의 편당, 정치기강의 해이, 세제의 문란 등의 폐단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심의 이반과 연계된 폐단들은 모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나타났고, 위정자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4차의 士禍를 겪으며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람세력에 의해 종래의 6曹체제보다는 3司를 중심으로 한 公論정치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3사간의 공론을 모은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며 또한 공론화된 의견은 의정부의 3공이라 하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사람지배 아래에서의 정치는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만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상호견제의 정치풍토를 이루게 되었다. 선조 8년(1575)에 이르러 기성관료와 신진관료 사이에 동서 분당이 싹트게 되었다. 분당의 초기에는 李滉과 曹植의 문인들이 많았던 東人이 李珣과 成渾의 학맥으로 이루어진 西人을 압도하였다. 이들은 선조 22년 己丑獄事로 일시 실각하기도 하였으며 서인 鄭澈의 建儲議事件을 계기로 남북으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봉당정치는 당파간의 상호견제 속에서 공론에 의하여 정국을 이끌어 가는 한층 진보된 정치형태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당파간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에서는 중앙의 봉당과 연관을 가지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향약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상호부조와 결속을 다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각 지역에는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 존경받는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과 인물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각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주체세력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건국 이래 여러 종류의 공신에게 지급된 공신전과 별사전이 모두 세습되고 양반관료들에 의한 토지의 매입·겸병·개간 등으로 인한 면세전의 확대에 따라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생활이 곤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관리들에 의한 토지소유의 확대가 심해져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침탈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농장의 전호로서 2분의 1의 전세뿐만 아니라 특산물에 공납이 큰 부담이었다. 이 공납은 규모뿐만 아니라 수납의 절차도 복잡하여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공물을 납부하는 防納制가 생겨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외에도 군역의 요역화와 收布代役制의 발생, 환곡제도의 고리대금화 등으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게다가 15세기 이래 계속되는 전국적인 가뭄과 흉수, 흉년·蝗災와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농민들은 근거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거나 명종 때 활동하던 임격정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도적으로 변하기도 하여 국가재정의 근간이었던 농촌은 날이 갈수록 황폐하여져 갔다. 이에 따라 중종대에 203만 석에 달하였던 三倉의 貯置米가 임진왜란 직전에 이르러서는 50여만 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⁷⁾

7) 《宣祖實錄》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사회적인 면에서는 지배계층의 엄격한 신분제를 고수하려는 쇄환정책에 따라 발생한 선조 16년(1583)의 玉非의 난과, 봉당정치의 과정에서 선조 22년에 발생한 鄭汝立의 난의 여파가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미쳐 전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옥비의 난은 6진을 개척할 때 자원 입진하여 속량된 公私賤人의 逃還이 속출하자 선조 16년 쇄환령을 발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시 도환자와 그 후손들을 엄격하게 전국에서 색출하였는데 이미 사망한 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함경도 경원의 관비 출신인 玉非는 영남으로 달아나 숨었다가 良家의 첩이 되었는데 사망한 지 80년이 지나 후손을 많이 두었고 그 중에는 사족과 결혼한 자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종실과 결혼한 자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쇄환령이 시행되자 사족의 부녀자 가운데는 왕왕 자결하는 자까지 나와 ‘곡성이 하늘에 가득찰’ 만큼 화근이 사족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옥비의 후손에 한한 것이 아니어서 중외는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고, ‘팔도의 민심은 크게 돌아섰으며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던 것이다. 정여립의 난은 선조 22년 10월 황해감사의 밀계로부터 발단되었는데, 기축옥사로 발전되어 당쟁과 결부되어 연좌의 화가 사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무고한 사람들과 일반 서민들까지 많이 연루되어 그 파장은 전국적으로 임진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외에도 선조 20년 왜구의 興陽入寇 등으로 조선 내의 사회상은 매우 인심이 흉흉하고 유언비어가 나돌아 기강이 해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의 외교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하고 대륙 침략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던 풍신수길은 조선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마도주 종의조·종의지 부자에게 소위 「假道入明」을 교섭하게 하였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歲賜米와 무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하여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는 선조 20년에 가신인 橘康廣을 일본국왕사라고 사칭하여 조선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권이 교체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조선왕을 일본에 오도록 하라는 풍신수길의 명령을 변조하여 通信使의 파견을 간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절단이 부산에 도착하자 조선 조정은 그들에 대한 영접 거부, 書契의 오만한 내용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이

에 대해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公州教授 趙憲은 시폐개혁과 일본정벌을 주장하는 萬言疏를 올리기도 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바닷길에 어둡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조선은 사대교린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왜구의 내침을 방지하는 데 만족하고 일본 내정에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통신사의 파견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첫번째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대마도주는 승려 玄蘇를 정사, 종의지를 부사로 삼아 이듬해인 선조 21년 10월과 그 다음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파견을 교섭케 하였다. 이들은 공작·조충 등의 예물을 바치고 왜구가 홍양 損竹島를 약탈할 때 이들을 향도한 沙火同 등을 인도하면서 통신사의 파견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조정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졌고, 일본 사정도 탐지하기 위해 선조 22년 9월에 통신사로 정사 황윤길·부사 김성일·서장관 許箴을 파견하였다. 이는 세종 25년(1443) 통신사 卞孝文, 서장관 申叔舟를 파견한 이래 약 1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은 풍신수길을 만나고 선조 24년 정월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정사는 왜적이 침범하리라 하였고 부사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여 국론이 분분하여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다만 명에 대해서 과거 일본과의 국교를 비밀에 부치고 있었으나 왜사들이 말하는 「가도입명」에 관하여는 통보하였다. 이로써 이미 막연하나마 왜군의 전쟁준비의 정보를 얻고 있었던 명이 조선도 일본의 침략준비에 가담하려 한다는 의심을 풀었고 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원정군을 파견하는 동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조선조정에서는 임란 1년 전부터 만일에 대비한 방어책을 세웠다. 첫째는 각 도의 성곽을 수축하고, 둘째 무기를 점검하고, 셋째 무신 중에 뛰어난 재질이 있는 자는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는 일이었다. 특히 조정에서는 일본이 육전보다는 수전에 능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그 중에서도 경상·전라도의 성곽 수축에 힘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천·청도·삼가·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 및 좌·우병영의 성을 증축하고 垓字를 깊이 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양반들은 왜군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였고, 성곽수축과 군사훈련에 동원된 백성들은 지방통치관인 수령과 군사지휘관인 병사 등에게 원망을 품게 되었다.⁸⁾ 임란이 일어나기

1개월 전인 3월에 전라도 강진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巡察使 申硯의 독촉으로 성곽을 수축하는 승군과 군사훈련에 동원된 곡성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이는 경상도도 거의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이는 “우리 마을 앞에는 내가 흐르고 있어 아무리 장사라 하여도 뛰어넘을 수 없는데 하물며 동래·부산 앞은 망망대해인데 왜인이 어떻게 넓은 바다를 넘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텐데 성곽을 수축하여 민폐만 크게 일으킨다고 반대하였다.⁹⁾ 따라서 城堡의 수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2백 년간 평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쟁대비란 백성의 원한만 샀지 일본 대군을 격퇴할 방비가 되지 못했다. 다만 서열에 관계없이 무장을 뽑아 李舜臣·權慄 등과 같은 인물이 발탁되었다.

국방전략상 조선은 鎭管法체제를 유지하다가 을묘왜변 이후 制勝方略으로 개편하였고 임진왜란 전에 다시 진관법으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승방략은 적의 침략이 있으면 지방군이 지정된 곳으로 집결하고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하여 지휘하는 체제였으나 대군이 침공할 때에는 실전에 적용될 수 없는 전략이었다. 이는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순찰사 金睟가 즉시 제승방략의 分軍法을 시행했으나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국가의 각 방면에서의 쇠퇴의 기미는 軍紀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사들의 군기문란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 예로 선조 11년(1578)에 일어난 경상도병영의 군사난동사건을 들 수 있다.¹⁰⁾ 평소부터 군기의 정비와 훈련에 태만한 자는 용서없이 결죄한 虞候의 처사에 대하여 원망이 많았던 경상병영군은 병사가 교체되는 시기를 틈타 밤중에 성문을 열고 전원이 탈출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우후가 스스로 군사들이 결진한 곳으로 나아가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訓諭한 후에야 진정되었다. 이 소식이 조정에 보고되자 주모자들을 잡아서 효시케 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무장들은 이러한 일이 ‘근래에 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중앙의 위정자들이 지방사정에 얼마나 어두웠고 당시의 군정이 어느 정도 문란했는지 짐작케 한다. 군기의

8) 《宣祖修正實錄》권 25, 선조 24년 7월.

9) 柳成龍, 《懲毖錄》권 1.

10) 《宣祖實錄》권 12, 선조 11년 4월 병술.

문란과 더불어 官紀도 해이해져 선조 23년 정월에는 繕工畫員·銀匠이 종묘의 守僕과 공모하여 태묘의 寶器를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한 일도 일어났다. 이러한 세태에 대하여 《宣祖修正實錄》에서는 “때에 나라가 태평한지 오래되어 士論은 바야흐로 성하지만, 풍속은 각박하고 악했다”¹¹⁾라고 간명히 평하고 있다.

또한 柳成龍은 《懲毖錄》에서 임란 초전의 패인을 ‘軍政의 근본이라든가 장수를 뽑아 쓰는 요령, 또는 군사를 조련하는 방법 등 어느 한 가지도 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큰 외적의 침입없이 2백 년간 태평시대를 구가하였다. 그리고 소규모로 왜구의 침입 등이 있었으나 일본과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전 국력을 동원하여 침략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崔永禧〉

2. 왜란의 발발과 경과

1) 왜란의 발발

조선에 아무런 예고없이 일본의 대군이 침략을 시작한 것은 선조 25년(1592) 4월 14일이었다. 일본은 이미 전쟁 전에 몇 번의 외교사절을 보내왔고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도 通信使로 黃允吉과 金誠一을 일본에 파견하여 외교적인 접촉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외교교섭에서 조선은 일본이 의도한 침략의 속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선린만을 회구하였다. 이리하여 외교 교섭은 결렬되었고 일본의 침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에서 몇 사람의 무능한 수령을 교체하고 영남과 호남지방의 연안을 중심으로 그 요해처에 城池의 수축과 무기의 정비에 힘을 썼다. 그러나 이것마저 민심의 동요만 일으켰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지하고 말았다.

11) 《宣祖修正實錄》 권 23, 선조 22년 정월.

이에 비하여 일본은 외교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침략군을 편성하기 시작하여 1진에서 16진까지를 육군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수군 약간을 두었는데 총 병력은 281,800여 명이었다. 이들의 선발대인 1진에서 4진까지는 3월 1일부터 그들의 본거지인 名護屋¹⁾을 떠나 壹岐島로 출발케 하고 5진 이하는 각 기 인솔하는 대장의 근거지를 떠나 명호옥에 집결하는 시기를 정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의 선발대 17,000여 명을 군선 약 700여 척에 태워 부산포에 상륙시켰다. 4월 13일 오후 5시경 경상도 가덕도의 응봉봉수대는 다음과 같은 긴급한 상황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각 감영과 중앙에 보고하였다.

왜선의 수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략 90여 척이 가덕도 남쪽에서 부산포를 향하여 항해중인데 그 뒤를 따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李舜臣, 《壬辰狀草》, 因倭警待變狀一).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경상도 좌수영과 우수영에서 일본군을 부산포에서 저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구를 수수방관하였다.

일본군 선발대 대장인 小西行長(고니시 유키나가)은 다음날인 14일 부산성을 공격하였다. 釜山僉使 鄭撥은 선박 3척을 거느리고 絶影島에 나가 있다가 일본군 침입의 급보를 접하고 급히 성으로 들어와서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부산진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15일 東萊城을 약 2만의 군대로 포위 공격하였다. 부산성에서도 군관민이 용감히 일본군에 저항했고, 동래성에서도 東萊府使 宋象賢의 지휘하에 군과 민이 합심하여 끝까지 처절한 저항을 하였지만 종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었다.

일본군의 침입을 막아야 할 慶尙左水使 朴泓은 수영을 버리고 연양으로 도주하여 慶尙左兵使 李珪과 진을 치고 있다가 경주로 도주하였다. 또한 慶尙右水使 元均은 일본군이 거제도도 향한다는 소문을 듣고 虞候로 하여금 우수영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 자신은 白川寺로 향하여 나가다가 연해의 어선을 보고 적선으로 오인하여 노랑진으로 도주하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우후는

1) 현재 일본 구주북서단에 위치한 사가현 동송포군 진서정의 옛 이름으로 임진왜란의 진초기지.

일본군이 침입한다는 잘못된 보고를 믿고 수영 중의 늙고 연약한 남녀를 피란 시킨 다음 전선 백여 척과 화포를 비롯한 군기를 바다에 침몰시켰고, 南海縣令 奇好謹은 창고에 불을 지른 후 도망쳤다. 이와 같이 경상도의 좌·우수영의 수군은 일본군을 막기는 커녕 일본군의 침입 이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일본군은 소서행장의 뒤를 이어 후속부대가 계속 부산에 상륙해 왔다. 4월 18일 加藤清正(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는 22,000여의 병력으로 부산에 상륙했고, 黒田長政(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 1만여 명이 多大浦를 거쳐 김해에 상륙하는 등 4월과 5월 사이에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의 총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그들의 진로를 中路·左路·右路로 나누어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였고, 그들을 지원하는 수군은 남해안을 돌아 서쪽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서울까지의 진로는 다음과 같았다.

中路：東萊－梁山－淸道－大丘－仁同－善山－尙州－鳥嶺－忠州－驪州－楊根－龍津나루－서울

左路：東萊－彦陽－慶州－永川－新寧－軍威－龍宮－鳥嶺－忠州－竹山－龍仁－서울

右路：金海－星州－茂溪－知禮－金山－秋風嶺－永同－淸州－서울

일본군이 조선의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했고, 이후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실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이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 2백 년간의 평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군정이 문란하고 군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또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반면에 일본군은 오랜 전란을 겪어 전쟁의 경험이 풍부하였고 잘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에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았으므로 이들을 대적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조선 군대의 주무기가 활인데 비하여 그들은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므로 조선군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이 팽배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나 군지휘관은 일본군이 경내에 침입하기도 전에 도주하였다. 이것은 지배층에 불만을 품은 민중이나 군졸들이 반항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본군을 대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는 4월 17일 경상좌수사 박홍으로부터 일본군 침공의 급보가 전해지고 연이어 경상도감찰사 金睟의 보고가 있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잇따른 급보는 경상도의 여러 고을이 차례로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

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홍보에 조정은 물론 백성들도 일본군 침입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비상대책으로 황급히申 硯을 都巡邊使, 李鑑을 巡邊使, 金汝恂을 從事官에 임명하여 일본군의 침공에 대비하는 한편, 김성일을 경상우도招諭使, 金功을 경상좌도安集使로 삼아 민심의 수습과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독려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관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는 일본군을 지세가 험하여 전략적 요충인 鳥嶺・竹嶺・秋風嶺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이일에게 조령을, 劉克良과 邊璣 등에게는 각기 조령과 죽령을 방비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일은 거느리고 임지로 나가야 할 정병 3백여 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3일간이나 허송하고 있었다. 이일이 급히 남하한 후 조정에서는 柳成龍을 都體察使로 삼아 순변사 이일과 도순변사 신립을 돕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일본군을 조령 등지에서 막으려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당시 조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으며 일본군을 서울 이남에서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조정과 백성들은 신립과 이일이 북상중인 일본군의 예봉을 조령 등지에서 저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일이 4월 24일 상주에서 가등 청정군에게 패배하여 충주로 물러섬으로써 일본군은 조령과 죽령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일의 뒤를 이어 서울을 출발한 신립은 4월 26일 충청도의 병력 8천여 명을 丹月驛에 집결시켰다. 이 때 충주목사 李宗張과 종사관 김여물이 조령에서 일본군을 방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신립은 일본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는 풍문을 듣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일본군을 막으려고 하였다.

신립은 기병을 위주로 싸우고자 평야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일본군을 기다렸다. 소서행장이 이끄는 2만여의 일본군이 아군을 공격하자 신립은 기마부대를 독려하여 용감히 싸워 많은 적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가 불리하여 끝내 패전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신립을 비롯한 김여물・이종창・변기 등의 장수와 많은 군사를 잃어 충주 방어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이일과 신립 등이 조령과 추풍령 등의 방비를 위하여 서울을 출발한 후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서울침공에 대비하여 서울방비의 조치를 취했다. 즉 右議政 李陽元을 守城大將, 李戡・邊彥琬를 각각 左・右衛將, 李忠侃을 都城巡檢

使로 삼아 도성의 성첩을 급히 수축케 하였다. 그리고 北兵使였던 金命元을 都元帥로 삼아 도성의 외각인 한강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일이 상주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과 연이어 신립이 충주방어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전해들은 도성의 인심은 흉흉해졌다. 이는 천연적으로 지세가 험한 요새인 죽령·조령·추풍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과, 충주 이북에는 어떤 방어선도 고려하지 않아 서울이 위험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는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왕의 둘째 아들인 光海君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각 도의 관찰사는 시급히 군사를 이끌고 서울에 와서 도성을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병사를 모집하여 서울에 모이도록 하였다.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성의 수축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수비하는 군사도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兵曹判書 金應南은 부족한 군사를 채우기 위하여 각 고을의 백성과 공·사천, 서리 등을 모조리 징발하여 성첩 3만여를 지키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명령에 따라 나와서 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겨우 7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오합지중이어서 도망칠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 위에 병조에 소속되어 있는 상변군사까지도 하급서리와 결탁하여 도망가기 일췌였고 이를 감독해야 할 상관들도 성을 지키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의 보신만을 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성이 위기감에 휩싸였던 4월 29일 조정에서는 종친과 대신의 건의에 의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함경도에 臨海君을, 강원도에 順和君을 보내 구원병을 모으기로 하고 李元翼과 崔興源을 평안도와 황해도의 순찰사에 각각 임명하여 군사를 모집하도록 조치하였다.

4월 30일 새벽 왕은 평양으로 가고자 서울을 출발하였다. 왕의 일행이 서울을 벗어나자 도성은 혼란이 극도에 달했다. 왕의 西遷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은 불안감을 더해 갔고, 일본군이 침입도 하기 전에 피란소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이 백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전라도관찰사 李洸이 전라도군을 이끌고 도성을 지키고자 북상하여 공주에 이르렀다가 왕이 도성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시켰던 일도 있었다.

도성에 남아 있던 일반 민중만이 아니라 양반들 사이에서도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유언비어가 일기 시작한 상황에서 도성의 민중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들 난민들은 먼저 공·사노비의 문적이 보관되어 있는 장례원과 형조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이어 경복궁·창경궁·창덕궁 등 궁궐과 관아를 약탈하거나 방화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왕의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惠陰嶺을 넘었을 때는 호종하는 자가 유성룡·李山海·李恒福 등 1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왕이 개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 백성들은 왕의 일행을 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실정을 들어 비난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왕의 행렬이 개성을 떠나 5월 7일에 평양에 이르렀을 때 평안감사 宋言愼이 3천여 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맞이하자 호종하는 신하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후 겨우 20일만에 서울에 이르게 되었다. 한강방어의 책임을 맡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에서 물러나 임진강에 진을 치고, 수성대장 이양원과 부원수 申格이 서울을 포기하고 양주로 물러서자 일본군이 5월 2일에 한강을 건너 3일에 도성에 들어간 것이다.

양주로 후퇴하였던 신각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있을 때, 때마침 함경도 남병사 李渾이 그의 휘하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이들과 합류하였다. 신각과 이혼은 이곳에서 서울을 유린한 일본군이 인근지방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양주의 蟹踰嶺에 복병을 대기시켰다가 일본군을 기습공격하여 60여 명을 살해하였다. 조선측의 피해없이 일본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일은 일본군의 부산상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울에 차례로 들어온 일본군은 대오를 재정비하고 작전회의를 거친 후 각 부대의 진로를 숙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소서행장의 부대는 평안도, 가등청정의 부대는 함경도, 흑전장정의 부대는 황해도로 진로를 정하는 한편, 서울을 지키는 부대와 강원도·전라도·경상도방면에 침입하거나 후방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부대를 두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군이 서울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개성에서 받아보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이 때 어전회의에서 이항복은 명에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尹斗壽는 “명군이 한번 우리 나라의 경내에 들어오면

그 후에 난처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명나라 원군의 요청을 적극 반대하였다.²⁾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일본군을 무찌르려는 그의 정신과 선견지명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지만, 상황은 이미 조선의 힘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다.

도원수 김명원이 후퇴를 거듭하여 임진강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도순변사 韓應寅으로 하여금 평안도 정병 3천과 합심하여 일본군을 맞아 물리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월 15일 조선군은 임진강변에 도착한 소서행장 등과 대치하고 있다가 18일 기습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일본군에게 패배하여 申祐·劉克良 등의 장수와 많은 병사를 잃었다. 따라서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일본군은 5월 27일 임진강을 건너게 되었다. 임진강전투의 패보에 접한 조정에서는 마침내 李德馨을 구원사로 삼아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이 포기한 개성에 들어온 다음 6월 1일 이곳을 출발하여 황해도 安城驛에 이르러서 가등청정은 함경도로, 소서행장은 평양으로 향하였다.

왕의 서천은 처음부터 확고한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나 일차적으로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그러나 북상해 오는 일본군의 그칠 줄 모르는 침략의 위세에 조정의 논의는 구구하였다. 함흥으로 또는 강계로 피하자는 논의와 평양을 사수하자는 주장이 서로 맞섰다. 그러나 평양을 사수하자는 윤두수와 유성룡 등의 주장이 관철되어 우의정 윤두수에게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을 거느리고 평양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평양방어 결정은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평양성민을 안정시키고 군사와 합심하며 성을 지키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평양성의 사수결정은 왕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다시 평양을 떠나고자 하였으므로 평양성 내의 백성들이 성을 빠져 나가는 등 성내가 어수선하게 되었다. 이에 선조는 세자에게 명하여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킬 작정이니 염려치 말라”고 성내의 백성들을 타이르게 하였다. 조정의 이러한 조치로 백성들이 다시 성안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식량의 확보를 위하여 가까운 고을에서 조세미를 반입하여 평양성의 창고에 10만 석을 비축하였다.

2) 朴東亮, 《寄齋史草》, 임진 5월 19일

이와 같이 평양성의 방비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의 북상은 멈추지 아니하고 대동강 연안에 이르게 되어 조정에서는 다시 북행을 결의하였다. 조정의 평양 이탈은 평양성민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이들 중 위정자의 무능과 무책임에 격분하여 난을 일으키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있었고, 성밖으로 나가려는 궁녀들과 대신들의 길을 막고 구타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윤두수 등에게 평양성의 방어를 명령하고 왕의 일행은 6월 13일 평양을 떠나 肅川·安州를 거쳐 寧邊에 이르러 함경도로 가려고 하다가 이항복·이덕형의 의견에 따라 의주로 향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와 같이 평양을 떠난 후에도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 계획조차 없었다. 왕은 博川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정치적 잘못을 뉘우치고 分朝의 뜻을 굳히고 군국의 대권을 세자인 광해군에게 맡기려 하였다.

왕의 일행이 定州에 머물고 있을 때 평양성 함락의 패보를 받은 왕은 세자와 다른 방면으로 분리행동하는 이른바 분조의 뜻을 결정한 다음 광해군에게 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江界를 목표로 나아가게 하고 각 지방에 근방의 군사를 징모하도록 하였다. 왕의 일행은 嘉山·정주·龍川를 거쳐 6월 23일 의주에 이르러 의주목사의 거소를 행궁으로 정하였다.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윤두수와 김명원은 6월 13일 소서행장의 일본군이 대동강에 이르자 다음날 새벽에 정병들을 뽑아 일본군에게 기습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패배를 당했다. 그리하여 평양성의 방어선도 무너지고 비축했던 막대한 군기와 화약 등의 군수물자를 못 속에 버리고 후퇴하였다. 이 평양성의 失陷으로 조선의 운명은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조정에서 최후로 의지하고자 한 것은 명나라의 구원병이었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조선에서는 명나라 요동도사에게 일본군의 침공을 급히 보고하였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북행이 결정되면서 韓潤輔를 요동에 보내 재차 전황을 급보하였다. 이 때 修養正(寬奠堡副總兵)이 원군의 요청에 응하여 5월 19일 義順館에 와서 의주목사인 黃璣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뜻을 말했으나 황진은 조정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절하였다.³⁾

왕이 서울을 떠난 후 임진강의 수비가 위태로워지자 조선은 명나라에 사태의

3) 李綱錫, 《壬辰戰亂史》上(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230쪽.

심각성을 알리고 재삼 구원군을 요청하는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아무런 원군에 대한 소식이 없자 왕은 가산에서 정주에 이르러 다시 군신과의논하였고 윤두수 등 일부 대신의 반대가 있었으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덕형을 원병을 구하는 특사로 결정하였다. 구원병의 요청이 거둬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은 이유는 명나라가 寧夏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원병의 요청에 주저하였던 것은 임진란 전에 조선과 일본이 합세하여 명나라를 침공하리라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난이 발발하자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명나라로서는 조선이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나라는 요동지방의 방비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앞에 말한 통양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제의는 명나라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요동도사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으며 다분히 탐색적인 성격으로 보여진다.

영변에서 왕의 일행과 헤어진 세자는 우의정 俞泓·우찬성 崔滉 등을 거느리고 함흥으로 가다가 일본군이 관북으로 직행한다는 정보를 듣고 孟山 楚川驛을 거쳐 伊川에 이르렀다. 이 이천분조에서 세자는 의병장 金千鎰에게 手書를 보내 그의 창의를 칭찬하고 각 도에 격문을 보내 모든 군읍에 효유하여 토적부흥의 뜻을 밝히도록 하였다. 세자 일행은 8월 4일 宣川으로 이동했으며 그간 朔寧에 와 있던 成渾을 부르는 등 애국지사의 분기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의주에서는 명나라의 원군요청에 주력하였고 분조에서는 국내의 勤王之士의 분기를 촉구하려는 데 진력하고 있었다.

조정의 적극적인 외교에 의하여 명나라에서는 7월에 遼東副總兵 祖承訓으로 하여금 정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명나라의 원군소식은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리하여 조승훈의 명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도원수 김명원의 관군이 참여한 제1차 평양수복작전이 전개되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제1차 평양수복작전 후 조선 관군 단독으로 제2차 평양탈환작전이 8월 1일에 순찰사 이원익의 지휘하에 감행되었다. 이 작전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조선의 관군이 일본군은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주

목해야 할 것이다. 전란 초기에 일본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그들의 공격이 있기도 전에 후퇴만 했던 관군이 이제는 선제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군의 변모는 초기 일본군의 기습에 패퇴를 거듭하였으나 조선 수군의 선전과 적의 후방을 위협하고 있는 의병의 활동, 그리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명군의 내원에 크게 고무되어 일어났다.

제2차 평양전을 계기로 조선 관군은 재건되어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실증한 것이 제1차 진주전의 승리와 정주의 대승리였다. 선조 25년(1592) 10월 일본군은 전라도에 침입하고자 그 교통의 요지인 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加藤光泰(가토 미츠야스) 등이 이끄는 약 3만 명의 일본군은 김해를 출발하여 진주성을 공격하여 왔다. 이 때 진주목사 金時敏과 판관 成守慶·昆陽郡守 李光岳 등 진주성을 지키는 군대 8,600여 명은 6일간의 격전 끝에 적을 격퇴시켰다. 그런데 진주성을 지키는 소수의 조선군이 일본의 대군을 패퇴시킨 것은 郭再祐·崔慶會·李達·崔珩·任啓英 등의 의병장과 固城縣令 趙凝道 등의 관군이 성밖에서 후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진주전에서 일본군은 약 3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쉽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성중의 군세 저항과 성 외곽의 의병과 관군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임진란 발생 후의 대승이라 아니할 수 없다.

9월에 전라도순찰사로 승진한 權慄은 수원의 禿山城에 주둔하였다가 명나라의 원군과 호응하여 서울을 탈환하고자 助防將 趙倬과 함께 이듬해 9월 幸州山城으로 진을 옮긴다. 이 때 일본군은 제3차 평양전에서 패퇴하여 서울로 후퇴중이었다. 그들은 비록 碧蹄館에서 명군을 패퇴시켰으나 다시 북상할 능력이 없었고 그런 계획은 염두에도 없었다. 또한 가등청정의 군대도 조선 관군과 의병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계속 남쪽으로 후퇴중이었다. 권율은 전라도병사 宣居怡에게 금천(지금의 시흥)에 주둔하면서 성원케 하고 강화도에 머물고 있었던 倡義使 김천일에게 해안을 따라 출전케 하였다. 그리고 충청감사 許瑱은 통진에 머물게 하고 별도로 충청수사 丁傑에게도 임무를 맡겼다. 조선의 총 병력은 약 1만이었는데 권율은 조경과 僧軍將 處英 등 약 2,300명과 함께 행주산성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군은 宇喜多秀家(우키다

히타이에)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3만의 군대를 3진으로 나누어 2월 12일부터 해주산성을 공격하였다. 조선군은 권율의 지휘하에 잘 싸웠고 邊以中이 만든火車와 飛擊震天雷 그리고 銃筒의 화약무기를 동원하여 화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수차에 걸친 육박전에서도 번번히 적을 격퇴하였다. 행주에서 아군이 승리한 이후 일본군은 다시 서울 이북에 출병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철수를 서두르게 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미 선조 25년 6월 소서행장의 제의에 의하여 대동강 상에서 이덕형과 柳川調信(야나가와 시게노부)의 휴전회담이 이루어진 뒤 8월에 沈惟敬과 일본군의 회담이 평양에서 성립되어 평양 북방 斧山院에 말뚝을 세워 이를 경계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다시 열린 용산회담의 결과 일본군은 서울에서 남해안으로 철수하고 포로가 된 臨海·順和 두 왕자를 돌려 보냈다.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을 반대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명나라는 외정에 따른 막대한 전비부담과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고 일본군은 연이은 수군의 패전 그리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공격을 받아 보급에 위협이 가중되어 전선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으로 강화회담이 진전되어 일본군은 남쪽으로 철수하고 명군도 주력 부대를 철수하여 이후 5년간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2) 의병의 봉기

임진란의 초기에 관군이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당하니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다.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공포감은 유언비어를 난무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자기 향토에 일본군의 침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속으로 피란하기도 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조정이 무능하고 관군이 무력함에 백성들의 동요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동이 일고 있을 때 향토에 침입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또는 향토에 침입하려는 일본군을 막고 나아가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의병의 봉기에 대하여 《宣祖修正實錄》은 그 실

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 때에 3도(충청·전라·경상) 兵使들은 모두 인심을 잃고 있었다. 때문에 왜란이 일어난 뒤에 병량을 독촉하니 사람들은 모두 질서하여 왜적을 만나면 피신하였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으로 명망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는 격동하여 인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 흩어진 인심과 국가의 명맥은 이에 힘입어 유지되었다(《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6월).

이 기록은 임진란 초기 의병이 일어날 때의 전반적인 상황과 의병장의 성분 그리고 민중의 동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그 때에 일부 용감한 수령은 적은 병력으로 군세에 저항하였으나 대부분의 수령들은 성을 버리고 도주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아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이는 국가기강이 문란하여 군대라기 보다는 오합지중에 가까운 질서없는 무리였다. 그 위에 인심이 떠나 있어 관리를 신뢰하고 협조하기보다 오히려 반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수령들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관군이 무너짐에 따라 지방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족이나 명망가는 지위의 위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기를 목전에 느꼈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지방의 거족·명망가는 산중에 피란중인 농민을 위시하여 천민에 이르기까지 의병진예의 참가를 호소하였고 이러한 의병의 부르짖음에 민중들은 자진하여 참가하였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모든 의병들이 조정의 명령을 받고 일어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으나 관군도 조정의 명령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병장이나 의병들이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봉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일본군의 직접적인 침략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서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서 의병이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거의 자발적인 의병의 봉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이후 부대를 3대로 나누고 목표를 한양으로 정하여 각기 간선도로를 따라 급히 북상하였다. 그들은 후방의 요충지에 소수의 병력만 남긴 이른바 선과 점의 점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점령지라 할지라도 군세는 주둔지에 한정되었다. 일본군의 침략을 당한 경상도나 충청도일지

라도 대부분의 지역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더욱 전라도는 침략을 면하였기 때문에 의병의 봉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 경상도는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 거의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수령이 속출했고 백성들은 모두 깊은 산에 피란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다. 조정에서 근왕병의 召募令이나 지방관의 징발령이 있었으나 이미 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백성들은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난이 일어나기 이전 지방수령의 학정을 경험하였기에 오히려 이 기회에 지방관에 보복을 가하려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전라도에서는 직접적인 일본군의 침략은 없었으나 경상도에서 대량의 피란민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관의 계속적인 징병과 군량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전라도에서는 관의 위령이 어느 정도 시행되어 전라도관찰사 李洸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서울방어를 위한 군대를 동원하여 복상하였다. 그러나 왕이 서천하였다는 소식을 공주에서 듣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이광의 독단적인 처사를 엄중히 문책하고 시급히 관군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광이 이끄는 전라도 군을 주력으로 하고 경상도순찰사 김수의 명목상의 군대와 충청도순찰사 尹國馨이 합세한 3도의 연합군이 行在所를 향하여 북진하였다. 이 연합군은 수만에 이르는 대군이었으나 지휘하는 순찰사는 모두 무능하였고, 대부분의 병사는 오합지졸이었으며 사기도 말이 아니었다. 이광의 전라도군은 용인에 이르러 소수의 적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역습을 받아 스스로 무너지고 막대한 군수품만 상실하였다.

3도의 관군이 무너지자 조정에서는 招諭使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관군의 재건을 위한 근왕병의 궤기를 외쳤으나 백성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서민이나 천민 중 일부는 관권에 반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항은 왕이 서울을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이제 국가는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영남에서 郭再祐가 4월 22일에 의병을 일으키자 金洸·鄭仁弘 등이 뒤를 이이 의병을 규합했고, 이와 거의 동시에 호남에서는

김천일·高敬命 등이, 호서에서는 趙憲 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의 대부분은 전직관료이거나 유생이며 이들이 근왕창의를 부르짖고 쫓기하면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민중이 스스로 모여들어 의병진을 형성하였다. 이들 의병장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수의 의병집단은 보다 명망있는 의병집단에 통합되어 대부대의 의병군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의병의 쫓기를 창도한 의병장과 이에 호응한 의병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을 한덩어리로 뭉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 중에서도 문반출신이며, 전직관료라 할지라도 야인으로 있었고, 지방의 거족인 이들이 평소 배운 것은 유교의 도의적 교훈을 실천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유교에 연유한 도의적 교훈인 근왕정신은 지방의 유력층인 유생들 사이에 팽배하였고 이들은 지방의 수령과 무장들의 무능과 비겁함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병의 쫓기는 향토와 동족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일본의 야만성에 대한 민족감정의 발로였다. 유교적 윤리를 철저한 사회적 규범으로 하고 있었던 조선은 고려말부터 왜구의 계속적인 약탈행위로 인하여 일본인을 침략자로 여겼으며 문화적으로 멸시하여 「왜」 또는 「섬오랑캐」라고 불렀다. 이러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의병의 봉기였다.⁴⁾ 의병의 바탕을 이룬 것은 민족의 저항정신이며 이를 촉발시키고 조직화시킨 것이 각 지방의 의병장이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사회의 상층부에 있으면서 정신적일 지도층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층으로 농민과는 토지를 매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의 향토 침입은 바로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일반 민중들은 관권에 의한 강제징집으로 무능한 장군의 지휘를 받아 전국의 전선을 전전하며 싸우기 보다는 평소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의병장이 휘하에서 싸우기를 바랐던 것이며 향토 주변에서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기에는 관군보다 의병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였다. 조정에서도 의병의 봉기를 촉

4) 崔氷禧, 〈日本の 侵寇〉(《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295쪽.

구하기 위하여 의병을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의병진참가는 줄을 잇게 되었다.

각 지방의 의병봉기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수군의 연전연승이었다. 임진란 초기에 경상도 좌우수영의 수군은 일본군에 단 한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일본 수군은 그들 육군의 북상에 호응하여 남해에서 서해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라좌·우수영의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 수군을 쳐부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침략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부산까지 작전범위를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군은 보충병력으로 군수품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들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어 갔다.

의병을 널리 일어나게 한 것은 또한 조정의 의병장에 대한 직첩의 부여였다. 임진란 직후 조정에서는 관군의 모병을 위하여 각 도에 선전관이나 안집사를 파견하여 모병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의병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의병집단을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5월 말 또는 6월 초로 보여진다.⁵⁾

이 소모의병에는 왕세자의 힘이 컸다. 7월에 세자가 친히 쓴 글이 의병장 김천일에게 전달되고 이어 의병의 궤기를 촉구하는 격문이 각 도에 전달되었다. 또 도원수 김명원이 이와 같은 조정의 뜻에 호응하여 각 도의 의병장에게 관군과 합심하여 일본군을 무찌르자는 격문을 보냈다. 이러한 分朝와 도원수가 취한 일련의 조치로 의병은 공적인 군대로 인정되어 관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관군과 의병간에 알력이 심했던 경상도에서 경상도 초유사 金誠一은 관군과 의병간의 알력을 조절할 수 있었고 일본군 격퇴를 위하여 공동전선을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소모의병은 의병봉기에 중대한 계기를 이루었다. 문치를 이념으로 하고 관료에 의한 통치를 시행하고 있었던 조선왕조에서 개인이 사병을 모집한다는 행위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반역에 해당되며 위정자가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5)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5월.

처음 광재우가 의병을 규합하고 있을 때 합천군수 田見龍이 광재우를 역적으로 조정에 보고하고 의병에 참가한 자를 흠여지게 한 것은 관군과 의병 간의 불화 등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아무리 전시라 할지라도 사병을 모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통념에서 비롯되었다. 호남에서도 김천일과 고경명이 의병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관군이 있었으므로 의병의 봉기를 주저하였던 것이다. 특히 호남지방에서는 이른바 鄭汝立謀叛事件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병의 봉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고경명이 전라도순찰사인 이광의 2차에 걸친 정모령에 전적으로 협조하였던 일은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이를 헤아려 신속히 정여립모반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려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애를 없애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 위에 조정에서는 각처의 의병장에게 이례적인 벼슬과 상을 내려 의병을 고무하였다. 의병장의 대부분은 전직관료이거나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유생과 서얼이었다. 그들이 희구해 온 것은 관직의 획득이었으므로 조정에서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한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의 <표 1>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

<표 1> 의병의 봉기

봉 기 장 소	이 름	신 분	봉 기 장 소	이 름	신 분
영남(宜寧)	郭再祐	유학	영남(咸安)	權宗道	전현감
" (永川)	權應鉄	전훈련봉사	" (陝川)	孫仁甲	전첨사
" (")	鄭大任	유생	" (")	鄭仁弘	전장령
" (")	權世雅	진사	" (居昌)	金 沔	전좌랑

6) 金錫禧, 〈壬辰倭亂의 義兵運動에 關한 一考〉(《郷土서술》 15, 1962), 125~127 쪽에서 전제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활동한 의병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 1>에서 누락된 의병장의 대강을 소거하면 다음과 같다. 창령 成安義, 자인 崔文炳, 경산 崔大期, 달성 徐思遠, 의흥 洪天寶, 하양 申海, 대구 蔡先修, 흥해 鄭三畏, 영해 白仁境, 안동 柳復起, 상주 金覺·趙靖·李垓, 영일 金淸修, 전주 李廷鸞, 광주 金德齡·金德弘, 연안 李廷龍 등을 들 수 있고 이외의 의병장에 대해서는 李樹健, 〈南冥學派 義兵活動의 歷史的 意義〉(《南冥學研究》 2,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1992), 15~16쪽 참조.

영남(三嘉)	朴 惺	전좌랑	호남(寶城)	任啓英	전현감
" (宜寧)	郭 遼	전군수	" ()	朴光前	전현감
" (")	郭 迫	생원	" (和順)	崔慶會	전부사
" (三嘉)	尹 念	훈련봉사	" (")	崔慶長	전제독관
" (")	朴思濟	학유	" (南原)	楊士衡	전현감
" (")	尹 鐸	전참봉	" (")	梁 樹	참봉
" (丹城)	權世春	생원	" (")	金得池	진사
" (")	權 春	전목사	" (靈光)	沈友信	전첨정
" (昌寧)	辛邦楫	생원	" (海南)	成天祇	전관관
" (靈山)	辛 砬	유생	호서(內浦)	沈守慶	전대신
" (")	成天禧	충의위	"	金弘敏	전목사
" (宜寧)	郭 趙	유학	"	申 湛	전참의
" (安東)	任 屹	생원	"	趙 雄	충의위
" (尙州)	鄭經世	전봉사	" (沃川)	趙 憲	전제독관
" (金山)	呂大老	박사	" (永同)	韓明胤	현감
" ()	柳思敬	생원	"	洪季男	서얼
" ()	朴宗挺	진사	"	朴春茂	전찰방
" (安東)	禹性傳	전사성	" (洪州)	申蘭秀	
" (")	金允明	생원	" (")	張德蓋	
" (")	裴龍吉	생원	경기	李 軼	충의위
" (")	安 賓	봉사	"	南彦經	전목사
" (")	金 涌	전검열	"	俞大進	전좌랑
" (")	辛 敬	진사	" (江華)	禹性傳	전사간
" (禮安)	金 垓	전한림	"	元 挺	진사
" ()	李 魯	전직장	" (朔寧)	金 績	전부사
호남(光州)	高敬命	전부사	"	李山輝	유생
" (")	高從厚	현령	해서(海州)	趙光庭	생원
" (羅州)	金千鎰	전부사	" (鳳山)	金萬壽	무사
" (玉果)	柳彭老	전학유	관서(江東)	曹好益	생원
" (南原)	安大模	유학	관북(鏡城)	鄭文孚	북평사
" (")	梁大樸	전학관	영남(尙州)	趙 靖	승려
" (")	邊士貞	전참봉		休 靜	승려
" (順天)	姜希說	무사	관서	惟 政	승려
" (靈光)	任希進	첨정	호남	處 英	승려
" (泰仁)	閔汝雲	전주부	해서	靈 圭	승려

이 모든 의병장들은 전직관료라 하더라도 호서의 沈守慶을 제외하고는 고급 관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바랐던 것이 현직에의 복귀나 보다 높은 관직의 획득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의병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농민이나 천민에 있어서도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비변사에서 민심의 안정이나 국가멸망의 위기감에서 의병의 역할이 관군보다 크다고 보고 의병을 권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장에게는 벼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병이 작전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군기와 군량을 공급했고 지명한 의병장에게는 수령과 동등한 대우를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의병장은 지방에서 수령에 못지않은 위엄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기에 전라도 의병장인 고경명의 의병군에는 수령이나 무장이 그 휘하에 들어가기도 했고 관군과 의병군의 협동작전이 별로 잡음이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난 이듬해 정월 명나라에 통보한 전국의 관군과 의병의 주둔지와 병력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⁷⁾

<표 2>

* 는 의병

주	둔	지	관	직	명	성	명	주둔병력
경상도		울산군	경상좌도절도사			朴	晋	25,000
		창령현	의병장			*	咸安義	1,000
		안동부	경상좌도순찰사				韓孝純	10,000
		영산현	의병장			*	辛 砬	1,000
		진 주	경상우도순찰사				金誠一	15,000
		합천군	의병장			*	鄭仁弘	3,000
		창원부	경상우도절도사				金時敏	15,000
		의령현	의병장			*	郭再禡	2,000
		거창현	의병장			*	金 沔	5,000
	합 계							77,000 명
전라도	순천부		전라좌도수사			李舜臣		5,000(수군)
			전라우도수사			李億祺		10,000(수군)
		각처분둔	예비군					10,000
	합 계							25,000 명
경기도	직산현		충청도절도사			李	沃	2,800
	평택현		각장 수백 명					3,000

7) 李 焞錫, 앞의 책, 176~177쪽에서 전제하였다.

	안성군	의병 수백 명	*	합약 5,000
	수원부	경기도조방장	洪季男	300
	강화부	전라도순찰사	權 標	4,000
		경기도순찰사	權 徵	400
		창의사	*金千鎰	3,000
		의병장	*禹性傳	2,000
		전라도절도사	崔 遠	4,000
	양 주	경기도방어사	高彦伯	2,000
	양근군	의병장	*李 軼	600
	여 주	경기도순찰사	成 泳	3,000
합 계				30,100 명
강원도	인제현	강원도순찰사	姜 紳	2,000 명
황해도	황 주	황해도좌방어사	李時言	1,800
	재령군	황해도우방어사	*金敬老	3,000
	연안부	황해도순찰사	李廷龜	4,000
	합 계			8,800 명
함경도	함흥부	함경도절도사	成允文	5,000
	경성부	함경도평사	*鄭文孚	5,000
	안변부	함경도조방장	金信元	100
		함경도별장	金友고	100
	합 계			10,200 명
평안도	순안현	평안도절도사	李 鎰	4,400
	동 범흥사	평안도좌방어사	鄭希賢	(내사수 1280) 2,000
				(내사수 223) (포수 50)
		의병장	*李 柱	300
	용강현	소모관	曹好益	(내사수 300) 300
		평안도우방어사	金應瑞	7,000
		평안도조방장	李思命	(내사수 770) 1,000
	대동강 하 류	주사장	金億秋	(내사수 90) 300 (내사수 120)
합 계				15,300 명
전 국	軍 馬 합 계			172,400 명

앞의 표에 의하면 총 병력수는 168,400명이고 이 중 의병의 수는 27,900명이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전시의 약조건하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확성을 의심케 한다. 우선 부대의 편성단위가 1백 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재된 의병장은 지명도가 높으며 일본군과 전투를 경험한 부대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느낌을 질게 한다. 조정에서는 각처에 봉기하여 향토를 지키고 있는 많은 의병들을 이 보고에서 제외시켰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의병장들은 그들의 일신을 국가에 바치려 하였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의병의 규합에 필요한 병기의 제조나 군량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의병부대가 소규모였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병기와 군량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도 그 한가지였다.

의병의 전략이나 전술은 고경명과 같이 대부대로 정규전을 펼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예외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지리와 지세를 이용한 유격전을 펼쳤다. 이는 의병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방을 교란하여 전의를 상실케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곽재우는 일본군이 침구한 지 13일 뒤인 4월 27일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沈大升을 비롯한 용사 50여 명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뜻을 맹세하였다. 그는 의령현과 草溪郡의 창고에 있는 곡식과 岐江에 내버린 배와 稅米를 모아 의병의 보급에 충당하였다. 곽재우는 스스로 「天降紅衣大將軍」이라 칭하였으며 적이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곽재우의 기병을 계기로 의병장 김면이 거창에서 의병을 일으켜 知禮縣과 금산현 방면의 적을 막고 있었다. 정인홍은 거창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고령현과 합천군 방면의 적을 견제하고 곽재우는 의령현에 웅거하면서 이들과 호응하여 남강과 낙동강의 요지를 지키고 있었다. 이 때 일본군은 창원으로 부터 함안군에 들어와 의령의 鼎津에서 강을 건너오고자 하여 곽재우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곽재우의 의병군은 정진의 언덕 뒤에 군을 잠복시켰다가 강을 건너는 적을 습격하였고, 이에 건디지 못하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해 1백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가 있은 후 적은 감히 정진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에 경상우도초유사 김성일이 三嘉縣의 군사까지 곽재우의 지휘하에 두게 하였

으므로 곽재우는 尹鐸을 대장으로 吳濡를 소모관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곽재우의 군세가 크게 떨쳐 남강과 낙동강의 요해처 10여 곳에 복병을 두어 상호 연락케 하였으므로 마침내 의령·삼가·합천 등의 여러 고을이 일본군의 유린을 면하게 되었다.

곽재우군은 또 낙동강 좌편과 鼎湖 우편의 강기슭을 따라 상·하 50~60리 사이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적의 동정에 관한 정보를 얻어 그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섬멸하는 등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특히 기강의 싸움에서는 배에 타고 있던 적을 쏘아 죽인 자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참수한 적의 머리수만도 60구에 이르렀다. 이러한 곽재우 의병군의 전력과 선전을 뒷받침하였던 것이 거창의 의병장 김면과 합천의 의병장 정인홍이었다.

또한 단성현에서는 權世春이 군사 5백여 명을 모았고 진주에서는 許國柱가 6백여 명의 의병을 규합하였다. 연이어 草溪郡에서는 全致遠·李大期가 의병을 일으켜 沙漠·黃江의 적을 물리쳐 그들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고을의 의병은 서로 성원하고 있었다.

한편 호남지방에서는 전라도순찰사인 이광의 2차에 걸친 북상군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광주와 나주지방에서는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중심이 되어 의병규합에 대해 논의하였고, 남원·淳昌 등에서는 梁大樸·楊士衡·柳彭老 등을 중심으로 의병봉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김천일은 5월 16일 榮山驛·梁山龍 등과 함께 나주에서 기병하였다. 김천일이 의병을 규합하자 나주와 인근지역에서 의병 3백여 명이 자진 참가하였고, 이 의병군이 행재소를 향하여 북상하는 중에 그 수는 7백여 명으로 불어났다. 비록 무기의 질은 관군보다 나빴지만 여태까지 전라도 관군이 행군하는 중에 도망병이 속출했고 군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던 것과 달리 의병군의 사기는 왕성하였다.

김천일의 의병군이 행재소를 향하여 북상한 후 전라좌도의 의병군이 형성되었다. 광주의 고경명과 남원의 양대박을 연결시켜 6천여 명의 의병군단을 이루게 한 것은 유팽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유팽로는 한성에서 귀향하는 도중 순창읍에 이르렀을 때 시중의 부랑배가 소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 그들

을 회유하여 의병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랑배를 이끌고 전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옥파에 주둔시킨다. 유팽로는 이곳에서 각지의 수령에게 창의격문을 보내 의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同福의 丁巖壽, 화순의 崔慶會, 광주의 金德齡을 차례로 순방하여 의병문제를 상의했고, 남원에서 창의소를 설치하여 의병을 모집중인 양대박을 찾았다. 양대박과 유팽로는 고경명과 연락하여 의병군을 결성하기로 하고 潭陽에서 6월 3일 모이기로 하였다.

담양에 모인 의병은 6천여 명에 이르렀고 고경명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의병부대는 군대 편제를 마친 뒤 6월 11일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고경명의 의병군이 태인·금구를 거쳐 전주에 이르렀을 때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중의 동요가 있었다. 이 때 의병군의 군세를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양대박을 모병책임자로 정했다.

양대박은 스스로 추가모병을 자원하여 둘째 아들 亨遇와 함께 전주로부터 남인·순창·任實 등을 순회하면서 6월 24일까지 의병 약 1천여 명을 규합하여 임실의 葛潭驛에 진군하였다. 양대박의 의병부대는 雲巖 長谷里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을 기습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운암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처음으로 일본군과 벌인 전투였고 승리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전이었다.

전주에서 고경명군이 북상하고 있을 때 黃澗에 있던 일본군이 錦山을 침범하였다. 이에 고경명군은 珍山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호서의병장 조현에게 두 의병군이 합세하여 적을 토벌하자는 서신을 보냈다. 또한 이미 連山에서 전라방어사 郭嶸과 금산의 적을 함께 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고경명군은 7월 9일 금산성 밖 10리에 진을 쳤다.

당시 일본군은 小早川隆景(고바야카와 다카가게)의 별군인 安國寺惠瓊(안고구치 에케이)이 전라도 공략의 임무를 띠고 창원에서 남원을 거쳐 전주에 침입하려 했으나 곽재우의 의병군에 의해 진로를 저지당하자 방향을 바꾸어 星州로 가고 있었다. 한성에 있던 소조천용경군은 이 소식을 듣고 한성을 떠나 한 부대는 지례와 거창을 치고 또 한 부대는 황간과 順陽을 거쳐 茂朱에 침입한 다음 이어 금산에 침입하였다. 이 때 금산을 지키고 있었던 군수 權棕은 선전하

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이리하여 금산에 있던 왜장 안국사해경은 전주를 공략하려고 熊峙에 이르렀다가 金堤군수 鄭湛·해남현감 邊應井 그리고 의병장 黃璞 등의 군세 저항을 받았다. 이 전투는 7월 7일에 시작되어 8일까지 계속된 혈투로서 관군 및 의병의 처절한 저항이었으나 끝내 방어하지 못했다. 7월 9일 일본군이 웅치를 넘어 전주성 밖에까지 진출하니 순찰사 이광이 먼저 도망치자 관군도 도주하였다. 이 때 성내에 있던 李廷鸞이 궤기하여 의병의 힘으로 적이 성내고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웅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8일, 梨峙에서는 권율이 소조천용경을 상대로 아침부터 싸움을 시작하여 종일 계속하였다. 권율군은 사력을 다하여 방어하였으며 특히 同福현감 黃進의 활약이 컸다. 적은 마침내 패색이 짙어지자 금산으로 후퇴하였다.

적의 대군이 금산성에 들어가 고수작전을 펴고 있던 10일, 고경명의 의병군과 곽영의 관군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의병군은 서문으로, 관군은 북문으로 쳐들어갔는데 일본군은 관군진이 취약함을 알아채고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때 선봉장이었던 영암군수 金成憲이 겁을 먹고 달아나자 관군진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의병진에도 영향을 끼쳐 의병장의 독전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고경명을 비롯하여 安瑛·유팽로·高因厚 등의 의병장과 많은 의병을 잃어 전라도 최대의 의병군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웅치·이치·금산에서의 전투에 의하여 일본군은 열기가 꺾여 전라도 침입을 단념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전라도는 전화를 면하게 되었다.

호서의병장 조현은 5월 21일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報恩을 거쳐 충청도 서남지방에서 추가로 모병하여 군세가 1천 명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승군장 靈圭가 궤기하여 수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조현은 영규의 의병군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공략하기로 하였다. 이 때 일본군은 蜂須賀家政(하치스가 이에마사)의 일부 병력이 청주성을 쳐서 李沃을 패퇴시키고 성에 머물고 있었다. 8월 1일 조현의 지휘하에 영규 그리고 이육군이 성을 파상적으로 공격하니 일본군이 견디지 못하고 밤사이에 후퇴하였으므로 성을 수복하였다.

조현은 이후 북상하고자 하였으나 순찰사 尹先覺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금산의 적을 치기로 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1차의 금산전에서 타격을 입었으나 무력화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금산에 있던 일본군을 견제하려고 보성과 南平縣의 관군이 북으로 진군하려다가 적에게 엄습을 당하여 남평현감 韓諱이 전몰하게 되자 관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조헌은 권율에게 서신을 보내 금산성 공격일을 8월 17일로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양군이 서로 합세할 것을 제의하였다. 겨우 2천에도 이르지 못한 조헌과 영규의 의병군이 1만 5천여의 일본군을 정면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무리였기에 조헌의 부장이나 영규 등이 전투의 연기를 건의하였으나 조헌은 이를 거부하고 16일 금산성 외곽에 진출하였다. 일본군은 공격군이 소수임을 보고 18일 성을 나와 조헌의 의병군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대장과 죽음을 맹세한 7백 명의 용사 그리고 영규의 부하까지 혈투를 계속하였지만 중과부적으로 끝내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도 이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마침내 금산성에서 철퇴하여 상주 방면으로 돌아갔다. 무주와 옥천에서 원호하고 있었던 일본군도 어찌할 수 없이 잇따라 철수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2차에 걸친 금산전투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安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무찌르고 있었던 洪彦秀를 따라 무공을 세웠던 이는 洪季男이었다. 그는 아버지인 홍언수가 竹山府에 있던 적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자 대신 의병을 이끌고 안성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陽城縣·龍仁郡·振威縣·稷山縣 등 여러 고을의 적을 쳐서 많은 전과를 올려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의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특히 선조 25년(1592) 가을 홍계남이 영천군수로 조방장을 겸하고 있을 때 安康縣에 적이 쳐들어와 남녀 5천여 명을 잡아가자 이를 추격하여 적을 격퇴한 다음 잡혀가 있던 남녀를 모두 구출하기도 하였다.

선조 25년 5월 18일 임진강싸움에서 패한 다음 황해도에 침입한 일본군의 만행이 여러 고을에서 자행되었다. 전이조참의였던 李廷龜는 개성에서 북상하여 8월 상순에 白川郡에 이르러 그 곳 사람인 金德誠·朴春榮 등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호응하여 延安府의 宋德潤·趙光廷·張慶棋 등이 모두 의병을 이끌고 합세하니 의병의 수는 5백에 이르렀다. 왕세자는 이정암

이 거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황해도초토사로 삼았다. 이정암의 의병부대는 8월 22일 연안성에 이르러 성의 방비를 공고히 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황해도에 침입하였던 흑전장정은 재령군과 信川郡 등 여러 군현을 노략질하고 다녔으며 해주를 유린한 뒤인 8월 28일에는 약 5천 명의 병력으로 연안성에 쳐들어 왔다.

적의 대군이 성에 이르자 겁이 난 종사관 禹俊民 등은 수성에 반대하였으나 이정암은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28일에 시작한 피아간의 공방전이 4일간에 이르렀고 의병과 성민이 사력을 다하여 성을 지켰을 뿐 아니라 많은 적을 사살하고 우마 90여 필, 군량 130여 석까지 얻는 전과를 올렸다. 이 연안성의 전투가 있는 뒤에 적은 다시는 연안 정내에 침범하지 못하였다.

함경도 회령에 머물고 있었던 임해군과 순화군은 7월 22일 鞠景仁을 괴수로 하는 반란민에 의하여 잡힌 몸이 되었다. 이 때 가등청정은 경성에서 宣寧府를 지나 會寧을 치고자 했다. 그런데 국경인이 가등청정에게 항복하고 두 왕자를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함경도는 일본군의 만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적의 비호를 받는 국경인·鞠世弼 등이 행정을 오로지하고 있었다.

당시 北評事로 있었던 鄭文學가 鏡城 유생인 池達遠의 권유에 의하여 의병을 일으키자 수백 명의 의병이 모여들었다. 이들 의병에 鍾城부사 鄭見龍과 경원부사 吳應台가 합세하여 경성에 나아가 국세필을 회유하고 다시 함경남북 지방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니 그 병력이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정문부는 9월 16일의 경성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반역자 국세필의 일당을 경성에서, 국경인을 회령에서, 鄭末秀를 明川에서 각각 처단하고, 이들 지역을 수복하였다. 정문부는 이어 10월 30일 1천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종성부사 정건룡 등과 연합하여 吉州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일본군 1천여 명이 인근지역을 약탈하고 성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정문부의 의병군은 이들을 長坪石嶺에서 맞아 싸워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12월에 정문부의 의병군은 雙浦에서 적과 싸워 또 이겼고 이듬해 정월에는 길주에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白塔에서 격파하였다. 이로써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은 북상을 단념하였고 함경도가 점차 수복되었다.

전라도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김천일은 강화도에서 활약하다가 일본군이 남쪽으로 후퇴함에 따라 그들을 쫓아 경상도를 이르렀다. 일본군은 진주를 공격하기 위하여 함안을 점거하고 班城을 유린한 후 6월 18일에는 의령을 점령하였다. 이 당시 관군과 의병군은 모두 함안 부근과 그 서쪽에서 일본군을 견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공격목표가 진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군과 의병군은 이에 대처할 작전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진주성을 지키자는 김천일의 주장과 성을 포기하자는 객재우의 주장이 맞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군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기로 하였다.⁸⁾ 이리하여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권율은 휘하군을 이끌고 남원·운봉 등지로 떠났고, 순변사 李蘋과 의병장 객재우도 이곳을 떠나버렸다. 또 전라좌의병장 任啓英은 호남으로 돌아가고, 그외 전라병사 선거이 등의 여러 장수들도 흩어졌다.

이에 반하여 진주성에 들어간 관군과 의병장은 다음과 같다. 경상좌병사 최경희·충청병사 황진·사천현감 張潤·거제현령 金俊民 등의 관군과 의병장으로는 김천일·高從厚·李繼璉·姜希悅·李潛 등이었다. 외부의 원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주에 입성한 수천의 관군과 의병에 비하여 적군은 10만여의 대군이었다. 이리하여 10일간의 진주성 공방전에 죽을 힘을 다해 항전을 벌였으나 끝내 성을 보존하지 못했다. 이 진주전은 관군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의병으로서도 임진란중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일전이었다.

의병장의 중심세력은 전직관료나 유생이었으나 특수부대로서 僧軍의 활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금산전에 참가한 靈圭 외에 묘향산에 있던 休靜(西山大師)은 수천의 문도에게 구국궐기를 촉구하여 승군을 일으키고, 전국의 각 사찰에 격문을 띄워 승병봉기를 재촉하였다. 이에 그의 제자인 處英은 호남에서, 惟政은 관동에서 승군을 일으켰으며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사찰에서 승군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승군은 독자적인 전투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각 지방에서 봉기한 의병진에 참가하여 그들과 합세하였고, 군량을 운반하는 등 그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8) 趙慶男, 《亂中雜錄》 권 32, 임진 10월 정사.

임진란의 초기에 큰 역할을 수행했던 의병은 전란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변질되어 갔다. 선조 25년(1592) 10월 이후에는 각 지방에서 의병이 우후죽순 격으로 일어나고 이들 의병이 난입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다. 또한 의병중에는 명목뿐인 의병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의병이 변모하였던 것은 임진란 초기에는 각 지방에서 명망이 두터운 의병장이 봉기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들을 대신할 만한 의병장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관군의 정모를 꺼리는 의병들이 의병장으로서 적격유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름없는 의병장의 휘하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100여 진에 이른 의병 중에는 안전한 곳에서 영세한 적이나 쫓고 전공을 탐내거나 관군과 대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졌다.⁹⁾

조정에서는 이러한 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이 일어나던 해 10월부터 논의를 거듭하여 남도의 의병을 禹性傳으로 하여금 통솔시키려 하였고, 또 경기·충청·전라도의 의병을 권율과 權徵에게 분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직 우의정 심수경이 의병장을 칭하게 되자, 그로 하여금 모든 의병을 통솔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의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의병의 통합이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각지에 의병이 난립하였고 그들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선조 26년에 명나라의 본격적인 원군이 조선에 이르러 관군과 명군에 의하여 평양이 수복되고, 위축된 일본군에 대한 대규모의 반격이 시작되자 조정에서는 전투를 담당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량을 나르기 위하여 의병을 쓰려고 했다. 이와 같이 의병의 전투역할이 감소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군도 군량의 부족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병에게 군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의병은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거나 백성들의 자진납부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전란에다 기근이 겹쳐 경기·전라·경상도에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등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어 의병에게 군량을 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병은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도망병이 줄을 잇게 되어 의병 중에는 폐도독으로 변하는 일조차 있게 되었다.

9) 《宣祖實錄》 권 32, 선조 25년 11월.

관군과 명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전란이 초기와는 달리 관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민심이 안정됨에 따라 의병의 존재가치는 떨어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각 지방의 의병을 관군에서 흡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군이나 수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조 26년(1593) 조정의 이러한 의병의 관병화 방침에 따라 상당수의 의병장은 관인이 되었다. 원래 의병장은 관인지향적이어서 조정과의 연관을 희망했었다. 의병장 중에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자도 있었고 전투중에 순국하여 사후에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정월에 조정의 대신들이 관군과 명군만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의병은 쓸모없는 군대’라고 공언할 만큼 의병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후기에 이를수록 의병장의 질적 저하와 관군에서 도망했거나 이기심에서 의병에 참가하는 등 의병의 저질화가 가속화되어 의병에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 설사 훌륭한 의병장이 대국적 견지에서 행동하려 해도 의병들의 집단 의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진퇴가 임의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의병군은 갖가지 폐단을 일으켰고 전란 중의 기근으로 의병의 난행이 점점 늘어났다.

임진란중 집단적인 약탈이 시작된 것은 당년 겨울부터였고 시일이 지날수록 악성화되어 갔다. 전란으로 질병과 기근이 심해지자 의병 중에는 떼지어 관을 습격하여 관곡을 약탈하는 가짜 의병도 나타났다. 전란으로 인한 관권의 공백상태와 관의 권위상실로 말미암아 초기부터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반관적 경향이 특히 심했던 함경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고 다른 지방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심이 불온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 기근과 질병이 만연되자 반란의 온상이 되었고 모처럼 의병군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식량의 부족으로 도망자가 뒤를 이어 의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임진란 최후의 저명한 의병장은 김덕령이었다. 그는 선조 26년 12월 광주에서 기병하니 조정에서도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여 忠勇將이란 칭호를 내린다. 그리고 전국에 난립한 의병진을 통제하기 위하여 8도의병대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군량확보의 어려움으로 3천여 명의 의병 중 5백여 명을 남기고 그 외는 귀가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뒤에 5백명의 군량확보도 어려워 둔전을 계획하였으니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때마침 李夢鶴의 반란이 일어났고 김덕령이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무고에 의하여 희생을 당한 후에는 의병장이 존재하였어도 이미 의병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었다.

명과 일본의 강화회담에 의하여 전쟁이 소강상태를 이루다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이 일어날 즈음 전비를 강화하고 초기 의병을 본뜬 奮義復讐軍을 조직하였다. 복수의병군의 호시는 고정명의 큰아들인 從厚의 의병군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복수의병군이 정식으로 광범하게 조직된 것은 선조 29년 12월부터였다. 즉 일본군에게 부모·형제·처자 중에서 희생을 당한 자를 자원케 하고 그 중에서 대장을 뽑아 수효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른바 복수군이라 칭하게 하여 일본군을 물리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병은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유야무야가 되었다.

정유재란으로 일본군이 침입한 지방에서 자생적인 의병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이 때의 의병은 규합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소수로 구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소수의 의병에게는 향토에 침입한 영세한 적을 소탕하기도 벅찬 일이었다. 더욱이 임진란 초기에는 일본군의 전선이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병력이 분산되었으나 정유재란에서는 일본군이 항상 대군으로 작전을 하였기에 소수의 의병으로서는 성과를 올리기가 극히 어려워 의병의 활동이 미미하였다.

〈宋正炫〉

3) 수군의 승첩

(1) 임란 전의 해방체제와 전라좌수군

임진왜란 해전에서 일본수군을 격퇴하여 制海權을 장악한 조선의 수군은 전라좌·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이었고, 특히 그 주력은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이었다. 따라서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라좌수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전기의 수군제도부터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당시의 海防體制와 수

군실태를 살펴본 다음 임진왜란 직전의 전라좌수군의 움직임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船軍・驍緒軍 등으로 불려온 수군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이었다. 우왕 때부터 전라도의 수군정예자를 선발하여 도성의 관문인 喬桐과 江華에 정착케 하여 구분진을 지급하였고, 공양왕 때 海島人을 召募하여 3丁을 1戶로 하는 水軍充定の 원칙을 세우고 각 도 연해의 경작지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함으로써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수군제도를 확립하였다.¹⁾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부터 軍籍이 작성된 후 태종 때에 軍船加造策이 이루어지는 등 해방체제의 정비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졌다. 한편 水軍抄定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원칙이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려말의 전통을 이어 여전히 연해지역민이 抄軍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 그러나 일정한 자질을 갖춘 수군의 인적 자원은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반드시 연해민이나 해도인만이 수군으로 충원된 것은 아니었다. 먼 곳의 山郡人이 충원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水軍役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軍額 확보가 어려워지자 친인척충이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종 때부터는 水軍世傳의 원칙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으나 이것 또한 철저히 지켜질 수가 없었다.³⁾

이와 같이 해방의 기본이 되는 수군병력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임진왜란 전에 조선왕조의 수군제도가 근본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수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陸守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군역만 있었을 뿐 실제로 군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성종 때 이미 군역의 布納化가 실시되어 番上・入番의 군사를 代立・放歸시키는가 하면 정부가 代立價를 公定하기까지 하였고, 지방수령이나 병사・수사가 留防 대상에게 군포를 거두면서 자의로 군역을 면제시키는 水軍收布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1) 李載樂, 《朝鮮初期 社會構造研究》(一潮閣, 1984), 116~117쪽.

2) 朴炳柱, 〈朝鮮朝 水軍定額 및 水軍役攷〉(《論文集》 17, 麗水水産專門大, 1983), 156쪽.

3) 方相鉉, 《朝鮮前期 水軍制度》(민족문화사, 1991), 36~37쪽.

4) 陸士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1968), 201~253쪽.

이렇게 되자 해상방위를 전담한 수영에서도 수군병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水操訓練은 군사를 임시로 고용하여 형식적인 훈련에 그칠 뿐이었다.⁵⁾ 육군에 비하여 훨씬 고역이었던 수군은 군역 자체에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經國大典》에 규정한 대로 육상의 番上·留防正兵이 四番輪次制에 의해 각각 3개월씩을 복무한 데 비하여 수군은 「二番一朔相遞」로서 매년 6개월씩을 복무하는 과중한 군역을 떠맡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수군은 漕運·屯田·宮闕修築·築城 등 온갖 잡역에까지 동원·사역되었고 이 때문에 수군역의 기피와 유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⁶⁾ 그리하여 다소 부유한 자들은 군적을 작성할 때부터 뇌물을 주어 모두 빠져나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남았다가 결국 유망함에 따라 마침내 기본 병력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정부가 수군의 정비와 해상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일찍부터 국방 책임자들이 조선의 수군으로는 해상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속단함으로써 처음부터 육상방위에 주력할 것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 이는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일관된 흐름이었다. 즉 일본군이 해전에 능한 반면에 조선측은 육전에 능한 것으로 오판하여 적이 쳐들어올 경우 그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대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해상방위에 대한 기본인식이 이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뒷날 조선 수군이 승리한 원인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세조 때부터 제도화되어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鎭管體制가 을묘왜변(명종 10 ; 1555)을 전후한 시기에 制勝方略이란 새로운 제도로 바뀔에 따라 해방체제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과거의 진관체제는 육상과 해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육상의 진관체제는 지방행정 단위인 읍 자체를 군사조직 단위인 鎭으로 편성하여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군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겸하게 하였지만, 수군의 경우에는 행정구획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지역 요해처에 설치된 수군진만을 묶어 진관조직

5) 柳彭老, 《月坡集》 권 1, 壬辰上疏.

6) 方相鉉, 앞의 책, 86~97쪽.

7) 《世祖實錄》 권 6, 세조 3년 정월 신사.

《宣祖修正實錄》 권 25, 선조 24년 7월.

으로 편제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가 거주하는 바로 그 읍이 곧 그들의 소속진이 되었지만 수군에 있어서는 수군진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현지의 수군부대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즉 진관체제 밑에서는 수군이 연해안의 각 鎭浦에만 소속되었지만 이제는 연해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사 관할하에 둠으로써 종전의 해방체제를 크게 바꿔놓은 것이었다.⁸⁾ 이것은 삼포왜란 이후 자주 일어난 왜변으로 인해 취해진 해방강화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해지역 전역을 수군 관할구역으로 묶어서 평소에 바다와 선박에 익숙한 주민들을 현지의 수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제승방략의 分軍法이 채택된 이후의 수군제도는, 물론 법제적으로 종전과 다른 뚜렷한 원칙이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편제와 수군충당의 방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연해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신분 계층이 여러 가지 형태의 수군병력으로 편성되어 해상방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鮑作・土兵・私奴・寺奴 등 수군 관할구역내의 하층민들이 광범위하게 수군조직의 하부구조를 이루었던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특히 그 중 포작과 토병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장건하고 활을 잘 쏘 뿐 아니라 舟楫에 익숙한 군사들”⁹⁾이라고 평가하였을 만큼 강한 전투력을 갖춘 해전의 용사들이었다. 포작은 일정한 거처없이 해상을 떠돌면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영위하던 천민신분으로, 전라도에서 을묘왜변이 있는 직후부터 이들을 해상방위의 보조병력으로 활용코자 하였고,¹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46척에 달하는 포작선을 동원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군이 임란 전에 이미 전라도의 수군편제에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훗날 수군이 승첩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란 발발 1년 전인 선조 24년(1591) 2월 이순신이

8) 제승방략의 제도는 연해제읍의 수군편제와 직접 관계되었다(李恒福, 《白沙集》 권 6, 以都體察使在湖南事宜劃一筭).

9) 《李忠武公全書》 권 2, 陳倭情狀.

10) 李浚慶, 《東臯遺稿》 권 7, 答上兄書.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평소 말이 적고 웃음도 적은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관료에 오른 후 직무원칙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면 결코 용납하지 않아 상사와의 관계도 소원하거나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가 관력 15년이 되도록 말단의 현감직에 머물러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평생지기이면서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柳成龍의 추천에 의해 하루아침에 정3품관인 수군절도사로 발탁되었다. 특히 유성룡은 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增損戰守方略》이란 병서를 구하여 이순신에게 보내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순신 자신이 만고에 기이한 병서라고 그 내용에 감탄하였듯이 水陸戰의 火攻戰法 등 갖가지 전술이 기록된 책이었다고 하니¹¹⁾ 이것은 곧바로 벌어진 해전에서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에 전라도순찰사군관 겸 선전관을 거쳐 정읍 현감을 지냈으므로 전라도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밝았을 것이다. 특히 선조 13년(1580) 7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그가 鉢浦萬戶로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라좌수영 관내의 전반적인 실정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이해가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것은 그가 전라좌수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수영 가까운 곳에 그의 모친을 봉양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이 안정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이순신은 먼저 각종 군기와 군사시설을 점검하고 번갈아 들며나는 군사들을 점고하는 등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군기를 검열한 결과 관리상태의 부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수군진의 담당 色吏는 물론 弓匠・監考까지 처벌하였으며, 일개 토병이 작업중 민폐를 끼쳤다 하여 엄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영자는 즉시 목을 베어 효시하였을 정도로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였다. 선조 25년 2월 하순에는 관내 諸鎭을 순시하며 군비상태를 점검하여 鹿島를 위시한 각 진의 전투준비가 대체로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蛇渡鎭에 많은 결함이 있자 이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²⁾ 왜란이 임박할 무렵까지 그가 군비를 갖추는 데 가장 관심을 쏟은 것은 거북선 건조문제와 수영 앞바다에 가설한 鐵鎖裝置였다.

11) 李舜巨, 《亂中日記》, 임진 3월 5일.

12) 李舜巨, 《亂中日記》, 임진 정월~3월 기사 참조.

철쇄설치는 3월 하순경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거북선은 일본군의 침공 직전인 4월 11일에 帆布 제작을 끝내고 다음날 전장에서 地字砲와 玄字砲를 시험발사하였다. 이로써 수사 이순신이 부임한 후 1년간에 걸쳐 전라좌수군은 적침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모두 완료한 셈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라좌수군의 경우 을묘왜변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해방체제에 의해 좌수영 관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신분층의 광범위한 수군병력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이순신이 부임한 뒤 수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선·화포 등 가능한 모든 군비를 갖춘 다음 임진왜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조 25년 4월 15일 전라좌수군은 마침내 경상우수사 元均으로부터 최초의 變報이 접하게 되었다.

(2) 초기 해전의 승첩과 전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경상·전라도의 수군은 경상좌수사 朴泓·경상우수사 원균·전라좌수사 이순신·전라우수사 李億祺에게 그 지휘권이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부산진 앞바다에 쳐들어왔을 때 적의 선단을 요격했어야 할 경상좌수사 박홍이 스스로 성을 버리고 달아나버림으로써 경상좌수군은 자멸하였고, 경상우수사 원균은 적과 싸웠으나 수영이 함락되고 얼마 되지 않은 병력과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대로 경상우수사로부터 전라좌수영에 왜란의 급보가 전해진 것은 일본군이 침공한 지 2일 후였고, 그로부터 20일 후인 5월 4일 이순신 휘하의 전라좌수군이 경상도로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출동이 지체된 까닭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점과 경상도의 바닷길에 어두웠으며 도망병이 나오는 등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어떻든 경상좌수군이 자멸한 후 영남해역에서는 경상우수군 단독으로 일본수군과 맞서 싸우면서¹⁴⁾ 다른 한편으로는 전라좌수영에 원균요청을 거듭하였

13) 崔永禧,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問題點〉(《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17쪽.

14) 경상우수사 원균은 전라좌수군이 출동하기 전인 4월 중에 영남해역에서 휘하수군을 이끌고 일본수군과 맞서 싸우면서 적선을 焚破하였다(吳希文, 《環尾錄》 권 1, 壬辰南行日錄).

다. 그러나 이순신은 위와 같은 몇 가지 난점 때문에 경상우수군의 구원요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더 일찍 영남해역에 출전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원군과의 불화를 조성하게 된 불씨가 되었다. 출동하기 이틀 전인 5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전라좌수군은 경상도 해역에 출전하려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5월 4일 출전을 결행한 것은 鹿島만호 鄭運·防踏僉使 李純信·홍양현감 裴興立과 홍양출신의 水使軍官 宋希立 등이 결사적으로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급히 출동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5월 1일 관내의 장수들이 영내 鎭海樓에 회동하였을 때 방담첨사·홍양현감·녹도만호 등은 그들의 결의를 수사 이순신에게 개진하였다.¹⁵⁾ 그리고 일부의 장수들이 영남구원을 반대하고 나섰을 때 군관 송희립은 그 부당성을 논하여, “영남은 우리 땅이 아닌가. 적을 치는 데 있어서는 전라도·경상도에 차이가 없으니 먼저 적의 선봉을 꺾어 놓게 되던 전라도 또한 자연히 보전될 수 있을 것”¹⁶⁾임을 역설하였다. 출동 여부를 놓고 최후로 이순신과의 면담을 요청한 이는 녹도만호 정운이었다. 그는 5월 3일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전라우수군은 오지 않고 있는데 적의 세력은 이미 서울까지 박두하였으니 더없이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만일 (해전에서도 제해권 장악의) 기회를 잃게 되면 뒷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¹⁷⁾이라고 하여 즉각 출전하는 것만이 최선책임을 강조하였다. 정운과의 면담 직후 영남해역에 진군할 것을 결심한 이순신은 곧바로 中衛將 이순신을 불러 다음날 새벽에 출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과감하게 경상도 해역에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휘하 장수들의 적극적인 戰意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천부사 權俊·방담첨사 이순신·광양현감 魚泳潭·홍양현감 배홍립·녹도만호 정운 등은 이순신이 토로하였듯이 그가 특별히 믿어 같이 죽기를 기약하며 매사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한 조선 수군의 중추적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전라좌수군 지휘부에 이와 같은 의기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조선 수군의 승첩과 제해권 장악도 가능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李舜臣, 《亂中日記》, 임진 5월 1일.

16) 《礪山宋氏忠剛公派世德錄》, 忠節篇 22(齋洞書院, 1971).

17) 李舜臣, 《亂中日記》, 임진 5월 3일.

5월 4일 전라좌수군은 주전함인 板屋船 24척과 挾船 15척・鮑作船 46척을 이끌고 여수 본영으로부터 玉浦海戰이 기다리고 있는 거제 앞바다를 향하여 출동하였다. 이를 후 한산도에서 경상우수군(관옥선 4척과 협선 2척)과 합류한 뒤, 7일 아침 마침내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최초의 해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선 수군은 30여 척의 일본선단을 공격하여 26척을 격파하고 이어 습포・赤珍浦 등지에서 다시 16척을 불살라 없애는 등 모두 40여 척의 적선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옥포해전의 전승이야말로 조선 수군으로 하여금 적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갖게 해준 중요한 일전이었다. 양측의 수군전력이 노출된 序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곧 조선측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일본측은 초전에 패전한 충격으로 인해 크게 전의가 손상되었음은 물론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그 후의 작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서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 5월 9일 본영에 돌아온 전라좌수군은 군비를 재정비한 뒤 2차 출전에 대비하였다. 그 후 20일이 지난 5월 29일 2차 출전을 결행한 전라좌수군은 6월 10일에 이르기까지 泗川・唐浦・唐項浦・粟浦의 해전에서 적선 70여 척을 불살랐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군장 來島通久(구르시마 미치히사)를 포함, 일본군 약 300명의 목을 베고 각종 군기와 갑옷류 등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조선측의 피해는 전사자 13명과 부상자 3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2차 출전 때부터 이역기 휘하의 전라우수군이 관옥선 25척을 동원하여 가세함으로써 이후 주 전선만도 50척이 넘는 증강된 전력을 보유키 되었다. 이 때부터 조선 수군은 전라좌・우도와 경상우도의 수군이 합세하여 이른바 3도 수군¹⁸⁾의 연합전선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1・2차 출전을 통하여 남해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하였을 때 육상에 사는 이미 도성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서울을 빠져나와 개

18) 임진왜란 초기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三道水軍’의 3도란 전라・경상・충청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전라좌・우도와 경상우도를 말하는 것이다. 임란초에 충청도 수군은 경상좌도수군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조 27년에 가서야 비로소 충청도수군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갖추어 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수군부대에 소속되었다.

성·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란하고 있었다. 육지의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적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은 계속 북진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측 수군장들은 처음에 예상했던 조선 수군의 반격이 없자 육상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바다에서 연패하자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은 뒤늦게 수군장 脇坂安治(와키자카 야스하루)·九鬼嘉隆(구키 요사다카)·加藤嘉明(가토 요시아키라) 등에게 지시하여 단시일 안에 합동작전으로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 때 그들은 3대로 나누어 남해에서 전라도로 진격한 다음 서해로 북상할 예정이었다.¹⁹⁾

그런데 협판안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합동작전을 무시하고 7월 8일 단독으로 73척의 전선을 이끌고 거제 見乃梁에 이르렀다. 이 무렵 조선측에서는 전라좌수군이 이억기 휘하의 우수군과 합세하여 7월 6일 전라좌수영을 출발, 노랑에서 다시 경상우수군과 합류한 후 다음날 당포에 이르러 밤을 새우면서 일본의 대선단이 견내랑에 정박중이란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3차 출전에서 조선 수군은 7월 8일 견내랑의 적선단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풍신수길의 조선침략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협판안치의 일본 선단은 약 60척의 전선을 잃고 거의 전멸상태에 빠졌고 계속 이어진 安骨浦 해전에서 구귀가용과 가등가명 휘하의 수군까지 대패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수군 전체가 궤멸되고 말았다.²⁰⁾ 이후 계속된 수년간의 전쟁은 오직 풍신수길의 실망을 덜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²¹⁾

한산대첩의 결과는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전반의 戰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해전의 전승 의의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대개 왜적은 본시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오려고 하였는데 이 한번의 해전에 의해 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버린 것과 다름없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小西行長이 비록 평양을 빼앗았다고는 하나 그 형세가 외롭게 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19) 崔永禧, 앞의 글, 18쪽.

20) 일본수군의 한산대첩에서의 패전, 또는 앞서의 옥포패전은 일본군의 사기저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참조).

21) Muldoch, *History of Japan*;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丁篇(東京; 民友社, 1925), 677쪽에서 재인용.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전라·충청도를 보전하였고 나아가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해지역 일대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중흥이 이룩될 수 있었다(柳成龍, 《懲毖錄》 권 1).

즉 한산도해전은 일본군으로부터 제해권 장악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전체를 반신불수가 되도록 하여 평양까지 진출한 소서행장군이 더 이상 일보도 전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²²⁾ 따라서 이 때부터 풍신수길은 일본 수군장들에게 해전을 중지하고 거제도에 축성하여 웅거하면서 기회를 보아 육지로부터 조선 수군을 쳐부수는 작전을 모색케 하도록 지시하였다.²³⁾

7월 6일 이후 약 1주간에 걸친 3차 출전에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제압하여 전국 전반의 전세를 반전시킨 다음, 조선 수군이 선조 25년 초기 해전을 마무리한 전투가 바로 부산포해전이였다. 9월 1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어진 이 해전에서도 역시 100여 척의 적선을 깨뜨렸을 정도로 큰 전과를 올렸다. 부산포해전의 전과가 컸던 만큼 수군 장졸들의 전공 또한 그만큼 컸다. 이 점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장계에서, “전후에 걸쳐 4차례 출전에서 10번 접전하여 모두 승리하였다 해도 장졸들의 공로로 말하면 이번 부산싸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²⁴⁾라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희생도 작지 않았으니 특히 이순신 휘하에서 가장 투철한 충의로 가장 뛰어난 용맹을 떨쳐왔던 녹도만호 정운이 이 해전에서 전사한 것은 큰 손실이었다.

옥포해전으로부터 부산포해전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에 걸친 초기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의 전선만 해도 약 330여 척을 격파하거나 불태워 없애는 엄청난 전과를 세웠다. 아울러 그 결과는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세에 있어서 조선측으로 하여금 종래의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전의 승첩은 명장 이순신의 작전지휘 밑에서 싸운 전라좌·우수군과 원군의 경상우수군이 연합전선을 펴 이루어낸 결과

22) 德富猪一郎, 위의 책, 661쪽.

23) 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株式會社 そしてて, 1982), 183~184쪽.

24) 《李忠武公全書》 권 2, 狀啓 2, 釜山破倭兵狀.

었다.

(3)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

무모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임진왜란을 실패로 끝낸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그들 수군의 패배에 있었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²⁵⁾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이 해상에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조선 수군의 총수로 활약했던 이순신이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차지하는 위대한 전공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의 휘하에서 악전고투를 계속했던 수많은 수군 장졸들의 역전의 공과 그들의 희생 그리고 수군의 전쟁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전의 군사들 못지 않게 고통을 치렀던 연해지역 민중의 희생을 빼놓고 말한다면 성웅으로 극대화한 이순신의 전공이란 결국 공허할 뿐이다.

그리고 해전을 승리로 이끈 요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일 양국의 수군제도나 전선의 성능을 포함한 각종 화력의 우열성이 비교되어야 하고, 실전을 수행한 병력 실체와 그 전투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편제·선박·화력에 있어서 모두 우월하였다. 일본선의 船底는 V형으로 원양 항해에는 유리하였으나 전투할 때 급히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었고, 조선 군선은 크고 견고하였으며 선저가 U형이어서 기동력이 뛰어났다. 또 일본 수군은 선에 뛰어올라 싸우는 육박전에 능했으나 조선 수군은 전선에 대포를 적재하였고 天·地·玄·黃字의 총통과 碗口 등 각종 첩포까지 적재하였으며 弓箭으로서 神機箭·火箭 등을 보유하여 화력에서도 일본 수군을 압도하였다.²⁶⁾ 아울러 실전이 펼쳐진 해역의 조건을 이용하는 데에도 關防이라 불리운 지형지물, 즉 서남해 해상의 많은 해안 굴곡과 潮水 등을 교묘히 활용할 줄 알았던 것도

25) 이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도 동일하다. 에킨대 徳富猪一郎이 풍신수길의 오관으로 일어난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주 요인으로서는 조선의 「의병봉기」와 「수군의 우세」 그리고 「명나라 군대의 來援」 등을 지적한 것은 그 한 예이다(徳富猪一郎, 앞의 책, 601~605쪽).

26) 趙成都, <倭辰倭亂時 朝・日軍勢力比較>(임란 4백주년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2).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²⁷⁾ 이와 같이 해전의 승패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요인들이 보다 소상히 밝혀져야 조선 수군의 승리요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선 양측의 기본전력을 비교해 볼 때 일본측에 비해 조선측의 수군제도 자체가 우위에 있었다는 점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대로 임진왜란 전부터 이미 조선의 수군제도는 직접 바다에 접한 연해지역 충동원체제와 흡사한 군사제도였다. 전라도 수군의 경우에 나타난 편제를 보면 도내 연해지역의 지방행정과 연계, 체제상 그것과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평상시 연해지역 諸鎭의 첨사나 만호, 혹은 현감·군수 등이 주로 일상의 대민행정을 담당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하여 모두 전신배치가 정해져 있었으며 水操와 같은 동원훈련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들을 인솔하여 수영에 집결했던 것이다.²⁸⁾ 따라서 임진왜란 때에도 실전에 참가한 대부분의 해상병력이 바다와 舟楫에 익숙한 연해지역의 주민들로 편성된 것이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조선 수군은 처음부터 해상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만큼 안정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수군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사실상 당시의 일본인들은 그들이 섬나라 사람이란 것 외에는 바다를 거의 모르고 있었고, 조선 침략전쟁 전에 해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임란 해전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²⁹⁾ 당시 일본측의 수군이란 그 이름과 소속만 육군과 차이가 있었을 뿐 전투기능상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협관 안치와 같은 수군 소속의 장수들이 한때 육전에 참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수군의 기능과 역할을 극히 도외시켰던 풍신수길은 임란 전에 있었던 九州정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침략전에서도 수군에게는 수송업무의 감

27) 許善道,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李忠武公의 勝捷—그 전략적 戰術적 的의를 중심으로—〉(《韓國學論叢》3,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1980), 300쪽.

28) 有馬成甫, 앞의 책, 158쪽.

29) 이에 대한 일본인 학자의 표현을 빌어보면, “당시의 일본인들은 거의 완전한 육상동물이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물속에 던져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해전에서는 그 능력의 십분의 일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德富猪一郎, 앞의 책, 668쪽).

독이나 운송선의 원호 외에는 거의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³⁰⁾ 풍신수길은 사전에 해상전투가 있을 것을 예상조차 못하였으며, 이것은 곧 조선의 사정을 그만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측과는 달리 제도적 수군양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모한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므로 그 결과는 자명하였다.

일본 수군이 옥포의 서전에서부터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전선과 화력의 열세였다. 일본 선박은 선체가 좁고 낮았을 뿐 아니라 매우 취약하여 풍랑을 만나면 곧장 해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돛대 또한 순풍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조선측의 판옥선과 비교할 경우 마치 완구와 실물의 차이 정도로 비유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³¹⁾ 게다가 양측 화력의 우열도 현저하였다. 일본 수군이 전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경쾌한 유람선이라고 해도 좋을 선박에 조총을 주무기로 한 데 대하여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선체가 높으며 크고 육중한 데다가 선상에 大口徑의 각종 화포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수군은 원격전에서는 화포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고 근접전에서는 전선으로 적의 전선을 부딪쳐 깨뜨리는 전법을 구사하였다.³²⁾

그런데 종래 해전승첩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거북선의 위력이란 것은 사실과 달랐다. 우선 그것은 모두 3척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초기 해전에 동원된 것은 2척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裝甲船이란 점에서 射夫들이 전투하는 데에 불편하였으며 판옥선에 탑승한 군사들에 비하여 사상자도 많았다.³³⁾ 만일 거북선의 위력이 대단하였다면 정유재란 이전 휴전기에

30) 有馬成甫, 앞의 책, 11쪽.

德富猪一郎, 위의 책, 671쪽.

31) 德富猪一郎, 위의 책, 609~610쪽.

32) 《宣祖實錄》권 206, 선조 39년 12월 무자.

《李忠武公全書》권 14, 紀實 下 和國志.

33) 조선측의 戰船監造軍官이었던 羅大用이 “거북선은 射夫가 활동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宣祖實錄》, 위와 같음)라고 증언한 것과, 이순신의 장계 가운데 거북선이 최초로 동원된 2차 출전 때부터 4차 출전 때까지 전라좌수군의 사상자는 모두 165명이었는데 그 중에 두 척의 거북선에 탑승한 사상자가 24명이었다. 이것은 판옥선 23척의 사상자 통계 141명과 비교해 볼 때 거북선에 탑승한 군사들의 피해가 훨씬 컸음을 말해 준다.

단 한 척이라도 더 건조되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며, 명량해전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던 사실만으로도 그것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수군의 전력은 실전을 수행한 군사들의 전투력에서도 월등하였다. 수군병력의 대부분이 해전에 강한 해안지방의 토착민이란 점도 작용하였지만, 특히 수군편제 안에 연계된 비정규적 토병제도 전투력 증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 수영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던 토병들은 전시에 수군진에 전속된 일종의 傭兵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같은 토병의 존재는 전라좌수군의 예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중 조선 수군이 기능적 특수군까지 갖춘 상태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서 조선 수군의 전력을 보강한 또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 연해지역의 전직관료·무과출신·유생·승려 등 다양한 신분계층의 인사들이 병역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해전에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육상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과 같이 해전에서도 해상에 익숙한 연해민들이 봉기하여 수군과 결합하였으니, 해상의 병이 바로 그것이다. 해전은 육전과 달라서 전선과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아예 전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해상의병의 대부분은 육상의병과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편 것이 아니라 수사 휘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상의병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전라좌수군이 몇 차례의 해전을 치르고 난 후인 선조 25년(1592) 7월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옥포해전으로부터 한산도해전에 이르기까지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해전에 자신감을 갖게 된 동시에 그간의 병

34) 土兵이란 비정규군으로서 《경국대전》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존재이나 변방의 각 鎭堡에 설치되었던 특수군이었다. 토병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그 고장에서 生長하여 현지의 지리뿐만 아니라 敵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라야 가능했다. 그리고 토병은 처음에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었으며 赴防을 조건으로 하여 最戰哨基地에서 경작지를 지급받아 ‘且耕且戍’하면서 영주하였다. 따라서 일종의 용병적 성격을 띤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호남의 남방에 있어서는 거론만 되었을 뿐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李章熙, 〈朝鮮前期의 土兵에 대하여〉,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 1984).

력손실로 인해 상당한 충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8월에 들어서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수영 관내의 제읍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개월 만에 순천·홍양·광양 등지에서 4백여 명의 승려들이 달려와서 결집하였고 진사·한량·校生 등 향반층에서도 의병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이 들은 모두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지휘통제하에 들어가 직접 해전에 참전하거나 해안지역 요해처를 지켰다.³⁵⁾

이와 같은 해상의병의 활약에 대하여 조선 수군의 총수였던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번 난리통에 자신들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義氣激發하여 군사를 모아 각기 수백여 명을 인솔해 와 나라의 수치를 씻으려 하니 참으로 가상하다. 해상에 진을 친 뒤 군량을 스스로 준비하여 두루 공급하면서 어렵게 이어 댄 노고의 情狀은 관군 보다 배나 더함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더욱 힘쓰고 있다. 지난날 전투에서 적을 치는 데 있어서도 뚜렷한 전공을 남겼으며 여전히 나라를 위한 충의심에 변함이 없으니 극히 가상할 일이다 (《李忠武公全書》권 4, 請賞義兵諸將狀).

이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2년 뒤에 順天校生 출신의 의병장 成應祉와 의승장 守仁·義能 등의 활동에 대한 포상을 요청한 글 가운데 일부이다. 해전에 자원하여 군량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떨친 의병의 의기와 전공이 정규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조선 수군이 체해권을 장악함에 있어서는 해상의병의 역할도 작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4) 명군의 참전과 전세의 변화

(1) 참전의 배경

16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국가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었다. 明의 경우에 이른바 北虜南倭의 약탈적 침입으로 거듭 환난을 겪고 있었으니 특히 嘉靖帝 집정기(1522~1566)에 이르러서는 그 같은 현상이 더

35) 趙浚來, 〈壬辰倭亂과 海上義兵〉(《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욱 심해졌다. 북로의 침략에 의해 수도 북경이 수일간 포위된 일까지 있었으며, 동남해안 일대에서는 밀무역과 약탈을 감행하는 왜구가 자주 일어나 연해안의 군비를 강화하였지만 무력으로서의 해결하지 못하였다.³⁶⁾

한편 조선의 대외관계 역시 명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명 양국 간에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외에는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에 의한 약탈·침략행위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주의 여진족은 15세기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명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명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서 建州女眞 내부에 奴兒哈赤(누르하치)이란 영결이 등장하여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였다. 결국 누르하치는 뒤에 後金を 건설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해왔을 만큼 이미 확고한 세력으로 발전해 있었다. 선조가 의주로 피란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사신을 보내와 원조해 주겠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유성룡 등은 여진족이 비록 倭侵에 대한 구원을 하러 오겠다 하나 그들의 참뜻을 알 수 없었으므로 邊將으로 하여금 좋은 말로써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게 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어렵게 얽힌 대외관계 속에서 풍신수길은 일본열도를 통일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정후로 조·명 양국 모두에 또 다른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1590년 정월 관동정벌을 끝으로 일본 열국의 통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풍신수길은 휘하 장수들에게 자신의 명 정벌계획을 공언함과 동시에 당장 그에 대처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肥前の 太守에게 명하여 전선을 건조케 하였으며, 열국에 명을 내려 肥前·一岐·對馬 3개처에 축성하여 명 정벌을 위한 館驛을 마련케 하였다. 아울러 지난날 왜구를 인도하여 南京으로부터 福建省 일대를 침략했던 汪五峰의 黨與를 불러모아 그 당시 명군의 전투력에 대하여 탐문하기도 하였다. 이 때 그는 자신의 지략과 일본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명을 정벌한 다음 스스로 大明皇帝가 될 것임을 호언하기도 하였다.³⁸⁾

36) 李鉉淙, <16世紀 後半期 東亞의 정세>(《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264쪽.

37) 李鉉淙, 위의 글, 268쪽.

38) 諸葛元聲, 《兩朝平壤錄》 日本上, 만력 18년.

그런데 을묘왜변을 전후한 시기에 명이 당한 왜침의 환난은 조선측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극심하였다. 福建·江蘇·浙江·廣東省 일대의 동남부 연해지역이 약 40여 년에 걸친 왜구의 침략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명은 당시 왜구의 약탈행위가 남경지방까지 미쳤으나 수도권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란 전에 이미 명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본군이 조선을 경유하여 자국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琉球에 거주하고 있던 복건성 同安출신의 船商 陳甲이 귀국하여 巡撫 趙參魯에게 그 내용을 전함으로써 중앙에 알려져 있었으며, 같은 명인으로서 薩摩州에서 의업에 종사하던 許儀後로부터 보다 소상한 奏聞이 福建軍門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일본의 명정벌계획을 거둬 확인하였기 때문이다.⁴⁰⁾ 특히 허의후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명이 취해야 할 備禦策까지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먼저 대군을 출동시켜 조선을 급습하여 그 官長들을 모두 죽이고 火兵을 좌우사방에 매복시킨 다음 일본군이 내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사면을 포위하여 공격케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산둥·산서지방의 군사들을 출동시켜 그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수륙 양면에서 주야로 쳐부순다면 풍신수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宣祖修正實錄》권 25, 선조 24년 5월).

그가 미리 조선을 공격한 다음 그곳에서 일본군을 쳐부셔야 한다고 역설했던 까닭은 조선측이 일본군의 선봉이 되어 征明戰에 뛰어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의혹은 당시 명나라 조정에 크게 팽배되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선조 24년(1591)에 조선측 통신사 일행이 가져 온 풍신수길의 書契에, “대명국을 정벌하여 그 나라에 우리의 풍속을 심어놓고자 하는 데 그 때 귀국이 先驅가 되어 入朝한다면 우환이 없을 것”⁴¹⁾이라 하여 조선의 조정을 발각 뒤집어 놓은 예를 통해서도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조 24년 8월에 유구로부터 명에 전달된 통보에 다시 일본이 入

39) 崔紹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東洋史學研究》11, 東洋史學會, 1977), 65~66쪽.

40) 川口長孺, 《征韓偉略》권 1.

41) 《宣祖修正實錄》권 25, 선조 24년 3월.

寇하려 한다는 점과 조선이 그 향도가 될 것이란 사실이 전해지자 명나라 조정은 遼東都司에 명하여 조선에 咨文을 보내 倭情을 탐문케 하였다. 이 때 조선에서는 聖節使 金應南·陳秦使 韓應寅 등을 잇따라 명에 파견하여 왜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조선측이 일본과 결부되어 향도가 된다는 소문이 허위임을 변명하였다.⁴²⁾

어떻든 명에서는 임진왜란 전년부터 조선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그 방어책에 부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안전해지려면 반드시 조선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본군이 조선 경내에 쳐들어올 경우 그 병화가 곧 바로 그들에게 미쳐올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명은 일본군이 해륙 양면의 어느 쪽에서 조선을 공격해 오든지 간에 전쟁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한 자신들에게 파급될 것을 분명히 예측하였다. 육상으로는 적이 북상 침공로를 잡아 한성—평양—압록강—요동—북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평양에 자체 방어선을 쳐야 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적이 주 공격로를 해상으로 잡아 전라도를 통해 쳐들어올 때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은 전라도의 위치를 산동의 對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서해 해상의 수로로 진출할 경우 곧장 북경방면의 수도권에 밀어닥쳐 견잡을 수 없이 위급한 지경에 빠져들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⁴³⁾

이같은 분위기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처음부터 조선측의 동정을 살피는 데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임란 전에 무성했던 향도설이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일본군의 침략전쟁이 개시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수도를 빼앗긴 채 西幸을 재촉한 선조 일행의 행동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란이 일어난 직후 조선정부에서 遼鎭에 자문을 보내 變報를 전한 후 수차에 걸쳐 요동과 明京에 구원사절을 파견하여 거듭 원병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측은 여기에 쉽게 응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조선이 과연 일본군의 길잡이가 될 것인지

42) 崔永禧, 〈壬辰倭亂中の 對明事大에 對하여〉(《史學研究》18, 韓國史學會, 1964), 422쪽.

43) 崔韶子, 앞의 글, 70~72쪽.

여부를 탐지해 가고 평양의 선조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등 조선측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差官을 보낸 것이 한 두차례가 아니었다.⁴⁴⁾

그러나 결국 조선의 향도설이 허구임을 알게 되자 명에서는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꿔 “천자를 위해 나라와 집을 잃고 허다한 백성들이 모두 도륙을 당한 다음 한쪽 모퉁이에 피해와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변함없다”⁴⁵⁾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한 明使의 발언이긴 하지만, 천자를 위해 조선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 자체는 곧 일본의 침략목표가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선측에 대한 오해가 서서히 풀리면서 명의 태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고 6월 중순에 소서행장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된 것을 계기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평양성이 함락된 직후 선조의 渡遼內附案이 요동의 寬奠堡에 전해진 다음부터 명은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조선에 파병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즉 평양이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문안 마당에 적이 쳐들어온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긴박감을 감지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신속히 군사를 파견하는 것만이 전쟁을 국내로 확대시키지 않는 최선책이라고 보았으며, 화근을 불러올 수도 있을 선조의 內附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역시 파병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 들어서 명의 神宗이, “마땅히 원병을 보낼 것이니 그 나라 대신을 宣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라”⁴⁶⁾고 한 諭旨와 함께 마침내 명의 출병이 실현되었다.

7월에 파견된 명군은 중앙군이 아니라 遼東廣寧鎮守總兵官 楊詔勳 휘하의 요동지방 수비군이였다. 6월 중에도 遼鎮軍의 파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군과의 정면전쟁을 목적으로 출병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였다. 7월 10일 경 압록강을 건너온 요동군은 副總兵 祖承訓, 遊擊 史儒와 王守官 그리고 千總 馬世隆 등이 거느린 약 3,500명의 병력이였다. 이들이 조선땅에 당도하였

44) 李肯翊, 《燃黎室記述》 권 16, 宣祖朝故事本末 求救明朝收復京城.

《宣祖實錄》 권 28, 선조 25년 7월 무오 참조.

45) 《宣祖實錄》 권 28, 선조 25년 7월 무오.

46) 《明神宗實錄》 권 250, 만력 20년 7월 을미.

을 때는 날마다 비가 내려 도로가 진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주행재소에서 이들의 작전을 돕기 위에 산천에 祈晴祭를 지내는 등⁴⁷⁾ 여기에 건 기대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조승훈의 지휘하에 무모하게 시도된 평양진공작전의 실패로 말미암아 조선측은 물론 명측이 받은 충격 또한 작지 않았다. 평양패전의 결과는 명측의 위기의식을 한층 고조시켰고, 이로 인하여 7·8월에 들어서 우선 산동·요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의 방어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조선에 파병해야 할 東征軍 역시 대규모의 정예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명은 8월 중 兵部右侍郎 宋應昌에게 經略防海備倭軍務를 겸임케 한 다음 9월초 行人司行人 薛藩을 조선에 칙사로 파견하여 대군을 일으켜 파병할 것을 알려왔다. 그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야 명군이 파견되었지만 李如松이 이끄는 4만여 대군이 출전함으로써 평양성을 탈환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이 군사를 보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칙사 설번이 자국의 병부에 보낸 자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는 조선에 와서 전쟁 실태와 현지의 지세를 살핀 다음 본국에 보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세를 돌아보건대 걱정거리는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강역에 있으며 어리석은 본인이 심려하는 바는 강역에만 그치지 않고 내지까지 진동될 것이 두렵다. 그러니 군사를 동원하여 토적하는 일을 한 순간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대저 遼鎮은 京師의 팔과 같고 조선은 요진의 울타리와 다름이 없다. 永平은 畿輔의 요충이며 天津은 또 경사의 門庭이다. 2백년 이래 福建·浙江地方이 항상 倭患을 당하면서도 遼陽과 천진에 그 화가 미치지 않았던 것은 조선이 바로 그 울타리가 되어 막아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가서 치면 그들의 침략만을 속히 불러올 뿐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벌을 해도 올 것이고 하지 않아도 올 것이며, 정벌을 할 경우에는 평양의 동쪽에서 견제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침략을 더디게 하여 禍를 줄일 수 있지만 정벌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양의 외곽으로부터 그들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빨리 쳐들어오게 될 것이며 화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빨리 적을 치면 우리가 조선의 힘을 빌릴 수 있지만, 늦게 치면 왜적들이 조선사람들을 거느려 우리와 적을 삼게 할 것이므로 본인으로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토벌하는 일에 조금도 시간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9월).

47) 《宣祖實錄》 권 28, 선조 25년 7월 기사.

위의 자문에서 설번은 明帝의 칙사답게 명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군사지리적 관계를 설득력 있게 개진한 다음, 명이 조선에 군사를 파병하든 하지 않든간에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명으로서, 언제 적이 그들 경내에 쳐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의 세력이 평양으로부터 서쪽으로 확산되기 전에 급히 대병을 파견하여 미리 공격하는 것만이 최상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이 곧 조선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본 그의 판단은 정확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역시 이 부분이다. 즉 명의 참전은 외면상 조선측의 청원에 의한 구원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의 힘을 빌려 명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칙사 설번이 자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사세의 본질이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 문제라고 역설한 점에서도 입증된다.

(2) 제1차 평양성전투와 그 영향

조승훈의 요동군이 평양성 진공작전을 감행한 것은 개전 후 3개월만인 동시에 조선측의 원군요청이 있는 뒤 2개월만의 일이었다. 명군이 시도한 최초의 작전이기도 했던 이 전투는 소규모의 병력으로 무모한 공격을 펼친 끝에 단 1회전으로 끝난 패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명·일 양측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종래에 가볍게 취급해온 조승훈군의 평양패전의 실상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7월 10일경 압록강을 건너 조선땅에 진군해올 때 요동군은 도강 직전에 湯站에서 總兵 양소훈의 주관하에 작전회의를 갖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 출동을 개시하였다. 조선측에서도 양소훈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淸川江·大定江에 浮橋를 설치하고 군량과 선적을 마련하는 등 명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⁴⁸⁾ 그러나 조승훈은 柳成龍과 金命元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급히 서둘렀을 뿐 아니라 일본군을 개미나 모기에 비유하는 등 처음부터 적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⁴⁹⁾ 그는 본래 여진족과의 전

48) 《宣祖實錄》 권 28, 선조 25년 7월 병인.

49) 朴東亮,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3.

투에서 용장이란 이름을 얻어 일본군을 가볍게 보고 있던 데다 평양에 주둔한 적의 병력이 많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난 후부터 완승을 거두어 반드시 큰 공을 세우겠다고 버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嘉山에 이르러 평양의 적이 아직 그대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는 술잔을 들어 “왜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늘이 나의 성공을 도우려는 것”이라 하여 미리 자축하였을 정도로 기고만장하였다.⁵⁰⁾

그런데 요동의 馬兵이던 조승훈군은 현지의 지리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쏟아진 폭우로 길바닥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마병으로서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⁵¹⁾ 7월 17일 평양성을 공격하던 날, 조승훈은 順安으로부터 자정을 넘긴 3경에 출진하여 곧바로 평양성 밖까지 육박하였는데 당시 도원수 김명원은 휘하 장수들로 하여금 병력 3천을 이끌고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이 때 평양성에 갑자기 군사가 밀어닥치자 일본군은 미처 성을 지키지 못한 채 성내의 요해처에 웅거하여 복병을 두고 명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승훈과 사유가 군사를 풀어 칠성문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자 적이 좌우에서 일제히 조총을 쏘아댔다. 게다가 길바닥이 진창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명의 군사들과 말이 모두 진흙에 빠지고 미끄러졌고 선봉장 사유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으며 조승훈은 급히 퇴각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후미의 군사들 대부분이 살상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유격장 戴朝弁과 천충 張國忠·마세옹 등 지휘부의 장수들 거의가 전사할 만큼 대패하였다.⁵²⁾

이같은 명군의 패전상황은 일본측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⁵³⁾ 조승훈군의 패인에 대해서는 조·명·일 3국의 기록에 차이가 없다. 먼저 평양의 지리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기병이 주축을 이룬 군사를 인솔하여 날씨조차 고려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펼친 공격전에서 一敗塗地한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훈이 소속된 요동군은 도리어 조선이 명의 은혜에 보답하기는 커녕 평양성전투에서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였다고 힐난하고 심지

50)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7월.

51) 諸葛元聲, 앞의 책, 임진 7월.

52)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7월.

53) 北島万次, 앞의 책, 195쪽.

어 조선의 一小營이 倭陣에 투항했기 때문에 패하게 되었다고 무고하는 등 패전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하려 하였다.⁵⁴⁾ 이에 조선조정에서는 沈喜壽·尹斗壽·李幼澄·李誠中 등을 계속 요동총병 양소훈진영에 파견하여 사실을 거듭 반증하는 동시에 조승훈으로 하여금 평양성에 머물게 하여 적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遼鎭에서는 기후와 지세가 불순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절이 바뀐 다음에 도모할 것이란 점과 군량비축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만을 되풀이하면서 재출병의 시일을 끌고 있었다.⁵⁵⁾

조승훈의 패전소식이 전해진 뒤 명의 조정에서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당시 명의 국내 사정은 왜변 이외에도 「寧夏의 變」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총병을 지낸 哮拜가 영하를 거점으로 일으킨 반란이 아직 평정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때 평양의 패보가 전해지자 명나라 조정은 크게 동요하여 곧 바로 登州·萊州·天津·旅順·淮陽지방의 방어체제부터 보강하고 증치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였다.⁵⁶⁾ 그리고 잇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명은 먼저 宋應昌을 經略防海備倭軍務로 임명한 다음 薊州·密雲·天津·永平을 중심으로 山東·遼東·寧前·通州 등 12개 도에 총동원령을 내려 철저한 방어책을 강구케 하였다. 아울러 명측에서는 沈惟敬을 遊擊으로 삼아 평양의 소서행장에게 보내 적정을 탐지한다는 명목하에 화의교섭을 갖게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행인사행인 설변을 조선에 칙사로 파견하여 10만 대군을 일으켜 조선의 일본군을 토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명은 좀처럼 재출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8월 하순에 이르러 조선측에서 다시 鄭崑壽를 陳秦使로 파견하여 출병을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다만 유격 葛逢夏가 기병 2천을 거느리고 查大受와 함께 행궁을 호위하며 오랫동안 의주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처럼 명이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조선의 관리들이 조속한 원병을 요청했을 때 명측에서 “用兵의 道는 天時와 地利를 얻는 것이 귀하므로 쉽게 처리

54) 《宣祖實錄》권 28, 선조 25년 7월 정축.

55) 《宣祖實錄》권 28, 선조 25년 7월 정해.

56) 茅瑞徵, 《萬曆三大征考》倭上.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일 조승훈의 경우에도 시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히 진군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므로 반드시 만전을 기하여 거사해야 한다⁵⁷⁾고 하였듯이, 요동군의 평양패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서행장군이 평양을 점령한 지 1개월만에 요동군의 급습을 받고 이를 격퇴한 뒤 일본측의 움직임은 어떠하였을까. 이에 앞서 풍신수길은 5월 16일 名護屋에서 일본의 침략군이 조선의 도성을 장악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후, 6월 3일에 내린 작전명령에서 征明計劃을 하달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9군 가운데 宇喜多秀家(우키다 히데이에)와 羽柴秀勝(하시바 히데가즈)이 지휘하는 제 8·9군을 제외한 나머지 7군의 병력 13만을 총동원하여 명을 공략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7월 15일 三奉行을 통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전달된 朱印狀에서 그는 돌연히 정명계획을 변경하여 당년에는 조선평정을 완전하게 이룩할 것이며 정명의 문제는 자신이 조선으로 건너간 후 이듬해 봄 결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⁵⁸⁾ 물론 이것은 일선 장수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풍신수길 개인의 뜻이었으므로 조선에 주둔한 장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달라질 수도 있는 계획이긴 하였다. 그러나 풍신수길의 정명계획이 이처럼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군의 도상점령 이후 조선 전역에서 확산된 의병의 봉기와 개전 직후부터 큰 위력을 발휘했던 수군의 활약으로 인해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⁹⁾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불의에 평양성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조승훈의 실책으로 명군을 쉽게 격퇴하긴 하였으나 예상외로 명군의 개입이 빠른 데 대하여 크게 당황해 하고 있었다. 바로 이 때 풍신수길의 주인장과 함께 그의 軍師인 黑田孝高(구로다 요시다카)와 삼봉행이 일본으로부터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8월초 서울에서 현지의 장수들을 소집한 가운데 당장 제기된 명군의 개입을 포함한 정명문제와 전세의 변화에 따른 향후대책을 논의하였으니 이른바 「京城軍議」가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풍신수길의 軍師인 흑전효고를 중심으로 한

57) 《宣祖實錄》 권 29, 선조 25년 8월 임인.

58)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付編・解説(東京; 吉川弘文館, 1987), 22~23쪽.

59) 北島万次, 앞의 책, 197쪽 참조.

대다수는 장차 명군이 계속 올 것으로 보고,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급선을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평양성을 버리고 도성 가까운 북방에 본진을 구축한 다음 후일을 도모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소서행장만은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강경론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조선측이 이미 전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명군이 수만의 원병을 보낸다 할지라도 압록강을 건너 많은 군사와 군량을 조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명나라 경내에 쳐들어가 농성하는 것이 좋은 대책임을 거듭 역설하였다.⁶⁰⁾ 당시 함경도에 주둔하고 있던 가등청정이 빠진 가운데 이루어진 「경성군의」는 결국 소서행장의 고집을 꺾지 못하여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때 일본군이 감지한 분명한 사실은 전세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해졌다는 점이다. 명군이 시도한 제 1차 평양성전투는 일본측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서 이후의 전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5) 조·명군의 반격과 전국의 추이

(1) 조선 관·의병의 활약

일본군의 주력부대인 소서행장군이 개진 2개월만에 평양성까지 점령하였지만, 행재소가 위치한 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북침을 계속할 수 없었다. 옥포해전 이후한산도해전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해상전투의 패배로 인해 조선측에 해상권을 빼앗기면서 보급선이 차단되기 시작했고, 삼남지방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활약으로 후방이 교란당하면서 전후방의 연락망이 단절된 때문이었다. 아울러 위에서 본대로 일본군은 조승훈군의 평양성공격을 일단 저지하기는 하였으나 의외로 빠른 명군의 개입으로 남북 양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국면에 처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조선측은 6월초, 큰 기대를 모았던 전라·충청·경상도의 三道勤王군이 용인전투에서 패산된 후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이미 경상도 의령을 거점으로 하여 일찍부터

60) 北島万次, 위의 책, 199~200쪽.

의병운동을 시작했던 郭再祐부대가 7월 중에 의령·현풍·영산 일대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경상우도지방을 회복해갔고, 경상좌도에서도 의병장 鄭世雅·權應銖 및 경주판관 朴晉 등이 이끄는 향병의 활약으로 영천성과 경주성을 수복함으로써 영남 동부의 여러 읍을 되찾았으며 동해안으로부터 육로로 통하는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⁶¹⁾

7·8월 중에 전개된 공방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전라도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격퇴하여 곡창 호남지방을 지킨 일이었다. 먼저 광주목사 權慥이 현지의 여러 읍으로부터 군사를 모아 체제를 갖추면서 전라도 관군을 되살린 뒤 7월 중에 있는 梨峙(배재)전투에서 전주침공을 기도하던 小早川隆景(고바야카와 다카가게)군을 크게 쳐부수는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전라도 관·의병은 배재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여러 곳에서 전라도 방위를 위한 혈전을 펼치고 있었다. 즉 6월 하순에 전주 인근의 任實 雲巖에서는 고경명 휘하의 남원의 병장 梁大樸의 부대가 적을 급습하여 대첩을 거두었고,⁶²⁾ 배재전투와 거의 동시에 진안의 熊峙(곰재)에서는 김제군수 鄭湛·의병장 黃璞 등이 합세하여 사력을 다해 전투를 하였으며, 금산에서는 고경명의 의병군이 금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소조천응경의 주력부대와 맞붙어 치열한 의병항쟁을 펼쳤다. 배재전투의 승첩과 함께 임실·진안·금산 일원에서 관·의병이 총력전을 펼친 결과 호남지방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조선의 병참기지를 확보하여 국력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조선측의 반격작전이 더욱 활기를 띤 데에는 광해군의 分朝活動의 힘도 적지 않았다. 국왕이 중신들을 대동하고 의주의 행재소에 머무는 동안 왕세자 광해군은 천신만고의 고난을 무릅쓰고 북행과 남행을 되풀이하면서 전세회복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광해군의 분조는 적은 인원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의 후방지역까지 남하하면서 조정의 건재함을 널리 알려 민심을 진정시키고 적에 대한 항전의지를 격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金千鑑·

61) 文守弘, 〈壬亂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임진년 永川·慶州城 收復戰을 중심으로—〉(《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4), 417쪽.

62) 趙煥來, 〈高敬命의 의병운동과 금산성 전투〉(《露蜂의 사상과 구국정신》—향토문화의 탐구 조선명현연구 III—, 광주, 1992), 50~52쪽.

李廷龜 등 여러 의병장의 봉기와 그들의 활동을 고무시켰고, 巡邊使 李鑑을 맞아들여 관군의 재건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해서지방의 요지인 연안성 수복의 배경을 이루었으며 육상으로 남과 북의 명맥을 통하게 하였음은 물론이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해로를 확보하여 의주행재소에서 삼남지방으로 나라의 기맥을 당게 하였던 것이다.⁶³⁾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결국 전반의 전세는 반전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측 관·의병의 공세 또한 그만큼 가열되어 실지회복에 박차를 가해갔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측이 침략군을 궁지에 몰아넣어 결정적인 전승을 거둔 것은 제1차 진주성전투와 행주대첩이었다. 진주성전투는 제해권을 상실한 일본군이 남해안지방의 거점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리해진 전세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해온 攻城戰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해안을 따라 호남지방으로 통하는 침공로를 잡아 남방의 병참기지를 확고히 장악하려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0월초 김해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진주성을 일거에 점령하기 위해 약 3만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개시해 왔다. 목사 金時敏과 관관 威守慶, 그리고 昆陽郡守 李光岳 등 수성군 8,600명은 6일간의 격전 끝에 성을 굳게 지키고 적을 물리쳤는데 김시민은 전사하였다. 이곳에서 적의 대군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재우·崔慶會·李達·崔綱·任啓英 등 영호남의 의병군이 성 밖에서 후원하고, 현지의 군민이 일체가 되어 협동작전이 이루어진 데 있었다. 이 전투가 守城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란이 일어난 이후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일본군이 3만 대군을 동원하고서도 한날 고립된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작전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패전은 당시 도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본영에서도 풍신수길에게 보고하기를 꺼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해 6월 그들은 다시 진주성에서 복수전을 감행하였다.⁶⁴⁾

선조 26년(1593) 2월 한성 근교에서 벌어진 행주산성전투는 명군의 벽제관 패전 이후 조선측 관·의병이 잘 싸워서 일격에 일본군을 섬멸한 대표적인 전

63) 許善道, 〈壬辰倭亂史論－壬亂史와 올바른 認識－〉(《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200~203쪽.

64) 崔永禧, 〈日本の 侵寇〉(《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314쪽.

승이었다. 이 전투의 주장이었던 전라도순찰사 권율은 휘하의 군사 2천 명을 인솔하여 미리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전라병사 宣居怡 역시 2천 병력을 이끌고 용인의 광고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또한 양천에서는 전라도招募使 邊以中이, 통진에서는 충청병사 許頊이, 그리고 강화도에서는 창의사 김천일이 각각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서울탈환에 대비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으로서는 명군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 군부터 퇴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조치를 행주산성에 주둔한 조선군이 명군의 도성 진공작전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한강수로를 이용하여 명군에게 군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은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⁶⁵⁾ 당시의 전투상황에 대하여 《선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권율이 즉시 군중에 동요하지 말라는 영을 내린 뒤 망대에 올라 바라보니 5리쯤 떨어진 들녘에 적들이 가득하였다. 적의 선봉 1백여 기가 접근해 오더니 조금 후에는 1만여의 기병들이 들판을 뒤덮고 일시에 포위하며 돌격해 왔다. 우리측 군사들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며 대소의 勝字銃筒 및 震天雷·紙神砲·大中發火 등 각종 화포를 잇따라 쏘는 데도 적들은 물러가지 않고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 진격해 왔다. 아침 해뜰 무렵부터 저녁 때까지 적은 3차례 진격하고 3차례 물러갔는데 그 들 전사자는 수십 명이었고 부상자도 백여 명에 달하였다. 적들이 마른 풀에 불을 붙여 바람에 날려 성중에 불을 지르면 성안 사람들이 물을 부어 이것을 끄다... 여러 장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니 적은 마침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그리하여 적의 시체를 네 곳에 모으고 건초를 쌓아 시체들을 데우는 데 그 냄새가 10리 밖까지 풍겼으며, 우리 군사들이 적의 남은 시체들을 거두어서 130여 급이나 참획하였다(《宣祖實錄》권 35, 선조 26년 2월 기유).

행주산성의 전투는 병력과 조직, 그리고 군사들의 전술면에서 조선측이 일본측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화력의 운용과 군관민이 일치된 항전의식에서는 조선측이 우세하였다. 특히 성중 백성들의 民保意識은 군민의 혈전과 독전하는 장수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케 함으로써 대침을 거둘 수 있게 하였다. 행주대첩의 승진보가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명군으로 하여금 한성수복에 임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명군은 조선측의

65) 張學根, <壬辰倭亂期 관군의 활약>(《韓國史論》22, 1992), 93쪽.

기대와는 반대로 강화교섭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종결시키려 하였다.⁶⁶⁾

(2) 명군의 평양승첩과 전후의 행동

조승훈의 요동군이 평양성전투에서 패퇴한 직후 명은 조선에 칙사를 보내 머지않아 10만 대군을 파병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11월이 가고 12월이 되어서도 명군은 압록강을 건너오지 않았다. 다만 11월 중순에 이르러 명은 출병에 대비하여,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의 병력과 병선의 규모 및 그 배치상황 그리고 조선측의 군비실태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왔을 뿐이었다.⁶⁷⁾ 따라서 이 무렵 조선측에서는 宋應昌軍門에 글을 보내, 명의 출병이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을 위한 계책임을 강조하고 출병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파병을 촉구하였으며, 선조는 스스로 압록강을 건너가서 송응창에게 직접 청병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⁶⁸⁾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더 이상 명군을 기다리지 말고 자력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다.⁶⁹⁾

그 후 12월 하순에 들어와 비로소 명에서는 李如松이 43,000여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것은 조승훈군의 평양패전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뒤이며, 명조가 칙사를 보내 대군파병을 통고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이어송은 東征軍을 인솔해 오기 직전에 「영하의 변」을 평정하여 寧夏候에 봉해지면서 무장으로서의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에 출병 하던 정월 초순부터 교전하여 정월 안에 평양을 수복하고 경성의 수복은 2월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도의 수복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것⁷⁰⁾이

66) 張學根, 위의 글, 94~95쪽.

67) 《宣祖實錄》권 30, 선조 25년 11월 계해.

68) 《宣祖實錄》권 30, 선조 25년 11월 임신·갑술.

69) 사헌부의 執義 李好閔·掌令 李時彦·持平 柳夢寅 등이 劄子를 올려 주장하기를 일본군을 섬멸하는 데 일각이 급한 시점에서 명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겨울철이 이미 반쯤 지나가 버렸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속셈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近地의 朝鮮軍民 총동원체제를 이루어 分軍한 다음 추위에 약한 적의 허점을 이용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자고 한 것이 그것이었다(《宣祖實錄》권 30, 선조 25년 11월 신미).

70) 《宣祖實錄》권 33, 선조 25년 12월 계묘.

라고 공언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일본군을 알보고 있었다.

이여송군은 병부시랑 송응창을 經略軍門으로 하여 그의 통제를 받되, 都督同知 이여송 자신이 提督軍務의 임무를 띠고 사실상 전군을 지휘하였다. 전군을 3군으로 편성하여 左協大將에 부총병 楊元, 中協大將에 부총병 李如栢, 右協大將에 부총병 張世爵을 임명하여 각 군을 통솔케 하고, 병부원의랑 劉黃裳과 병부주사 袁黃을 贊劃으로 삼아 12월 25일 의주에 도착하였다. 의주에서 선조를 접견한 뒤 28일 현지를 출발하여 새해 정월초 안주까지 진군하였다. 이 때 이여송은 유성룡으로부터 평양의 지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작전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⁷¹⁾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앞서 이여송은 먼저 부총병 查大受를 평양 인근의 順安에 파견, 심유경의 和議使節이 온 것처럼 꾸민 다음 적진에 사람을 보내 평양 교외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케 하였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일본측에서는 20여 명의 병사와 함께 소서행장의 裨將 平後寬(武田吉兵衛)을 순안에 파견하였다. 여기에서 평후관은 사로잡히고 그의 병사들 대부분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 일부가 탈출함으로써 명군의 출병사실이 비로소 일본군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측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양성의 일본군은 명의 출병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추위에 시달리고 극도의 군량난을 겪어 옥수수만으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⁷²⁾

약 15,000명의 일본군을 공격목표로 하여 개시된 평양성전투는 이여송군의 4만 병력 외에 도원수 김명원 휘하의 조선측 병력 8천 명이 가세하여 정월 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주로 火箭과 포격에 의한 火攻戰을 구사하여 성내 초토화작전에 성공한 명군은 불과 3주야의 교전 끝에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이 전투로 적병 1,285급을 참획했고 말 2,985필에 군기 45,002건을 노획하였으며, 조선인 포로 1,015명을 구출하는 대첩을 거두었던 것이다.⁷³⁾ 이 전투 결과 평양이 수복됨에 따라 이어서 개성까지 탈환하였으며 평안·황해 경기·강원 4도를 아울러 회복하게 되었다. 뿐만

71) 柳成龍, 《懲毖錄》 권 2.

72) 北島万次, 앞의 책, 207쪽.

73) 李肯翊, 《燃黎室記述》 권 16, 宣祖朝故事本末 求救對朝收復京城.

아니라 이 무렵 함경도의 가등청정군 역시 조선의 鄭文孚軍의 공격을 받아 패전을 거듭한 데다가 개성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퇴거하였다.

한편 소서행장은 평양패전 이후 잔류병력을 이끌고 밤중에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 황해도 鳳山城으로 패주하였다. 그러나 봉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大友義統軍(오토모 요시무네) 역시 평양패보를 듣고 이미 현지에서 철수한 뒤였으므로 다시 白川·개성을 거쳐 서울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배천에 주둔하고 있던 黑田長政과 개성의 소조천용경이 명군의 추격을 받아 모두 서울로 철수하였다. 이 때 일본군은 조선침략 이후 가장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당시 石田三成(이시다 미츠나리) 등 三奉行으로부터 일본군의 실정을 자세히 보고받은 풍신수길은 가등청정에게 임진강을 확보케 하고 소서행장과 흑정장정에게는 개성을 장악하도록 명하였으나 지시에 고쳤을 뿐이었다. 즉 평양패전으로 인하여 전세가 반전되는 계기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본군은 개전 초기와는 달리 수세에 물리게 되었다.⁷⁴⁾

평양성을 탈환한 직후 이여송은 곧 바로 중협대장 李如栢을 선봉으로 삼아 개성까지 장악한 뒤 승승장구하여 서울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여송은 먼저 1월 25일 부총병 사대수로 하여금 조선측의 방어사 高彦伯과 함께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적정을 살피게 하였다. 이들은 碧蹄 남방에 위치한 礪石嶺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80여 금을 참획하였다. 27일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이여송은 대군을 뒤에 두고 남군의 포병도 대동하지 않은 채 휘하의 정천여 정예한 기병만을 이끌고 벽제를 향하여 진군하였다.⁷⁵⁾ 이전에 서울의 일본군은 명군이 진격해 올 것에 대비하여 작전회의를 갖고 도성내에서 명군을 맞을 것이 아니라 교외에서 맞아 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소조천용경을 주장으로 한 일본측의 대군이 사전에 여석령 후방에 매복해 있었는데 군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여송이 여기에 뛰어든 것이었다.

이 때 명군은 단검에 기마뿐이었고 화기가 없는 데다가 험로에 진흙이 두껍게 쌓여 있어 제대로 말을 몰아 달릴 수 없었으므로 좌우로부터 장검을 휘두르며 돌격해 오는 일본군을 대적하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평양승첩 이후 적을

74) 北島万次, 앞의 책, 208~210쪽.

75) 《宣祖實錄》권 35, 선조 26년 2월 경인.

가볍게 본 李如松은 이 전투에서 낙마하여 부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家丁의 심복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여 坡州로 퇴각하고 말았다.⁷⁶⁾

이후 명군은 전의를 잃고 퇴군하려는 기미가 역력하였다. 벽제패전이 있는 바로 다음날 이어송은 조선측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東坡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군사는 어제 왜적을 이겼을 뿐 별로 패한 일이 없다. 지금 東坡에 주둔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곳에는 馬草가 부족하고, 뒤에는 강물이 있어 화포와 기계는 물론 남군의 포병들 역시 쉽게 오기가 어려운 관계로 동파로 돌아가 머물면서 며칠 동안 군사를 쉬게 한 뒤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진군 하려는 것이다(《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을미).

그는 또 본국에 보고한 글에서 서울에 있는 적병이 20여만으로 중과부적이며, 자신의 병이 심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다른 장수를 대신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유성룡 등이 일본군의 병력이 과장되었다고 항의하자 그는 조선인들이 말해준 숫자라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명장 가운데 張世爵은 퇴병을 적극 주장한 인물로서 퇴군을 만류하던 순변사 李薊을 발길로 차며 물러가라고 호령까지 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조선측을 멸시한 명군의 무례한 행위는 다른 면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었다. 군량과 건초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신들에게 곤장을 친 사례는 그래도 다른 예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경우라 하겠다. 예컨대 병부원외랑 劉黃裳의 경우 선조를 향해 명나라 황제가 속국의 병화를 염려하여 원군을 보냈는데도 조선측에서는 명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다는 언사가 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단속하라면서 일국의 국왕을 마치 그의 부하처럼 질책으로 대하였다.⁷⁸⁾ 이어송 역시 평양성을 탈환한 직후 조선측에 보내온 牌文中서 유성룡·윤두수 등의 대신들이 왜적 퇴치에 게을리한다 하여 悖亂之輩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

76) 《宣祖修正實錄》 권 27, 선조 26년 정월·2월 을미.

77) 柳成龍, 《懲毖錄》 권 2.

78) 《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신유.

그대들은 나라가 없게 된 데서 나라를 갖게 되었으며 집이 없게 된 데서 집을 갖게 된 것과 다름없다. 만약... 한다면 군사를 인솔하여 요동으로 돌아가 그대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하여 나라를 가졌다가 다시 나라를 잃게 하고 집을 가졌다가 다시 집없는 슬픔을 당하게 할 것이다(《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무진).

뿐만 아니라 이여송은 국왕이 거처하는 행궁을 멋대로 의주에서 안주로 옮길 것을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평양을 수복하자 마자 자신의 말이 탄환에 맞았다 하여 국왕의 말까지 요구하였다.⁷⁹⁾ 이같은 굴욕을 선조와 조정대신들이 참고 견뎠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아 하루 속히 서울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평양승첩을 계기로 적을 일본 명군은 경솔한 군사행동으로 인해 벽제패전을 자초하였고, 대패라 할 수 없는 이 싸움 이후 크게 사기가 저하되어 동파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퇴군하는 등 서울진격을 회피하였다.

이여송이 전투를 기피하면서 내건 주된 이유는 군량·馬草·鹽醬 등의 보급 결핍과 당시의 도로사정으로서의 서울진공작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보급이 원활해지고 도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자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조선측의 실정으로 대규모 병력을 위한 군량을 원활하게 조달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명군의 작전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며, 또한 명에서도 군량이 공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뒤에 일본군이 도성에서 철병할 때까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명군은 보급에 큰 문제없이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점으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4만 대병으로 출병한 명군이 뛰어난 화력과 전투력을 갖추고도 도성탈환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그들 내부의 불화에도 한 요인이 있었다. 출신지역이 다른 南軍과 北軍의 대립과 갈등이 작전방법이나 임진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병을 위주로 한 북군과 보·포병을 주축으로 한 남군에게는 작전의 형태나 전술을 구사하는 전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었다. 양군은 평양성전투 때부터 작전방법에서 대립양상을 띠었을 뿐 아니라 전투 후에 결정된 논공서열에서도 반목·대립하고 있었다. 남군의

79) 《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2월 임인.

장령들은 북군출신의 제독 이여송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예컨대 유격 王必迪의 경우에는 이여송의 작전지휘상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지적하여 여러 장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직접 그를 공격할 정도였다.⁸⁰⁾ 이러한 그들 내부의 알력은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명군의 작전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전투의지 또한 그만큼 소극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여송군은 귀중한 평양대첩으로 전세를 반전시키고 도성탈환의 발판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벽제패전 이후 전의를 상실한 가운데 그들 내부의 문제점까지 노출하면서 더 이상 일본군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명에 대한 내침의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데 궁극적인 출병목표가 있었다고 볼 때, 평남 이남으로 일본군을 밀어낸 것만으로도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명군은 오히려 도성진공작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군사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主陣을 개성에 둔 그들은 도성의 적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성으로부터 공격해 올지 오르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임진강 연안을 파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에 군사를 파견하여 함경도로부터 쳐들어올 수도 있을 일본군을 방어하겠다는 어이없는 防守作戰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¹⁾ 그러므로 그 후 일관된 명군의 소극적인 임전태도는 결국 일본군을 그들의 和議對象으로 바꿔 놓았다.

〈趙溪來〉

3. 강화회담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1) 강화회담의 진행과 결렬

(1) 평양수복 전 조·명과 일본의 교섭

가. 조선과 일본의 접촉

80) 《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3월 을사.

81) 宋應昌, 《經略復國要編》 권 6, 與劉袁二贊劃書.

임진왜란초 왜군은 명분없는 침략을 감행하면서도 조선군의 강력한 응징이 예상되는 부산·동래·임진 및 대동강전투에 앞서 조선을 무혈로 점령하려는 수단으로 강화를 요청하는 和・戰의 양면 전략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은 부산·동래 등지에서 결사 응전하였고, 조선조정은 왜군이 교섭을 제의했다는 사실을 선조 25년(1592) 4월 하순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때 조선은 왜군이 서울로 신속하게 북침하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그들의 제의에 응하여 同知中樞府使 李德馨을 왜군의 진영에 보냈다. 그러나 왜군이 앞서의 약속을 어기고 이미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이덕형은 중도에서 돌아왔다. 이로써 조선이 일본과 최초로 대좌하려는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왜군은 선조 25년 5월초 서울을 점령한 후, 임진강 남안에 이르러 이 곳을 지키고 있던 都元帥 金命元에게도 교섭을 제의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東人이 실각되고 西人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집권서인은 전의조차 상실한 선조와 그 측근이 遼東으로 피란하자고 하는 「渡遼內附論」에 한사코 반대하면서 명에 청병하자는 논의까지 묵살하고 있었다. 서인을 중심으로 한 朝臣들은 조선군이 임진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이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에도 평양을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조선군의 자주·자력방어책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김명원도 왜군 제의를 무시하고 공격전을 전개하였다.

조선군의 임진강전투가 실패한 후, 선조 25년 6월 상순 왜군이 평양을 위협하자, 선조가 요동으로 피란할 목적으로 평양에서 우선 떠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조정은 국가붕괴의 정치적인 위기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로써 조신들은 명에 청병할 것에 합의하고 명군의 내원이 있기까지 왜군의 공세를 지연시키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이 무렵 대동강 남안에 이른 小西行長(고니시 유키나가)은 이번에도 회담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 조정은 대사헌 이덕형으로 하여금 대동강 위의 선상에 나가 왜군의 대표와 대좌케 하였다. 이 접촉에서 이덕형은 왜군이 먼저 철군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였지만 왜군측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명으로 가는 朝貢路를 조선이 허용하여 줄 것만을 요구하였으므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로써 조정은 왜군의 침략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어 일본과 협상으로 난국을 헤

결하려는 교섭행위를 단념하게 되었다.

나. 명과 일본의 교섭

명은 왜군이 임진강을 넘어 북상하자, 조선이 일본과 공모하여 요동으로 침범할 것이라는 유언에 의구심을 품고 중국의 안보는 조선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唇亡齒寒論」에 근거하여 선조 25년(1592) 5월 중순부터 전황을 정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주목사 黃璉의 경직된 응대로 그들의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왜군이 평양으로 들어오자, 寧邊에 머물던 선조는 요동으로 피란할 것을 조신들에게 강요하게 되었고, 조신들의 다수는 국왕이 요동으로 내부하게 되면 국가의 최고권력은 공백이 되어 對倭應戰體制는 물론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조의 禪位까지 반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리하여 선조와 조신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세자 光海君의 조정인 分朝를 설치하게 되었다(1차 分朝). 이로써 선조는 오동으로 피란하겠다고 遼東都司에게 알렸고, 분조는 대왜응전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명나라 조정은 조선이 請援使 이덕형을 보내기도 전에 왜란이 명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천의 요동군을 조선에 긴급 출동시켰으나 조선과 일본이 공모하고 있다는 외교상 오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자 곧 철수시켰다.

반면 선조는 요동으로 피란하려 하였지만 안으로 조신들의 계속된 반대와 밖으로 명나라 조정의 견제를 받아 의주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대왜응전체제는 선조의 조정인 行朝와 광해군의 分朝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행조는 의주에서 명나라 조정의 외교적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었으므로 명나라 조정도 앞서 의결을 보았던 조선구원을 실행에 옮겨 선조 25년 7월 중순에 副總兵 祖承訓이 평양을 공격하게 되었다.

명군의 평양공격은 실패하였지만 명나라가 왜란의 교전당사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조선과 일본의 전쟁수행의 전략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명나라 또한 이 전투의 패전으로 대왜전의 수행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평양의 소서행장은 더 이상의 북침을 유보하였다. 승승장구하던 왜군은 해전에서 全羅左水使 李舜臣의 연승과 육전에서 下三道에서 봉기한 의병의 활약으로 이미 그들의 수륙병진작전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깊이 북상한 평양의 왜군은 앞으로 닥쳐올 추위와 군량의 부족은 물론 명군의 재공격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조정은 명의 재차 내원을 확신하게 되어 청병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군은 成川에 있던 분조의 소속군과 順安에 있던 도원수 김명원의 예하군이 서로 연계하여 江東 순안·永柔·江西를 잇는 대왜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양의 왜군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명나라 조정 또한 대규모의 명군을 재차 출병시킬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명의 국내에서 寧夏의 난이 진행되고 있어 명군의 조기출병이 어려웠으므로 兵部尙書 石星은 和·戰 양면책을 기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석성은 遊擊將軍 沈惟敬으로 하여금 평양의 소서행장에 대한 강화교섭을 전개하게 하였다.

심유경은 9월초 평양에 와서 수세에 몰려 있던 소서행장과 협상하였는데 소서측이 명의 封貢을 원하였으므로 이 제안을 명나라 조정에 주선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리하여 양자는 평양 서북방에 위치한 斧山院에 標木을 세워 조선군과 왜군이 50일간 임시로 휴전할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군의 전투는 이 지역에서만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 임시휴전 사이에 명나라 조정은 영하의 난을 평정하고 대규모의 명군을 요동으로 집결시킬 수 있게 되자, 經略 宋應昌과 提督 李如松의 對倭決戰論을 수용하게 되었다. 한편 심유경도 그 해 11월 하순 평양으로 돌아와 소서행장과 강화협상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 명의 대왜결전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왜군 점령지의 반환과 포로로 잡힌 조선의 왕자와 대신의 송환 및 왜군의 완전 철수를 제의하였다. 반면 소서행장은 봉공과 대동강 동쪽의 할양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양자의 교섭은 진전될 수 없게 되었고, 명나라 조정은 이 기회에 왜침의 후환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확정하였다.

한편 조선조정은 명군의 출병이 요동에서 지연되고 있고 여진의 奴兒哈赤(누르하치)까지 참전의사를 밝혀 오고 왜군 또한 조선의 분할설을 유포시키자,

심유경이 강화교섭에서 조선의 영토를 매개로 흥정하는 것이 아닌가 극도로 의심하게 되었다. 조정은 요동에 진주하고 있던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에게 직접 명군의 조속한 출동을 촉구하는 한편, 심유경의 강화교섭에 대한 조선의 의구심을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송응창은 조선에 왜군이 점거한 모든 점령지를 반환하고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일본과는 강화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조선조정에 알려왔다. 그는

倭奴가 평양을 명에 주고 조선에 양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간입니다. … 어찌 타국의 위급함을 이용하여 타국의 땅을 탈취하겠습니까 … 만약 평양 등지를 빼앗으면 … 일이 평정된 후에 本部는 즉시 철수할 것입니다(《宣祖實錄》 권 33, 선조 25년 12월 계묘).

라고 하여 조선의 분할설에 대하여 명은 조선을 구원하여 승리하여도 조선 영토에 대한 지배욕이 없음을 문서로 조선과 약속하였다. 이후 명측은 조선의 영토할양을 조건으로 하는 대왜강화교섭만은 배제하였던 것 같다.

(2) 평양수복 후 명과 일본의 교섭

가. 명과 일본의 교섭추이

선조 26년(1593) 정월 상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수복한 후 제독 이여송은 그 동안 전투에서 입은 명군의 손실이나 조선이 전담하고 있던 군량의 지원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급히 임진강을 넘어 서울수복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월 중순 碧蹄館 礪石嶺 전투에서 참패하자, 그는 왜군의 전력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작전상 일시 후퇴론을 주장하여 휘하의 주 병력을 평양으로 회군시켜 사실상 서울수복전을 포기하고 왜군과의 전투를 기피하였다.

왜군은 평양패전 후 서울에 집결하였지만 개전 당시 병력의 3, 4할을 전투·기아·질병으로 소모하여 실전의 수행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¹⁾ 그러나 왜군은 여석령전투의 승세를 틈타 2월 중순 全羅道巡察使 權慄의 부대가 명군의 서울수복전을 돕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던 幸州山城을 사력을 다해 공격하였지만 대패당하고 전의까지 잃고 있었다.

1) 崔永禧, 〈壬辰倭亂의 再照明〉(《國史館論叢》 30, 國史編纂委員會, 1991), 165쪽.

특히 서울에 총집결한 왜군은 이제 서울의 인근지역에서 군량조달을 위한 약탈 대상조차 찾아내기 어려워 심각한 군량난에 봉착하게 되었으므로, 왜군 지휘부는 서울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락까지 받았다. 그러므로 왜군은 철군할 때 조·명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조·명측과의 협상을 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²⁾

경략 송응창은 提督府가 대왜진을 회피하면서 명군의 철수론까지 제기하자, 임진강을 지키던 부총병 查大受에게 서울의 적정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사대수는 3월 상순 조선인 通事를 대동한 家丁들을 서울에 잠입시켰다.

이 때 소서행장은 명군과 교섭의 단서를 열고자 승려 玄蘇로 하여금 조선인 통사 등을 용산에서 접촉케 하였다. 현소는 이들 편에 명군과 조선의 禮曹 앞으로 강화 요청서를 각각 보내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忠清水使 丁傑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내왔다. 그러나 都體察使 柳成龍이 정결 앞으로 보내진 글마저 조정에 전달하지 않고 사대수에게 보냈으므로 이 모든 서장은 사대수의 손을 거쳐 평양의 명군측에게 전달되어 조선조정은 왜군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이어송만이 일본이 강화하려는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비밀히 그들과 교섭할 것을 송응창에게 건의하였던 것이다.

송응창은 이어송 등의 주장에 따라 서울의 왜군이 전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판단에서 대왜교섭의 경험이 있던 심유경을 서울에 보내 왜군과 접촉케 하였다. 심유경은 이에 앞서 2월 중순에 參軍 馮仲纓과 접촉하였던 加藤清正(가토 기요마사)까지 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교섭상대로 割地案을 제시하였던 가등청정을 배제하고 주로 封貢案을 제안하였던 소서행장과 용산에서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심유경은 왜군의 점령지 반환과 두 왕자 및 배신의 송환, 풍신수길의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를 제시하고 일본이 이 조건을 이행하면 명나라 조정에 풍신수길의 封王을 주선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소서행장도 명이 講和使를 보내고 명군을 요동으로 철수시키면 두 왕자 등을 송환하고 4월 8일 왜군을 서울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양자는 서로의 조건을 이행

2) 金錫禧, 〈壬辰亂中の 講和交渉에 對한 小考〉(《文理大學報》9, 釜山大, 1966), 21~24 쪽.

하기로 합의하였다.³⁾

당초 경략부의 대왜접촉은 조선은 물론 명나라 조정에까지 비밀로 추진되었지만 먼저 조선에 접촉사실이 알려졌으므로 조선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략 송응창은 명군이 무력으로 서울을 수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단 외교전으로 왜군을 서울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조선의 반대를 완전히 무시한 채, 4월 상순 심유경을 다시 서울로 보내 왜군에게 합의한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한편 그는 4월 중순 막료인 謝用梓와 徐一貫에게 參將과 遊擊의 직함으로 명의 강화사로 위장하고 일본에 가서 풍신수길의 降書를 받아오게 하였다.

왜군은 경략부의 강화사가 서울에 들어오자 두 왕자를 인질로 한 채, 4월 19일 서울에서 전군이 철수하여 5월 중순 후에는 본국에서 군량운송이 용이한 蔚山에서 巨濟에 이르는 남해안가에 주둔하게 되었다.

왜군의 서울에서 철수는 명군과 명나라 조정의 戰局운용에 큰 전기로 작용하였다. 체독 이여송은 대왜강화를 낙관하게 되어 명군의 추격전을 회피하고 조선군의 추격까지 방해하였다. 명군은 왜군이 한강이북에서 물러간 상황을 중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위기의 해소로 인식하고 원군으로서 부여받은 임무까지 거의 완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강을 지키면서 강화교섭의 진전상황을 보아 본국으로 철병하려는 조급한 계획까지 주장하였다.⁴⁾ 따라서 조선의 왜군추격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뒤늦게 송응창이 왜군의 철수를 강요할 목적에서 무력시위용의 왜군추격을 명령하였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명나라조정도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경략부의 강화추진을 추진하고 조선내의 명군의 완전철군을 성급히 계획하였다. 이에 경략 송응창은 당황하였다. 강화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명군의 일방적인 조기철병은 일본의 협상입지만을 강화시켜 주며 강화에 결사 반대하는 조선의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명나라 조정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한 요새지로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재침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3) 李焞錫, 《壬辰戰亂史》中(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625~626쪽.

4) 《宣祖實錄》권 39, 선조 26년 6월 임자.

때까지 명군의 일부를 조선에 잔류시켜 그 주둔경비를 조선에 부담시킨다면 명의 국방비를 절감시키면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명나라 조정도 왜군을 서울에서 철수시켜 정치적 위상을 높인 송응창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으므로 명군의 철수는 단계적 철병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나라 조정의 결정은 근원적으로 명의 국내·외 정세가 일본과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국력의 쇠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풍신수길의 침략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송응창이 왜군의 남해안으로의 철수를 본국으로 철병하기 위한 전제로 믿고, 왜군이 대부분 돌아갔고 그 일부만이 부산 등지에 잔류하여 明帝의 封貢만을 대기하고 있다고 적정을 명나라 조정에 그릇되게 보고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풍신수길은 경략부의 위장 강화사를 맞이하면서도 和·戰 양면의 계획을 견지하여 5월 하순에 진주성의 재공격방략을 왜군에게 하달하고 사옹재·서밀관 등과도 名護屋에서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그는 ①明皇女の 日後妃 책봉(納妃) ②勘合貿易의 재개(准貢) ③명·왜대신의 誓詞 교환 ④조선의 4도 할양(割地) ⑤조선왕자 등 인질 ⑥두 조선왕자의 송환 ⑦조선대신의 誓詞 등 전문 7조의 강화약관을 제시하였다.⁵⁾ 이 약관은 ⑥조항을 제외하면 조선은 물론 명나라 조정도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풍신수길의 강화교섭의도를 확연히 나타내는 것이었다.

송응창은 강화사가 돌아와 이를 확인하고 풍신수길의 약관을 명나라 조정에 사실대로 보고할 수 없게 되자, 심유경의 조언에 따라 풍신수길이 봉공만을 원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여 본국 조정을 기만하였다. 이로써 송응창과 심유경은 본국 조정을 위계로 속이면서 대왜교섭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왜군은 강화교섭에서 풍신수길이 명측에 제시한 조선의 할지를 관철시키려는 뜻에 따라 2차로 진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호남지역을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조선군의 결사적인 항전과 명군의 군사적·외교적인 견제로 남해안의 점거지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무모한 침략행위로 조선은 물론 명나라 조정도 대왜강화교섭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독 이여송은 명군의 출동으로 왜군이 남해안 본거지로 스스로 물

5) 李烟錫, 앞의 책, 875~876쪽.

러났다고 하여 명나라 조정을 기만하였다. 왜군도 조선의 두 왕자 등을 송환하고 소서행장의 부하인 小西如安(고니시 요안)을 일본의 納款使로 삼아 심유경의 안내로 서울을 경유하여 명으로 급거 入朝케 하였다. 그러므로 경략 송응창은 조선조정이 일본의 침략행위나 교섭의 실상을 명나라 조정에 알리지 못하도록 조선의 사행을 통제하고 조선의 내정까지 극단적으로 간섭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조선의 대응과 경략부와의 갈등

조선조정은 평양수복 후 명군이 대왜전을 주도하자, 分朝(1차 분조)를 해체하여 선조의 실추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서울수복을 위해서 급히 남진한 명군이 겪고 있는 군량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에서 선조로 하여금 명군에 대한 조선의 효율적 지원을 직접 지휘케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명군이 여석령에서 패한 후 서울수복전을 포기하였으므로 선조는 명군의 진공작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독 이여송에 대해 설득교섭에 나섰다.

이 때 선조나 조신들은 앞서 경략부가 대왜전의 수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선의 자주국방을 제언하면서 명군은 進攻收復戰을, 조선군은 그 수복지의 自守防禦를 전담하자는 역할분담론을 주장하여 왔으므로 명군이 대왜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조 26년(1593) 3월 상순 선조는 安州 蕭寧館에 나아가서 제독 이여송과 회담하였다(1차 회담). 이 때 이여송은 명군이 서울에서 왜군과 접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경략부가 일본과 교섭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비로소 선조에게 시사하였다. 이에 선조는 일본과는 죽기로 싸울 뿐 강화할 수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문서로도 서울의 왜군을 속전속결할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그 후 선조는 명·왜군간의 접촉사실이 점차 공개되자, 이러한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도체찰사 유성룡을 힐책하고 그에게 조선의 將臣이 강화문제를 논의하지 못하도록 엄명하고, 이여송에게 진병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서 3월 하순 평양으로 가서 大同館에서 그와 회담하였다(2차 회담).

그러나 이여송은 끝내 대왜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명군의 진공을 결정할 권한이 경략 송응창에게 있다고 책임까지 전가하였다. 이에 선조는 경략부의 대왜강화추진을 저지하여 명군의 서울진공전을 재개시키려고 안주에 있던 경

락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조는 제독이나 경락을 직접 찾아나서면서까지 그들이 추진하는 대왜강화교섭에 대왜진공론으로 대응하였다. 그것은 그 자신이 강화교섭으로는 풍신수길의 침략의도를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병조판서 李恒福의 예상과 같이 서울을 무력으로 수복하지 못하면 왜군은 무조건 왜란을 종결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송응창은 선조의 회담요구가 강화교섭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고 파악하여 선조와 회동을 거부하고, 조선에서 강화교섭을 방해하면 명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조선군의 전투행위까지 금지시켰다. 그는 자신이 그 동안 대군을 지휘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전과를 올리지 못한 책임을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송응창은 왜군을 서울에서 일단 철수시키려고 조선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조선조정은 서울을 떠나는 왜군이 두 왕자의 송환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를 이유로 송응창에게 왜군의 추격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그도 조선을 회유하려는 의도에서 조·명군의 왜군추격을 뒤늦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어송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명군은 왜군에게 본국으로 철병을 강요할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명나라 조정이 명군의 단계적 철병을 결정하자, 송응창은 왜군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과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조정에 대하여 일본이 강화를 애걸하였으므로 왜군의 완전철수는 곧 실현될 것이나 조선이 자위력을 길러 일본의 재침을 방어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명군의 일부를 잔류시켜 조선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동안 회동을 거부하던 선조와 6월 상순 안주 安興館에서 회담하였다. 이 때 송응창은 선조의 환도와 서울방어를 위한 鳥嶺의 關防施設 및 일본의 재침에 대비한 조선군의 전력강화를 제안하고 일본과의 강화성립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6월 하순 선조와 조선들은 예상하였던 것처럼 왜군이 진주성의 5, 6만의 군민을 도륙하는 침략행위를 경험하고, 송환된 두 왕자로부터 왜군이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

본의 납관사가 서울로 들어오려하자, 조정은 경략부가 강행하려는 대외강화 교섭을 저지하기 위해서 명나라 조정을 직접 상대로 하는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선조는 명나라 조정이 송응창과 심유경의 사기행위와 일본의 기만외교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조정도 왜군의 침략정황을 명나라 조정에 알려 명나라 조신들로 하여금 일본과 강화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케 하려고 7월에 告急奏請使 황진을 명에 보냈다.⁶⁾

이에 송응창이 황진의 告急奏請使行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면서 조선의 모든 사행을 통제하였으므로, 조선조정과 명나라 조정간의 외교적 접촉은 경략부에 의해서 사실상 차단당하게 되었다. 명나라 조정은 경략부의 대외교섭의 실상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송응창의 허위보고를 사실로 믿고 16,000여 留兵軍을 제외한 명군의 주력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9월 중순에는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까지 요동으로 귀환하게 되어 명은 조선 내에서 왜군의 철병을 강제할 무력수단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송응창으로 하여금 대외강화 이외에 선택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게 하였다. 그는 조선의 항의를 무릅쓰고 일본의 납관사를 요동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兵部尙書 石星도 일본과 강화하기로 정하여 납관사에게 關伯의 降表를 가지고 오도록 왜군진영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경략 송응창은 심유경으로 하여금 指揮 譚宗仁과 함께 熊川の 소서행장에게 가서 왜군의 철병을 촉구케 하는 한편 관백의 항표까지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웅천에서 회담한 심유경과 소서행장은 관백에게 항표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위조한 항표를 명나라 조정에 보낼 것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중앙정부를 속였던 것이다.

한편 경략부는 명군의 주력이 철병하게 되는데 따른 대외전의 대책으로 조선에 조선군의 훈련·관방시설의 추진 그리고 명 유병군의 군량공급 및 그 주둔경비의 분담을 포괄하는 조선군과 명 유병군의 對倭協守防禦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왜란초부터 대외진공론을 주장하여 온 당시의 집권서인은 경략부의 대외방어론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관방시설의 추진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전화로 허덕이는 조선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계

6) 《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7월 무오.

책이며 주둔경비의 분담요구는 강화에 반대하는 조선을 견제하려는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간주하여 그 시행은 물론 협의에 대해서까지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기피하였다.

송응창은 조선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조선군과 명 유병군의 효율적인 대왜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선조 26년(1593) 8월 중순 세자 광해군의 下三道 經理案을 조선에 요구하여 왔다.⁷⁾ 이는 세자의 撫軍을 요구한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세자의 조정인 분조를 촉구한 것이었다. 집권서인은 1차 분조를 주도하였지만 이제 선조의 왕권을 다시 나누라는 경략부의 요구를 공론화하기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를 지연시켜 나아갔다.

집권서인은 송응창의 이러한 요구가 경략이 추진하는 대왜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선조를 견제하려는 외교적인 수단임을 인지하고 경략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뜻에 따라 황진의 고급추청사행을 거듭 강행시켰다. 그러므로 조선조정 대 경략부, 선조 대 경략의 외교적 대립과 갈등은 증폭되어 갔다. 이 영향은 국내정치에도 나타나 대왜무력전을 포기한 경략부가 요구하는 대왜방어대책만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선조와 이에 소극적인 집권서인간의 갈등까지 야기시켰다.

송응창은 자신이 촉구하는 세자의 하3도 경리의 시행을 조선이 지연시키자, 자신이 위계로 추진하는 강화교섭에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선조까지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는 선조를 명나라 조정에 음해하여 국왕의 통치자질마저 의심받게 하고 은밀히 국왕을 교체하려고 획책하며 조선의 사행길을 끊어 조선의 외교권까지 사실상 박탈하고자 하였다.

선조는 집권서인의 대경략외교가 점차 난항에 빠져들자, 극도로 대립상태에 있는 대경략외교에 대처하면서 명나라 유병군의 단계적 철군에 대비하려고 하였다. 선조는 동왕 26년 10월 設險 및 淸野의 대왜방어론을 주장하는 豊原府院君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하여 남인으로 하여금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집권남인은 경략부가 요구하는 대왜방어책과 세자의 하3도 경리안 등 경략부와의 외교적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명나라 조정도 윤11월에 行人 司憲을 서울에 보내 경략부가 촉구하는 세자

7) 《宣祖實錄》 권 41, 선조 26년 8월 정유.

의 하3도 경리를 조선이 단행하도록 하고, 대왜강화에 앞서 왜군의 정황을 현지에서 확인케 하였다. 이로써 경략부 통제로 막혔던 조선과 명나라 조정 간의 직접적인 외교접촉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선조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명나라 사헌에게 일본이 강화교섭에 임하는 정황을 설명하여 경략 송응창이 명나라 조정에 왜군이 이미 본국으로 철병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혔고, 總兵 劉綎도 선조의 주장을 증명하여 주었다.

(왜군이) 京城에서 달아났는데 自全之計를 꾀하여 교묘히 朝貢을 원한다는 핑계로 … 변방의 성에 물러가 점거하였습니다(《宣祖實錄》 권 45, 선조 26년 윤 11월 갑오).

명사 사헌은 선조 26년 12월에 귀국하자 “왜적은 떠나지 않고 대부분 조선의 변경에 머무르고 있다”는 奏本을 올렸다.⁸⁾ 이와 같은 보고에 접한 명사인 조정의 科道官들은 본국의 조정을 기만한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 등을 탄핵하였고, 강화교섭을 위계로 강행하여 왔던 송응창 등 명군내 주화파들은 모두 실각되었다. 따라서 왜란의 제일 당사국인 조선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대왜강화교섭을 추진하던 송응창은 조선의 외교적 대응으로 선조 26년 12월에 결국 물러났고, 薊遼保定總督 顧養謙이 경략의 직사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략 고양검도 조선내 왜군의 철병을 강제할 무력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특히 山東·河南·大江 이북지방에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었으므로 명군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⁹⁾ 그러므로 그도 대왜무력전의 재개를 포기하고 전임 경략의 강화교섭을 승계하여 조선의 전쟁상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무렵 심유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서행장과 관백의 향표를 위조할 것에 합의하고 선조 27년 2월 상순 서울에 와서 고양검에게 관백의 향표가 일본으로부터 곧 올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소서행장도 일본의 남관사로 하여금 위조된 향표를 가지고 재차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일본의 향표가

8) 《宣祖實錄》 권 48, 선조 27년 2월 경오.

9)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신미.

중국에 도착하자, 고양검은 대왜강화를 낙관한 끝에 병부상서 석성을 움직여서 조선내 명 유병군의 완전철폐를 결정케 하고, 명나라 조정에 일본을 봉공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소서행장이게는 왜군의 완전철폐를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왜군은 봉공을 인준하는 封倭使의 내도와 철폐를 연계시켜 경략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명나라 조정 또한 당시 북경에 와있던 조선의 사은사 金暉가 왜군이 재침할 적정을 들어서 명 유병군의 철폐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명의 대왜강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전임 경략이 위계로 추진한 강화 교섭을 답습하는 경략 고양검의 對倭封貢案을 거부하였다. 특히 명나라 조정의 과도관들은 강화를 애결한 측이 송응창이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고양검은 대왜봉공안을 제기하였다고 논박하고, 일본의 항표 역시 명인이 위조한 문서임을 들어서 그를 성토했으며 왜군이 조선의 변경을 점거하고 있는 한 봉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고양검은 경략부만이 대왜강화를 추진하여서는 그 동안 누적된 강화교섭에 대한 명나라 조신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대왜봉공안을 인준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왜강화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조선으로 하여금 명나라 조정을 설득시키게 하려는 목적에서 조선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즉 그는 遼東都指揮使司와 咨文으로 다음과 같이 조선조정이 일본을 대리하여 명나라 조정에 請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지금 조선이 할 일은 倭奴를 위해서 封貢을 청함으로써 왜노를 속히 철폐시키게 하는 일이다(《宣祖實錄》권 50, 선조 27년 4월 신미).

이로써 대왜강화를 반대하여 온 조선은 명·왜간에 추진되던 강화교섭에 간접적이지만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 명 경략부의 조선설득

선조 27년(1594) 4월 하순 경략 고양검은 참장 胡澤을 서울에 보내 조선조정이 일본을 위해 대리로 請封하여 줄 것을 직접 설득하였다. 그는 왜군이 재침할 경우 명은 원병이나 군량을 지원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왜군의 철폐이나

전쟁의 재발을 늦추려면 일본이 원하는 봉공을 명나라 조정에서 얻어내는 길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하면서 조선조정이 이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서 조선조정도 경략부의 요청에 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즉 경략부가 추진하는 강화교섭의 협소 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대립되었다.

당시 조선의 정치구조는 선조 26년 12월 상순 명의 강요로 세자의 분조가 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어(2차 분조) 국왕의 조정과 병존하였고, 조정은 대외방어를, 분조는 대외진공을 주장하여 대왜옹전전략도 이원화되어 있었다.

특히 분조에서는 진공론자인 서인의 좌의정 尹斗壽가 分備邊司의 후신인 撫軍司를 주도하였으므로 선조 27년 정월 명 유병군인 吳惟忠軍의 철수를 앞두고 조선군의 독자적인 대왜진공작전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의 전력으로 보아 독자적인 대왜전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집권남인의 반대 따라 선조도 이 작전을 유보하였으므로, 그 후 조선군의 대왜전략은 집권남인이 주장하는 산성고수 및 청야전의 방어론을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집권남인의 대왜전략에는 대외적으로 명이 산동 등지의 참혹한 기근으로 왜군을 응징할 수 있는 규모의 명군을 재출병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또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이 탕갈되고 인력마저 고갈되었으며 선조 26년과 27년에 전국을 휩쓴 큰 기근과 전염병으로 「人相殺食」·「父子兄弟亦相殺食」의 참상이 연출되어 급기야 宋儒眞의 난을 초래하였으므로¹⁰⁾ 조선의 경제·사회현실이 붕괴의 직전에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집권남인은 명나라 조정을 일본과 전쟁할 수도 봉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뜨린 책임의 일부가 서인이 집권했을 때 대왜진공론만을 견지하고 대명외교를 소홀히 한 외교적 실책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왜전의 재개가 국가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경략부가 대왜봉공안으로 왜군을 조선에서 철병시키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이에 간여할 이유는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조신들은 표면상 선조의 강화 결사반대의 명분론에 순종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대왜강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10) 李章熙,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對하여〉(《鄉土서술》 3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8), 43~46쪽.

한편 왜군과 대치하고 있던 일선에서는 선조의 강화반대의 뜻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도원수 권율은 총병 유정의 권유로 승려 惟政으로 하여금 울산의 가등청정과 접촉하게 하였고, 梁山郡守 邊夢龍은 자정을 정탐한다는 이유로 사사로이 왜군에게 글을 보내 사통하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호택이 조선에 代理請封할 것을 요청하자 조정 내에서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대왜강화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선조와 분조의 윤두수 등은 대왜강화교섭에 조선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영의정 유성룡 등 남인은 은근히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신들은 선조의 의사에 반하는 대왜강화론을 감히 거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때 전라감사 李延穉은 일본과 강화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그는 대외적으로 명군의 완전철병이 확정되어 그들의 재출병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왜군은 철병할 의사조차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왜군의 제침을 방어할 인적·물적 기지인 호남이 3년간 계속된 전쟁 및 그 지원으로 여력이 이미 소진하여 전면전이 재개되면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먼저 붕괴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조선은 일단 일본과 화친하여 왜군을 철병시킨 후 후일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¹¹⁾

선조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왜강화론을 주장한 이정암을 실성한 인물로 지목하자, 三司에서 이정암이 대의를 저버렸다고 참수형에 처할 것을 극론하기에 이르렀다. 집권남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서인인 牛溪 成渾은 이정암이 절개를 지켜 義 앞에 죽고자 대왜강화론을 주장하여 조신들의 숨은 뜻을 대변하였다고 그를 극력 변호하고 나섰다.

당대의 거유인 성혼이 宣陵(성종의 능)과 靖陵(중종의 능)을 도굴한 일본과 강화하자는 의견을 지지한 것은 조선이 직접 일본과 강화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이정암의 뜻과 같이 조선의 현실이 일본과 전쟁을 재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명·왜간의 강화교섭을 측면에서 협조하여 시간을 벌며 조선의 재기를 도모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이다.¹²⁾

11) 《宣祖實錄》 권 57, 선조 27년 5월 기해.

12) 李章熙, 〈牛溪 成渾에 關한 史的考察〉(《亞洲大學論文集》 11, 亞洲大, 1989), 196쪽.

선조는 성혼을 간사한 인물로 매도하고, 이정암과 앞서 왜군과 사통한 변몽룡을 엄벌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조정은 이정암을 전라감사에서 잠시 면직시켰다가 다시 전주부윤으로 재기용하였고 변몽룡은 변방에 충군케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들 사이에서 대외강화에 대한 현실상의 필요론이 대두되고, 호택 또한 조선의 집요한 반대를 예상하여 전임 경략 송응창이 강력하게 통제하던 조선의 敵情에 관한 奏本을 경략부가 차단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양보를 약속하였으므로, 조선조정도 2개월 넘게 끝던 협상 끝에 마침내 그의 요구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명간의 외교적 통로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조선조정과 경략부가 조선의 대리청봉문제로 협상하는 동안 북경에 머물고 있던 사은사 김수는 왜군이 조선에서 철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명의 조선들에게 호소하였다. 경략 고양겸은 그의 대외봉공안에 반대하던 과도관들의 계속되는 논박을 받아 스스로 경략부에서 자퇴할 것을 제의하였고, 명나라 조정도 兵部右侍郎 孫鑣을 신임 경략에 임명하였다.

명이 경략을 빈번하게 교체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외교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가 유병군까지 완전히 철병하기에 이르자, 조선조정은 선조 27년(1594) 정월 명의 강요로 설치된 분조(2차)의 해체에 합의하고 이원화되었던 정치구조나 대외옹전체제를 선조 중심으로 일원화시켰다.

한편 손광은 경략의 직사를 맡았으나 그 역시 왜군을 응징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대외봉공안으로 왜란을 종결시키려고 하였다. 선조 27년 9월 조선에서 對倭奏請使 許瑄이 북경에 가서 명이 일격에 봉공하여 줄 것을 대리로 요청하자 명나라 조정도 10월에 풍신수길에게 封王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명나라 조정은 남관사 소서여안에게 ① 왜군의 조선에서의 완전 철수 ② 貢市의 요구포기 ③ 일본의 조선침략의 영구포기 등을 강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소서여안이 명나라가 일본에 봉왕하면 조선에서의 왜군철수를 맹세하였으므로 명나라 조정도 선조 28년 정월 都督僉事 李宗城을 封倭正使로, 都指揮 楊方亨을 封倭副使로 삼아 심유경의 안내로 조선에 입국케 하였다.

왜군은 명의 봉쇄사가 조선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심유경으로부터 확인받고 풍신수길이 철병명령을 내려 비로소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종성 등 봉

왜사 일행은 11월 하순에야 부산의 왜군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왜군은 봉왜사의 도일을 대기한다는 이유로 전면철병을 유보한 채 심유경을 통해 朝鮮通信使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적 공방전으로 봉왜사의 도일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서행장은 이 사실을 풍신수길에게 보고하려고 봉왜사의 도일에 앞서 심유경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그 동안 일본진영에서 머물고 있던 봉왜정사 이종성은 심유경의 귀환이 늦어지고, 풍신수길이 「割地」·「納女」의 강화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명의 봉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정보에 접하자 선조 29년 4월 3일 부산의 일본진영에서 야음을 틈타 탈주하였다.

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명·왜간의 강화교섭은 결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의 주화와 소서행장은 일본에서 급히 돌아와 사건의 확대를 막고, 명나라 조정에서도 신속히 양방형을 봉왜정사로, 심유경을 봉왜부사로 삼아 대왜 강화의 속행을 왜군에게 분명히 밝혀 그 위기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나라 조정에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경종이 되었으므로 명도 그 준비를 하게 되었다.

라. 조선의 근수사 지연과 회담결렬

풍신수길은 명에서 봉왜사가 나오게 되자 명나라 조정도 자신이 경략부의 강화사에게 제시한 강화약관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으로부터도 할지의 이양을 확약받으려는 망상에서 소서행장으로 하여금 조선에 통신사를 요구케 하였던 것이다.

소서행장과 심유경은 각각 자신의 정부에 강화조건을 속이고 교섭을 추진시켜 왔으므로 풍신수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조선의 강력한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에 대해서 통신사가 아닌 朝鮮陪臣의 봉왜사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선조는 이들의 요구가 있자, 배신의 일본파견을 朝議에 부쳤다. 당시 영의정 유성룡을 비롯하여 2품 이상 47인의 절대다수는 대의명분상 조선배신의 일본행을 반대하였으며, 다만 權徵과 李希得만이 일본의 요구에 따르자 하였고 朴忠侃과 권율은 통신사가 아닌 다른 호칭의 관원을 일본에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그러나 유성룡 등은 이 문제의 결정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조선들에게 촉구하고, 선조까지도 일본의 통신사 요구가 왜군의 철병을 조선배신의 도일 여부와 연계시키려는 일본측의 간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즉각적인 거부만은 유보시키자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정은 조선사신의 일본과견이 명나라 조정과의 협의사항임을 일본에게 알리고 그 결정은 유보하였다.

과연 소서행장은 조선이 배신을 보내면 왜군을 완전 철병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침하겠다고 위협하였고 또 심유경도 조선배신의 봉왜사 수행을 재촉하였다. 조선에서도 집권남인들은 왜군이 완전 철병을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고, 심유경으로부터도 타결 직전에 와 있는 강화교섭이 조선으로 인하여 격렬되었다는 빌미만 잡히지 않으려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자는 의견을 점차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영의정 유성룡은 당시 조선의 안보현실에 대해 남쪽에서 일본, 북쪽에서 여진의 누르하치로부터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임을 주장하여 일본과의 전쟁재개를 먼저 막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하였다.¹⁴⁾ 그가 주도하는 비변사도 배신의 일본과견을 적극 찬성하였다. 그러나 대외강화교섭에 직·간접의 참여를 결사 반대하여 온 선조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웠다.

이리하여 비변사는 국왕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통신사의 호칭이 아닌 봉왜사를 수행한다는 뜻의 跟隨陪臣을 일본에 보낼 것을 선조에게 제의하여 선조 29년(1596) 6월 상순에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三司 등의 반대가 이어지자 선조가 앞서의 동의를 번복하였으므로 조정도 봉왜정사 양방형의 조선배신의 동행 요구까지도 수용할 수 없었다.

한편 명나라 조정과 봉왜사간에도 교섭의 추진절차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었다. 명나라 조정은 조선사신의 도일에 반대하였고 봉왜사의 도일시기를 왜군의 완전철병 후로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방형은 풍신수길의 봉왜사의 도일을 독촉하자, 명나라 조정의 지시를 어기고 封倭誥命과 勅書의 도착을 기다

13) 《宣祖實錄》권 71, 선조 29년 정월 경오.

14) 《宣祖實錄》권 74, 선조 29년 4월 기해.

리지도 않고 일본의 완전철폐 약속만을 믿고 선조 29년 6월 16일 일본으로 떠났다.

봉왜사가 일본으로 떠나자, 소서행장은 조선의 근수배신이 명사를 뒤따르지 않는다면 왜군을 부산 등지에 잔류시킬 수밖에 없다고 조선을 더욱 위협하였다. 심유경도 왜군의 완전철폐를 이행시킬 방도로 근수배신의 명사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조정에 촉구하여 왔다. 왜군진영에 있던 護軍 黃愼까지도 조선배신의 도일여부가 일본의 動兵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정에 보고하여 왔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적정의 정탐이 긴급하다는 필요성을 들어 무신을 근수 배신으로 차임하고 왜군의 철폐가 진행되는 사정을 보아 일본으로 보낼 것을 선조에게 제의하여 다시 동의를 얻어냈다.

반면 명나라 조정은 봉왜사가 왜군의 철폐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으로 떠나자, 일본의 재침을 염려하여 조선에 명군의 출병에 대비할 것을 통보하여 왔다. 이에 선조는 근수배신의 일본행에 제동을 걸고 명에 청병할 것까지 주장하였다.

선조 29년 6월 하순 명나라 조정에서 보낸 봉왜고명과 칙서가 도착하자, 조선조정도 명이 대왜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삼사 등의 계속된 반대에도 선조의 동의하에 문신인 호군 황신을 跟隨上使, 대구부사 朴弘長을 跟隨副使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른 반대론이 이어졌지만 그해 8월 상순 비변사의 주장에 따라 그들의 관직을 각각 敦寧府都正 및 掌樂院正으로 직급을 올려 마침내 근수사 일행은 봉왜사의 뒤를 쫓아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처럼 조정에서 근수사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고 출발시키기까지 무려 2개월이 넘게 걸린 것은 조선들간에 근수사의 일본행을 둘러싼 찬·반론이 치열하였기 때문이었다. 근수사의 일본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선조와 삼사에서는 대의명분상 침략국에 어떠한 사신도 보낼 수 없으며 국가이해상 근수사를 보내도 일본의 재침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비변사 중심의 찬성론자들은 왜군의 재침시기를 늦추고 적정을 정탐하기 위해서라도 근수사를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조선 가운데 찬성론자들도 임진왜란 직전의 통신사행의 경험을 통해

근수배신의 도일이 왜군의 완전철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일본이 書幣를 조선에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자는 강력한 반발이 조정 내에서 일어나자, 영의정 유성룡은 선조 29년 7월 호서지방을 휩쓴 李夢鶴의 난으로 국가가 내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근수사를 일본에 보내는 일이 불가피함을 선조에게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있었다.

통신사를 들여보낸 후에야 나라가 지탱될 것입니다. 이번 역적들의 변란도 또한 왜란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일에는 경중과 대소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뒤따르는 일인데 신하 한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宣祖實錄》 권 77, 선조 29년 7월 경진).

이러한 사실로 보면 조정은 명사의 간청이나 일본의 협박에 못이겨서 근수사를 보냈다가 보다 전쟁의 재개시기를 늦춤으로써 국내의 위기상황을 안정시켜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려는 집권남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풍신수길은 조선근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9월초 명의 봉왜사를 大阪城에서 맞이하여 封王의 의식을 가졌다. 그러나 자신이 요구한 「納女」·「准貢」·「割地」 등의 강화조건이 명나라 조정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자 그는 명과의 강화를 결렬시키려는 목적에서 조선이 보낸 근수사의 도일시기가 지연되었고 근수사가 직급조차 낮은 관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선근수사의 접견을 거절하였다. 풍신수길은 강화교섭을 통해서만 침략목표의 일부나마 조선과 명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로 결정하고 조선과 명의 사신일행을 일본에서 퇴거시켰다. 4년여 동안 진행된 명·왜간의 강화교섭은 결국 결렬된 것이다.

3) 정유재란의 발발

(1) 조선의 일본재침에 대한 대비

조선은 명·왜가 추진한 강화교섭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명나라 조정이 교섭 도중에 명군의 완전철병을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교전당사국간

의 무력균형이 깨졌으므로 풍신수길의 재침을 단행할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명·왜간의 강화교섭이 시작된 선조 26년(1593) 3월부터 일본의 대대적인 재침이 개시되는 선조 30년 7월까지 거의 휴전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고 있었다.

사실 조선은 왜란의 전화와 계사·갑오·을미년의 대기근과 송유진 및 이몽학의 난을 비롯한 반란 등이 계속되었으므로 왜군을 방어하면서 조선군의 자위력을 배양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명이 대왜강화교섭을 진행하고 명군의 단계적 철수를 단행하였으므로 조선은 自守방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조는 우선 조정을 재편하여 대외방어론을 주장하는 영의정 유성룡 중심의 남인들이 정국을 주도하게 하고, 서인의 좌의정 윤두수는 분조의 무군사를 총관케 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대외전 수행전략은 조정의 대외방어론과 분조의 대외진공론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이다.

영의정 유성룡은 앞서부터 전력상 조선군이 대외공격전을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방어전만은 가능하다고 보고, 조선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앙에 訓練都監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東伍軍을 설치하도록 주도하였다. 포수(銃兵手) 등을 양성함으로써 조총으로 무장하여 長兵戰을 보강한 왜군에¹⁵⁾ 대항하도록 왜란의 장기화에 대비하였으며 왜군이 조기에 개전하여 올 경우 조선군은 산성을 거점으로 청야전을 전개할 계획하여 왜군의 진격로를 제어할 수 있는 요해처에 산성을 수축하게 하였다.

반면 분조의 좌의정 윤두수는 조선군 단독의 대외전을 건지하였다. 명군의 완전 철병에 이르러 경략부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으므로 조정도 명의 강요로 성립된 2차 분조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윤두수를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하3도의 군령권을 계속 장악케 하였다.

도체찰사 윤두수는 선조 27년(1594) 9월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으로 하여금 거제의 왜군을 수륙병진으로 공격케 하였다. 이 진공작전은 육군의 부진으로 실패하였으므로 윤두수는 면직되고 서인도 일시 실세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집권남인의 산성 중심의 방어 및 청야전이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는 조

15) 李泰鎮, 《朝鮮儒敎社會史論》(知識産業社, 1989), 215쪽 참조.

정의 기본전략으로 확정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호남에서 산성수축이 진행되었다. 전라감사 이정암의 의견에 따라 호남에서는 南原의 蛟龍, 潭陽의 金山, 井邑의 笠巖, 順天의 乾達, 康津의 修仁, 同福의 瓮城山城이 수축되었다. 영남에서는 객채우의 의견에 따라 伽倻山의 龍起山城 등을 쌓아 선조 28년 6월까지 수축한 산성이 많아졌으므로 조정에서는 추곡을 수납하여 이들 산성에 쌓아두도록 조치하였다.¹⁶⁾

이 무렵 李元翼이 右議政兼四道都體察使로 부임하여 영·호남지방에서 먼저 전쟁과 반란 등으로 야기된 민심의 이산을 수습하는 데 힘써 산성수축의 토목 공사는 부진하였지만¹⁷⁾ 영남에서는 公山·龍起·金烏·富山山城이 보수되거나 개축되었다. 반면 선조 28년 10월에 영의정 유성룡은 한강 이북 4도의 도체찰사를 겸임하여 경기·황해도의 요해처에 축성을 힘썼다. 그 후에도 한강 이남에서 禿城·可隱·公山·天山·婆娑·龍津·上黨山城이 보강되어 鳥談 등 嶺路의 관방시설과 함께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조 29년 9월 명·왜간의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跟隨使가 11월에 비밀서장으로 왜군이 다음해 2월경 재침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오자 왜군이 본격적으로 침공하는 선조 30년 7월까지 약 10여 개월 동안 비변사는 임진왜란의 승·패전을 참작하여 대외전의 수행대책을 수립하였다.

비변사는 먼저 舊義復讐軍을 전국적으로 조직케 하는 한편 서울에 와있던 도체찰사 이원익을 하3도로 급히 보내 도원수 권을 이하 조선군을 총독케 하고, 일선 조선군의 지휘관도 주로 실전경험이 풍부한 의병장 출신의 郭再祐·洪季男·李福男·高彥伯 등과 관군출신의 鄭起龍·韓明璉·李時發·朴名賢 등으로 보강케 하였다. 또 선조 29년 11월 중순 告急請兵奏聞使 鄭期遠을 명에 보내 南兵과 명의 수군을 청병케 하였다.

그리고 비변사는 일본의 재침목표를 한강이남의 재점령으로 보고,¹⁸⁾ 그 침

16) 車勇杰, 〈朝鮮後期 關防施設의 變化過程－壬辰倭亂 前後는 關防施設에 대한 몇 가지 問題－〉(《韓國史論》 9, 國史編纂委員會, 1981), 54~55쪽.

17) 《宣祖實錄》 권 73, 선조 29년 3월 무진.

18) 許善道, 〈壬辰倭亂論〉(《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85), 545쪽에 보면 왜군은 호남을 첫번째 점거목표로 삼았고, 이런 까닭에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을 제거하려는 이간책을 자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두번째 목표는 서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공시기를 선조 30년(1597) 2월과 7월 사이로 예상하였고, 그 침공로는 영남에서 서울로 통하는 직행로와 영남에서 남원을 경유하여 전주·공주·서울로 이어지는 호남을 거치는 우회로로 추정하였으며 왜군이 동남계절풍이 부는 7월을 기해 우회로를 택해 영남에서 호남으로 선공하여 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선군의 대왜전 수행전략은 도체찰사 이원익을 비롯한 집권남인의 의견에 따라 지상전에서 임진왜란 때 幸州山城의 대첩과 仁川山城 및 水原 禿城을 잘 방어한 예를 참작하여 山城固守防禦戰과 淸野戰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비변사의 결정은 조선육군이 왜군에 비해 전력상 매우 열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선군이 왜군의 진출로 중 요해처의 산성을 고수하여 적군의 예봉을 꺾고 그들의 군량보급로를 끊어 왜군이 전진하여도 싸울 곳이 없고 후퇴하더라도 약탈할 곳이 없어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는 방어 전략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왜군의 진출로라고 예상되는 요해처의 산성은 조선군의 방어거점으로 급히 전환되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공로 가운데 중로에 위치한 창녕의 화왕산성·대구의 공간산성·선산의 금오산성, 좌로에 위치한 경주의 부산산성, 중·좌로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조령의 關防·충주, 충주에서 다시 분기되는 양로에 위치한 여주의 파사산성, 안성의 瑞雲山城·죽산의 右城·광주의 南漢山城 그리고 왜군이 호남을 침공할 때 예상되는 침입로에서 安義의 黃石山城·鎭安 북방의 龍潭山城·三嘉의 岳堅山城은 모두 대왜전의 방어처가 되었다.

반면 조신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왜수군과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비변사는 왜군의 도해 및 군수보급로인 부산 앞 조·일해상로를 조선수군으로 하여금 선제 공격하도록 결정하고 선조 29년 11월 조선수군이 巨濟 長門浦로 진출하여 이 곳을 함대기지로 삼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 바다를 건너오는 왜군을 해상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왜수군이 閑山에서 참패한 후 해전을 기피하면서 지상군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남해연안의 요새화된 함대기지를 거점으로 연안에서만 작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왜수군의 거점을 뒤에 두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은 왜수군의 거점을

수군과 육군이 합동으로 공격할 것을 조정에 촉구하면서 조정의 무리한 해상 작전의 명령에 신중하게 임하였다. 선조와 조신들은 이에 실망하였고 특히 진공론을 주장하여 온 서인들은 이순신을 집중적으로 비난하였다. 이에 조정은 조선수군이 왜수군과 결전하는 일에 겁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忠淸兵使 元均을 慶尙右水使로 전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조정은 도원수 권율의 권유로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의 강화교섭을 둘러싼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양자의 行間工作을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도체찰사 이원익에게 가등청정이 선조 30년 1, 2월 사이 도해할 때 조선수군이 가등청정군을 해상에서 공격하는 작전을 결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왜군 역시 재침의 결정적 장애가 될 통제사 이순신의 수군을 유인하여 격멸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정이 소서행장에게 가등청정의 제거를 전제로 통교할 것을 청하자, 소서행장은 첩자인 要時羅로 하여금 이순신을 제거토록 역공작을 시도하여 가등청정의 도해시기를 慶尙右兵使 金應瑞에게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통제사 이순신은 이 정보를 의심하였으나 도원수 권율의 명령에 따라 가등청정이 도해한다는 해역으로 휘하 함대를 빈번히 출동시키면서도 결정적인 해상작전만은 유보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자, 선조는 격노하여 무모한 원군을 세 수군통제사로 임명하고 이순신을 하옥시켰다. 이로써 조선수군은 패전을 자초하게 되었다.

한편 비변사는 왜군이 서울로 북상할 경우 그 북상로의 요해처에서 적군을 저지하거나 서울을 지킬 방어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명군이 구원하러 올 경우 조·명 연합군의 작전 및 명군에 대한 군량공급 대책을 수립하였다.

조선군은 왜군과 1차로 접전지역이 될 영남에서 선산의 금오산성·경주의 부산산성·삼가의 악견산성·대구의 공산산성·가야의 용기산성·창녕의 화왕산성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왜군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침공할 때는 남원·전주에서, 다시 충청도로 침입할 경우는 공주에서 방어하기로 하였고, 贊劃使 이시발은 조령·죽령 등의 요해지에 복병케 하였고 충청병사 李時言은 秋風嶺의 赤巖을 방비케 하였다.¹⁹⁾

19) 《宣祖實錄》권 82, 선조 29년 11월 신축.

하3도의 감사는 모두 산성에서 고수케 하였고, 도체찰사 이원지도 星州로 남하하여 선산의 금오산성을 지키면서 조선군의 산성고수전과 청야전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선조는 산성고수전의 준비를 황해도에까지 실시케 하였다.

선조와 조선들은 임진왜란초와 대조적으로 국가의 근본인 서울의 방어를 위해서 병조판서 이덕형의 지휘하에 동·서·남·북의 巡檢使가 도성의 자체방어시설을 마련케 하였고, 영의정 유성룡 등의 주장으로 임진왜란시 江灘防禦를 잘해낸 경험을 살려 한강을 지키기로 하였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성의 광역방어책은 매우 계획적인 것으로 驪州 이하 楊州·廣州에 이르는 江灘의 방어처 25곳을 선정하고 京畿左防禦使 邊應星의 휘하 3천여 명이 중심이 되어 방어케 하고, 이 방어선이 무너질 때 廣津에서 西江까지는 聽用軍의 砲·殺手 1천여 명이 지키게 하였다.

한강 상·하류의 방어는 상류에서 승장 惟政과 義嚴이 남한산성과 파사산성을 각각 지키고, 하류에서 경기수사 李思命이 속오군을 모아 私船으로 강화에서 한강으로 내운케 하였다. 이로써 선조 30년 3월 중순까지 경기 요해처의 산성수축은 거의 완료되어 방어훈련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무렵 통제사 원균은 부임한 이래 휘하 함대와 왜함대의 해상결전을 기피하면서 연해안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도체찰부와 도원수부가 부산 앞바다로 진출하여 조·일해상로의 차단작전을 촉구하여 오자, 전임 통제사 이순신의 주장이었던 조선수륙군의 병진공격작전을 조정해 건의하였다. 그는 휘하 함대가 부산 앞바다로 진출하여 작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목에 위치한 安骨浦와 加德島를 수륙에서 먼저 협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는 도원수 권율이 이 작전에 반대하자 조선군의 지휘권을 권율에게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균의 건의를 묵살하였다.

한편 명군이 내원하기 시작하고, 왜군도 6,7월경 재침하리라는 정보가 이어지면서 왜수군이 안골포·가덕도·부산포·서생포 등지에서 작전활동을 점증시키자 비변사는 조선수군이 선제공격한 것을 도체찰사 이원익에게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원익과 권율은 통제사 원균으로 하여금 하3도 수군 3만 명과 함선 134척을 한산도에 집결시키게 하고, 함대를 두 선단으로 재편하여 한산도를 기지로 교대로 해상에 나아가 왜함대와 결전케 하였다. 그러나 원균

이 이 해상작전의 실시를 기피하자, 이원익은 종사관 南以恭을 한산도 統制營에 보내 조선함대를 한산도와 雲島에 반분하고 교대로 해상작전을 전개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로써 통제사 원균도 휘하 함대로 하여금 조·일 해상로의 차단을 위한 선제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조선은 僉知中樞府事 權恢을 告急使로 명나라에 보내 구원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병부좌시랑 邢玠로 經略禦倭兼理糧餉, 右僉都御史 楊鎬로 經理朝鮮軍務, 都督 麻貴로 提督備倭總兵官을 삼아 55,000여의 병력을 출병시켰다. 이들 원군의 선발대는 선조 30년(1597) 6월까지 조선에 들어와 부총병 楊元은 남원, 유격 茅國器는 성주, 유격 陳愚衷은 전주, 부총병 오유충은 충주에 주둔하였고, 경리 양호는 평양에서 도둑 마귀는 서울에 들어와서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였고 후속군도 계속 이어졌다. 이와 같은 명군의 포진은 왜군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먼저 침공할 것을 예상한 조선조정이 명군에 요구한 것으로 명군의 주둔지도 가능하면 군량을 선운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다.

(2) 일본의 재침

조·명군이 선조 30년 6월 중순까지 일본의 전면적인 재침에 대비하여 지상에서 방어전을, 해상에서 선제공격전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이에 왜군도 재침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호남으로 향한 수륙병진의 침공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조 29년 12월과 선조 30년 정월 사이에 왜군의 선봉인 소서행장과 가등 청정 등은 多大浦(동래)·釜山浦(부산)·西生浦(울산) 등지에 교두보를 재구축하였고, 선조 30년 3월 중순부터 왜군의 주력 141,500여 명이 계속 바다를 건너 왔다. 왜육군은 4,5월 사이에 거제·안골포·가덕도 등지를 장악하고, 金海·昌原·咸安·晋州·固城·泗川·昆陽 등지를 왕래하면서 작전의 전개 지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왜수군 역시 4월경에 藤堂高虎(도토 다카도라)·脇坂安治(와키자카 야스하루)·加藤嘉明(가토 요시아키라) 등이 연합함대를 구성하고 거제도 등 요새화된 함대 기지를 거점으로 남해안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7월에 들어와서 왜육군과 합동으로 통제영이 있는 한산도의 조선수군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소서행장은 이 작전을 위해 요시라로 하여금 일본 후속군의 도해시일을 조선군측에 알려 조선수군을 유인하려고 하였다.

도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조선수군이 부산 앞 해역으로 나아가면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들의 의견조차 무시하였다. 또한 남원을 방어하던 부총병 양원이 선조에게 조선수군으로 하여금 왜군의 도해 및 보급로를 공격할 것을 제의하자, 조정은 조선수군의 조·일해상으로 차단작전을 도체찰사와 도원수에게 독촉하였고 이들은 통제사 원균에게 즉시 이 작전을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균은 도체찰사 종사관 남이공의 감독하에 선조 30년 6월 18일부터 3도수군의 전함선 20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의 통제영을 출항, 무모하게 부산앞 바다를 건너는 왜군을 찾아 공격에 나섰다 6월 19일, 원균의 함대는 안골포의 왜수군을 급습하고 가덕도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버리고 인접 해안이나 섬에 상륙하여 대항하다가 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軍의 원병을 얻어 반격하였으므로 寶城郡守 安弘國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원균도 七川島(거제군 河淸面)로 후퇴하였다가 한산도로 귀환하였다.

이 패전에 낙심한 원균은 7월 8일 경상우수사 裴楔로 하여금 熊川의 일본 연합함대를 다시 공격케 하였으나 또 패하였다. 이에 권율은 원균을 도원수처(泗川郡 昆陽面)에 소환하여 질책하였다.

원균은 권율의 처사에 격분하여 휘하 전함선을 이끌고 부산의 왜본영을 급습하기로 정하고, 7월 14일 한산도를 출항하였다. 이 때 부산앞 해역에는 600여 척의 일본 대함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한산도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 연안의 곳곳에서 왜군이 조선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통제사의 함대는 부산 앞바다의 絶影島 해역까지 진출하였지만 풍랑과 왜함의 연이은 유인 공격에 지쳐서 회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함대가 퇴로상 정박할 수 있는 가덕도와 거제 永登浦 등지에는 왜군이 미리 와서 선점하고 있다가 상륙하려는 조선수군을 지상에서 공격하여 왔으므로 14일 저녁에야 간신히 거제 漆川梁에 입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왜수륙군이 다시 야습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조선수군은 지리멸렬하였다. 다음날 원균은 이곳을 탈출하려다 도진의 홍군의 추격을 받아 전사하였고, 전라좌수사 李億祺 등도 모두 전사했다. 다만

경상우수사 배설만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도로 후퇴하였다가 도망하였다.

조선수군의 한산도방어가 무너지자, 왜수군은 일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므로 왜군은 호남에 대한 수륙병진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앞서 풍신수길은 왜군의 채침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영·호남을 전면 침공할 것을 왜장수들에게 다시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왜군은 8월 상순 육군을 좌우군으로 나누고 경상좌우도의 요충인 진주와 전라도 방어의 핵심 남원 및 그 寶藏인 전주를 차례로 공략하려는 계획하에 진군하였다. 왜수군도 남해안에 상륙하거나 섬진강을 거슬러 남원공략에 나서 왜군은 호남으로 수륙병진하여 왔다. 좌군대장 宇喜多秀家(우키다 히데이에)와 그 선봉인 소서행장은 고성·사천·하동을 경유하여 전주로 향하였다. 우군대장 毛利秀元(모리 히데모토)과 그 선봉인 가등청정(가토 기요마사)은 서생포·密陽·草溪를 경유하여 진주로, 鍋島直茂(나베시마 나오시게)는 김해·창원을 경유하여 진주로 각각 향하였다. 왜수군도 섬진강을 거슬러 岳陽으로 나아갔다.

한편 조·명군도 왜군의 전면공격에 대비하여 도체찰사 이원익은 선산 금오산성에, 도원수 권율은 성주·금산방면에,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합천에, 求禮 縣監 李元春은 남원에 포진하였고, 또한 도독 마귀의 지휘로 양원·오유충·진우충·모국기는 각각 남원·충주·진주·성주를 방어하고 있었다.

일본의 좌군과 수군은 求禮와 雲峰에 집결하여 8월 12일 남원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당시 성내에는 接伴使 鄭期遠·전라병사 이복남 등이 이끄는 조선군과 부총병 양원이 이끄는 요동병 총 4천여 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 조·명합동 수성군은 열세한 병력으로 군·민이 3일간 항전하였으나 수성전의 경험이 없던 양원의 작전실패로 8월 15일 남원성은 적에게 함락되어 이복남 등 조선군의 장수들은 모두 전사하였으며 양원 등 명병 100여 명만이 탈출하였다.

왜군은 남원성을 함락시킨 후, 전주로 향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유격 진우충마저 도망하였으므로 전주까지 무혈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남원성 함락을 위해서 그 주력을 집중시키려고 육해로 대우회작전을 전개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5일 함락까지 20여 일간을 소비하였으므로 조·명군은 왜군

의 복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7월 22일 3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칠천량해전으로 붕괴된 조선수군을 왜수군의 추격을 받지 않고 다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원성전투는 왜군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서울로 향한 북상작전에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전주로 진격하려던 왜우군의 선봉인 가등청정은 서생포를 출발하여 창녕·安陰(현 安義)를 경유하면서 창녕에서 경상좌방어사 곽재우가 지키던 화왕산성을 공격하려다가 守城軍의 위세에 눌려 黃江을 건너 경상우도로 피해갔다. 이 때 곽재우군은 가등청정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가등청정군은 영·호남간의 요충인 안음 黃石山城에서도 안음현감 郭越과 함양군수 趙宗道の 수성전에 직면하여 성을 함락시켰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 전투에 참전하였던 과도직무군은 다시 성주방면으로 북상하여 8월 중순 高靈에 진출하려다가 도체찰사 이원익 휘하의 尙州牧使 鄭起龍의 군대에게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이로써 임진왜란 때 왜군의 북상로 가운데 중로로 진출하려던 왜군은 조선군에게 저지되었다. 이리하여 왜우군은 가등청정을 필두로 전주에 들어가 일단 왜좌군과 합류하였던 것이다.

3) 조·명군의 활약

(1) 조·명군의 활동상

전주에서 집결한 왜군 중 좌군의 일대는 益山에서 扶餘로, 다른 일대는 鎭山·珍山에서 懷德으로 진출하였고, 우군의 가등청정은 淸州로, 모리수원과 黒田長政(구로다 나가마사)은 공주를 거쳐 서울로 북상하였다. 남원성패보에 접한 조정은 명군과 함께 서울을 지키기로 하여 함경감사 宋言愼의 1,200여군이 서울로 왔고, 평양에 있던 경리 양호도 서울로 들어왔다.

양호는 먼저 조·명군의 패전으로 야기된 조선의 정치·외교적인 혼란을 수습하라고 경략 형개의 世子監軍 요구에 따른 선조의 禪位 주장을 일축하고, 감군 蕭應宮의 대외강화교섭의 재개론을 배제하고 조선군과 함께 명군이 북상하는 왜군과 결전할 결의를 굳건히 하였다.

이 때 서울로 향하던 왜우군은 조선군의 공격을 받았다. 9월초 공주로 진출하려던 왜군은 礪山·恩津 등지에서 충청방어사 朴名賢 부대의 요격을 받았고, 懷德·林川·韓山방면으로 침입한 왜군도 충청병사 李時言의 방어전을 겪었다. 특히 그 선봉인 가등청정은 전주·진전을 경유하여 청주로 향하였고, 모리수원의 1만여 군과 흑전장정의 5천 군만은 天安을 거쳐 稷山까지 북상하였다.

한편 명군도 왜군이 금강을 건널 때부터 哨探兵으로 적의 동정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여산에 이르자, 경리 양호와 도독 마귀는 천안에 주둔중인 명병을 용맹한 휘하병으로 교체하여 왜군의 북상을 견제하면서 그 후방에는 8천 명의 명군으로 대비케 하였다.

9월 4일 흑전장정군이 천안에 이르자, 명군은 그날 야음을 틈타 비밀히 부총병 解生, 참장 楊登山, 유격 牛白英·頗貴 등 2천의 정예병을 긴급히 출동시켜 왜군의 진출로에 잠복하고 있다가 5일 흑전장정의 선봉대가 직산 북방 10여 리에 위치한 素沙坪으로 진출하자 이들과 접전하였다. 양군은 본대까지 합류하고 다음날까지 전투를 계속하였지만, 명군은 증원군까지 합세하였으므로 왜군이 패퇴하였다(직산대첩). 이 전투는 대화전이이었으므로 명군의 평양수복전에서 처럼 결정적인 승리는 얻을 수 없었지만 왜군의 서울로의 진격을 좌절시켜 왜군도 이를 계기로 후퇴하게 기었다

(2) 조선 수군의 활약

통제사 이순신의 함대가 해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자 육상에서 왜군의 전면적 후퇴를 계속 강요하게 되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왜수군이 남원성진투에 동원되었다가 해상작전의 임무로 복귀한 직후인 8월 18일 長興 會寧浦에서 배설의 패전선 12척을 인수받아 통제사의 함대로 재편하였다.

한편 왜수군은 등당고호 등이 연합함대를 편성하여 왜육군의 북상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선수군을 찾아 함대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순신은 8월 28일 海南 於蘭浦에서 왜수군의 정찰선대와 접전하여 적선 8척을 격퇴시키고, 수적으로 우세한 왜연합함대와의 조우전을 피해 통제영을 珍島 碧波津으로 옮기

고 왜연합함대가 진도 서쪽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鳴梁에서 막고자 하였다.

명량은 속칭 울돌목이라는 해협으로 최소 폭이 약 200m이며 만조 때 최대 유속은 11.5노트로 적은 수의 함선으로 많은 수의 적 함대와 결전할 수 있는 천혜의 해전장이었다. 이곳을 이순신은 조선수군이 왜수군과 대결할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200여 척의 일본 연합함대는 이순신의 함대를 쫓아 9월 7일 어란포로 향하였다. 50여 척의 선발함대는 어란포로 원접하는 가운데 돌격함 10여 척이 이순신의 함대에 근접하려 하였지만 심한 풍랑으로 실패하고, 그날 밤 야습까지 감행하여 왔지만 이를 예상한 이순신의 대처에 의해 격퇴되었다.

9월 14일 이순신은 왜함대를 명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휘하 선단을 벽파진에서 다시 우수영으로 옮기고 다음날 명량에서 싸울 것을 결심하여 제장회의를 소집하고 ‘옛 병법에 결단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라고 수군장병의 결전의식을 고취시켰다.

9월 15일 등당고호·來島通總(구르시마 미치후시) 등이 이끄는 130여 척의 연합함대가 명량으로 진입하여 오자, 이들의 동정을 계속 감시하여 왔던 이순신은 휘하 함선을 鳴梁峽中에서 대기하게 하였다가²⁰⁾ 이들 12척의 함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순조를 타고 峽水路로 진입하는 왜함대를 화포와 총통으로 공격하면서 집전하였다.

이순신은 조류가 조선함대에 순조로 바뀌자, 총공격을 감행하여 선체가 약한 왜선을 31척이나 격파하고 적장 내도통총을 전사케 하는 일대 승리를 올렸다(명량대첩). 이로써 이순신은 12척의 함선으로 130여 척의 왜함대를 무찌르는 세계해전사의 신화를 남기게 되었다. 이 후 왜수군은 조선수군과 해전을 기피하고 더 이상의 서쪽 진출을 포기하였으므로 조선수군은 남해의 해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었다.

(3) 조·명군의 추격전

조·명군은 육·해전에서 왜육군의 북상과 왜수군의 서해로의 진출을 좌절

20) 金一相, 〈鳴梁海戰의 戰術的 考察〉(《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197쪽.

시키면서 왜군의 전력에 임진왜란의 초기보다 약세임을 파악하게 되었으므로 후퇴하는 왜군을 맹렬하게 추격하였다.

경기감사 洪履祥 등은 蘇草坪에서 왜군을 추격하였고, 경상우병사 정기룡은 9월 중순부터 청주에 머물면서 20일경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가등청정군의 일부 부대가 聞慶·比安·軍威를 경유하여 達城郡 공산방면으로 후퇴할 때 이를 報恩 부근에서 공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보은전투). 이 전과는 도원수 권율이 서북병 수천을 지휘하여 가등청정을 비안까지 추격하고 경상감사 李用淳이 義城방면에서 왜군을 견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였다. 앞서 가등청정은 경리 양호에게 靑山에서 쫓기고 있었으므로 울산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독 마귀는 직산(소사평)전투 후 퇴각하는 모리수원의 주력을 뒤쫓아, 부총병 彭友德·유격 擺賽·柴登科 등으로 하여금 금강까지 추격케 하여 진천의 왜군도 荊江을 떠났다. 이를 추격한 명군은 연전연승하여 왜군도 영·호남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우회다수가의 왜좌군은 호남을 석권하고 충청 서부방면으로 진출하였지만 우군의 복상이 좌절되자 9월 상순경부터 舒川에서 익산방면으로 회군하였고, 소서행장도 중순에는 井邑을 거쳐 順天으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왜의 정유재침은 육·해전에서 모두 실패로 끝나 왜군은 종전되기까지 수세와 방어로 일관하게 되었다.

4) 일본군의 패퇴

(1) 조·명연합군의 반격전

조·명군의 추격전에 몰린 왜군은 전면전을 개시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모든 전선에서 총퇴각하여 동쪽으로 울산·機長에서부터 서쪽으로 남해·순천에 이르는 남해 연안의 요충지에 성을 쌓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명나라 조정도 이 기회를 틈타 중국을 위협하는 조선내 왜군을 소탕하려고 하자, 경략 형개와 경리 양호는 대왜반격전을 계획하고 三協의 공격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그 주된 공격목표를 부산과 함께 조·일해상로에 위치한 가등

청정의 거점인 울산성으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왜군의 군수보급자 도해를 위한 왜군의 교두보로 왜군이 지키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왜군도 군량보급로와 퇴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선조 30년(1597) 10월 하순 제독 마귀와 선조는 조·명 연합군을 구성하여 반격에 나설 것을 협의하고, 조선군은 초탐진과 유격진 및 명군의 향도와 전투 그리고 군량의 조달과 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조선군의 역할 비중이 매우 컸으므로 경리 양호는 선조에게 친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명군의 작전계획은 4만여 병력을 左·右·中協으로 分軍하여 각 협을 부총병인 李如梅·李芳春·高策이 맡고, 경리와 제독은 좌·우협을 지휘하여 경주에 집결시킨 후 울산의 가등청정을 공격하고, 중협군만은 호남으로 남하하여 남원을 거점으로 순천의 소서행장이 가등청정을 구원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었다.

이 때 조선군도 각 협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조정은 조선군을 3영으로 나누어 충청병사 이시언의 2천여 병력은 좌협에, 경상우병사 成允文·경상좌방어사 權應銖의 2,200병력은 중협에, 경상우병사 정기룡·경상우방어사 고언백의 1,300병력은 우협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황해·평안·강원·함경도에서 차출된 2천 명씩을 각 협에 추가로 배치시키기로 하여 도원수 권을 휘하의 총 11,500명의 군대가 명군과 함께 작전하게 되었다.

한편 조정은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평양수복 후 왜군을 무력전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도 이 기회를 잃게 된 최대의 요인을 작전의 적기에 군량을 공급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반성하고,²¹⁾ 이 작전에 필요한 군량조달과 공급에 치밀한 계획과 조치를 취하였다.

명나라 조정도 20여 만 석의 지원곡을 약속하면서 조선에서 5만여 작전군의 한달분 군량을 작전지 근처의 군수보급기지에 먼저 비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정은 임진왜란 때 인력에 의존한 군량수송으로 야기되었던 난점을 고려하여 해운과 선운을 계획하고, 명군의 주둔지는 가능한 한 해로와 수로로 연계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내륙지역만은 駄運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은 당시 해로가 결빙되어 불통이라는 이유로 약속한 지

21) 李章熙, 〈壬亂中 糧餉考〉(《史叢》 15·16, 高麗大, 1971), 373쪽 참조.

원곡을 조선에 보내지 못했으므로 조정은 조·명 연합군의 반격전에 필요한 군량의 절대량을 국내에서 조달·공급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병신·정유년의 풍작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정유년 호조의 집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곡식의 전국재고량은 민간이 소유한 수량만도 종자를 포함하여 米 23만여 석, 豆 23만여 석, 皮雜穀 49만여 석에 이르렀던 것이다.²²⁾

군량 조달의 총책임 호조판서 김수는 작전개시 직전까지 정유재란을 면한 경상좌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전세를 수납하여 작전군의 1개월 보급량의 군량을 충주·공주·남원·안동·밀양·경주·의령에 일단 조치하였고, 특히 조·명연합군의 작전거점인 경주에 26,000여 석, 그 배후지인 안동에 2만여 석을 비축하였다.²³⁾

병신·정유년의 풍작은 영남의 민중들에게 크게 작용하여 이 기회에 왜군을 조선 영토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전의로 연계되어 군량을 마련하고 운송하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낳게 되었다. 이 결과 전투가 종결된 후 대구·경주·영해 등지에는 1만여 석의 군량재고가 남아 있게 되었다.²⁴⁾

조정이 군량을 마련하자, 선조 30년 12월 상순 4만여의 제독 마귀의 군대는 서울을 떠났는데 당초 순친의 소서행장을 견제하는 임무가 부여된 중형군까지 중도에서 울산공격에 합류하였다. 이리하여 조·명 연합군은 경주에 집결하게 되었고 도원수 권율과 경리 양호도 뒤따라 경주로 갔다.

12월 20일 5만 천여 조·명 연합군은 경주에서 집결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울산 烏山城을 포위·공격하여 선조 31년(1598) 정월 4일까지 왜군과 혈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1차 울산성전투 또는 도산성전투라고 한다. 이 攻圍戰은 시종일관 조·명 연합군의 공성전과 왜군의 수성전으로 이어졌다. 二重城인 도산성의 외성은 토성과 목책으로 수축되어 있어 개전 초기에 돌파하였지만, 내성은 험한 지형을 최대한 살려 석축으로 쌓고, 土堀과 房屋를 적절히 배치하여 조총전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성을 공격하는 기계와 기구를 준비하지 못한 조·명 연합군은 화포공격등 화공전만으로 힘을 쓰지 못하였다. 그

22) 《宣祖實錄》권 92, 선조 30년 9월 기축.

23) 《宣祖實錄》권 95, 선조 30년 12월 기묘.

24) 《宣祖實錄》권 96, 선조 31년 정월 기유.

리고 성의 배후지는 바다로 통하여 서생포와 부산포방면의 왜군이 응원하여 왔으므로 조·명연합군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많은 부상자와 전사자를 남긴 채 공위전을 풀고 회군하였다.

그러나 정유재침을 주장한 가등청정도 시종 군량부족과 식수마저 끊긴 열세 속에서 최악의 고전을 경험하게 되어 왜란이 종결될 때까지 복상을 단념하고 수성에만 힘쓰게 되었다.

조선군은 이 공위전에서 용맹성을 발휘하였다. 조선군은 개전초에 명군과 함께 도산성의 외성을 돌파하는 전투에 참가하였고, 별장 金應瑞는 왜군의 식수원과 급수로의 차단작전을 주도하였다. 또 조선군은 단독공격전에 나서도 산성의 목책 안까지 돌입하여 왜수성군과 근접전 및 화공전을 전개하였다. 철수작전시에 경상우병사 정기룡은 조·명 연합군의 퇴로를 확보케 하는 활약상을 보였다.

(2) 조·명연합군의 4로 총공격

경략 형개는 선조 30년 12월 하순 조·명 연합군의 반격작전이 실패로 끝나기 직전에 서울로 와서 왜군을 제차 전면공격하려는 작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1차 울산성전투 후 방어형인 명군의 배치를 공격형의 전진배치로 바꾸어 선조 31년 7월 하순에는 조선에 들어와 있던 66,000여의 명군을 분군하여 동로의 안동·新寧·義城·醴川·迎日·長鬐에 25,000의 병력을, 중로의 선산·선산과 고령간 지역·상주에 13,000병력을, 서로의 남원·전주에 8,000의 병력을 주둔케 하였다. 그리고 증파 중인 육군 12,000의 병력을 동·중로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명의 수군도 이미 도착한 유격 季金の 3천 군이 통제사 이순신의 조선수군과 합류하였고 도착 예정인 도독 陳璘의 5천 군은 水路에 배치하고 1만여 육병을 서로에 추가한 후 명의 수륙군이 동·서·중·수로로 병진하여 왜군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4로군의 총공격 시기도 명군의 증원이 완료되는 선조 31년 9, 10월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 증원군의 도착이 늦어지고 군량공급의 조치도 불확실한데다 이 계획에 적극적이었던 경리 양호가 1차 울산성전투의 패전논의로

經略贊劃 丁應泰에 의해서 명나라 조정에 탄핵당하고 조선까지 무고되어 政情이 불안하였으므로 작전의 조기 결행은 어려웠다.

당시 왜군은 경상좌도의 울산·양산·동해와 우도의 김해·창원·웅천·고성·거제·진주·곤양·남해·사천 그리고 전라좌도의 순천 등지를 점거하고 있었다.²⁵⁾ 그러나 울산의 가등청정은 전투를 재개할 의사를 포기하고 있었고 순천의 소서행장도 수세에 치중하였다. 사천의 도진의홍만이 휘하 부대를 여러 소대로 나누어 영·호남 등지로 유격전을 전개하여 왔다.

도진의홍군의 유격전에 맞서 조·명군은 3월 24일 경상우병사 정기룡이 부총병 解生과 함께 三嘉에서 물리쳤고(삼가부근전투), 4월 8일 전라병사 李光岳과 참장 李寧茂에서 격퇴시켰다(무주전투). 4월 20일에는 정기룡과 부총병 이령이 함양 沙斤驛 부근에서 대파하였고(함양 사근역전투), 7월초 정기룡은 德山에서 막고(덕산전투) 하순에 명군은 光陽 知分川에서 물리쳤다(광양 지분천전투). 이로써 도진의홍도 사천에서 묶이게 되었다. 앞서 6월에 소서행장군은 순천방면에서 준동하였지만 전라병사 이광악이 유격전으로 대응하여 倭橋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차 울산성전투 후 선조 31년에 들어와서 조·명 연합군의 총공격이 있게 되는 9월까지 유격전을 제외하고 전투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것은 조·명군이 전면 공격을 준비하였던 반면 왜군은 수세에 몰리는데다 5월에 들어와서 극심한 군량부족으로 순천의 소서행장·울산의 가등청정·사천의 도진의홍만이 잔류하고 그 주력이 본국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정은 명군이 서울로 들어오는 선조 30년 5월부터 선조 31년 2월까지의 조·명군의 군량을 병신·정유년의 풍작을 조달원으로 경상·전라·충청·경기·황해·강원도에서 田稅倉米 20만여 석을 수납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²⁶⁾

그러나 명군은 총공격을 위해서 66,000명의 병력을 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면서 공격이 개시되는 선조 31년 9월까지 후속군 4만여 명의 증파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정도 군량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영의정 유성룡은 예정된

25) 《宣祖實錄》 권 104, 선조 31년 9월 경술.

26) 《宣祖實錄》 권 98, 선조 31년 3월 무자.

조·명 연합군의 총공격을 위해서 선조 30년(1597) 5월에서 31년 4월까지 소요된 수량인 22만여 석을 참작하여 1년간 필요한 군량을 미곡 30만여 석으로 추정하였다.²⁷⁾ 이를 마련할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서 경략 형개와 경리 양호는 군량의 조달대책으로써 장기적으로 명군의 둔전과 단기적으로 조선곡의 조달 및 명곡의 지원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명군의 둔전설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일본원정을 위해 원에서 설치하였던 征東行省의 폐해를 재현시킬 것이라는 영의정 유성룡의 주장에 따라 조선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서²⁸⁾ 조·명간의 논의단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곡의 조달은 명군의 대규모 내원과 계속되는 주둔으로 그 한계를 드러냈으므로 명나라 조정이 약속하고도 조선까지 운반하지 못하고 있는 명의 원곡 30만여 석의 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²⁹⁾

이 무렵 경략 형개는 요동에서 악화되고 있는 撻者들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 조선에서 예상되는 명군의 군량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명곡의 지원과 명 증원군의 조기 출병을 명나라 조정에서 조치케 하려고 선조 31년 3월 18일 요동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앞서 명나라 조정도 해병기를 맞아 20만여 석의 군량을 의주로 해운·육운하여 왔고 많은 명곡을 운반중에 있었다.³⁰⁾

3로에 배치된 명군도 선조 31년 4월에 들어와 군량의 결핍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조선조정도 주둔중인 명군과 증원될 명 후속군을 위해서 명곡의 해운에 나섰다. 당시 명곡을 해운할 수 있는 조선의 능력은 1회 5만여 석이나 되었으므로³¹⁾ 4월 23일 105척의 명곡 운반선대는 20일 예정으로 장연을 떠나 의주로 가서 5월말 天津의 쌀 7,400여 석과 山東의 좁쌀 17,930여 석 및 황두 4,650여 석을 처음으로 京江에 운반하여 왔다. 그 후 9월 말까지 명곡 약 22만여 석을 해운하여 왔다. 이 명곡은 다시 충주·여주·은진·전주·나주로 해운·강운되어 조·명 연합군의 4로 총공격을 위한 군량으로 공급되

27) 《宣祖實錄》권 98, 선조 31년 4월 계미.

28) 《宣祖實錄》권 87, 선조 30년 4월 계유.

29) 《宣祖實錄》권 98, 선조 31년 3월 기유. 1597년 10월 에서 이듬해 3월까지 주로 육운에 의해서 명원곡이 조선에 공급되었지만 그 수량은 소미 14,000여 석, 황두 16,000여 석에 불과하였다(《宣祖實錄》권 98, 선조 31년 3월 신사).

30) 《宣祖實錄》권 98, 선조 31년 3월 갑인.

31) 《宣祖實錄》권 99, 선조 31년 4월 계미.

었다.³²⁾

명의 증원군도 계속 조선으로 들어와 6월까지 제독 유정과 董一元軍이 서울에 도착하였고, 뒤이어 도독 진린의 수군도 내원하게 되었다. 명수군은 조선수군의 한산도방어가 실패한 후 왜수군이 서해로 진출하여 산동지방을 해상으로 침공하는 것을 막고,³³⁾ 명국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려는 임무수행을 위해서 곧 남하하였다. 즉 진린이 이끄는 浙江水師 500여 척의 함대는 唐津에서 정박하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 당시 莞島郡 古今島에 통제영을 설치하고 전라좌우도의 내해를 제어하고 있던 통제사 이순신의 함대와 조·명연합함대를 구성하고 7월부터 倭橋의 왜군을 해상에서 봉쇄 견제하는 함대작전에 들어갔다. 제독 유정과 동일원도 7월 하순 각각 전주와 성주로 남하하였다.

경략 형개도 명나라 조정이 天津巡務 萬世德을 신임 경리에 임명하고 명국과 증원군을 보내주자 8월초 서울로 돌아와서 귀경한 4로의 제독과 협의하여 9월 중순 조·명 연합군이 4로에서 총공격할 것을 확정하였다. 조·명연합군의 4로 총공격 계획을 보면 제독 마귀는 동로로 나아가 울산 도산성의 가등청정을, 제독 동일원은 중로로 나아가 사천 新賽의 도진의흥을, 제독 유정은 서로로 나아가 순천 왜교의 소서행장을, 도독 진린은 수로에서 왜군을 협공하기로 하여 조·명 연합군이 4로로 수륙병진하여 왜군을 전면 공격하기로 하였다.³⁴⁾

이에 따라 조정은 평안·강원·경상좌도군을 동로에, 경기·황해·경상우도군을 중로에, 충청·전라군을 서로에, 이순신의 수군을 수로에 투입케 하였고, 도원수 권율은 유정과 함께 동행케 하여 명군 143,700명과 조선군 25,100명은 선조 31년 9월 20일 진후 왜군을 총공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로의 조·명 연합군은 가등청정의 울산 도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2차 울산성전투 또는 도산성전투) 중로의 조·명연합군도 사천 신새를 쳤지만 도진의흥의 유인작전에 빠져 오히려 왜군에게 불모를 보냈다. 서로의 조·명 연합군은 소서행장의 왜교를 공격하여 포위하였지만 유정이 싸

32) 《宣祖實錄》 권 104, 선조 31년 9월 경술.

33) 崔韶子, 〈壬辰倭禍와 明朝〉(《아시아문화》 9, 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92), 10쪽 참조.

34) 李瓘錫, 앞의 책, 1086쪽 참조.

움을 기피하고 화의공작에 급급하여 조·명 연합함대의 해상봉쇄와 상륙전의 지원을 받고도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3) 일본군의 패퇴³⁵⁾

풍신수길은 조·명 연합군의 4로 총공격이 단행되기 앞서 8월 18일 병사하였다. 그는 유명으로 자신의 죽음을 일체 비밀로 한 채, 왜군의 철수를 지시하였다. 따라서 조정이나 명군은 8월 상순부터 확인되지 않은 풍신수길의 와병이나 사망설이 유포되고 있었지만 왜군을 전면공격하려는 작전계획에 따라 이러한 사실에 개의하게 않았다.

양군의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9월 말에 이르러 徳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일본의 5大老가 철귀령을 왜군의 제장에게 전달하자 왜군은 조·명연합군의 공세가 약화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일제히 본국으로 철병하려고 계획하였다. 가등청정이나 도진의홍은 조·명 연합함대의 봉쇄권역 밖에 있어 철수가 비교적 용이하였지만 왜교의 소서행장은 조·명연합함대에 의해서 퇴로가 봉쇄당하고 있어서 본국으로의 철귀조차 매우 어려웠다.

소서행장은 10월 중순 왜교에서 탈출하려고 하였지만 이 정보를 입수한 조·명연합군에게 수로에서 협공당하였으므로 먼저 제독 유정에게 뇌물을 보내 퇴로를 간청하였다. 그는 도독 진린에게도 뇌물공세로 퇴로를 애원하였고 통제사 이순신에게까지 접촉하려고 하였지만 이순신은 소서행장의 퇴로 애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소서행장에게 퇴로를 열어줄 것을 밀약한 진린에게까지 왜군을 섬멸하도록 설득하였다. 소서행장은 명장과의 밀약만을 믿고 수차 10여 척의 선발대로 조선함대의 해상봉쇄를 시험하려고 하였지만 松島를 떠나 猫島에 대기하고 있던 통제사 이순신의 함대에게 쫓겨 왜교성을 탈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11월 11일을 기해 본국으로 철수하려던 사천의 도진의홍과 고성 立花統虎(다치바나 무네토라) 및 부산의 왜장들에게 구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왜군간의 교신행위는 도독 진린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순신은 이 모든 사실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후일 자

35) 許善道, 앞의 글, 542~550쪽 참조.

신을 ‘經天緯地之才補天浴日之功’이라고 극찬한 진린을 마침내 설득하였다. 조·명연합함대는 일본의 구원함대가 내도할 것을 예상하고 노랑해협을 해전장으로 택하고 11월 10일을 기해 이곳으로 출항하였다.

소서행장의 구원요청을 받은 도진의홍은 약 500여 척의 왜함대를 이끌고 왜교성에서 소서행장을 탈출시키려고 사천 앞바다의 光洲洋을 지나 노랑방면으로 향진하여 왔다. 이 동정은 남해 觀音浦에 대기하고 있던 이순신의 함대에게 모두 포착되었다. 이순신은 昆陽·竹島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린의 함대와 좌·우협공작전을 계획하고 11월 18일 夜潮를 틈타 남해도에서 노랑해협으로 들어오는 왜함대를 500여 척의 조·명연합함대로 공격케 하였다.

이에 왜함대는 큰 타격을 입고 남해 관음포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회항하였다. 11월 19일 통제사 이순신은 스스로 선봉이 되어 왜함대를 맞아싸웠고 결국 조·명연합함대는 노랑에서 적함 200여 척을 불태워 부수고 도진의홍 등에게 참패를 맛보게 하였다(노랑대첩).

그러나 이순신은 이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는 절명하는 순간에도 왜군을 끝까지 섬멸시키려는 일념에서 자신의 전사를 격전중인 장병에게 알리지 말 것을 유언하였다. 그는 왜군과 함대결전에 앞서 하늘을 두고 ‘이 원수를 섬멸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한 맹세를 실천하였다. 소서행장은 이 해전을 틈타서 부산으로 도망하고 이곳에 집결하였던 왜군이 차례로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풍신수길의 무모한 침략야욕으로 발발하였던 7년간의 왜란은 종결되었다.

5) 일본의 통교요청과 기유약조

(1) 일본의 통교요청³⁶⁾

왜란의 원흉인 풍신수길의 사망과 왜군의 패퇴는 일본내에서 권력투쟁을 야기시켜 조선침략에 전혀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자처하는 德川家康의 江戸幕府 곧 德川幕府의 새 정권을 탄생시켰다.

36) 이 글은 李鉉淙〈倭亂後の 對日關係〉(《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와 李敏昊,〈壬辰倭亂後 朝鮮의 對日外交—國交再開過程—〉(《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을 주로 참고하였다.

일본의 새 집권자로 등장한 덕천가강은 풍신수길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내정치의 안정기들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도 새 정권의 정통성은 인정받고 문화적으로 새 기술 및 문물을 전수받아 경제적 실리까지 얻고자 하였으므로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원하였다.

한편 조선경제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對馬島는 왜란중 침략군의 향도로 참전하였으므로 왜란이 끝나자 군사적으로 조선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조선과의 交隣貿易이 단절되어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끊기게 되어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마도주 宗義智는 당시 일본정권의 실권자인 덕천가강으로부터 조선과의 외교교섭권을 위임받아 조선과 일본의 중개자로 조선에 접근하여 왔다. 왜란이 끝난 다음해인 선조 32년(1599) 3월부터 隣好를 다시 복구하자는 請和交渉使를 빈번히 조선에 보내 통교할 건을 조정에 간청하였다.

반면 조선은 왜란으로 국민의 대왜감정이 적개심으로 고조되고 조정에서도 대마도의 정벌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서³⁷⁾ 왜측의 통교요청을 즉각 거부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선들 사이에서는 비참했던 왜란의 경험을 통해 국가의 최급선무는 전쟁재발의 예방이고 왜군에게 납치된 10여 만 被擄人의 刷還을 위해서 대일외교의 유연한 대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명군 또한 왜군이 퇴귀할 때에 딸려보낸 볼모의 송환에 고심하고 있어서³⁸⁾ 조정도 왜측이 보낸 교섭사신의 입국만은 거절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과 국교재개를 열망하고 있던 대마도는 선조 32년 3월부터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는 선조 40년(1607) 정월까지 20여 회의 통교교섭사를 조선에 보내어 덕천막부와 함께 국교를 재개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대왜강경론이 우세하였지만 대마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처하여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와는 가능한 한 통교를 단절하되 그 번방인 대마도와는 무역과 통교를 분리하여 무역은 점차 허용하되 통교만은 지연시킨다는 이중의 외교적 대

37) 《宣祖實錄》 권 107, 선조 31년 12월 임신·계유 및 권 111, 선조 32년 4월 병인.

38) 李敏旻, 앞의 글, 524~525쪽.

응책을 취하게 되었다.

대마도주 종의지는 선조 32년 한해만에도 무려 3회나 사신을 보내 조선이 인호를 복구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특히 3회째에는 조선피로인 15명과 명인 5명을 왜란의 종결 후 처음으로 송환하여 당시 일본이 억류하고 있던 조선인과 명인을 되돌려 보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대마도주가 명인을 보낸 것은 명군이 보낸 볼모의 송환을 전제로 경리 萬世德으로 하여금 대왜통교를 거부하는 조선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 조치였다.³⁹⁾

선조 33년 대마도주 등은 3차례 사신과 1차례 書契를 보내 조선에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선피로인 500명과 명군이 볼모로 보낸 40여 명의 明官을 전원 송환하여 통교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성의를 표하여 왔다. 이를 계기로 비변사는 통사 朴大根을 대마도에 처음으로 보내 대마도주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 때 박대근은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문제가 명과의 협의사항임을 알려 그들의 요구를 명나라 조정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대마도주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조선조정의 변화는 대마도의 통교교섭사의 왕래에 따라 조선의 대왜 피로인 중 송환자와 탈출자들이 일본의 국내사정을 알려오는 가운데 前佐郎 姜沆이 풍신수길의 사망 후 풍신수길파와 덕천가강파가 내분 중에 있어서 일본이 군사를 움직일 여력이 없다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선조 33년 9월까지 명군도 완전히 철병하게 되어⁴⁰⁾ 조선조정으로서도 계속 일본의 정세를 정탐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조정은 통교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중앙정부(덕천막부)와 대마도를 하나로 보아 통교단절의 입장을 견지하고, 교역문제에 있어서는 대마도에게 羈縻策을 써서 교역만을 허용하려고 하였다.

당시 대마도와와의 교역은 형식상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대마도 사신이 올 때마다 進獻物을 올렸으므로 조선의 하사품이 답례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왜사를 따라온 潛商의 밀무역도 실제로는 근절시킬 수 없어서 교역은

39) 李敏晃, 위의 글, 525쪽 참조.

40) 柳承宙, <倭亂後 明軍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85), 643쪽.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⁴¹⁾ 그러므로 조정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화하여 대마도의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단 풀어주어 대마도를 통해 일본 중앙정부의 동향도 탐지하고 그들의 국교재개의 요구를 단절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하였다.

선조 33년 9월 대마도주 종의지와 柳川調信(야나가와 시게노부)은 조선이 교역만을 허용하려는 회유책에 만족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화하여 왔다. 이 때 조선조정은 대마도가 조선피로인을 완전히 송환하는 데 성의를 다하면 許和하겠다는 뜻을 비로소 대마도주에게 전하는 한편 선조 34년 11월에는 東萊召募官 千摠 全繼信과 통사 孫文彥을 대마도에 보내 적정을 정탐케 하였다.

한편 덕천가강은 德川幕府를 정식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려고 자신은 왜란과의 관계에서 「盡反秀吉所爲」하였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대마도주에게 국교의 교섭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도주 종의지는 선조 35년 橘智正을 조선에 보내 국교의 재개를 간청하여 왔다.

조선은 울지정이 덕천가강의 뜻이라는 이유로 국교의 재개를 간청하자, 그에게 덕천가강의 통교요구의 진위를 증거하여 줄 것과 풍신수길의 침략행위를 덕천가강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조선피로인을 전원 송환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요구는 막부의 수용거부를 예상하여 계속 일본과 단교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정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마도주 종의지는 덕천가강이 서명한 강화요청의 서계를 선조 36년(1603) 6월 橘智久를 통해 전하여 왔고, 조정도 교섭사의 청구물품 중 일부인 약제만은 교역하여 주었다. 왜사의 귀국 후에는 통사 박대근을 대마도에 보내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조선이 대왜국교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조정의 응대는 일본과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외교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강화문제의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종종 사용하던 일본의 재침설을 유포시켰다. 선조 36년 말에 송환된 河東幼學 金光은 조정이 일본의 강화요청을 끝내 거절하면 일본이 재침할 가능성이 있다

41) 李鉉淙, 앞의 글, 355~356쪽 참조.

고 상소하였던 것이다.⁴²⁾ 이러한 일본의 재침설은 왜란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심을 동요시켰다.

조선은 그 진위를 정탐하기 위해서 선조 37년 8월 승려 惟政을 대마도에 보내 開市를 허용하겠다고 대마도주에게 통보하여 회유하였다. 그리고 그가 귀국하자 조정은 일본의 재침설의 사실여부를 직접 알아 보려고 그를 일본으로 보냈다.

倭情探敵使 유정은 선조 38년 3월 京都 伏見城에서 덕천가강과 그 아들 徳川秀忠(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배석하에 예정하지 않았던 회담까지 갖게 되었다. 이 때 덕천막부의 집권자인 덕천가강은 왜란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였으므로 조선이 통교를 허락하여 줄 것을 유정에게 직접 요청하였다. 그는 유정의 귀국길에 조선 피로인 3천여 명을 송환하여 성의를 표하여 왔으므로 조정에서도 대외통교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朝議는 찬·반론으로 이어졌으므로 선조는 왜침이 그들의 좌절로 종결된 상태에서 끝내 대외단교만을 견지할 수 없다는 대외강화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측이 계속 통교교섭사를 보내고 조선피로인을 송환하면서 국교 재개를 간청하여 왔으나 조의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선조는 불의의 왜침을 예방하는 일이 爲國安民策임을 밝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마침내 국교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과 강화를 요청하는 국서와 왜란 중 왕릉을 도굴한 犯陵賊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덕천막부는 선조 39년 11월 왜란 후 최초로 日本國使 율지정을 보내 범릉적 2명을 조선에 인도하고, 국서로 풍신수길의 침략행위를 사죄하며 국교재개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왔다. 조정에서는 범릉적과 국서의 진위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였지만 결국 일본측이 일단 조선의 요구에 순종하여 왔다고 간주하고⁴³⁾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국초부터 조선의 대외정책의 기초였던 교린의 도를 유지하고 왜란 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최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재침가능성을 외교적으

42) 《宣祖實錄》 권 171, 선조 37년 2월 무신.

43) 李鉉淙, 앞의 글, 357~358쪽 참조.

로 완전히 배제하여 당시 북방에서 준동을 점증하여 온 여진족에 대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조정은 종래 통신사를 回答使兼刷還使로, 서장관을 종사관으로 호칭하여 선조 39년(1606) 9월 중순 僉知中樞府事 呂祐吉을 정사로, 홍문관 교리 慶暹을 부사로, 좌랑 丁好寬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이 선조 40년 6일 일본 江戸城에 도착하여 덕천막부의 2대 실권자인 덕천수충과 회담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재개되었다.

(2) 기유약조

양국의 국교가 일단 재개되었지만 그 관계는 정상적인 사신의 교류나 교역상의 정한 조례에 합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마도에게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광해군 원년(1609) 己酉約條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조약의 성격은 일본측의 사료인 《對馬島宗家文書》에서 보이듯 일본이 사신을 조선에 보내는 정례적인 送使와 통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⁴⁴⁾ 그 내용을 《通文館志》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측에 부과한 조건은 임란 전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향도가 되었던 대마도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었다. 대마도주에게 지급하는 미곡과 대두는 癸亥約條(1443)와 壬申約條(1512) 때의 지급량의 절반인 100석으로 되었고, 倭館은 부산의 1개 소로 한정되었다. 대마도주의 세전선과 특송선도 임신약조의 25척에서 5척이 감소된 20척에 불과하였고 특송선은 사실상 금지된 것과 같았다. 반면 통관절차라 볼 수 있는 수직인이나 사선의 등급, 선부의 수와 도주의 문인·도서 및 과해량의 규정 등은 전례를 따랐다.

조선은 막부와 대마도가 국교의 재개를 간청하여 왔으므로 왜란을 도발한 일본측의 책임을 조약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특히 東平館의 폐쇄와 왜사의 상경금지는 왜사의 왕래에 따른 그들의 정탐행위를 막아 일본의 재침을 예방하려는 조선의 대책이었다.

기유약조 후 양국의 외교관계는 호혜대등한 성격이었다기 보다 조선이 「夷

44) 李鉉淙, 위의 글. 362쪽.

〈표 1〉

기유약조의 조문항목과 내용

조 문 항 목	조 문 내 용
1. 歲賜米豆數量	대마도주에게 1년에 米豆 100석을 하사한다.
2. 倭館接待의 예	國王使, 對馬島特送人, 對馬島主受職人 三例로 한다.
3. 國王使船의 규정	上船・副船으로 한다.
4. 特送船船隻	대마도주는 3隻, 그 외의 使船은 모두 세건선에 포함한다.
5. 歲遣船隻數	대마도주의 세건선은 20척으로 한다.
6. 受職人入朝 회수	수직인은 1년 1회, 來朝하되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없다.
7. 亂前受職人 지위	죄를 면죄,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8. 船等級船夫數	船型은 3등급으로 한다. 25尺 이하는 小船으로 船夫는 20명, 20尺 내지 27尺은 中船으로 船夫는 30명, 28尺 내지 30尺은 大船으로 하되 船夫는 40명이며 船體는 尺量한다. 船夫點檢時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원이달시 점검한 수에 따라 급료를 정한다.
9. 出來時 허가규정	모든 出來船은 도주의 文引을 받아 가지고 온다.
10. 受圖書 발급 및 검사	도주에게는 전례에 따라 도서를 만들어 준다. 그 모양은 종이에 적어서 禮曹나 校書館 및 釜山浦에 비치하였다가 書契가 올 때마다 그 진위・격식 등을 考檢하여 違格者는 돌려 보낸다.
11. 文引不所持者 처리	적으로 취급한다
12. 過海糧의 지급	대마도인 5日糧, 대마도특송인 10日糧, 國王使 20日糧을 지급한다.
13. 기타 사항	전례에 따른다.

狄禽獸國」인 일본에 대하여 「帝王待夷國之道」로 시혜를 베푸는 관계였던 것이다. 조선은 이후부터 일본이 通信使를 요청하면 일본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수용하여 사절을 파견하였다.

〈孫鍾聲〉

4. 왜란중의 사회상

1) 군량미 조달과 농민의 실상

(1) 난초의 양식실태

조선 전기 전반을 통하여 三倉(常平倉·社倉·義倉)에 저장된 미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중종연간으로 총 2,030,000섬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나라의 씬씀이가 커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여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날 즈음에는 대폭 감소되어 50여만 섬에 불과했다.¹⁾ 이 양은 국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제외하면 군사를 양성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상시국을 당하여 당면한 군량을 충당하는 데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그러나 갑자기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토의 대부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침략을 받은 지역의 官穀을 옮겨 놓지 못한 채 불에 타거나 적에게 약탈당하였다. 민가의 미곡도 급속히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오직 곡창인 호남지역은 왜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서 군량미 마련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연락이 두절되고 관곡을 관장할 관원을 별도로 임명하지 못하여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곡이나 의병할 것 없이 무절제하게 소모하여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도에 調度使를 파견하여募粟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에 호응하여 地方士民들도 모속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다. 사족과 평민들에 의하여 모아진 곡식을 義穀이라 불렀으며, 의곡은 서해를 통하여 피란정부가 있는 의주까지 운반되었다. 또한 부민 중에도 상당한 양의 양곡을 바치는 자가 있어서 어렵기는 하였으나 명나라 원군이 오기 이전에는 그런대로 군량미 보급에 있어서 현상유지가 가능했다. 이 기간은 군량미 걱정보다 적진에 나가 싸워 적을 물리칠 전투병력이 더욱 절실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명나라 원군이 다수 압록강을 건너오리

1) 《宣祖實錄》 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뀌었다.

선조 25년 11월 왜군이 침입하지 못한 평양 서쪽 沿道 각 고을에는 군량미 5만 섬과 黃豆 4만 섬이 비축되어 있어 소수의 관군과 군마를 먹일 수 있었다.²⁾ 그러나 멀지 않아 명의 원군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선정부는 명나라 군대의 군량마련을 위하여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비책으로 같은 달에 軍功廳을 설치하여 모속의 공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공에 준하는 賞職을 적용할 것을 결의하고 모속실적에 따른 상직의 규정을 공포하여 募粟者와 納粟者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모속의 방도를 강구하게 되었다.³⁾ 또한 호남양곡을 운반하는 책임은 낮은 관원이 감당하던 것을 堂上官 이상의 높은 벼슬아치로 교체하여 운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동년 12월 명나라 원군이 대거 조선 땅에 들어오자 전투양상은 급속히 전환되었다. 종전까지 조선정부는 군량미에 대한 근심보다 훈련된 병력의 부족함을 더 염려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대군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즉 부족했던 조선의 병력은 명나라 군사로 보충할 수 있었으나 그들에게 제공할 군량미의 조달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명나라가 이미 수만 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 군사를 징발한 것은 명나라지만 군량미를 대는 것은 우리 나라의 책임이다. 우리 나라의 財穀을 탕진하였는데도 명나라 수만의 원군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니 오늘의 근심은 싸울 군사가 없는 것을 근심할 일이 아니라 양곡이 없음을 근심할 뿐이다(《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정묘).

비변사가 위와 같이 아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정부는 「無軍」보다 「無糧」이 더 무겁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명군이 내원할 때는 병력만을 출동시킨 것이 아니라 무기 등 군수물자와 군량미도 많은 양을 보내왔다. 그러나 군량미는 명군에 의해 그들의 진영까지 운반되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까지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명군의 급식을 위한 조선측의 군량미 조달은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웠다.

2) 《宣祖實錄》 권 32, 선조 25년 11월 정묘.

3)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11월.

(2) 명군 내원 이후의 군량조달

가. 명나라 군량의 운반

7년에 걸친 전쟁기간에 명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총 인원은 전투병력과 비전투요원의 인원(인원)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밝힐 수 있으나⁴⁾ 군량미나 銀兩에 관한 것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왜란중에 호조판서로 군량미 운송의 총책을 맡았던 李睟光의 《芝峰類說》에서는 명나라가 壬辰·丁酉亂 전후에 걸쳐 帑銀 수만 냥과 山東穀 20만 섬을 보내왔다고 했는데,⁵⁾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을 보면 糧銀이 약 5,832,000여 냥이고, 交易米豆銀이 3백만 냥, 實用本色糧米 수십만 斛, 諸將賞銀 3천 냥, 山東糧 2십만 斛으로 되어 있다.⁶⁾ 어느 기록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병력뿐이 아니고 많은 양의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보내왔음은 분명하다.

이 많은 양의 군량미를 일시에 운송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명나라 원군이 왜군을 추격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보급로는 길어졌고 의주에 쌓아 둔 명나라 양곡을 남쪽까지 운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양곡 운송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육로를 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해로를 이용하면 육로보다 힘을 적게 들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계절의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배의 부족 등 곤란한 점이 많아 초기에는 육로를 택하는 일이 많았다.

육로로 운반하는 데에는 민간인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부녀자도 동원되었으며. 이것으로 부족해서 왜란초 무력한 관군을 대신하여 싸워 많은 전과를 올렸던 의병과 승군(義僧軍)까지 동원되었다. 정부는 각 처의 의병들을 차출하여 의병장으로 하여금 인솔케 하고 군량미를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명군에게 공급하게 하였으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의병장을 군율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의병을 군량미 운송에 동원한 것은 의병의 해체와도 연관

4)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17, 宣祖朝故事本末 亂中時事摠錄.

5) 李睟光, 《芝峰類說》 권 3, 兵政部 征伐.

6)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17, 宣祖朝故事本末 亂中時事摠錄.

성이 있기는 하나,⁷⁾ 그만큼 양곡의 운반이 다급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늪고쇠잔한 관군과 의승군까지 군량미 운송에 동원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의병이나 의승군의 일부가 군량미 운반으로 전락한 것은 명군이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때였다. 처음에는 명군이 남쪽으로 전진하기 이전인 관계로 군량운송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으나, 왜군이 선조 26년(1593) 4월 19일 서울에서 철수하여 남쪽으로 쫓겨가자 싸움터가 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군량의 수송거리도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종전의 수송인력으로는 명군이 급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군량미를 운반할 수 없어 인력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득이 실전에 참가한 관군을 차출하여 군량운송에 충당하였으며, 그것으로 부족하여 난중에 지휘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한 무과급제자 중 미처 싸움터에 나가지 못한 자들까지 군량을 운송하는데 충당하는 일도 있게 되었다.⁸⁾

명나라가 보낸 군량미의 수송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체로 육로와 해로 두 길을 택하였다. 선조 25년 12월 명군이 내원한 이래 선조 27년 8월 일단 본국으로 철수하기까지의 기간은 주로 육로로 수송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수복지역의 소나 말을 징발함은 물론 왕의 호위병과 동궁행차에 따르는 군인 중 말을 소유한 자와 호남의병 가운데 말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명군의 군량미를 운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강이 해이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고, 한 사람이 2斛을 운반하는 괴로움을 면치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나 말이 왜군에게 약탈당한데다 명군이 수용으로 매일 수백 두씩 도살되었으므로 운반에 이용할 마소도 날로 부족했다. 그러므로 男負女戴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의주에 적치된 명군의 양곡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소모되는 양이 더 많아서 출발지의 양과 도착지의 양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고, 따라서 군량미 보급의 절대부족을 면할 수 없었다.

해로는 丁酉再亂으로 명군이 재차 내원하면서 많이 이용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처에 산재한 배들을 조사하여 보내도록 하였으나 司饔院의 漁父船, 宮家와 內需司의 배 등을 빙자하여 거절하는 예가 많아서 기대하는대로 성과

7) 李章熙, 〈壬亂中 糧餉考〉(《史叢》 15·16, 高麗大, 1971), 361쪽.

8) 《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기사.

를 거둘 수 없었다. 이들 중에는 避役을 위해 구실을 붙이는 예도 있었지만, 관료들이 소유한 배도 적지 않아 권력을 배경으로 出役을 기피하여 타인의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긴박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력이 다하여 전선을 만들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군량미를 운반할 배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운송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지정한 관원을 배치하여 감시케 하였으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선박 중에는 運糧船을 가장하여 비어서 내왕하는 배들이 많았으며, 적제한 군량미를 목적지까지 운반하지 않고 도중에 달아나는 자도 있어 私家에서 유용되는 것도 많았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의주에 쌓아둔 명나라 군량미를 육로나 해로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다. 운송 도중에 많은 양이 소모되었을 뿐 아니라, 소모인력이 부족하고 수송수단도 원활하지 못하여 명나라에서 보낸 양곡으로 명군을 급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량을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 군량미의 국내조달

조선정부는 국내 양곡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조선 관군보다 명군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명나라는 자국의 군사가 먹을 군량미를 의주까지 운반하였지만 운반이 부진해서 명군에게 급식할 군량미를 때에 맞춰 조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족한 양은 조선의 군량미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 양곡을 조달하는 것은 명나라에서 군량을 조달해 제공하는 것 못지 않게 애로가 컸으며 민간인의 희생이 수반되었다.

《宣祖實錄》에 의하면 난중에 조선에서 군량으로 충당하는 稅源은 作米·收稅·募粟·粟의 네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 한다.⁹⁾ 또한 柳成龍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오늘날 糧餉을 조치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양향을 조치하는 길은 또한 다른 계책이 없고 田稅와 貢物作米·屯田所出·奴婢身貢作米에 지나지 않는다(柳成龍, 《懲愆錄》 권 15, 軍門謄錄 移京畿黃海觀察使文).

9) 《宣祖實錄》 권 53, 선조 27년 7월 계사.

이들 두 내용을 종합하면, 군량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전세와 공물작미·노비신공작미·모속·무속 屯田所出 등 6조목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 중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군량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전세를 거두어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농민들이 전화로 입은 피해가 커 남은 양곡도 없으므로 경작할 종자를 마련할 수 없어 폐농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폐농을 막기 위해 각 도에 종자를 수백 섬씩 보내서 파종토록 하였으나 분배과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었으며, 필요한 양에 미치지도 못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세수입도 많은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란 다음해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계사·갑오년간은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으며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¹⁰⁾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원 감소에 따른 경작면적의 감축은 전세수입에도 많은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다.

공물작미와 노비신공작미는 세부규정이 어떠했는지 해당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공물과 노비신공을 작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은 국내의 부족한 군량을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하겠다.

모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선조 25년(1592) 11월에 이미 군공청이 설치되어 납속자에 대한 포상문제가 논의되었고 동년 12월에 〈糧餉事目〉으로 반포되었다. 그 이전에도 납속하여 상직을 받은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임란초와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진하여 납속하는 자가 줄어들고 양곡이 귀하게 되자 부족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러한 임시 방편이 마련되었다.

1차로 발표된 〈納粟事目〉의 상직규정은 다음과 같다. 本官守丞으로 1백 섬 이상을 모속해서 운반하는 자는 加資하고, 3백 섬 이상 자는 陞叙하고, 5백 섬 이상 자는 超叙하며, 7백 섬 이상 자는 越二階하여 승서한다. 資窮者는 1백 섬 이상이면 代加하고, 3백 섬 이상이면 2資를 대가하고, 5백 섬 이상이면 아들이나 사위 중에서 參下職을 제수한다. 前啣人으로 1백 섬 이상은

10) 《宣祖實錄》권 75, 선조 29년 5월 정묘.

加二資, 5백 섬 이상 자는 복직시키고, 7백 섬 이상 자는 승서한다. 鄉所 이하 자로 1백 섬을 하면 6품 影職을 주고, 5백 섬 이상을 하면 4품 영직을 주며, 7백 섬 이상을 하면 참하 實職을 제수한다. 또한 서얼이나 鄉吏有役人・公私賤 등으로 1백 섬 이상을 모곡하여 운반한 자는 5년간 면역하고, 3백 섬 이상 자는 10년간 면역하며, 5백 섬 이상을 하는 자는 서얼은 許通하고, 향리와 유역인은 면역을 받고, 공사친은 從良한다는 내용이다.¹¹⁾

이러한 규정은 다음해인 선조 26년(1593) 2월에 오면 대폭 개정된다. 개정된 <납속사목>에 의하면, 향리로서 3섬을 바치면 3년 면역에 14년에 이르기까지 1섬씩 더할 때마다 加 1년을 하고, 15섬을 바치면 己身免役, 30섬을 바치면 免鄉하고 참하 영직을 주며, 40섬을 바치면 두 아들을 면역시켜 참하 영직을 제수하고, 40섬을 바치면 상당한 군직을 주고, 80섬을 바치면 東班 實職을 준다. 사족은 3섬을 바치면 참하 영직을, 8섬을 바치면 6품 영직을, 20섬을 바치면 동반 9품을, 25섬을 바치면 동반 8품을, 30섬을 바치면 동반 7품을, 40섬을 바치면 동반 6품을, 50섬을 바치면 동반 5품을, 60섬을 바치면 동반 중4품을, 80섬을 바치면 동반 정4품을, 90섬을 바치면 동반 중3품을, 1백 섬을 바치면 동반 정3품을 준다. 또한 본래 관직에 있는 자는 매 10섬당 품계를 올려주고, 자궁자는 30섬을 바치면 당상관에 승격시킨다. 서얼인 경우는 5섬을 바치면 兼司僕 羽林衛 또는 서반 군직 6품을 제수하고, 15섬을 바치면 허통, 20섬을 바치면 前所生도 허통하며, 30섬을 바치면 참하 영직을, 40섬을 바치면 6품 영직을, 50섬을 바치면 5품 영직을, 60섬을 바치면 동반 9품을, 80섬을 바치면 동반 8품을, 90섬을 바치면 동반 7품을, 1백 섬을 바치면 동반 6품을 제수한다는 것이다.¹²⁾ 이 개정된 규정은 선조 25년 12월에 정한 <事目>에 비하면 납곡량에 비해 납곡자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월등하였는데, 이는 미곡이 귀하어 모곡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난중에 이러한 <납속사목>은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모곡을 위해 마련된 임시적인 변통책은 빈 감투를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¹³⁾ 납

11) 《宣祖實錄》권 33, 선조 25년 12월 을묘.

12) 《宣祖實錄》권 35, 선조 26년 2월 신축.

13) 李晔光, 《芝峰類說》권 3, 君道部 賞功.

속으로 堂上階에 오른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¹⁴⁾ 그러나 이와 같은 자진납곡만으로는 부족한 군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각 고을로 募粟官을 파견하여 납속을 독촉하였으나 모속관들은 사복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여 실제 관으로 납부되는 양은 많지 않았다.

무곡으로 군량의 일부를 충당한 것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다. 명나라는 그들 장병에게 급식할 군량미를 미곡으로 보내던 것을 운반상의 어려움이 있자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銀子와 靑布・花絨 등의 疋木을 보내와서 그것으로 군량미를 마련케 하였다.¹⁵⁾ 청포・화융 등의 필목은 일반인이 추위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라 무곡이 용이하여 각처에서 곡물과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은자는 조선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 화폐가치가 너무 높아서 대개 은자를 가지고 곡식과 바꾸는 것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주에서 江上매매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무곡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¹⁶⁾

선조 31년(1598) 2월에 각 도에 분배했던 필목의 무곡현황은 다음과 같다. 함경도에 15,000필, 전라・강원 2도에 10,000필, 경기도에 5,000필을 보내서 무곡을 하였다. 함경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필수가 많았던 것은 6진에서 무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⁷⁾ 그 뒤에도 명나라에서 보낸 필목으로 무곡을 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필목으로 무곡한 양이 얼마나 되는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난중에 조선에서 먼포 한 필의 값이 겉곡식 1말(斗)이고 말 한 필의 값이 3, 4말에 불과할 정도로 양곡이 귀했던 것을 보면 명나라 청포나 화융이라고 해서 비싼 값으로 무곡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필목・은자무곡 외에도 煮鹽質粟이 행하여졌다고 하나¹⁸⁾ 곡식이 귀한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난중에 둔전을 경작하게 된 것은 명나라 곡물의 운반이나 무곡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족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둔전경작은 조선사람뿐 아니

14) 《宣祖實錄》권 139, 선조 34년 7월 정미.

15) 《宣祖實錄》권 93, 선조 30년 10월 무진.

16) 《宣祖實錄》권 93, 선조 30년 10월 경오.

17) 李肯翬, 《燃藜室記述》권 17, 宣祖朝故事本末 亂中時事摠錄.

18) 《宣祖實錄》권 75, 선조 29년 5월 정묘.

라 명나라 군사도 일부 투입되었다. 각 도별 둔전의 현황을 보면,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水田播種穀이 각각 300여 섬이었다고 하며, 旱田은 경상도에서 231日耕이고 충청도에서 219일경으로 되어 있어 전체 파종면적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¹⁹⁾ 인력이 부족한 당시로서는 그 이상의 면적은 경작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둔전은 황폐한 토지에 설치하였다. 둔전에서 전라도가 제외되었던 것은 다른 도에 비해 적의 침략을 받은 지역이 적어 황무지가 적었음을 말해 준다. 둔전경작이 부족한 군량 마련에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데는 다소의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선정부는 군량 결핍의 극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꼭 필요하지 않은 관원은 감원해서 경비를 줄였고, 당상관 이상 현직자에게 주는 散料도 말(斗)수를 줄이고 조야를 막론하고 검약한 생활을 당부하였으며, 궐내 御供이나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술 이외는 각 아문이나 공사간 술을 일체 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양곡절약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으나 명나라 군사에게나 겨우 군량미를 충당할 수 있었을 뿐 조선 관군은 급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해산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다. 군량의 부족과 전투력의 저하

난중에 군량미를 명나라 장병에게 제때에 보급하지 못하여 조선의 높은 관원들이 명나라 하급관원이나 하급무장에게 곤욕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명나라 원군은 조선땅에 들어온 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군량미의 결핍을 이유로 들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면서 소수의 장병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여 조선정부를 불안하게 하였다. 서울을 수복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연사가 명나라 장병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은 명나라 제독 李如松이 碧蹄館 부근 礪石嶺싸움에서 대패하면서부터였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심적 부담을 지니게 된 그들은 군량이 제때에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싸움을 기피하였다.

명·일간의 강화를 조건으로 선조 26년 4월 서울에 주둔한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여 강원도·충청도에 주둔한 왜군도 모두 남쪽으로 철수하였지만,

19) 《宣祖實錄》 권 97, 선조 31년 2월 신유.

명나라가 강화교섭을 촉진하게 된 것은 일본과 다름없이 조선이나 명나라의 군비사정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조 27년(1594) 4월 告急使 李廷馨이 요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선에 보낸 군량의 대부분이 山東産 양곡이었다고 한다.²⁰⁾ 많은 군량미를 이곳에서 조달하여 남은 것이 없는데다 흉년이 겹쳐서 강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명나라 입장이었다.

이여송이 선조 26년 8월 대부분의 장졸을 이끌고 요동으로 철수하게 된 것은 和議교섭에 따른 명·일간의 휴전성립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휴전을 서두르게 된 이면에 군량부족이 크게 작용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조선의 중신들 가운데에도 화의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군량결핍과 아사 상태에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화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가 중앙정계에 미친 파급은 컸으며, 이로써 군량결정에서 오는 戰局의 파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만하다. 모든 양곡을 명군에게 우선하여 보급해 조선관원이 무너져 흩어지는 일이 많았고, 관군진영인 군졸들 중에는 굶어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관군에 대한 급식사정의 악화는 養兵을 하는 데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도원수 權慄의 종사관 李慶涵이 왕이 불러 뵈는 자리에서 “도원수가 훈련시키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糧餉이 떨어져서 군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원수가 이끄는 군사는 매우 적으며 겨우 수십 명이 牙兵이 있을 뿐입니다. 호남지방에서 糧米를 싸가지고 온 자도 다 지쳐서 특별히 교련하는 일이 없습니다”²¹⁾ 라고 한 것을 보면 군량결핍이 양병에도 큰 장애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란이 종반으로 치달은 선조 31년 6월에 오면 관군의 수가 대폭 감소한다. 이는 난중에 일선에서 크게 활약한 몇몇 장수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졸의 다음과 같은 실상에 잘 나타나 있다.

金應瑞가 모은 군사는 8백여 명에 이르렀으나 이제 남아 있는 수는 겨우 1백 명 남짓하고, 高彦伯이 거느린 군졸은 7백여 명에 이르렀으나 지금 수하에는 하나

20)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신미.

21)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기유.

도 없고 자식·조카와 친척붙이 약간 명이 도원수 진영에 의탁해 있을 뿐이다. 鄭起龍이 관장하고 있는 군사도 7, 8백 명이었으나 이제 남아 있는 것은 1백 명도 차지 못했다. 그 밖에 成允文·權應銖 등이 이끄는 군졸은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대개 김응서·고언백·정기룡군의 軍料가 또 감삭되어 成軍할 수 없으며, 남쪽 巨鎭들도 수개월 내에 감삭이 이와 같아서 放軍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 군량결핍으로 인해서 부득이 해산시키게 된 것이다(《宣祖實錄》권 101, 선조 31년 6월 병인).

왜란중에 도체찰사와 영의정의 중책을 맡고 있던 유성룡은 “싸우고 지키는 大要는 4조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는 양식이요, 둘째가 軍兵이요, 셋째가 城池요, 넷째가 무기이다”²²⁾라고 하려 군량을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 전라좌의병장 任啓英도 왜군을 막아내는 방법은 세 가지로 “첫째가 軍餉이요, 둘째가 무기요, 셋째가 전사이다. 군향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사를 먹일 수 있겠는가”²³⁾라고 하여 군량의 확보를 왜군을 물리치는 데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군량미 확보는 절실했던 것이며, 군량결핍이 전투력 저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3) 민중의 실상

민중의 생활은 평시에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궁색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그런대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왜란을 당하면서부터 전화에 휩싸여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장정들은 관군으로 동원되던가 의병에 가담하여 싸움터에 임하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급속히 감소되었다. 왜란 전에 170만 결이던 전국의 경지면적이 난 후에 54만 결로 감소된 것도 난중 노동력 감소에 큰 원인이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버려진 경작지가 늘어나서 황폐화됨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이나 농민의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왜란을 당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왜란이 일어난 다음해부터였다. 호남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난이 일어난 이후 2년간 폐농하게 되어 민가에 비축되었던 미곡도 남은 것이 없었다. 선조 26

22) 柳成龍, 《懲忠錄》권 16, 軍門謄錄 移京畿巡察使文.

23) 趙慶男, 《亂中雜錄》권 1, 계사 5월.

년(1593) 2월에 경기지방 士民들이 굶주림으로 땅에 쓰러져 죽어 있는 자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민정시찰차 나갔던 유성룡이 굶어 죽은 어미의 젖을 빨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天愁地慘’이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으로 당시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²⁴⁾

선조 26년 4월 19일 왜군이 서울을 철수한 직후 도성의 참상은 더욱 비참했던 것 같다. 유성룡이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도성에 들어왔다. 성안에 남아 있던 백성들을 보니, 백 사람 중에 한 사람 생존해 있을까말까 하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피폐하여 얼굴빛이 귀신이나 다름없었다”²⁵⁾ 라고 한 것을 보면, 도성민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만하다. 도성의 참상은 그 후 악순환을 거듭하였던 것 같다. 동년 9월 대사헌 金應南이 실제 눈으로 보고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러하다.

창고에는 남은 양곡이 없어 비록 賑濟하기 위해 장소를 차린다 해도 굶주리는 사람들을 두루 구제할 수 없어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길에 가득하고 썩어가는 人肉이 하천을 막을 정도로 살아 있는 자라 해도 모두 모습이 도깨비다.…서울을 둘러싼 수백 리는 초목금수의 장소로 변했으며, 혹 살아 있는 백성들이 돌아와 파괴된 壁間에 의지해도 明軍의 支供과 빈번히 오는 사신을 접대하다 보니 기름이 다 하고 피가 말라서 살 방도가 없으며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하늘에 외쳐대며 죽여달라고 하나 얻지 못하여 혹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거나 또는 말 앞에 엎드려 짓밟혀 죽는데 民生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국세를 가히 알 만하다 (《宣祖實錄》 권 42, 선조 26년 9월 계축).

선조 27년에 들어서서 굶주림이 전국적으로 심해졌고, 특히 서울과 삼남지방이 더욱 그러했다. 草根木皮도 다하여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인간의 가장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극한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무사나 군공으로 수령이 된 자들은 오로지 剝歛을 일삼았다.

饑饉이 극심한 것으로 해서 사람고기를 먹기에 이르렀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괴이함을 알지 못한다… 비단 길바닥에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베어 먹어 완전히 살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혹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腸

24) 《宣祖修正實錄》 권 27, 선조 26년 2월.

25) 柳成龍, 《懲忠錄》 권 2, 기사 4월.

胃腦髓도 살과 함께 씹어 먹는다… 도성 안에서 이와 같은 끔직한 변이 있는데도 형조에서는 기민 무뢰배를 버려둔 채 늦장을 부리며 그 장소에서 붙잡아 금지하지 못하고 붙잡힌 자 또한 엄히 다스리지 않았다(《宣祖實錄》 권 47, 선조 27년 정월 병신).

위의 기록은 사헌부에서 아뢴 내용인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人相殺食’에서 더 나아가 “부자·형제간에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다”²⁶⁾고 하였으니, 인간의 삶의 발버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산 사람을 잡아먹는 판국이고 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 것은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다. “근래에 기민이 사망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는데, 그 살점을 베어 먹고 단지 백골만이 성 밖에 쌓여 있다”²⁷⁾라고 한 것으로 알 만하다.

선조 27년 5월에 이르러 ‘인상살식’은 더욱 심하여 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가리지 않았다. “趙慶男이 城中에 들어갔을 때 마침 명나라 군인이 술을 잔뜩 먹고 가다가 길 가운데 구토하는 것을 보았는데, 천 백의 기민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활아 먹었는데, 약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밀려나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²⁸⁾고 한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명나라 장수 劉縉은 굶주려 죽은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동문 밖에 賑濟所를 차려 놓고 기민들을 구제하려 하였다. 기민들이 천 백으로 몰려들었으나 그것을 얻어 먹고 목숨을 조금 연장시켰을 뿐이고 그 뒤에 모두 그 곁에서 죽었다고 하니 그 참상을 짐작할 만하다. 조선정부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진제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기근인원에 비하여 賑濟穀의 양이 적었고 관리자의 비리 때문에 올바른 급식이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흉년이 겹치는 데다가 명나라 군사에게 군량제공과 그들의 약탈행위로 민중은 생계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속을 하기 위한 관원의 무질서한 파견은 민중을 더욱 괴롭혔다. “난리가 일어난 이래 官號가 너무 많다. 열명의 관원이 호

26) 《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무술.

27) 《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무술.

28)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5월.

칭은 다르지만 관장하는 일은 하나 이어서 백성 한 사람은 피해를 열 사람에게서 받는다”²⁹⁾고 한 것으로 보아 모속과정에서 민폐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민폐는 모속과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무리한 마필을 징발하였고 농우도 혈값에 명군진영으로 팔려갔다. “소나 말을 가진 자는 명군에게 팔려갔으며 명나라 군사가 하루에 잡아먹는 소가 1백 필이나 되어 사방에 소나 말 그리고 닭과 개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³⁰⁾고 하였으니, 민중의 실상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명군들은 화의가 진행되는 기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여인들에게 남자의 의복을 입혀 남자로 가장하고 납치해 가기도 하였다. 조선정부는 그들의 만행에 대해 명나라 經略에게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³¹⁾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중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은 명군보다 왜군이였다. 그들은 침략 초기에는 온갖 회유책을 펼치면서 조선인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싸움이 불리해져 남쪽으로 퇴각하면서부터 만행이 노골화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2) 송유진 · 이몽학 등의 난

(1) 송유진의 난

임란중에 크고 작은 반란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선조 27년 宋儒眞의 난과, 동왕 29년에 일어난 李夢鶴이 난이 가장 두드러진다. 왜란 초기 산발적인 소요는 신분해방을 위해 일어났다고는 해도 불만을 느껴온 지배층에 대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비조직적인 행동이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적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직접 왕정의 전복을 겨냥한 반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송유진 · 이몽학의 난은 그 규모나 조직면에서 양상이 판이했다. 이 두 반란은 왜군이 화의를 조건으로 이미 남쪽으로 철수해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충청도지역이 중심이었고, 반란주모자들

29) 《宣祖實錄》권 95, 선조 30년 12월 병신.

30) 趙慶男, 《亂中雜錄》권 2, 갑오 6월.

31) 《宣祖實錄》권 41, 선조 26년 8월 정해.

도 정면으로 현왕권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수립하여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런 점에서 임란초 감사나 수령들의 수탈이나 흑사에 불만을 품었던 민중이나,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바라만 보다가 흩어지는 帥臣들을 증오한 농민들의 이반과는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송유진의 난은, 이 반란을 주도한 송유진이 당초 선조 27년 정월 보름에 일당을 이끌고 거사하기로 한 것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로 돌아갔지만, 충청도 일대를 주무대로 한 반란의 활동상은 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동조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반란이 발각되기 전에 송유진 일당의 布陣狀況을 보면 1진은 淸溪山에, 1진은 춘천에, 또 다른 1진은 전라도 안에 있다고 하였다.³²⁾ 이 말이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지방관들의 보고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세력들이 서로 연계되기 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役을 피해 가며 곤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士族과 武人들도 그 가운데 왕왕 섞여 있어 엄연히 무리를 이루어 횡행하기를 꺼리지 않으니, 닥쳐올 근심이 충청도뿐이 아니다(《宣祖實錄》 권 47, 선조 27년 정월 기축).

위의 충청도 調度御使 姜籤이 馳啓한 내용을 보면, 叛民들 중에는 사족과 무인들도 섞여 있었으며, 이들이 반란음모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안에서는 무기를 관리하는 관원이 송유진 일당에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본 고을 사람 중에는 자진하여 적중에 투입하는 자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天安軍器監官 宋望器 등이 반민에게 사로잡힌 사건을 중시하여 宣傳官을 급히 파견하는 등 암암리에 송망기의 거처를 탐지하는 한편, 병사 邊良俊과 순변사 李鑑 등에 명하여 비밀리에 탐문토록 하였다.³³⁾

송유진은 충청도 천안·직산 사이를 왕래하면서 서울의 수비가 허술함을 알고 의병장을 사칭하여 반란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리산·속리산·청계산 등지에 은신하고 있는 일당의 수가 2천 명이 넘었다고 하며, 그들은

32) 《宣祖實錄》 권 47, 선조 27년 정월 경인.

33) 위와 같음.

군량미와 무기를 수집하여 많은 양을 비축하였다. 먼저 각처의 반란세력과 약속하고 군사를 움직여 아산·평택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병기를 탈취하였고, 그 뒤 서울을 침입하기 위해 먼저 전주에 다음과 같은 密書を 보내서 나라의 전복을 꾀했음이 분명하다.

왕의 악정이 고쳐지지 않고, 朋黨은 해소되지 않으며, 부역은 번거롭고 과중해서 민생이 편치 못하여 牧野에서 武勇을 떨치기에 이르렀다. 비록 伯夷·叔齊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추궁하노니, 실로 湯王과 武王의 빛남이 있도다(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정월).

중앙정부는 송유진이 전주에 밀서를 보낸 같은 날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조문을 中外에 선포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령으로 하여금 사려가 깊고 담력이 있는 자를 가려 반란세력과 동모자로 가장하고 적 중에 출입하여 겉으로는 반란에 동조하는 척하고 동정을 상세히 살필 것.

1. 叛賊으로 하여금 서로 체포하여 참수케 하여 상을 주는 규정을 두고, 함께 반란을 획책했다라도 반적 두목의 목을 베어 바치는 자는 즉시 論賞할 것.

1. 반적을 체포하는 일은 道 안에 장수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 감사·병사와 함께 힘써 조치하고 계획된 다음 때를 타서 평정하며 朴晉에게 반적을 체포하고 토벌하는 일을 일임할 것.

1. 도내 각 진영의 의병장으로 쓸만한 사람과 용력이 뛰어난 자를 박진으로 하여금 불러모으게 하여 手下兵으로 삼고 군량이 없으면 尹斗壽가 모은 조세로 군자금을 삼아 군세를 떨치게 할 것.

1. 반적으로서 귀순하는 자는 죄를 면해줄 뿐 아니라 또한 職을 내려주어 스스로 살아갈 길을 열어줄 것.

1. 반적의 두목을 체포하여 참수하는 자 가운데 수령은 당상관에 승진시키며 직이 있는 사람은 超敘하고 직이 없는 사람은 6품을 제수할 것(《宣祖實錄》 권 47, 선조 27년 정월 기축).

충청병사 邊良傑은 송유진 등이 叛徒를 규합하여 무기·군량을 갖추어 서울을 침입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인솔하여 온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주모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송유진 일당의 거사가 사전이 실패한 것은 진천무사 金應龍의 계책이 주효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카벌 되는 洪穀이 반란주모자의 심복이 되어 종사관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직산의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위협하는 한편, 모사와 탈퇴를 놓고 이해타산을 가리게 하고 설득시킨 다음에 반도의 실상을 파악하여 홍각으로 하여금 송유진을 불러들이게 했다. 정월 15일 송유진은 홍각의 거짓 초청에 응하여 從者 수십 명과 함께 왔는데 김용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力士 洪珥 등과 함께 송유진 일당을 포박하는데 성공했다.³⁴⁾

선조는 송유진 등의 체포설을 들었으나 안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송유진이 스스로 劄書라고 칭한 사실 때문에 그 위에 피수가 있으리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리하여 송유진 일당을 체포했다고 해서 반란세력에 대한 방비가 해이해 지는 것을 경계하여 서울의 각 성문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한편 한강의 경비를 엄격히 하게 하고 남산 위에 장졸들로 대오를 짜서 주야로 망을 보게 하였다. 또 병조에 명하여 장사들 간에 部伍를 편성케 하여 대기시켰고, 趙倬을 砲手大將으로 삼고 별도로 禁軍大將을 두어 함께 입직시키게 하고 좌우명에 있는 화기·화약·궁시·검창 등을 모두 대궐 안 軍器寺로 들여놓고 방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龍山倉에는 용맹한 군사를 배치하여 항시 계엄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의정 유성룡과 병조판서 李德馨에게 대궐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모든 일을 수시로 변통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송유진의 반란음모 이외에 그 이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송유진 일당 체포로 그치었다.

체포된 송유진의 송치문제에 대해서는 중신들 간에 구구한 논쟁이 있었다. 현지에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압송하여 鞫問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논란 끝에 송유진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하고 선전관·금군·도사 등을 보내서 수로를 이용하여 10여 일만에 도착하였다. 대궐 뜰에서 推鞫이 시작되었으며 대신과 양사의 장관만이 참석토록 하였는데 송유진 일당과 무관한 사람들의 誣引을 막기 위하여 전일 송유진과 한패였으나 마음을 바꿔 송유진을 포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입회하도록 하였다. 정월 24일 추국이 시작되자 송유진 일당은 반역을 시인하고 정월 15일 반란을 일으켜서 서울을 침범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였다. 결국 송유진은 나라가

34) 《宣祖實錄》 권 47, 선조 27년 정월 신묘.

《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정월.

위태하고 어려운 시기에 편승하여 不軌를 꾀하면서 印信과 帖文을 위조하여 인민을 속이고 유혹하였으며 무기와 군량을 탈취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고 여러 곳에 반군을 결성하여 서울을 범하려 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그리고 송유진의 가재·전답·잡물 등은 그를 체포하는 데 공을 세운 洪應沂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 송유진의 난에 연관되어 승복한 뒤 처형된 사람은 송유진을 비롯하여 16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1명, 추국을 받다가 사망한 자가 1명으로 모두 18명이었으며 이 난에 연관되어 추국을 받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들 중에는 속아서 빠져든 의병장·현직관원·사족 등 광범한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은 李山謙·呂大老·盧一凱·趙瑗·申應熙·金達孝·趙希進 등이었다. 이산검을 제외한 이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산검만은 반란의 동모자라는 죄명을 받고 끝내 구제되지 못했다.³⁵⁾

이산검은 충청도 보령사람으로 李之菡의 庶子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趙憲 휘하에서 종사하다가 조헌이 錦山싸움에서 패사하자 흩어지는 병졸들을 수습하여 평택·진위 등지에서 建義大將 沈守慶의 절제를 받으면서 활약했다. 그는 여러 지역으로 의병을 이끌고 다녔으나 그리 큰 전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 같으며 한때 의병을 해체하고 본가로 돌아간 적도 있었으나 반적에게 속아서 빠져들어 잡혀 올 때는 소수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라도에 있을 때였다. 이산검이 적피라는 말은 송유진과 그의 일당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산검이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자 그 영향이 중앙정계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 예로 부수찬 鄭曄은 군졸과 군량미를 수집하러 지방에 있을 때 의병장 이산검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벼슬길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申鵠과 申起一 등은 이산검의 장인·처남 사이가 되어 추국에 말려들게 되었다. 이산검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한 증거를 가리기 어렵지만 본인이 적피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고, 송유진 일당을 잡아들이게끔 한 洪응기·홍각 등도 이산검과 대질한 결과 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듯싶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반란의 성격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5) 李章熙,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對하여〉(《鄉土서술》 32, 1968), 50~52쪽.

한편 송유진 일당 체포에 따른 포상관계를 살펴보면, 김응룡에게 除職하고 이에 동조한 홍응기·洪蘭生·申癸丑·洪璨·金應秋 등에게 賞職을 내렸으면, 捕告人 홍각에게는 포상과 아울러 折衝을 加資했다. 그 밖에 충청병사 변양걸이 반적 체포의 공이 크다 하여 가자하고 추국 諸臣들에게는 공에 따라 각각 포상했다. 그런데 홍각은 동년 12월에 다시 송유진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削奪官職되고 노비·전택이 모두 몰수되었으며 추국을 받다가 杖死했다.

(2)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 이후 흉년이 계속되다가 선조 28년(1595) 풍년으로 아사상태에 있던 민중을 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수혜는 지배계층의 수탈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당시 중앙정부는 강화를 둘러싸고 남인·북인·서인의 3파전이 치열하였으며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산성을 수축하는 등 민중의 부담이 가중하여 민중의 원망과 괴로움은 현실여건과 타협할 수 없는 사회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기회를 이용하여 반란을 획책한 것이 李夢鶴이었다.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킬 즈음에 민중의 동태를 趙慶男은 “이 때에 인민들은 난리를 겪어 곤핍한데도 백방으로 침탈을 당하여 한번 속여서 미혹시키는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몰려와서 며칠이 채 안되서 1만여 명에 이르렀다”³⁶⁾고 기록하고 있다. 운집한 군중들은 당연히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반란세력에 호응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마음이 끌려 그들이 지나가면 논밭에서 김을 매다 호미를 들고 환성을 올렸다고 하며, 행상들은 몸동이를 들고 즐겨 날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³⁷⁾

이몽학은 반란을 일으키기 얼마 전부터 募粟官 韓絢 등과 함께 鴻山에 있는 無量寺에서 모의를 하고 조련을 실시하였으며 ‘同甲契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친목회를 가장한 반란세력 규합에 열중하였다. 한현은 先鋒將 權仁龍·金時約 등과 함께 어사 李時發 휘하에 있으면서 호서지방의 조련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민심이 떠나 있고 방비가 없음을 알아채고 이몽학과 함께

36)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7월.

37) 위와 같음.

때를 틈타 모사할 것을 꾀했다. 이 때 한현은 부친의 상을 당하여 洪州로 내려가면서 먼저 이몽학에게 거병하도록 하고 자기는 內浦로부터 상응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실은 이몽학의 거사에 대한 성패만을 관망했다. 이몽학은 金慶昌・李龜・張後載・승려 凌雲・私奴 彭從 등과 함께 홍산 雙防築에 주둔하였으며 僧俗軍이 1천여 명에 가까웠다.

선조 28년(1595) 7월 6일 이몽학 일당은 야음을 틈타 홍산현을 습격하여 현감 尹英賢을 사로잡고 곧 이어 林川郡을 습격하여 군수 朴振國을 납치하였다. 윤영현과 박진국은 반란세력에 투항하여 한편이 되었고 이몽학은 이들을 큰 손님으로 접대하는 한편으로 인신을 넘겨 받아 이를 활용하여 무기를 빼내고 두 고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가담케 하여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날 이몽학 일당은 定山縣을 함락하였고 현감 鄭大卿은 겨우 몸만 빠져 탈출하였다. 8일에는 靑陽縣을 함락하니 현감 尹承緒가 도주하였고, 9일에 大興郡을 함락하자 군수 李質粹는 산중으로 숨어들어 적정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고을이 연달아 무너지고 수령들이 모두 패하여 반적에게 降附하거나 도주하니 관원과 백성들은 반적에게 복종하여 그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扶餘현감 許守謙은 반군이 경내에 침범하기도 전에 겁에 질려 수하인이 무기를 반적의 진영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처단하지 못하고 반군이 이르자 문서를 보여주었다. 瑞山군수 李忠吉은 아우 세명을 逆黨에게 몰래 부역케 하여 왕래하며 도와주었다고 하니 이러한 형세를 간파한 이몽학은 대흥을 함락한 같은 날에 홍주를 침범하였다.

홍주목사 洪可臣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본 고을 官屬인 李希・申壽 두 사람이 거짓으로 적에 투항하고 홍주성이 견고하니 곧바로 공세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공격을 늦추게 하였다. 그리고 성안의 허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속이고 다시 성안에 들어가서 적정을 목사에게 알려주었다. 반란군들은 늦게까지 이희・신수의 회보가 오지 않아 그제서야 그들의 흉계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홍가신은 수성의 완비를 기하게 되었고, 본 고을에 사는 무장 朴名賢・林得義도 성안으로 들어오는 등 많은 무사들이 모여들었다. 체찰사종사관 辛景行은 내포에 이르러

변이 있음을 듣고 이웃 고을 수령들에게 전령하여 구원을 요청하였고, 충청 수사 崔湖 또한 군사를 이끌고 당도하여 홍주성의 수비태세는 완전히 갖추어 졌다.

박명현은 무사들을 내보내어 반란군의 선봉대를 습격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반란군은 물러가지 않고 홍주성 2, 3리까지 이르러 각 진에 1천여 명씩 5진으로 편성하여 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저녁이 되자 반란군의 장수 몇 명이 말을 타고 성 아래로 와서 “天運이 이와 같거늘 어찌하여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호응하지 않는가”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밤이 되어 성중에서 화포와 火箭을 반군을 향해 퍼붓자 동문 밖 민가가 불에 타서 화광이 하늘로 치솟았다.

이 때를 기하여 충청병사 李時言은 온양에서 곧바로 홍주로 향하여 禮山 無限山城에 이르렀고, 어사 이시발은 維鳩에 포진하고 중군 李侃은 청양에 포진하여 군세를 크게 떨치면서 홍주로 향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몽학은 홍주성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알고 “한현이 오게 되면 목사를 참수하여 그 머리를 기에 매달아 놓겠다”고 외치면서 11일 새벽에 무리를 이끌고 德山을 향하여 달아났으며 도망자가 속출하였다. 박명현은 이 틈을 타서 성안에 있는 병졸을 이끌고 청양까지 추격했고, 최호 등 모든 장수들이 군졸을 이끌고 적진 아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全州判官牙兵 尹誠는 때를 엿보다가 부하 군졸을 이끌고 밤중에 적 속에 뛰어들어 총통을 연발하면서 도원수와 전라감사 및 忠勇將 金德齡 등의 병마가 이 곳에 이르렀으므로 날이 밝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반란군의 두목을 참수하여 그 머리를 가지고 오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반란군중은 이몽학이 홍주성에서 퇴각할 때 김덕령·洪季男이 중앙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도성으로 곧바로 향하고 있다고 흰소리한 말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반란두목을 살해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이몽학의 군막으로 난입하였다. 이들 중 김경창·林億命·太斤 등 3인이 먼저 이몽학의 머리를 베어 헌납하였으며 난민들은 일시에 흩어졌다.

이 때 한현은 반란군 수천 명을 이끌고 홍주에 주둔했으나 이시언과 홍가신 등의 진군으로 반민들이 패주함에 따라 사로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앞서 피

살된 이몽학은 머리와 수족이 잘려 서울로 압송되어 철물전 길가에서 梟示되었다가, 3일이 지난 다음 사방을 돌아가면서 호시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추국을 받고 승복한 뒤 처형된 자가 33명이나 되었으며, 외방에서 처형된 자가 1백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 모두에게 緣坐律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외방자에 한해서는 정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연좌율에 적용되어 희생된 경우는 한현의 아들 毅然이 교수형을 받았으며 이몽학과 한현의 친인척들이 각처로 유배되었고 이몽학의 홍산가옥이 破家瀝宅당했고 홍산현도 혁파되었다.

이리하여 반란주도자의 처리는 일단락되었으나 반란주모자의 搜見文書나 심문과정에서 의병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조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즉 이몽학을 복주할 때 그의 문서 속에 김·최·홍씨 성이 발견되었고, 한현은 결박당한 뒤 도원수가 묻는 말에 김덕령·崔聘齡·홍계남이 공모했고 또 郭再祐·高彦伯은 모두 나의 심복이라고 대답했다.³⁸⁾ 이로 인하여 이들은 각기 서울로 붙잡혀 와서 곤혹을 치렀으나 대부분 “왕이 다 죄를 묻지 않겠다”하여 풀려났다. 그러나 김덕령과 최담령은 끝내 석방되지 못하고 옥에 갇혀 추국을 받았다. 김덕령은 옥에 갇힌 지 20여 일간 6차의 국문을 받다가 승복하지 않고 마침내 杖殺당했다. 얼마 후 최담령도 수차 국문을 당하고 불복하다가 옥사했다. 김덕령에 대해서는 후대에 신원되어 모든 죄상이 벗겨지고 陞階하여 追諡까지 받았으나 지나친 반민의 색출은 민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추국이 끝난 다음 이몽학 토평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이 있었다. 이몽학을 참수한 임억명·김경창은 嘉善에 特陞되고 후에 김경창은 임억명보다 공이 낫다 하여 通政으로 강등했다. 태근에게는 특별히 6품 실직을 제수하였고 반란군이 홍주성을 침입했을 때 적의 침입을 지연시킨 이희·신수에게도 6품실직을 주었다.

한편 朝臣 가운데 공을 세운 이시언과 최호를 가선에, 이시발·홍가신을 각각 등정으로 승계했다. 박명현에게는 포상을 내리지 않다가 廷臣들의 연이은 간청으로 후에 가선을 승계했다. 또한 추국을 담당한 관원에게도 가자와 상품이 사급되었다. 그 후 이몽학난 토평에 따른 封功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38)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병신 7월.

논의되다가 선조 37년(1604)에 3공신(扈聖·宣武·清難) 祿封결정에 따른 교서가 반포되어 이몽학난의 토평공신인 清難功臣 1등에 홍가신, 2등에 박명현·최호, 3등에 신경행·임득의 등이 결정되어 이에 따른 승계와 은전이 내려고,³⁹⁾ 다음해에 청난원종공신을 녹봉했는데 은전을 받은 사람은 臨海君 이하 수천 명에 달했다.⁴⁰⁾

(3) 기타 민간반란

가. 옥과·순창의 반란사건

선조 25년(1592) 5월 전라도 玉果·淳昌 군인이 먼저 난을 일으켜 邢大元·趙仁이란 자가 피수가 되어 순창으로 들어와 관사와 형옥을 불사르고 약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순창군수 金禮國은 단신으로 피하여 관찰사 李洸에게 알렸고, 이광은 이를 병사에게 전령하고 토벌케 했다. 그런데 담양부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도중 난병을 만나 패하였고, 南原·求禮·順天의 군사도 파견되었으나 參禮驛에 이르러 일시에 스스로 무너졌다. 이광은 다시 古阜군수 王慶祚를 시켜 물러나는 군졸들을 참수하도록 하였으나 군인들은 도리어 왕경조를 납치하였다. 전주에 이르러 왕경조는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는데, 그 후 난군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다.⁴¹⁾

나. 두 왕자 납치사건

전주에서 함경도 會寧으로 유배된 鞠景仁은 그 곳에서 아전으로 있다가 선조 25년 5월 왜장 加藤清正(가토 기요마사)이 함경도에 침입하여 회령에 박두하게 되자 숙부 鞠世弼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칭 대장이 되어 이 곳에 근왕병을 일으키러 온 두 왕자 임해군(肆)과 順和君(壯), 그리고 從臣 金貴榮·黃廷彥·黃赫 등을 결박하여 가등청정 진영에 넘겨주고 조정에 대한 원풀이를 하였다.⁴²⁾

그후 가등청정이 남하하자 국경인은 회령수비의 책임을 위임받고 온갖 행패

39) 《宣祖實錄》권 180, 선조 37년 10월 을해.

40) 藤井誠一, 〈李夢鶴の亂について〉(《靑丘學叢》22, 1935), 159쪽.

41) 《宣祖修正實錄》권 26, 선조 25년 5월.

42) 《宣祖實錄》권 41, 선조 26년 8월 계미.

를 부리다가 의병장 鄭文孚의 격문을 받은 품관 申世俊과 吳允迪을 주모로 하는 의병에게 그의 일당과 함께 피살되어 그의 首級은 鏡城을 진압하고 있던 정문부에게 보내졌고 차츰 함경도지방이 평온을 찾게 되었다.

다. 김희·강대수·고과 등의 반란사건

송유진의 난이 처리된 뒤에도 전국에서 ‘千百爲群’ ‘百十作群’의 반당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는데 호남지방이 가장 심했던 것 같다.

남원 사람 金希·李福·姜大水 등이 東村 楸洞深谷에서 당을 모아 右路의 반적 高波 등과 상응하며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대낮에도 횡행하며 작당하여 출몰하였고, 母山北村 사람들과 연결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관아에 들어간 마을 사람들을 보면 일당을 시켜 끌어가다 살해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걸어다닐 수 없었으며, 반적의 형세가 날로 성하여 지방관의 힘으로는 금할 수 없었다. 鎭安·長水·雲峰·남원지경은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는데, 이 때는 보리가 익어가는 여름이라 반민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인민들은 잔인한 피해를 입었다.⁴³⁾

이에 도원수 권율은 전라병사 金應瑞를 시켜 賊黨을 찾아 잡도록 하였으나 관군이 도리어 패하여 물러났다. 다시 상주목사 鄭起龍을 督捕大將으로 삼아 이북 일당을 배어 죽였으나 장수를 잃은 남은 무리들은 김희 일당과 통합하였다. 이 때를 즈음하여 영남인 林傑年도 무리를 모아 지리산 般若峰에 자리잡고 불시에 출몰하여 형세는 더욱 험악하였다.⁴⁴⁾ 고과가 그 일당을 이끌고 梨橋店에 몰래 이르자 店人이 이 사실을 남원판관 金瑠에게 와서 알렸다. 김류가 4백여 명의 군사를 출동시켜 店村을 포위하였으나 적당은 이것을 알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밥을 지어 먹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난사하여 도리어 관군을 패주시켰다. 반군은 관군이 돌아가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김류가 이르자 일시에 화살을 쏘아댔고 관군은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앞길을 향해서 도주하였다. 고과 일당이 승세를 타고 계속 추격하여 原川院 아래 이르렀을 때 김류는 고과 일당이 쏜 화살이 요행히 그의 말안장을 맞혀 화를 면하고 성안으로 들어

43)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5월.

44)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6월.

갈 수 있었다. 이 싸움에서 다친 말이 10여 필이나 되었고 부상한 관군이 많았다.⁴⁵⁾

또한 김희·강대수·고과 등이 합세하여 약탈을 일삼자 운봉현감 南侃이 이 사실을 독포대장 정기룡에게 몰래 알려서 정기룡이 군사 3백여 명을 이끌고 운봉으로 달려갔다. 반적들은 마침 연회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관인과 군졸들이 태반이나 들어 있었다. 반적들은 관군이 달려온 사실을 알고도 점점 흥을 돋구면서 싸움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다가 새벽에 이르러 고향을 외치며 갑자기 나와 관군을 포위해 패주시키고 安陰으로 향하였다.⁴⁶⁾

이와 같은 무리들은 김희·강대수·고과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호남과 영남경계에서도 토적들이 모여 관군이 토벌에 나섰으나 수차에 걸쳐서 실패를 거듭했다. 泰仁 回文山에도 많은 적당들이 있어 남원 동촌에 근거를 둔 김희 일당과 서로 내왕하면서 무리를 지어 백주에 출몰하였으나 근처의 관군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라감사가 남원·곡성·옥과·순창·임실·진주·금구·태인 등의 관원에게 명하여 회문산에 주둔한 반적들에 대한 토벌을 명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명을 받고 각기 수백 명의 군졸을 이끌고 회문산으로 모여들어 산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베면서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자 적당들은 결국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흩어져서 長域으로 향하였다. 이 기회를 포착한 금구·태인·순창 세 고을 수령들이 추격하자 적당들은 곤궁에 처하여 산 정상으로 기어올라 끝까지 버티려 하였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굶주림에 지쳐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고 관군은 밤중에 사다리를 타고 산 정상을 기어올라가서 굶주린 적당 1백여 명을 참수하였고 이로부터 회문산 길이 뚫려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었다.⁴⁷⁾ 다음해 1월 김희·강대수 등이 영남관군에게, 고과 등이 장성 사람에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자 오랫동안 두절되었던 호남·영남일대 도로에 비로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⁴⁸⁾

토적들은 서울 가까운 지역에도 있었다. 玄夢은 廣州와 利川 산골에 웅거하

45) 尹衡器(尹得運), 《朝野僉載》 권 44, 갑오 12월.

46)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17, 宣祖朝故事本末 諸道士賊之起.

47)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갑오 12월.

48) 趙慶男, 《亂中雜錄》 권 2, 을미 2월.

尹衡器, 《朝野僉載》 권 44, 을미 춘.

며 약탈을 일삼았고 李能水는 楊州 산골을 근거지로 삼아 오랜 기간 역시 약탈 행위를 일삼았다. 비변사에서는 邊應星을 방어사로 삼고 成泳을 利川府使로 삼아서 이들 난적을 토벌케 하였다. 그리하여 이능수는 수하 적당에게 참수되고 그 무리들은 투항해 왔는데, 이천의 현몽은 무리들이 항복하여 홀 어지자 중적을 감추어 포획하지 못했다.⁴⁹⁾

이 밖에도 호서지방에 ‘逆亂繼作’이란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송유진의 흩어진 잔당들이 다시 무리를 지어 이몽학의 난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민중이었다.

(4) 반란의 성격

난중 크고 작은 많은 반란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옥과·순창의 작란사건은 반도들이 군인신분으로 작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비천한 신분층이었다. 이들이 관사와 형옥을 불사르고 약탈을 자행한 것은 단지 평소 누적된 지배층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라를 전복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왕자 등의 납치사건도 반란을 주도한 인물인 국경인이 全州府吏였다는 점으로 보아 중인계층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그가 고향 전주를 떠나 함경도 변경으로 유배된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차별 대우를 받아 오던 도민을 선동하여 반란을 획책했던 것도 쌓였던 울분을 풀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다. 또한 김희·강대수·고과 등의 반란사건도 作黨群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이미 왜란초 왜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난민들이 노비문적이 보관되어 있는 刑曹와 掌隸院을 불지른 데서도 나타나다. 따라서 이러한 반란은 직접 중앙정부의 전복을 위한 투쟁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송유진의 난과 이몽학의 난은 그 양상이나 성격에 있어 판이하다. 그것은 왜군이 이미 남쪽으로 물러난 다음이라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며, 반란의 주모자가 세력을 형성하여 중앙정부를 타파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49) 《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12월.

송유진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왕의 악정이 고쳐지지 않고 봉당이 해소되지 않으며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편치 못하다는 점을 일깨워 천명을 개혁하여 치세를 실현하겠다는 혁명의식을 제시했다. 이몽학은 ‘安民正國’을 내세워⁵⁰⁾ 고생하는 백성들을 물불 속에서 구출하겠다는 구호 아래,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여 난을 일으켰다.

반민구성원을 분석하면 그 중 일부는 불평사족과 무인배가 끼어 있다고는 하나 대다수가 피지배층인 농민들이었으며, 반적의 두목으로 지적되는 인물은 모두 서얼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송유진은 본래 서울 庶族으로 通事 宋大春의 아들이었고,⁵¹⁾ 이몽학은 宗姓孽裔이며, 함께 모의한 한현·權仁龍·金時約 등도 모두 서자였다.⁵²⁾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피지배층에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군공이나 납속을 통해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난국타개가 목적이었으므로 그 문이 널리 열려 있지 않았다. 임진란 초기에 의병활동에서 주도인물들은 거의 지배층이어서 그 밑의 의병들은 전공이 표면에 드러나기 어려웠다. 그나마 의병이 해체되자 한 가닥 신분상승의 기회마저도 끊어졌다. 납속의 길도 쉽지 않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納粟事目〉은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아사상태에 처한 양민들로서는 납속을 통하여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란의 주도자가 의병활동하던 사람 아니면 납속의 임무를 띠고 활약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준다. 전쟁에는 많은 인명의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는 전란을 통하여 많은 것을 터득하고 배우게 된다. 송유진의 난과 이몽학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은 피지배층의 가담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송유진의 난과 이몽학의 난에 끌려들었다가 죽음을 당한 이산겸과 김덕령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당시 사회적인 추세로 보아 중앙정부가 반적의 입을 빙자해서 고의적으로 취했던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50) 《宣祖修正實錄》 권 30, 선조 29년 7월.

51) 《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5월.

吳希文, 《瓊尾錄》 권 3, 甲午日錄 2월 11일.

52) 《宣祖修正實錄》 권 30, 선조 29년 7월.

들게 한다. 이산점이나 김덕령은 끝까지 의병활동을 하여 衆望이 높았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들을 처형한 것은 그들이 의병세력의 기반을 믿고 혹 동요되는 민심을 이용하여 반란이라도 획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한다.

3) 항왜와 부왜 · 부로

(1) 항 왜

가. 왜군의 투항동기

降倭란 투항한 왜군을 말하는데 왜란중에 왜군이 투항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왕조 건국 이래 왜구를 막기 위해 취해진 대왜정책의 전환이었고, 둘째는 난중에 항왜를 위한 조선정부의 항왜 誘致政策의 奏效라 하겠다. 전자는 투항의 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직접 원인이 되겠다. 조선정부는 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왜인이 큰 손실을 끼치지 않는 한 조선의 내왕을 묵인하였고, 그들 중 귀환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또한 귀화인 중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도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조선 초기의 대왜정책은 일본과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취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외교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대왜정책은 조선을 내왕하는 왜인들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하여 내왕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귀화하였으며, 조선정부는 이들을 내륙지방에 거주하게끔 하였다.

중종 이후에 오면 왜구가 조선에 피해를 끼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조·일 양국간에는 통교가 일시 끊어지는 때도 있었으나, 북쪽 野人과 왜구의 침입이 동시에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곧 재개하였으며, 그 이상의 충돌을 피하려던 것이 조선의 외교방침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의 초기 대왜정책은 별다른 변동없이 임란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 때까지 조선을 내왕하던 왜인이나 귀화인 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 이들에 의해 조선의 대왜정책은 일본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발달한 문화도 소개될 수 있어서

왜란중 왜군이 투항하는 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난중에 왜군이 투항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왜군진영에 기근이 극심했다는 것, 조선정부가 항왜를 후대한다는 소문이 왜군진영에 전파된 것,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국으로 철수했을 때에 겪어야 할 생활고 등이 그것이었다.

왜군들은 기근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기는 조선 관군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어찌보면 그들의 식량난은 조선측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 같다. 정유재란 때 울산산성 안에 둔진하고 있던 왜장 가등청정군의 모습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들은 군량미가 다하여 종이를 씹어 먹었고 벽의 마른 흙을 삶아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소나 말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잡아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으나 그 많은 군졸이 언제까지 그것으로 연명할 수 없어 굶주림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건장한 왜군은 밤이 되면 성을 빠져나가 명군이나 관군 전사자의 몸을 뒤져 볏을 쌀과 육포 등을 찾아내어 생명을 잇는 자도 있었다. 왜군 중에는 신분이 낮은 농민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싸우다 조선군에 죽음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일본 지휘관들의 혹독한 벌을 받아 조금만 방심해도 가혹한 매질을 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곤경에 처한 왜군에게 “조선은 항왜를 후대한다”는 소문이 왜군진영에 공무로 출입하는 조선군관 등을 통하여 전해졌다.

우리는 지난해 정월에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와 각자 主將을 따라다녔다. 혹은 薺浦에 설진하고 있는 小西行長 管下에 있는 장수 有馬修理大夫에 예속되었다가, 또 平戶島法印에 예속되기도 하였으며, 동래에 주둔한 樹下 등의 장수에 예속되기도 하였다. 고되게 수비하는 즈음에 조선이 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번 조선진영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실제로 그 정황을 알 수 없어 행동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금년 3월에 전라병영에서 배를 가지고 칼을 바꾸러 소서행장진영에 온 군관이 있었다. 그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우리 진영에 온다면 필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들은 그 말을 믿고 투항해 왔다(《宣祖實錄》 권 62, 선조 25년 4월 신유).

위와 같은 항왜 助國郎·老古汝文 등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투항하게 된 동기의 하나가 조선은 항왜를 후대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왜군 중에 하급병사는 본국으로 철수해 보았자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

지 못했다. 대부분이 농민인 하급 병사들은 농사를 지을 조그마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으며, 관인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한 말어치의 씨앗을 땅에 뿌려 난알 1斛을 징수당하는 것이 상례여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풍년이 들더라도 겨나 쭉정이를 먹어야 할 실정이라서 산에서 고사리나 칩뿌리를 캐먹으면서 아침·저녁의 끼니를 채우는 실정이었다고 사역에 동원되어 힘겨운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조선은 참으로 樂國이요, 일본은 陋邦”⁵³⁾이라고 하면서, 조선을 부러워하여 투항을 하기로 마음먹은 자가 급증하였다.

나. 항왜의 유치와 분치

가) 항왜의 유치

난중에 항왜 誘致를 둘러싼 朝野의 격론이 일게 된 것은 왜란이 일어난 다음해부터였다. 그 이전은 왜군이 승세를 타고 대부분의 조선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만큼 왜군이 투항해 오는 일이 없었고 조선정부도 급박한 나머지 항왜 유치를 위해 政論을 일으킬 만한 여유도 갖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명나라 군대가 온 후 조·명군의 유리한 작전 수행은 적을 남쪽으로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 화의의 진행으로 싸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피아간에 상대 진영의 내왕이 쉽게 되자 왜군들 가운데 이 틈을 이용하여 항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조선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왜군이 처음 투항해 온 곳은 조선진영이 아니고 명군진영이었다. 그것은 명군이 적진과 인접하고 있었던 관계도 있었겠으나 그것보다는 조선은 아직 항왜 수용을 위한 아무 대책이 없었고 적의 투항 자체를 불신하여 투항자를 무조건 살해하겠다는 것이 정론이었고, 반대로 명군진영에서는 항왜를 받아들이 후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선조 26년(1593) 5월 明提督 李如松 군영 앞에는 몇백 명에 달하는 왜병이 투항해 왔는데, 조선진영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항왜가 명군진영에 투항할 즈음 조선은 그들의 유치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항왜를 모두 살해할 것을 조야가 결의하여 이를 명측에 강경히 요구했다. 조선의 이러한 방침은

53) 姜沆, 《看羊錄》, 賊中封疏.

결국 명측의 항왜 유치를 둘러싼 두 나라의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⁵⁴⁾ 명나라에서는 관원을 보내 禮部咨文을 전달하고 降附者를 살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조선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으로 버티었다.

조선이 명나라의 항왜 유치를 반대한 이유는 항왜를 중국으로 이송할 경우 평양 서쪽의 조선지리와 중국의 關外의 일을 알게 되어 후환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데 있었다. 조선이 일본을 가리켜 ‘萬世必報之讎’ 니 ‘不共戴天之讎’ 니 하는 침략자에 대한 원한관계에서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해 8월 이여송이 주력부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철수하고 다음해 봄에 吳惟忠·駱尚志의 군대가 철수하고 또 8월 劉綎의 잔류병까지 철수하자 사실상 휴전상태가 되면서 조선정부는 항왜 유치를 피하게 되었다. 명나라의 항왜 유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선조가, 항왜 살해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투항자에게 給糧은 물론 除職까지 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항왜를 많이 피어내는 자에게 논상하려고 한 것은,⁵⁵⁾ 방침을 바꿔 항왜를 역이용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조 27년 이후 조선정부의 항왜 유치가 활발해져 항왜가 공을 세우기 전에 司勇·司正 등의 武職告身帖이 급여되었으며, 특수한 경우 당사 또는 가선의 교지까지 내려 왜군의 투항을 권장하였다.⁵⁶⁾

조선정부가 항왜를 유치한다는 전언이 적진에 알려지자 많은 왜군들이 투항해왔으며,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던 조선정부는 항왜 유치의 필연성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항왜들 중에는 투항 후 자기들이 투항 전에 듣던 것과 처우가 다르다는 것을 내세워 행패를 부리는 자도 있어서 항왜 유치를 절제하게 되었다. 이 해 6월 이후부터 진실로 투항을 하겠다는 항왜를 제외하고 널리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항왜 유치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문신과 무신들간에는 항왜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경상우병사 金應瑞 등 남방 諸陣에 있던 무장들은 항왜 유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적극성을 보였으며 왕도 그들의 의견을 따랐는데 문신들은 항왜 유

54) 李章熙, 〈壬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韓國史研究》 6, 1971), 38쪽.

55)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을축.

56) 《宣祖實錄》 권 54, 선조 27년 8월 신유.

치 자체를 반대하다가 왕의 강요에 못이겨 부득이 따르는 입장이었다. 문신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항왜가 자기 나라를 저버리고 내부한 것은 반드시 속이고 못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언제 배반할 지 모른다는 것이었다.⁵⁷⁾ 이와 같이 찬반양론이 거론되면서 항왜 유치에 대해 통일을 기할 수 없었으며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항왜 유치의 제한은 결국 종래 인원수 확보에서 질적인 면으로 치중하게 되어 기술이 있거나 유능한 항왜는 파격적인 무거운 상을 내리게 하였다. 그렇다고 기술이 없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다음해인 선조 28년(1595)에 특기가 없는 왜군이라도 진심으로 투항해 오는 자는 수용하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즈음 왜군은 때를 지어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적진에 밀파된 자에게 “적이 투항해 오는 데 50일 이상이 집단을 지어 한꺼번에 행동하면 처치하기 어렵게 되므로 투항이 누설될 우려도 있고 조선인민이 놀라 당혹할 염려도 있으니 날자를 정하여 10명을 전후해서 투항해 오면 곧 諸陣 이나 內邑에 分置하겠다고 투항자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라”⁵⁸⁾고 한 것을 보면 투항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난중에 수용한 항왜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당시 조선정부가 그것을 비밀로 부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宣祖實錄》이나 《宣祖修正實錄》에 항왜의 성명이 밝혀진 자만도 40여 명이나 되고 항왜 이동과정에서 파악된 인원만도 거의 1,000명을 헤아릴 수 있으며,⁵⁹⁾ 왜란이 끝난 지 30여년이 지난 인조 2년(1624) 李适의 난 때 地方赴防降倭로서 반란에 동원된 자가 13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보면,⁶⁰⁾ 임진왜란 중에 유치한 항왜의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가 항왜를 유치하게 된 것은 “蠻夷로 하여금 蠻夷를 치게 한다”는 군사적 목적에서 後金 방어에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명·일간에 화의 진행이 실패하여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항왜의 유치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 하였다.

57) 《宣祖實錄》 권 82, 선조 29년 11월 기유.

58) 《宣祖實錄》 권 54, 선조 27년 8월 신유.

59) 李章熙, 앞의 글(1971), 41쪽.

60) 李肯翬, 《燃藜室記述》 권 24, 故事本末 李适之變.

나) 항왜의 분치

선조 27년(1594) 이전에 투항한 항왜는 경상도 내지인 豊基·榮州·安東·義城 등지에 읍당 7~8명에서 15~16명씩 배치하여 각 고을에서 집대케 하였다. 어려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一日三食’을 제공하는 등 후대 하였지만, 그들은 불만을 토하면서 서로 살생까지 일삼아서 그들이 진정으로 투항한 자들인지 의심케 하였고, 敵變이 재차 돌발할 경우 ‘내외에서 서로 호응하는 근심’을 염려하여 나누어 수용할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경도·강원도·충청도·황해도 등지 연변의 고을이나 도서지방에 옮겨 경작지를 나누어주어 식량을 해결토록 하고 출입을 막아 서로 호응하는 갑작스러운 변란을 막게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⁶¹⁾

그런데 항왜를 옮기는 것이 경상도 내지에 분치된 항왜 전반에 걸쳐서 단행된 것은 아니었다. 남쪽에 설진한 장수들과 상의하여 쓸만한 항왜는 그대로 아군진영에 두고 그 밖의 항왜들만 우선 서울로 옮겨 각지로 분산 수용하였다. 이들 중 銃劔 주조의 기술을 가진 자나 검술에 능숙한 자 또는 烝硝 煮取法을 해득한 자는 군직을 제수하여 서울에 유치하고 기술이 없는 자들만 내지 또는 평안·함경도 양계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평안·함경도로 옮겨지는 항왜중에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자들이 있어 사정·사용 등의 하급 무직의 고신첩을 주어 무마작업을 피했으나 별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양계로 이송된 항왜 중에는 도망하는 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행패가 심하였다. 선조 27년 11월에 함경도에 분치된 항왜만도 100명을 넘어서게 되자 더 이상의 이송을 꺼리게 되었고 그 후 항왜들은 閑山島 舟師所在處로 이송하여 格軍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이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었지만, 이는 양계로 이치된 항왜의 폐단이 많아서 郡邑이 상처를 받고 피해가 컸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항왜를 이곳으로 이치한 내면에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지 항왜의 분산으로 인한 작당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그쳤다.

그렇다고 항왜들 중에 조선을 위해 공헌한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쪽 진영에 분치된 항왜들은 조선관군 못지 않게 적을 공격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61) 《宣祖實錄》권 52, 선조 27년 6월 계해.

특히 정유재란 때 활약이 많았다. 재란이 발발한 그 해 8월 관군과 왜군의 접전이 있었을 때 항왜들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선두에서 힘써 싸워 많은 적을 참수했다. 동년 9월 경상우병사 김응서 진중에 투항하여 김해부사 白士霖의 진영으로 이송된 沙白鷗은 위기에 처한 백사림을 구출하였다. 10월 達美縣에서의 싸움에서는 충청병사 李時言 휘하에 수용된 항왜들이 적진에 돌입하여 난사하였고 山祿古라는 항왜는 조선진영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적군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11월에는 雲峰·山陰·三嘉 등지에서 적의 大軍과 격전이 있을 때도 항왜들이 활약했다.⁶²⁾ 항왜들이 전공을 세운 것은 경상우병사 金應端의 힘이 컸다. ‘養虎貽患’이니 ‘養虎到處’라는 의심과 질타를 받으면서도 성심껏 항왜를 활용한 것이 효력을 나타낸 것이었다. 항왜들 중에는 전공으로 降倭僉知·降倭同知 등의 높은 품계를 받은 자도 상당수에 달했다.⁶³⁾

또한 항왜들 중에 기술을 가진 자를 서울에 유치하면서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총검 등 무기제조와, 화약제조·검술교습에 종사시켰으며, 선전관 李榮白은 항왜들로 조직된 投順軍을 지휘하여 송유진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⁶⁴⁾

난이 끝난 후 모든 항왜들은 본국으로 쇄환되지 않고 일정지역에서 분배된 전토를 경작하여 赴防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거주지역은 중부 이북으로 주로 양계지방이었다. 또한 남쪽에 분치되었던 항왜들도 난후 이 지역으로 옮겨 본국과의 연락을 못하고 서북변경 방어에 대비해야 하였다.

(2) 부왜·부로

가. 부왜의 실태

왜군은 침입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조선사람을 회유하고 기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附倭者로서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자도 있었다.

62) 《宣祖實錄》 권 92, 선조 30년 9월 을미·권 93, 선조 30년 10월 기미 및 권 94, 선조 30년 11월 기유.

63) 《宣祖實錄》 권 93, 선조 30년 10월 임신 및 권 94, 선조 30년 11월 기유.

64) 李章熙, 앞의 글(1971), 46쪽.

왜국은 征戍 徭役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좋아하였다. 왜적은 또 민간에게 수을 내어 회유하매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항복하면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요, 싸우면 기필코 죽는다는 말을 믿었던 까닭에 沿海頑民들은 너도나도 削髮易服하고 그들을 따랐으며, 곳곳에서 왜적행세를 하는 자가 倭奴는 얼마 되지 않고 그 반이 叛民이니 극히 한심스럽다(《宣祖實錄》 권 27, 선조 25년 6월 병진).

위의 내용은 경상우도 초유사 金誠一이 중앙정부에 알려진 왜란 초기 경상도지역 민심의 동태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부왜자가 상당수에 달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부왜자 중에는 적의 向導가 된 자도 있었으며, 봉당을 만들고 왜말을 흥내내며 마을에 침입하여 민가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였다.⁶⁵⁾

星州를 침입한 왜군은 조선인으로 判官을 삼았으며 관곡을 풀어 나누어 주고 환심을 얻으려 하였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받으면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며, ‘새 上典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외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⁶⁶⁾ 부왜자들 가운데는 왜군의 침자가 되어 아군에게 피해를 주는 자도 있었다.

경상도 靈山에 사는 孔僞謙이란 자는 왜란초에 附賊하여 함께 서울에 올라갔다. 자기 집에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경주부윤이 될 것이며, 못 되어도 밀양부사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상감을 범하는 말까지 하였다. 郭再祐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분개하여 하루는 공위검이 그 집에 돌아온 것을 알고 그를 결박지어 참수하였다(趙慶男, 《亂中雜錄》 권 1, 임진 7월 9일).

위의 공위검 같은 자는 대표적인 부왜자로 볼 수 있다.

부왜자가 속출한 데는 內需司의 폐단이 컸던 데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同副承旨 李礪은 開城행재소에서 직언하기를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내수사의 작폐한 사람을 찾아 처단하고 이완된 민심을 수합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그는 근래 궁인들의 작폐가 크고 내수사 사람들이 宮物을 가칭하여 백성들은 원성을 누적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원망하며 왜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왜군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임금이 백성을 학대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조선인들도 ‘왜도 또한 사람이다.

65) 吳希文, 《鎖尾錄》 권 1, 壬辰南行日錄 8월.

66) 위와 같음.

어찌 꼭 집을 버리고 피난할 것인가’ 하며 부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⁶⁷⁾

황해도 여러 고을에서도 부왜자가 발생했다. 海州를 본거지로 삼고 여러 고을을 분탕하던 왜장 黑田長政(구로다 나가마사)은 한편으로 서해민을 회유하기 위해 각처에 榜文을 배포하였다. 요지는 벼슬아치건 농민·노비든간에 자기를 따르는 자는 살려줄 것이며 배반하는 자는 참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점령지에 있는 민중은 살아남기 위해 부왜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중에는 왜군을 가장하고 촌락에 침입하여 만행을 자행하는 자도 있었다. 해주 東面に 거주하는 사람들은 왜군과 내통하고 민가를 분탕함이 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하며, 延安 사람들은 부사가 왜군을 사살하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적이 재차 침입해 오면 부사를 결박지어 적진에 넘기겠다고 위협까지 하였다.⁶⁸⁾ 선조가 황해도 백성들이 모두 적 중에 투항했느냐고 묻는 말에, 尹斗壽가 “다른 고을은 듣지 못했으나 오직 鳳山郡은 모두 들어갔다”⁶⁹⁾고 한 것을 보면, 봉산군에서 부왜자가 가장 많았던 것 같다.

이와 같이 해서지방의 민심이 악화일로를 거듭하자 정부에서는 수습책으로 민간에 招諭敎書를 배포하고 서둘러 그 대책을 세웠다. 적에게 부역한 자라 하더라도 과오를 뉘우치고 마음을 바뀌먹는 자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적에 부역한 자로서 왜군을 포획하는 자는 叛하지 않은 자와 동등하게 시상기준에 따라 후하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반자의 개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⁷⁰⁾

철저히 부왜를 한 자는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함경도 회령에서 반기를 든 국경인과 그의 숙부 국세필이었다. 그는 설움을 받아 오던 함경도민을 충동하여 부왜에 앞장섰고 두 왕자와 從臣 김귀영·황정욱 등을 납치하여 가동청정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諸鎭堡의 토병들도 반하여 본도 감사 柳永立이 숨어있는 곳을 탐지하고 적병을 인도하여 잡히게 하였으며, 관리들을 잡아 반란을 일으키고 적진에 투항하였으며, 남병사 李渾은 반민에게 잡혀 죽었다. 그리하여 함경도에 침입한 왜군은 피를 흘려 싸우지 않고 함경

67) 《宣祖實錄》권 36, 선조 25년 5월 임술.

68) 李廷龜, 《西征日錄》, 임진 6월 12일.

69) 《宣祖實錄》권 28, 선조 25년 7월 병술.

70) 《宣祖實錄》권 28, 선조 25년 7월 병술.

도 전역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그 후 가등청정은 部將으로 하여금 吉州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安邊府로 내려왔으며 明川 이북의 8진은 부왜한 자들로 刑伯·禮伯의 일본 관직을 주어 다스리게 하였고, 국경인에게 判刑이란 왜직을 주었으며 국세필에게 예백을 주어 각기 회령과 鏡城을 지키게 하였다. 附敵者를 시켜 지키게 한 것은 관북뿐이 아니고 관남지역도 그러했다. 이는 “關南州鎭 또한 반민이 웅거하면서 모두 淸正의 절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⁷¹⁾

다음은 도성의 실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조가 서울을 빠져나가자 도성의 사족들은 왜군을 피하여 먼 곳으로 피난하였고, 일반 양인이나 천민들도 흩어져 근기지역으로 나가 도성은 텅비어 있었다. 그런데 왜군이 방을 붙여 선정을 약속하면서 도성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그들을 따르면 재능에 따라 관직을 내리겠다는 등 회유책을 펴자 주민들이 점차 성안으로 들어와서 坊市에 가득하여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왜군은 성문을 지키며 그들이 발급한 통행증인 帖을 가진 자는 출입을 허용하여 도성민들이 모두 이첩을 받았고, 그 중에 무뢰배들은 왜군에게 붙어 향도노릇을 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왜군은 싸우는 것을 엄금하고 싸우려는 조선 사람을 고해바치는 간사한 자에게 상을 주고 자기들을 비방하는 자는 모두 살해하였다고 한다.⁷²⁾ 李肯翊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때 성안 백성들이 모두 달아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차차 들어와서 동리와 시장이 전일과 같고 적과 섞여서 서로 물건을 매매하였다. 적이 성문을 지키고 우리 백성들로서 적의 帖을 가진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모두들 적의 첩을 받아 적에게 복종하여 감히 그들의 숨을 거역하지 못하였다. 또한 적에게 아침해서 가까이 하고 길잡이가 되어 못된 짓을 하는 자도 있었다. 혹 적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사람들은 그들이 밀고하여 鐘樓 앞이나 崇禮門(南大門) 밖에서 불태워 죽이고 극히 참혹한 것으로 시위하며 위엄을 보여서 해골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大駕西狩).

대부분의 도성민들은 난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성 안 본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倭帖을 받아야 했던 것이

71) 李章熙, 〈鄭文學의 義兵活動〉(《史叢》 21·22, 1977), 331~332쪽.

72)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5월.

다. 그러므로 첩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왜자로 볼 수는 없다. 도성민의 극히 일부가 부왜하여 왜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을 뿐이었다. 문무관원으로 항부하는 자는 우대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감언에 따라 왜적에 부역한 문무관은 거의 없었다. “文官附賊者는 오직 前工曹參議 成世寧 뿐이다”⁷³⁾라 한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난초에 각처에서 있었던 부왜자들은 난이 장기화되면서 왜군들이 잔악한 본성을 드러내자 뉘우치게 되며, 의병의 봉기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나. 부로의 납왜와 실상

가) 조선인 부로의 납치

여기서 말하려는 俘虜는 임진왜란 중 왜군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사람을 말한다. 임란 전에도 왜구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된 조선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간혹 있었던 일이며, 피랍인들은 대개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섬사람 아니면 해변가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7년 동안 자행된 조선인 납치는 그 규모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피랍자들 중에는 전쟁포로보다 비전투원인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상품가치를 추구하는 노예상인들의 의도가 드러난 만행이었다.⁷⁴⁾

조선인의 납치는 임진왜란 때보다 정유재란 때 더 심했다. 趙慶男은 《亂中雜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당초 秀吉이 金吾(小旱川秀秋) 등을 출송하는 날에 指畧을 하달하기를 해마다 발병하여 저 나라(조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저 나라를 텅비게 하라... 사람은 두 귀가 있으나 코는 하나뿐이다. 코를 잘라 首級의 대신을 삼으라. 코는 각각 一升으로 헤아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生擒함을 허락한다(趙慶男, 《亂中雜錄》 권 3, 정유 7월).

이와 같은 내용은 정유재란 때 섬으로 피난하다 부로로 일본에 피랍되었다가 3년만에 살아서 돌아온 前佐郎 姜沆의 《看羊錄》에도 들어 있어 사실임이 입증된다.⁷⁵⁾

73)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5월.

74) 李元淳, 〈壬辰·丁酉再亂時의 朝鮮俘虜奴隸問題－倭亂性格貌－〉(《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三英社, 1985), 628쪽.

75) 姜沆, 《看羊錄》, 倭國八道州國.

부로 피랍의 만행은 조선측 기록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정유재란 때 조선에 건너와 전쟁참상을 목격한 倭僧 慶念의 일기에도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즉 일본으로부터 가지가지 장사꾼들이 건너왔는데 그 중에는 인간상인도 건너와 싸움터 바로 뒤를 넘나들며 남녀 노약자를 사들이고 새끼로 목을 묶은 다음 여러 사람을 줄줄이 움아매고 우마를 끌게 하든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하며, 몽둥이를 들고 가혹한 매질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俘虜人들은 적선에 실려 끌려갈 때 울부짖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그 중에는 울다 지쳐 신음하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⁷⁶⁾

임란의 7년 전쟁기간 동안에 부로로 납치된 조선인의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어림잡아 1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⁷⁷⁾ 왜군들은 조선인을 무차별 납치하였지만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때 풍신수길의 출전 중인 왜장 鍋島直茂(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조선인 細工人과 裁縫女 및 재간 있는 여자를 진상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왜장들이 다투어 陶工 노략에 힘썼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에서는 조선인을 특수한 목적에서 특정직업인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왜군 중에는 호색적인 욕구 등으로 미색을 갖춘 조선 여인을 납치하는 예도 있었다.⁷⁸⁾

나) 재왜부로의 실상

일본 본토로 납치된 조선 부로는 대부분 九州・四國과 本州의 中國지방으로 납치되어갔다. 특히 구주의 薩摩・唐津・福岡・小倉과 壹岐・對馬島, 그리고 사국의 伊豫・讃岐・阿波・土佐지방과 본주의 長門・廣島・岡山・姫路・兵庫 등지에 많았고 그 밖에도 紀州지방 등 출진장병의 領地와 大阪・京都・名古屋・静岡・江戸 등 정치적 도시나 교통요지에 많이 집중되었다고 한다.⁷⁹⁾

일본에 끌려온 조선 부로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학문으로 비교적 예우를 받은 자도 있고, 도공으로 끌려와 그 기

76) 慶念, 《朝鮮日日記》 11월 19일.

77) 李元淳, 앞의 글, 630쪽.

78) 吳希文, 《鎖尾錄》 권 1, 壬辰南行日記.

79) 李元淳, 앞의 글, 636쪽.

술을 인정받아 조선에 침략한 왜장들의 영내에서 陶窯를 이루고 도예기술의 전수에 봉사하여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도 있었다. 또 여성들 가운데는 德川氏 궁내인 大奧나 諸大名들의 성중에서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 자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로들은 전쟁노예로서의 비인격적 사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⁸⁰⁾ 사국의 伊豫州로 끌려온 강항은 大津에 도착했을 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남녀로서 전후 납치되어 온 사람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새로 잡혀온 사람들이 조석으로 마을에서 무리를 지어 嘯哭하였다(姜沆, 《看羊錄》, 見我中封疏).

이와 비슷한 장면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정유재란 때 사국의 阿渡州로 끌려온 鄭希得도 그 곳에 납치된 조선 부로인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달 밝은 밤이면 다리 위에 모여 혹은 노래 부르고 혹은 서로 부르며, 혹은 회포를 풀고, 혹은 신음하고 슬피 우는 등 이렇게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지는데, 그 다리 위에는 넉넉히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다(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3월 4일).

그런데 조선인 被擄 문제를 악화시키고 심각하게 만든 데는 일본인과 포르투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예상인들의 마수가 작용한 데도 원인이 있다. 왜란중에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던 포르투갈 노예상인의 앞잡이로 일한 노예중매인이 전쟁터인 한반도로 건너왔고, 포르투갈 노예선이 조선해안까지 출동했다고 하는 것은 두 나라 노예상인들의 손발이 잘 맞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천대와 멀리 속에서 노예적 고역을 강요당하던 조선 부로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사역을 당하다가 기회가 닿으면 포르투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기 마련이었다. 포르투갈인 노예상과 일본인 노예매매업자들은 왜란으로 조선에서 다수의 조선인 부로를 받아들이고 이를 해외로 방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자 더욱 활발하게 노예매매와 해외 송출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일본인 노예상뿐만 아니라 조선에 진출한 大名들도 노예매매에 간여하여 폭리를 얻게

80) 李元淳, 위의 글, 638쪽.

되었다.

포르투갈 노예상인들은 전장으로부터 보내오는 조선난민의 男婦幼少를 그들이 일본으로 실어 온 철포와 白絲의 대가로 탁치는 대로 받아들였다. 또 戰陣의 여러 적장 가운데 눈치빠른 자는 처음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대량 노략하여 오는 자도 있었다. 심한 예로는 조선 남부에까지 진출하여 직접 사들여 오는 자도 있었다.⁸¹⁾

조선인 부로에 대한 포악과 혹사 그리고 비인도적 인신매매행위에 대해 양식있는 일부 일본인사회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서양 선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키리시탄교회는 종교적·인도적 견지에서 비참한 조선인 부로의 문제에 구제의 손길을 폈다. 즉 종교적 구제의 방법으로 조선인 부로를 교화하여 종교적 구원활동을 전개했으며, 방매되는 조선인 노예들을 사들여 속량시켜 주는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또 보다 강경한 대책으로 노예매매 관계자의 破門조치를 결의하고 이를 국적을 초월하여 전가톨릭신도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조선인 부로노예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본 노예상인과 포르투갈 노예상인의 노예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반발로 포교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⁸²⁾

다) 부로의 쇄환

일본에서는 풍신수길의 죽은 뒤에 어린 아들 豊臣秀頼(도요토미 히데요리)를 關白으로 삼고 제장이 보좌케 하였으나 실권을 잡고 있던 徳川家康은 철병 다음해부터 對馬島主 宗義智를 시켜 강화를 요청하는 사신을 여러 번 보냈다. 선조 32년(1599) 대마도주는 국교재개의 타개를 위한 한 방법으로 부산첨사李宗城에게 서장을 보내고 阿波城主가 석방한 정희득을 송환해 오면서 화의성립 후의 조선인 부로의 송환을 약속해 왔다. 다음해 2월에는 종의지 등이 수호를 위한 서장을 조선의 예조 등에 보낼 때, 조선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해 柳川調信家에서 사역하던 부로와 대마도에서 유랑하던 부로 남녀 160여 명을 송환해 왔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被擄人 전원을 쇄환해야만 수호에 응하겠다는

81) 山口正之, 〈耶穌會宣教師の朝鮮俘擄救濟教化〉(《靑丘學叢》 4, 1931), 21~22쪽.

82) 李元淳, 앞의 글, 657쪽.

강경한 회답을 주었다. 새로운 실권자로 등장한 덕천가장은 그 자신이 왜란 출병과 관계없는 인물임을 내세워 수호교섭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통상상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 조선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수호요청 사절을 보낼 때마다 피로인들을 송환해 오면서 거둬지는 일본의 요청에 조선정부에서도 수호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실용론이 대동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굳혀 준것은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전직관료이며 儒者인 피로인들의 상소와 건의였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본의 재침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계속적인 수호요청과 귀환피로인들이 전하는 정보와 상소를 통하여 집권세력이 豐臣氏로부터 德川氏로 넘어간 사실과 새 집권세력이 수교의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선정부에서도 국교재개가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 강해졌다. 그래서 선조 37년 봄에 孫文彥을 正使로 삼고, 또 난중에 의승군으로 활약이 컸고 담력과 지략이 있던 僧 惟政(泗溟堂)을 동반케 하여 피로인의 쇄환교섭을 이유로 일본에 파송하였다. 이들 일행은 다음해에 伏見城에서 덕천가장의 대를 이은 집권자 德川秀忠(도쿠가와 히데타다)을 만나고 피로인 3,000여 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대마도주가 다시 대마도인의 부산교역 허락을 감사해 하며 피로인 1,390명을 송환해왔고, 다음해 선조 39년에 수호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면서 부로 120여 명을 또 보내왔다.

이로써 일본의 화의에 대한 진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으나 화의 그 자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조 40년 정월에 비로소 첨사 呂祐吉을 정사, 校理 慶暹을 부사, 佐郎 丁好寬을 종사관으로 한 일행 270여 명의 사절을 回答使로 일본에 보내 덕천수충과 회견하고 국서와 토산물을 전달함으로써 왜란후 국교가 회복하게 되었으며 피로인 1,34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 후 쇄환사업이 일본측의 비협조와 물이해로 여의치 않자 조선정부는 부로인 전원의 쇄환을 요구하면서 부로인 쇄환을 위해 회답사 겸 쇄환사의 명칭으로 수차에 걸쳐서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큰 실효는 보지 못하고 수백 명을 쇄환하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일본에 피랍된 조선인 부로의 쇄환인원은 1만 명 미만에 불과하여 전체 10만 명 내외의 피랍자 중 겨우 1할 정도만이 귀환할 수 있었다.

5. 왜군 격퇴의 전략·전술

1) 육 전

(1) 관군의 군령·군사지휘권

왜군의 북침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도성의 위급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조는 서쪽으로 피난하면서 비변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쟁수행의 직접적인 최고 군령권자인 都體察使를 임명하고 작전지휘의 최고책임자로 都元帥를 임명하였으며 都巡邊使·巡邊使·防禦使·助防將 등 京將을 파견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비상체제를 갖추었다. 이는 평상시에 관찰사와 수령이 해당지역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령·군사권을 겸하도록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도체찰사는 전쟁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최고군령권자로 時任議政 중에서 겸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였다. 도체찰사가 최고군령권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군령체계상 1명을 두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겠으나 전쟁 초기의 어려운 시기라 이를 속히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3명 또는 4명의 체찰사를 임명한 때도 있었다. 이들은 지역적인 면에서는 관할권을 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지역내에 2명의 체찰사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 「兵民策應」의 절제권이나 군령권 행사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¹⁾

도체찰사는 명나라 원군이 남쪽으로 내려간 뒤로는 명나라 장수의 陪臣으로서 함께 남하하여 그들의 자문에 응할 뿐 작전권을 명장에게 넘겨 도체찰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러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조선의 대신들은 명나라 군사와 행동을 같이하면서 명나라 장수와 함께 체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²⁾

왜란중에 도체찰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은 柳成龍·鄭澈·俞泓·沈守慶·尹斗壽·金應南·李元翼 등이었으나 실제 군령권을 장악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데

1) 車文燮, 〈朝鮮中期 倭亂期の 軍令·軍事指揮權研究〉(《韓國史學》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11쪽.

2) 車文燮, 위의 글, 29쪽.

장기적으로 가장 큰 역할은 유성룡과 이원익이 하였다.

최고군령권자가 도체찰사였던 데 반해 전투지휘의 직접적인 최고책임자는 도원수였다. 왜란중에 도원수는 2품직의 문관이 임명되었는데 전투지휘의 최고책임자로 무관을 기피하고 문관으로 정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武將들은 문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韜略(병법)을 알지 못한다. 왜인은 비록 글을 알지는 못하지만 평생 武를 업으로 삼아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부대로부터 익혀 와서 그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자를 익히지 않아도 슬기로운 지혜가 있다고 하나 다 싸움을 익힌 왜인들만 같지 못하다(《宣祖實錄》 권 133, 선조 34년 정월 병진).

위에서 보다시피 軍事籌劃에 있어서는 무장들보다 글을 잘 아는 문관에게 기대를 더 걸었기 때문이었다. 왜란중에 도원수였던 金命元과 權慄은 다같이 문관이었다.

도원수는 육전은 물론 수전에 있어서도 최고의 작전지휘권자였다. 따라서 수전의 최고지휘권자인 三道水軍統制使도 도원수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륙합동작전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수전이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제사가 자기의 주장대로 작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도원수가 직접 호령을 내릴 수 있는 장수들은 순변사·방어사·조방장 등 경장들이었다.

때로는 도원수가 도체찰사의 권한까지 행사한 적도 있었다. 선조 26년(1593)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간 후 좌의정 윤두수가 도체찰사를 겸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은 도원수 권율이 군령·군사권을 함께 행사하여 도체찰사의 권한을 대행한 적이 있었다. 또 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도체찰사 이원익이 신병으로 상경하여 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에도 권율이 도체찰사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중신들 중에는 도체찰사의 임무를 도원수가 행사케 하자면서 도체찰사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영의정 유성룡이 도원수는 전투에 임하여 策應해야 하고 經理의 모든 일은 반드시 대신이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도체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대로 존속시키게 되었다.

선조 27년 권율이 도원수에서 면직되자 이원익이 도체찰사 겸 府元帥府事로 임명되어 남쪽에서의 군령·군사지휘권 이외에 임전책응하는 도원수의 권한까지 겸하여 행사하였다. 왜란중에 도체찰사가 공식인 때는 있었으나 도원수가 없어지고 체찰사권으로 귀일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일은 이듬해 정월 권율이 다시 도원수로 임명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도원수는 전투 전체를 지휘하는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매우 컸다. 그리하여 한때 下三道 뿐 아니라 上四道에도 도원수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각 도에 각각 巡察使가 있고 戎務의 총책을 맡은 節度使가 있으며 水邊에는 상·하 두 사람의 別將이 있으므로 다시 도원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반대여론에 부딪쳐 결국 이후에도 도원수는 종래대로 하3도에만 한 사람을 두었다.

그런데 선조 26년 6월 김명원이 도원수자리에서 물러난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권율이 잠시의 공백을 빼고는 계속 이 자리를 맡았으므로 왜란중의 육전의 실제적인 군사지휘권은 권율이 행사하였다. 그러나 조선 관군이 명나라 원군과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명나라 군사 위주의 작전이 수행되어 도원수의 군사지휘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도원수가 관군을 지휘하는 데에는 도원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도원수는 도체찰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작전상의 차이로 대립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쟁수행에서도 비변사를 중심으로 견제 받는 일이 많아서 자기주장대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장수들 간에는 名位와 爵秩이 서로 비슷해서 각기 독자적으로 호령을 하려 하고 힘을 합쳐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임기응변하여 다 자기들 뜻대로 하면서 적을 진격해야 할 때도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패해도 서로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³⁾

지방의 각 관원들도 관찰사를 중시하여 도원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海平府院君 윤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 《宣祖實錄》권 49, 선조 27년 3월 무신.

권율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는 호령하면 잘 실행되었는데, 한번 도원수가 된 이후로는 각 관원이 감사를 중히 여기고 도원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혹 도원수로서 관찰사를 겸하게 하면 명령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御使를 내려보내 從事官을 칭하게 한다면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宣祖實錄》 권 51, 선조 27년 5월 계묘).

관찰사나 수령들이 군직을 띠고 있음에도 도원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윤두수는 도원수에게 관찰사를 겸직케 하고 어사를 내려보내 도원수의 종사관을 삼도록 하면 도원수의 명령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선조는 도원수가 관찰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관찰사 중에 도원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도원수가 스스로 치죄하라고 하였다.

도원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관찰사나 수령만이 아니었다. 도원수의 휘하에 있는 제장들도 도원수의 호령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爵秩이 비슷한 장수가 많았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 예라 하겠다.

오늘의 근심이 되는 것은 장수가 많은 데 있다. 장수가 많으면 명령이 많은 장수들에게서 나오게 되어 그때그때 맞추어 따를 수 없었으며, 이것은 (싸움에) 패하는 이유가 된다(《宣祖實錄》 권 72, 선조 29년 2월 계축).

도원수 권율도 다음에서 보듯이 도원수의 군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여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도원수) 권율은 누차 큰 공을 세웠으나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金應瑞·李時言 등 諸將들도 그의 명령을 받아들여 행하지 않아 권율은 근심과 분통함을 견디지 못하였고 (이 사실을) 狀啓로 조정에 알리면 조정에서는 김응서 등의 죄를 명백히 다스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권율로 하여금 끝내 그의 才用을 펴 수 없게 하였으니 아까운 일이다(《宣祖修正實錄》 권 81, 선조 30년 정월).

도원수와 제장간에 원만하지 못한 명령체계는 전쟁에 큰 해독으로 작용하였으며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패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장수들간에도 질시와 반목이 심했는데 경상도 좌방어사 김응서와 우방어사 高彦伯의 불화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전란초의 방어체제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는 병조를 정점으로 하여 중앙에서는 五衛都總府 밑에 五衛가 왕권호위 및 도성방어에 임하고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관찰사·병사·수사를 중심으로 주민이 고을을 스스로 지키는 鎭管體制가 정연하게 편성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결함이 없는 국방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모순의 발생은 軍役代立의 폐단을 조장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6세기 초부터는 이른바 放軍收布란 納布制가 시행되었으나 番價가 치솟아 戶·保의 군역의무자들은 가중되는 부담으로 流亡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군역제의 붕괴는 5위제도나 진관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진관체제는 과거 서북변계에 군사를 집중적으로 두었던 制勝方略의인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남쪽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중앙에서 도체찰사·도원수·도순변사·순변사·방어사·조방장 등 변방에 밝은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장을 파견하여 전란을 수습하도록 하였고 마침내 최고군령기관인 비변사까지 두게 되었다.⁴⁾ 이로 인하여 평소 군사권을 겸하고 있던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들은 작전에 관한 한 그 지휘권이 경장에게 이관되어 군사권이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제승방략에 따른 방어체제로의 전환으로 부산진에 이어 동해부가 쉽게 함락되었다는 급보를 받은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무장들을 선발하여 왜군의 북침에 대비케 하였다. 즉 李鑑을 순변사로 삼아 鳥嶺·忠州방면의 中路를 방어케 하고, 成應吉을 좌방어사로 삼아 竹嶺·충주방면의 左路를 방어케 하였으며, 趙徹을 우방어사로 삼아 秋風嶺·淸州·竹山방면의 西路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劉克良을 조방장으로 삼아 죽령을 지키게 하였으며 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을 지키게 하는 한편, 慶州府尹 尹仁涵이 儒臣으로 겁이 많다고 하여 前江界府使 邊應星으로 교체시켰다. 또 申稔을 도순변사로 삼아 이일의 뒤를 이어 떠나게 하고 좌의정 유성룡을 체찰사로 삼아 제장을 감독케 하였다.

이일 등이 내려가기에 앞서 경상도순찰사 金睟는 왜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각 고을에 공문을 발하여 수령들이 인솔하는 군사를 적당한 지역에 배치하고 경장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聞慶 이하 각 고을

4) 車文雙, 앞의 글, 5~6쪽.

의 수령들은 자기의 소속 군졸을 이끌고 大丘川邊에 나아가 노숙하면서 순변사가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순변사가 오지 않고 왜군이 점점 가까워지자 군사들이 놀라 동요한데다 마침 많은 비가 내려 군장이 젖었으며 군량미의 보급마저 끊어지자 밤중에 모두 흩어졌다. 이에 수령들은 하는 수 없이 單騎로 순변사가 있다는 문경으로 바빠 돌아갔으나 그 고을은 이미 텅비어 있었다. 이어 잔여 군사를 이끌고 咸昌을 거쳐 尙州에 이르니 목사 金澣는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판관 權吉만이 읍을 지키고 있었다. 이리하여 제승방략에 의한 작전 시도는 처음부터 빗나가고 말았다.

한편 선조는 도순변사 신립을 떠나 보내고난 다음 병조의 업무가 소홀하고 군사들의 원망이 많다 하여 병조판서 洪汝諄을 파하고 김응남으로 교체시켰으며 沈忠謙을 참판에 임명하는 한편 각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와서 돕도록 하였다. 또한 선조는 內需別坐인 金公諒으로 하여금 내수사 奴子 가운데 활 잘쏘는 사람 200명을 뽑아 이끌고 궁내에 들어와 숙직케 하는가 하면 종실로서 摠管衛의 將號를 가진 사람들을 대궐 안에 숙직시키면서 궁궐 내의 경비를 강화시켰다. 그 후 이일의 상주패보에 이어 신립의 충주패보가 잇따라 날아오자 선조는 西行을 단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왜군의 서울침공에 대비하여 도성의 방어계획을 세웠다. 즉 우의정 李陽元을 守城大將으로 삼고, 李戡을 左衛大將, 邊彥琇를 右衛大將, 申恪을 中衛大將으로 삼고, 商山君 朴忠侃을 京城巡檢使에, 漆溪君 尹卓然을 부사로 삼았으며, 전판서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하여 한강방어의 책임을 맡겼으며,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여 民軍을 징발하여 淺灘을 파내어 왜적의 도강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李誠中을 守禦使에, 丁允福을 東西路號召使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선조가 도성을 떠나기 앞서 수도의 방어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를 찾기 위해 수일간에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 중위대장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도원수와 함께 한강을 지키게 하였고, 변언수를 留都大將으로 삼은 것은 그 예이며, 호칭에서도 수성대장 이양원이 도검찰사가 되었다가 다시 유도대장으로 바뀌는 것 등은 그러한 예라 하겠다. 왕자를 각 도에 파견하여 근왕병을 일으킬 것을 시도한 것도 이 때 였다.

그러나 한강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던 도원수 金명원은 군사 1천 명을 이끌

고 적의 도하를 막기 위해 濟川亭(현 용산구 보광동 소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이 쏘아 날아온 포환이 정자 위에 떨어지자 김명원은 감히 적에 대항하지 못하고 행재소를 향하여 퇴각하다가 종사관 沈友正이 “한강은 지키지 못하였으나 바라건대 臨津을 지킴으로써 그 뒤를 막자”고 하여 임진으로 향하였다.⁵⁾ 그는 임진에 이르러서야 적의 동태를 아뢰었는데 선조는 김명원이 군사가 없었던 것을 참작하여 한강에서 후퇴한 죄를 문책하지 않고 다시 경기도와 황해도의 군사를 발하여 임진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령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2, 3인의 대장이 각자 호령을 행세하는데다 사기가 떨어지고 전술의 미숙까지 겹쳐 임진의 방어전도 실패하였으며 그 후 평양성의 수비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전쟁초의 방어계획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악전고투하였다.

(3) 관방설치와 청야책

關防이란 要害地에 방어시설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로가 밀집하거나 험한 고개마루에 성을 축조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뜻이다.⁶⁾ 산성 중심의 거점방어나 江灘防守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관방시설은 본래 城柵과 烟臺·墩臺 등의 지상 시설물과 溝池·壕塹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으나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성책·구지라 할 수 있다.⁷⁾ 그런데 조선 초기의 이러한 관방체계는 전쟁없이 오랜 기간을 내려오는 동안 해이해져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즈음에는 본래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방실태는 왜란이 곧 있을 것이라는 확증이 있으면서부터 달라져 정부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축성 등 관방시설에 힘을 기울였다. 변방 방비책은 왜군이 가장 먼저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도에서 시작되었다.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바 있는 김수가 경상도의 실정을 잘 안다하여 다시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임지에 도착하자 곧 왜란에 대비하여 병기의 보수

5)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大駕西狩.

6) 《萬機要覽》軍政篇 4, 關防.

7) 車勇杰,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韓國史論》 7, 國史編纂委員會, 1980), 83~84쪽.

와 城池의 신축 및 증축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永川·淸道·三嘉·大丘·星州·釜山·東萊·晉州·安東·尙州·左兵營·右兵營의 성을 신축 또는 증수하여 그런대로 성의 모습을 갖추어 줄 수는 있었다.⁸⁾ 그러나 무리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도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음성이나 산성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며 후방에서는 오직 황해도의 延安城만이 부사 신각에 의해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져서 왜침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의 축조는 왜란중에 더욱 강조되었다. 郭再祐는 산성 수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安市城을 지켰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고, 卽墨城이 홀로 보존되었으므로 齊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 城池의 수비를 어찌 그 만들 수 있겠는가”⁹⁾라고 하여 守城戰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수성을 위해서 평지의 성보다 산성의 수축을 강조하였다.

수성의 중요성은 왜란중에 입증된 바 있다. 선조 26년(1592) 9월초 招討使 李廷龜의 연안대첩도 수성전이었으며, 이듬해 2월 전라관찰사 권율의 幸州大捷도 산성의 이점을 이용하여 이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선조 26년 9월 이후 명·일간에 강화교섭이 진행되는 기간 재차 왜침에 대비하여 산성의 수축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야전보다도 수성전의 유리함을 아는 도체찰사 유성룡은 수성전을 펴기 위한 구체안을 선조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⁰⁾ 이것이 곧 산성방어 및 淸野策이다. 비변사 역시 왜적이 재차 침입할 경우 수성전에 대비하여 산성수축이 당면한 급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적이 박두하면 백성들도 입성시켜 굳게 지키도록 하고 적이 멀리 가면 산성에서 나와 농사지를 수 있게 하고 민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전채조와 같은 일시의 奔潰를 막아 보자는 데서였다. 비변사에서 도원수에게 하달된 이 조치는 광재우로 하여금 경상우도 축성의 工役을 관장토록 하고 선조 27년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광재우가 성주목사 겸 조방장의 직임을 갖고 삼가의 岳堅山城을 수축한 것은 이 때의 일이다.

8) 柳成龍, 《懲毖錄》 권 1.

9) 趙慶男, 《亂中雜錄》 권 4, 경자 2월.

10) 《宣祖實錄》 권 46, 선조 26년 12월 무간.

다음해 선조 28년에 광재우는 진주목사 겸 조방장으로 악견산성뿐 아니라, 玄風 石門山城의 신축까지 관장하게 되나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서 완성을 보지는 못했다. 그 후 선조 30년에 서둘러 석문산성을 수축하려 했으나 완성을 보기 전에 왜군이 재차 침입하였다.

선조 29년 당시 조정에서 꼽히고 있던 경상도내의 산성으로는 金鳥山城(善山)·天生山城(仁同)·富山山城(慶州)·악견산성(三嘉)·龍起山城(伽倻山)·公山山城(大丘)·火旺山城(昌寧)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금오산성과 천생산성은 동서로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낙동강의 天險을 끼고 있어 중로의 요충으로 꼭 지켜야 할 곳이었으며, 부산산성과 악견산성도 긴요한 곳이라 의당 지켜야 할 곳으로 꼽혔다. 공산산성과 용기산성은 비록 대로의 요충은 아니었으나 이미 산성이 수축되어 있어서 수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화왕산성은 급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¹¹⁾

적의 재차 침입이 예상되는 전라도에서도 성의 신축과 보수를 등한히 할 수 없었다. 선조 26년 12월 乾達山城과 修仁山城을 수축하였고 龜城山城(智異山)을 수축하였다. 이들 산성의 수축은 의승대장 유정에게 전달시켜 공역을 지휘케 하였다. 또한 長城縣監 李貴의 요청에 따라 승려 法堅에게 大禪帖文을 주어 笠巖山城을 수축케 하였으며, 행주대첩에서 전공을 세운 處英으로 하여금 남원산성을 수축케 하였다. 선조 28년 3월에는 都摠攝 義嚴에게 경기도의 요충인 驪州의 娑娑山城도 수축케 하였다. 이러한 각처의 축성은 장기 전에 대 비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¹²⁾ 축성에 동원된 사람들은 농민이 다수였지만 그들의 힘이 부족하여 의승군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산성의 신축 및 증수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광재우 등이 수비한 화왕산성을 제외하면 별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뒤 광재우가 다음과 같이 상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지금 각처 산성이 모두 버려져서 군량과 무기를 보존하여 지킬 계책이 없으니 만약 많은 적병이 밀어닥쳐서 버리고 간다면 비록 關羽와 張飛 같은 용맹을 지녔거나

11) 李章熙, 《郭再祐研究》(養英閣, 1983), 214~216쪽.

12) 李章熙, 〈壬辰倭亂 僧軍考〉(《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351쪽.

張良·陳平 같은 지략을 가졌다 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郭再祐, 《忘憂集》 권 1, 辭起復疏 정유 9월).

특히 정유재란 때는 왜군이 堅城固守의 대비책을 철저히 한 경상도지역으로 침입하지 않고 전라도지역을 택하였던 만큼 경상도지역에서의 전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왜란중에 크게 대두된 것은 「鳥嶺設關」 문제였다. 이것은 조선측에서 보다 명나라측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다음과 같이 明經略은 조령설관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듣건대 경상一道는 조령이 가장 험준하니 불가불 設關하여 방수해야 후일의 근심을 대비할 수 있으니 귀국의 善後策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귀국이 王京을 지키고자 한다면 꼭 먼저 조령을 지켜야 한다(《宣祖實錄》 권 39, 선조 26년 6월 무자).

이에 대하여 조선은 조령이 비록 험한 요새이기는 하나 조령 이외에도 小白山脈을 넘는 고개의 갈래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의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명나라측에서는 도순변사 신립이 조령과 같은 천험을 버리고 충주에서 대적한 실책을 예로 들면서 조령설관의 뜻을 강력히 나타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산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은 물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江灘墻守를 주장했다. 그러나 끈질긴 명측의 주장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성룡도 조령을 차단하는 계획이 가장 긴급하다 하여 설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把截將 辛忠元으로 하여금 民丁을 모아 성을 축조하고 냇가의 물을 끌어 참호로 삼는 등 설관의 공역을 마칠 수 있었다.¹³⁾ 조령설관이 끝나면 이어 신충원을 시켜 죽령의 설관도 맡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물력이 다하여 이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측이 조령설관을 주장한 것과 조선측이 설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반대한 이면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즉 명측의 의도는 조령을 비롯한 소백산맥 위의 모든 險要處를 방비하면서 그 내지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어뿐만이 아니라 지구전을 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13) 車勇杰, 〈鳥嶺關防施設에 대한 研究〉 I (《史學研究》 32, 韓國史學會, 1981), 9쪽.

조선측은 명측에 의지하여 방수하려는 데 대해서는 찬동하면서도 그럴 경우 왜군이 머무는 연해지방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며, 따라서 왜군을 속히 구축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상에서 볼 때 왜란에 대비한 축성·設險 등 관방시설은 임진왜란 직전보다 왜군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명·일간에 강화회담이 논의되는 기간에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4) 의병의 지휘권과 전략·전술

의병의 지휘권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의병과 관군의 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군사를 불러모으는 사람이 있어 곳곳에서 義旅를 모집하여 각자 군을 형성하여 주·현의 부름을 받지 않는 자를 의병이라 하였고, 수령이 군민을 징발하여 원수의 절제를 받는 자를 관군이라 하였다.¹⁵⁾ 의병과 관군을 구별하는 말로 이 이상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병의 개념을 규정짓기는 어렵다. 의병은 관군과는 달리 혈연적 또는 지연적으로 서로 깊이 맺어 있어서 왜군과 만나 싸울 때 향토를 보존하겠다는 신념이 강해서 쉽게 패하지 않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의병을 지휘한 사람을 의병장이라 불렀다.

의병의 지휘권을 가진 의병장이 되는 것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병을 일으켜 스스로 의병장이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주위 의병들에 의해 추대되는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의병을 일으킨 처음에는 「의병장」 또는 「의병대장」으로 호칭되었다. 그러나 의병장에게 賜號가 주어지면서부터 그 호칭은 다양하게 되었다. 의병장의 호칭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의병장이 있었는가 하면, 사호를 받게 됨으로써 종전의 의병장의 기능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의병과 관련되면서 의병장과 같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사호를 받고 의병을 고무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병장에게 사호를 내리는 데는 이미 갖고 있는 관직이나 품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호칭을 달리 하였던 것 같다.

14) 車勇杰, 위의 글, 14쪽.

15) 《宣祖修正實錄》권 26, 선조 25년 12월.

왕이나 왕세자가 내린 사호로는 八道義兵都大將・招討使・倡義使・義兵都大將・忠勇翼虎將軍 등이 있다.

사호를 받지 못한 의병장 중에는 의병장이란 본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도 있었지만 별도의 호칭을 갖고 있는 의병장도 있었다. 天降紅衣大將軍(郭再祐)・倡義大將(鄭文孚)・全羅左義兵將(任啓英)・全羅右義兵將(崔慶會)・繼義將(崔慶長)・靑鶴將軍・白鶴將軍・敵愾義兵將(邊士貞)으로 스스로 불렀던 것은 그러한 예이다.¹⁶⁾

의병장은 각기 휘하에 유능한 참모를 두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전투에 능한 무사들도 상당수 있어서 싸움에 임할 때 그들의 활약 여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였다. 의병단의 전술전략은 다양했다. 전략・전술에 능한 의병장은 적을 맞이하면 수성전을 고수하며 가급적 야전을 피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용병술을 발휘하여 적진에 뛰어들다가 아니면 擬兵術을 써서 위장전술로서 적의 접근을 막기도 하고 적을 유인하여 매복병으로 하여금 기습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야간에 적이 태만한 틈을 타서 기습하는 전술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權應銖의 영천성 수복전에서 보듯이, 풍향을 이용하여 화공법을 쓰기도 하였다. 특히 의병의 유격전은 왜군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병들은 선조 25년(1592) 11월에 이르러 실전의 공은 세우지 못하고 폐단을 일으켜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의병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그 절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남쪽의 의병을 禹性傳으로 하여금 영솔케 하고 경기・충청・전라의 의병을 권율과 權徵에게 분속시키거나 각 도 순찰사가 영솔하게 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전에 옮겨지지 않았고 전 우의정 심수경이 의병장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심수경에게 建義大將의 칭호를 주고 제도의 의병을 절제케 하였다. 그러나 여러 곳에 난립한 의병을 심수경 한 사람이 통솔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욱이 선조 26년 정월 평양성을 수복한 뒤 명나라 원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전쟁 초기와 같은 전투력과 민심유지를 위한 의병의 존재의의는 상실

16) 李章熙,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143~146쪽.

되어 갔다.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관군이 의병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의병이 조정과 수령의 강력한 절제를 받게 되어 이후 의병의 활약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¹⁷⁾ 이 때쯤 되면 전쟁 초기에 활약이 컸던 의병장들은 싸움에서 전사했거나, 공을 세운 의병장들은 벼슬에 기용되어 이미 의병장의 자리에서 떠나고 없었다.

(5) 훈련도감의 신설과 신병법

가. 조련 및 화약·무기의 제조

조선 초기 세종대에서 세조대에 이르는 시기는 여러 종류의 화기가 있었다. 이것은 南倭·北胡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며 서북변계의 확장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國朝五禮序例》兵器圖說에는 세종말부터 세조 13년(1467)까지 제조되었던 병기류로 銃筒碗口 외 10종의 銃筒, 大箭 외 9종의 箭, 蒺藜砲 외 9종의 폭발물, 大神機箭 등 3종의 로켓화기, 화차 및 기타 2종 등 모두 37종의 화기에 대한 도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37종의 화기 중 발사기로 사용된 11종의 총통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대형은 銃筒碗口·將軍火筒·一銃筒·鐵信砲 등이며, 소형은 二銃筒·三銃筒·四箭銃筒·八箭長銃筒·八箭銃筒·細銃筒·新製銃筒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¹⁸⁾

조선 초기에는 이와 같이 화기가 많았으나 명종 초기부터는 대형총통과 勝字銃筒에 관한 기록 외에 다른 화약병기에 관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 시설과 사용 및 주조가 쇠퇴하여 없어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焰硝의 煮取·화약의 제조·火獸의 設施·破陣軍의 편성 등은 그 기능이 활발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존속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임란의 초기전투에서 전통적 화약병기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중앙에서는 왜군이 도성에 침입하기도 전에 난민들이 軍器寺를 불태우고, 지방에서는 적이 침입하기도 전에 守將들이 달아나 방치된 상태에서 병기가 적의

17) 崔永禧, 〈壬亂義兵의 性格〉(《史學研究》 8, 1960), 26쪽.

18) 蔡連錫, 〈朝鮮初期(1400~1467) 火器의 研究〉(《韓國史論》 7, 國史編纂委最會, 1980), 210~211쪽.

손으로 넘어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명종 말년부터 왜구의 침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野人의 수상한 동태도 보이지 않아 화기뿐 아니고 군비 전반에 걸쳐 무관심해져 그 영향이 임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¹⁹⁾ 화약 병기의 제조는 왜란중인 선조 27년(1594)에 訓練都監이 설치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게 된다.

무기제조는 조선 초기 이래 군기사에서 계속 전담하여 왔다. 여기에는 군기제조를 감독하는 관원과 직접 군기를 제조하는 匠人을 두었다. 그러나 임란을 당하여 무기를 제조할 원료와 연료를 조달하기 어려웠으며 공장들마저 흩어져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군기사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훈련도감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조총과 화약의 제조법을 공장들에게 전습하는 책임을 도맡았다.

훈련도감의 설치와 때를 같이하여 나라에서는 도감의 역원과 군사 및 장인들에게 料米를 조달하는 한편, 조총·화약·鎗刀 등을 제조할 재원과 원료·연료도 공급해야 하였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성 근교의 開荒地를 屯田으로 수조권을 주어 도감의 농군으로 경작시키고 충청도 40여 곳에 寺社位田을 都監屯田에 귀속시켜 郎廳을 파견하여 수세토록 하였다. 또 황해도 甕津·충청도 泰安·전라도 茂長의 염전에 대한 수조권을 주고 각 읍의 수령이 米布와 교환하여 바치도록 하였으며, 충청·전라·강원·황해·경기 등 5도의 水旱田 1결당 大小米 1말 썩의 三手米를 거두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군기를 제조할 철물을 조달하기 위하여 황해도 載寧의 철산지에 鐵峴屯의 수조권을 주고 연간 11,750근의 夫里鐵을 바치게 하여 군기를 제조하는데 힘썼다.

임란중 훈련도감의 무기생산은 조총과 화약·鎗刀제작에 주력하였고 무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가 마련되었으며 각 제조장에는 낭청들이 배치되어 공장을 사역하여 제조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²⁰⁾

劍銃주조와 焰硝煮取·검술교습을 하는 데는 투항한 왜군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술이 있는 降倭들을 도성에 유치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 것이

19) 許善道, 〈李朝中期 火器의 發達〉 下 (《歷史學報》 31, 1966), 126~127쪽.

20) 柳承宙, 〈朝鮮前期 軍需工業에 관한 研究〉 (《史學研究》 32, 1981), 51~55쪽.

다. 선조가 “적국의 기술이 곧 아국의 기술”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기술을 익히도록 당부한 것처럼 일본인 기술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래서 남쪽에 머물러 있도록 한 항왜 중에서 수차에 걸쳐 기술이 있는 자를 뽑아서 도성으로 옮겨오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무기제조나 화약자취를 하는데 큰 진전을 보였다.²¹⁾

그런데 임란중 東五軍을 諸道 각 읍에 편성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할 무기까지 중앙에서 생산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원이 크게 부족했다. 그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를 지방관아에 맡겨 여러 읍의 노동력을 집중시켜 속오군이 소지할 무기를 제조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용에 옮기게 하였다.

나. 신병법의 수용

조선 관군의 조련문제는 훈련도감의 설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미 명나라 장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즉 南將 駱尙志는 조선 관군의 힘이 약한데 왜군이 아직도 조선 경내에 있으니 이 때 조선군을 훈련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유성룡에게 말하면서 명나라 군사가 회군하기 전에 기예를 배워 익히게 되면 수년 안에 정예를 만들어 왜군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유성룡은 이러한 낙상지의 말을 행재소에 알리는 한편 禁軍 韓士立으로 하여금 장정 70여 명을 불러모으게 하여 낙상지에게 교련을 담당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낙상지는 휘하의 張六三 등을 교사로 삼아 棍棒·籐牌·狼筴·長槍·鎗鉞·雙手刀 등의 기술을 익히게 했다.²²⁾

그런데 新兵法에 의한 조련이 시행된 것은 훈련도감의 설치가 구체화된 선조 26년(1593) 10월 이후의 일이었다. 선조는 도감을 설치할 것을 명하고 윤두수에게 그 일을 맡겼다가 곧 유성룡으로 교체시켰다. 유성룡은 거석을 들고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를 도감에 들어오게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천 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며 이에 把總·哨官을 두어 그들을 영솔하도록 하였다.²³⁾ 이들 도감군은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기민구제·정병양성을 주안으로 하여 월 9말의 급료를 지급받는 동시에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입각한 浙

21) 李章熙, 〈壬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韓國史研究》 6, 1971), 46쪽.

22) 《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23) 위와 같음.

江兵法에 따라 편제되었다.

선조는 명나라 提督 李如松으로부터 왜군을 방어하는 데는 《기효신서》에 의한 신병법을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을 듣고 은밀히 이여송의 휘하로부터 그 병서를 구입하여 유성룡에게 보였고 유성룡은 종사관 李時發 등에게 주어 토론하며 강론하고 해설케 하면서 유생 韓嶠를 낭관으로 삼아 의문나는 점은 명나라 장수에게 묻게 하고 三手鍊技의 방법을 가르치게 하였다.²⁴⁾

《기효신서》의 근본정신은 “治衆如治寡”에 입각하고 分數束伍에 중점을 두어 종래 “多聚軍卒 則可以禦賊”이라 믿었던 대부대 편제에서 벗어나 부분연습의 소부대 단위로의 편제이다. 훈련도감은 그 대장을 都監堂上이라 하였고, 그 밑에 직접 군사지휘를 담당하는 中軍·千摠이 있었으며 그 밑에 司(把摠)－哨(哨官)－旗(旗摠)－隊(隊長)－伍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뒤에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의정이 겸하는 部提調 1員, 병조판서와 호조판서가 겸하는 提調를 중심으로 대장(종2품)·중군 1명(정3품), 별장 1명(정3품), 천총 2명(정3품), 局別將 3명(종3품), 과총 6명(종4품), 종사관 4명(종6품), 초관 34명(종9품)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었다.²⁵⁾

도감군은 束伍法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속오군은 양반·공사천을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장정을 망라했으며 지방군사체제인 진관제에다 속오법을 절충한 것이었다. 즉 진관단위의 營·司인 진관체제의 타탕 위에 哨·旗·隊의 속오법을 절충하여 종래 진관체제나 제승방략의 모순을 극복하고 왜군을 퇴치하는데 진력투구하자는 것이었다.²⁶⁾

그런데 임란 때 招討使로서 延安大捷의 공을 세운 李廷龜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재차 초토사가 되어 또 연안성을 지키면서 남정 1천 4백 명을 뽑아 척계광의 《기효신서》 守哨法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보면²⁷⁾ 신병법이 이미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다.

훈련도감은 처음에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은 군영이 아닌 權設衙門으로 설치

24) 위와 같음.

25) 車文燮, 〈朝鮮後期 中央軍制의 再編〉(《韓國史論》 9, 國史編纂委員會, 1981), 3쪽)

26) 車文燮, 앞의 글(1983), 18~19쪽.

27) 李廷龜, 《四留齋集》 권 8, 行年日記 정유 8월 25일·9월 16일·10월 25일.

되었다. 그리고 도감군은 처음부터 砲·殺·射의 三手法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었다.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鳥銃훈련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먼저 砲手가 설치되었고 그뒤 의용대를 殺手로 편입하고 다시 수문장 등 활을 잘 쏘는 사람을 射手로 편입시켜 三手兵으로서의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三手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포수였으며, 삼수병의 체제를 완비한 것은 대체로 선조 27년(1594)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도감군에게는 월 9두의 급료 외에 試才·鍊才 등에 의한 論賞 및 衣資, 赴防者에 대한 妻料 등이 지급되었다. 육조에서는 둔전을 널리 열어 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²⁸⁾ 항구적인 재정대책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李章熙〉

2) 해 전

(1) 해전의 전개

가. 1차 침입기의 해전

임진왜란으로 통칭되는 7년간의 전란은 일본군의 1차 침입기(선조 25년; 1592)와 강화회담기, 그리고 2차 침입기(1597)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해전은 1차 침입기와 2차 침입기에 집중되었다.

왜군이 상륙지점에서 소탕되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주와 충주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조정이 수군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은 “적선단을 기습공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후방을 염려하게 만들라”¹⁾는 것이었다. 조정이 수군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의도는 수군이 적선단을 공격하게 되면, 적의 후인세력이 더 이상 상륙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상륙하여 북진하고 있는 세력도 후방이 교란됨으로써, 병력의 일부를 후방으로 돌려 그들의 후방을 보강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 결과 왜군의 북진이 지연되면서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은 반격군을 편성 반격 태세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조선조정이 수군에게 내린 명령은 경상좌수사 朴泓의 장계를

28) 車文燮, 앞의 글(1981), 4~5쪽.

1) 《李忠武公全書》권 2, 狀啓 1, 赴援慶尙道狀.

기초로 한 것으로 당시 육군 18,000여 명을 부산에 상륙시킨 일본 선단은 90여 척에 불가하였다. 이 정도의 침략규모라면 경상도 수군과 전라도의 수군이 연합하여 해상을 차단하고, 李鑑의 지상군이 반격을 가하면 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조선조정은 판단하였다.

조정의 출동명령이 전라도 수군에 접수된 것은 왜군이 침략해 온 지 13일이 지난 4월 26일이었으며, 그 사이 왜군의 2번대와 3번대의 병력 33,000여 명이 제1진과 합세하여 북상중에 있었으며 일본 군선도 500여 척으로 증가되어 있었다.²⁾ 상륙에 성공한 일본 육군이 신속하게 북진을 감행하자 일본조정에서는 그들의 수군에게 남·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지상군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일본 수군은 서서히 서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상군의 패전으로 수륙군 연합방위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李舜臣 함대가 주축이 된 조선 수군은 5월 5일부터 해상전투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4월 27일 조정으로부터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세하여 적선을 격파하라’는 요지의 명령이 宣傳官 趙銘을 통하여 이순신에게 하달되었기 때문이다.³⁾ 이순신은 5월 5일 거제도 서쪽 미륵도 남단에 있는 唐浦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세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전라우수사 李億祺에게 통보한 후 출항하였다. 작전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작전에 동원된 조선 수군의 함선은 판옥선 28척 협선 17척·포작선 46척으로 총 91척이었다. 소집된 군졸들도 사노·관노·내노는 물론 승려까지 징발한 오합지졸의 군대였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첫 출전인 玉浦와 合浦·赤珍浦 해상에서 적선을 발견하고 해전을 실시하여 모두 42척의 적선을 격침 또는 소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⁴⁾ 《선조실록》에는 당시의 전투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 30여 척이 사면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다. 왜적들은 우리 수군을 보고 노를 빨리 저어 진지를 나와 우리 군과 바다 가운데서 만났는데 아군이 적선 26척을 불살라 버렸다(《宣祖實錄》권 27, 선조 25년 6월 기유).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4) 《李忠武公全書》권 2, 狀啓 1, 玉浦破倭兵狀.

지상군에 주력한 왜군이 상륙과 북진에 성공하고, 해상에서도 조선군의 저항이 없자 자만한 일본 수군들은 경계태세를 늦추고 연해에서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하였으며 적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적선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이순신 함대의 첫 출전이 규모면에서 큰 전투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승승장구하던 왜군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준 전투였으며, 조선 수군에게는 해전의 자신감을 갖게 한 전투이기도 하였다. 또한 패보만 접하고 있던 조정에 戰局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의 2차 출전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다. 왜군은 서진하던 그들 수군의 일부가 이순신 함대에 의하여 격멸된 이후에도 북상하는 그들의 육군을 호응하기 위하여 남해서안을 통해 북상하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때까지도 경상우도 수군이 재건되지 못했으므로 일본의 수군은 경상도 연해를 따라 노략질을 하면서 서진을 감행하였다. 왜군의 서진 소식에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이억기와 더불어 전라도 수군의 출전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6월 3일 여수 해상에서 집결,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순신이 2차 출전 준비를 하고 있던 5월 27일 경상우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급보가 전달되었다.

적 전함 10여 척이 이미 사천·곤양 해안까지 침입했으므로 본영의 함선들을 노랑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李忠武公全書》권 2, 狀啓1, 唐浦破倭兵狀).

이순신은 경상우수사 원균이 적침을 받아 전라도와의 경계인 노량까지 물러났다는 사실에서 머지않아 전라좌수영까지 왜군의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순신은 상황의 긴박성을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 통보하고, 6월 3일 계획되었던 출전 일자를 5월 29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순신은 2차 출전에서 거북선을 출전시켰다. 조선 함대는 사천 선창에 13척의 적선이 있고 육상에 수백 명의 왜군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전에 유리한 지역으로 적선을 유인한 후, 거북선으로 돌격하고 판옥선으로 공격하여 적선 13척을 격파하였다. 이후 당포에서 적선 21척을, 당항포에서 적선 30척과 부수병력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거제도 울포에서 적선 7척을 격침시켰다.

조선 수군은 약 10일 간에 걸친 2차 출전에서 4차례의 해전을 하는 동안 적선 72척을 격침시키고 적병 88명의 목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조선 수군이 이와 같은 전승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적선이 분산되고 전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기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이순신의 지휘능력과 해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선 군선의 견고성과 장대함 그리고 火炮의 우수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⁵⁾

5월과 6월에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으나 육전 상황은 반대로 조선군이 패퇴일로에 있었다. 일본 수군은 육전의 승세에 고무되어 6월 하순부터 다시 가덕도 부근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무렵인 6월 28일에 일본의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연이은 일본 수군의 패전을 질책하고 九鬼嘉隆(구키 요시다카)·加藤嘉明(가토 요시아키라)·脇坂安治(와키자카 야스하루) 등 수군장이 협력하여 조선 수군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웅천에 집결해 있던 脇坂의 함대와 부산포에 주둔해 있던 九鬼·藤의 함대가 합세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상도 남해안에는 일본 함선들의 움직임이 빈번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해상 준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협의를 거쳐 전라 수군의 3차 출전을 결의하였다.

조선 함대가 3차 해상작전을 실시한 기간은 7월 6일부터 12일까지 6일 간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세력은 전라좌도 전선 23척, 전라우도 전선 24 척, 경상우도 전선 7척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함대는 왜선이 견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첩보에 따라 그곳을 향해 항진하였다. 그곳에 정박해 있던 일본 수군은 협판안치가 지휘하는 함대였다. 당시 풍신수길의 명령에 따라 脇坂·九鬼·加藤軍이 웅천 해상에 집결하여 조선 수군을 무찌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협판안치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조선 수군을 과소 평가하여 자신의 함대만을 인솔하고 견내량까지 진출한 것이었다. 일본 수군의 세력은 대소전선 73척이었다.⁶⁾ 일본 수군이 정박하고 있는 견내량이 조선 수군이 작전을 전개하기에는 협소한 지역이라고 예측한 이순신은 적 선단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섬멸할

5) 《宣祖實錄》 권 141. 선조 33년 정월 갑술.

6) 《李忠武公全書》 권 2, 狀啓 1, 見乃梁破倭兵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순신이 운용한 전술은 鶴翼陣이었다. 학익진은 조선 수군이 보유하고 있는 銃筒들의 포신이 짧고, 화살의 탄도가 곡선이므로 명중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 선단을 원으로 에워싸 발사하게 되면, 탄착점이 중앙으로 모여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법이었다. 이 전법은 적중하여 한산도해전에서 적선 59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이룩하였다.

한산도해전 후 조선 수군은 왜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는 안골포를 공격하여 적함선 30여 척을 격파하고 25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함선의 피해는 없었으나 전사자 19명과 부상자 100여 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3차 출전에서 이룩한 조선 수군의 승리는 ‘수군을 강화하여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풍신수길의 명령에 따라 편성된 일본의 정예함대를 무찔러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한산도해전의 승리에 대하여 柳成龍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놓았다.

만일 적이 수록으로 함세하여 서쪽을 침략할 계획을 했었다면 이 건내량 해전의 대승이야말로 적의 팔 하나를 자른 것이다. 行長이 평양을 얻었다 하여도 그 군세가 고립되어 감히 전진을 못했던 것이며, 조선은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이요, 황해도 평안도의 연안 일대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柳成龍, 《懲毖錄》 권 1).

한산도에서 패한 일본 수군은 이후 남해안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평양을 점령한 일본 육군은 북진을 멈추고 조선측에 강화 제의를 해왔다. 조선이 강화 제의를 거절하자 일본측에선 50일 기한으로 휴전하겠다는 일방적 제의를 해왔다.⁷⁾ 또한 경상도순찰사 김수는 북진하던 일본의 지상군이 양산과 김해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순신에게 통보해 주었다.⁸⁾ 이러한 정보를 종합한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부산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 지상군은 군수품과 인원 부족이 초래되어 조선이 반격군을 조직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해상을 통한 일본의 증원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선 수군의 연합함대가 구성된 것은 8월 25일 蛇梁에서였다. 이때 구성된 함대 세력은 판옥선 74척·전선 166척·협선 92척으로 총 332척이었

7) 柳成龍, 《懲毖錄》 권 1의 평양회담 결과 내용 참조.

8) 《李忠武公全書》 권 2, 狀啓 2, 釜山破倭兵狀.

다. 해상작전은 5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당시 부산 연해에는 470여 척의 왜선이 무리를 지어 정박해 있었다. 적세를 확인한 조선 선단은 요새화된 적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⁹⁾

첫째 조선 수군은 장사진을 형성하여 일제히 포구내로 진입하여 적 선단을 공격한다.

둘째 적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기습전을 감행하여 적선을 격파시킨다.

위와 같은 전투계획에 따라 8일간의 해전을 치른 결과 조선 수군은 적의 대소군선 130척과 군수물자 200여 점을 노획하였다. 부산포 공격은 왜군의 전투 기피와 해상 악화 그리고 장기간 전투에 필요한 군량의 불비로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서의 해전들이 일본 수군의 서진을 방어하는 수동작전이었던 반면, 부산포해전은 능동적으로 왜군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하여 일본 수군의 해상 교통로를 교란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¹⁰⁾ 그 결과 부산포해전 이후 남해안에서의 왜군 출몰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조선에서 왜군의 대항세력은 수군뿐이라는 의견이 조선의 조야와 왜군 사이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나. 강화회담기의 해전

명의 원군이 도착하고 이어서 평양이 탈환되자 조선조정은 이것을 왜군 섬멸의 기회로 삼기 위해 수군에 대하여 왜군의 퇴로차단을 명령하였다. 조정이 수군에게 하달한 명령의 내용은 “명군이 평양과 황해도 그리고 서울을 차례로 수복할 것이니 왜군은 결국 후퇴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때 수군은 바다를 차단하여 왜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¹¹⁾ 선조 26년(1593) 5월 10일 조정은 경상도에 파견된 집반사 尹根壽의 첩보에 따라 명군의 지시를 받아 부산 해안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바다에서 그들을 섬멸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조선 수군은 성실히 이행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명군의 반격작전이 신속하지 못하였고, 둘째 반격을 하는 명군은 전투보다 강화교섭에 의한 전쟁종

9) 위와 같음.

10) 張學根, 〈壬亂倭亂期 官軍의 活躍〉(《韓國史論》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87쪽.

11) 《李忠武公全書》권수, 狀啓,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

료에 주력하고 있었고,¹²⁾ 셋째 조선의 군사작전이 명군에 이관되어 있었고,¹³⁾ 넷째 군령체제가 다원화되어 번잡한 명령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고,¹⁴⁾ 다섯째 일본 수군은 한산도해전에서 패전한 이후 풍신수길의 ‘조선의 수군과는 전쟁을 피하라’고 명령한데 따라 일본의 진지 중 가장 안전한 부산에 그들의 군선을 집결시킨 채 전투를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⁵⁾

한편 경상도 해안에 웅거하면서 전세를 관망하던 왜군은 명군의 주력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세력권을 확장시키는 방편으로 진주성을 공격하여 선조 26년 6월 함락시켰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해전을 기피하던 일본 수군은 태도를 돌변하여 서진의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27년 3월 3일 고성(望將 諸漢國)으로부터 적 선단이 서진을 시작했다는 걱정 보고가 도착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 수군의 대선 10척·중선 14척·소선 7척으로 구성된 선단이 영등포에서 나와 그 중 21척은 당항포로, 7척은 진해 오리랑으로, 나머지 3척은 저도로 향했다는 것이다. 적 선단이 분산하여 아군의 경계수역을 침범했다는 첩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전을 실시하였다.¹⁶⁾

첫째 전선 20척을 건내랑에 주둔시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

둘째 경쾌선 31척은 조방장 漁泳潭이 지휘해서 당항포를 침략한 일본 선단을 공격한다.

셋째 삼도 수사 휘하의 전선 30척은 학익진을 형성하여 영등포·장문포의 일본 선단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조선 수군의 해전은 모두 승리로 끝났다. 이 해전을 제2차 당항포해전이라 부른다. 당항포해전에서 이룩한 전과는 적선 31척을 격파한 것이었지만 왜군이 수륙으로 서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압함으로써 남해상의 제해권을 확보했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제2차 당

12) 張學根, 〈講和論과 決戰論이 水軍統制史 交替에 미친 影響〉(《慶南史學》 5, 1991), 66~72쪽.

13) 張學根, 《朝鮮時代 海洋防衛史》(創美社, 1988), 191쪽.

14) 《宣祖實錄》 권 27, 선조 25년 6월 병오.

15)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海と空社, 1942), 185쪽.

16) 《李忠武公全書》 권 4, 狀啓 3, 唐項浦破倭兵狀.

항포해전까지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하자 ‘조선에서 왜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수군 뿐’이라는 의견이 왜군에서까지 제기되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에서는 수군에게 거듭된 출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조선 수군이 조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군량과 군졸의 부족과 군선 건조의 차질이었다.¹⁷⁾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에 내재해 있는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었을 때 分朝撫軍에서 활동하던 좌의정 윤두수가 수륙군에게 巨濟前進戰을 하달하였다. 윤두수의 거제 전진 명령은 명·왜간 강화회담의 영향으로 조선군의 전의가 해이되고 명군이 칠수의사를 갖고 있으니 조선군이 왜군을 공격하면 조선군의 해이된 군율이 강화되고, 명군도 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¹⁸⁾ 당시 왜군의 조선 잔존 병력은 5만 내지 6만 이었는데 비해 조선군은 권율휘하의 3천 병력이 전라·충청도에 산재방어를 하고 있었으면, 1천여 명의 의병이 영남과 호남에서 의거하였고, 한산도를 중심으로 수군 2천여 명이 해양방위에 임하고 있었다. 군사력 비교상 열세가 분명한 상황에서 윤두수의 거제 전진 명령은 선조 27년(1594) 9월 27일 선조의 재가를 받아 하달되었다.¹⁹⁾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전투 결과는 패배였다. 선조 27년 10월 13일 도원수 권율의 ‘육군은 지휘관의 병약으로, 수군은 노 젓기의 미숙으로 접전없이 군의 위엄만 손상시켰다’는 결과 보고처럼 조선군의 대항력은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다.²⁰⁾ 그것은 전투원과 군량의 부족 그리고 전염병의 만연이 주 원인이었다.

명·왜간의 강화회담을 관망하며 총력을 경주하였던 거제 전진전이 실패하여 실의에 차 있던 조선 조정에게 새로운 위기감을 조성케 한 것은 일본의 재침설이었다. 즉 선조 29년 11월 23일 아무런 외교적 성과없이 귀국한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정보는 “왜정 내에 주전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재침의 전략과 방법 그리고 목표까지 걱정되었다”는 보고였

17) 張學根, 〈壬亂期水軍에 對한 期待와 運用策〉(《제2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움 발표문집》, 해군 해양연구소, 1991), 270~273쪽.

18) 《宣祖實錄》권 47, 선조 27년 정월 임인.

19) 《宣祖實錄》권 56, 선조 27년 10월 기묘.

20) 《宣祖實錄》권 57, 선조 27년 11월 병신.

다.²¹⁾ 왜군이 재침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때에 가등의 조선 영토 분할론이 전해졌다. 가등의 조선 영토 분할론이란 그가 조선을 점령하면 그 땅을 그의 부하에게 나누어주어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조정은 가등을 제거하는 것이 왜군의 재침을 방어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가등이 바다를 건너올 때 조선 수군이 해상을 차단하여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해로차단책을 수군에게 지시하였다.²²⁾ 그러나 통제사 이순신은 조정의 해로차단책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군량과 인원 그리고 병선의 부족이었다. 이순신이 해로차단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가등의 渡海說이 전해지자 그에 대한 문책으로 통제사는 이순신에서 원균으로 교체되었다.

다. 2차 침입기의 해전

이순신이 투옥되자 조선 수군의 세력과 사기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 때 왜장 小西行長(고니시 유키나가)이 要時羅를 경상우병사 金應瑞에게 보내어 왜군의 후속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오니 조선 수군이 그들을 기습하면 틀림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²³⁾ 이것은 왜군이 그들의 유일한 대항세력인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정보였으나 조정은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수군에게 출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원균을 위시한 수사들은 지상군의 협조 없이 수군 단독작전을 할 경우 패전이 확실하다고 하여 출전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대신 그리고 지상군의 장수들은 ‘수군이 바다로 나가 군의 위용을 보이면서 적을 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수군을 힐난하였다.²⁴⁾

조정의 명령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자 조선 수군은 3도군선 200여 척에 분승하여 한산도를 출발, 부산으로 향했다.²⁵⁾ 조선 수군은 다대포에서 왜선 8척을 격침시킨 후 절영도 해역에 이르렀을 때 왜선 1천 척과 만나게 되었

21) 《宣祖實錄》 권 83, 선조 29년 12월 기유.

22) 《宣祖實錄》 권 83, 선조 29년 12월 정묘.

23) 神靈, 《再造藩邦》 권 2.

24) 《宣祖實錄》 권 89, 선조 30년 6월 정해.

25) 柳成龍, 《懲毖錄》 권 3.

다. 세력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왜선과 격전을 벌였던 조선 수군의 함선 일부가 서생포로 표류되어 왜군에게 나포되었고, 풍랑이 점차 강해져 격전을 포기하고 가덕도로 회항하였다. 종일 풍랑과 전투에 시달린 수군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섬에 오르던 중 왜군 복병의 기습을 받아 4백여 명이 희생되었다. 탈출에 성공한 잔여병력이 함선을 이끌고 칠천량으로 퇴주하여 전열을 정비하던 중 왜군의 기습을 받아, 전투를 회피하고 도주한 襄楔 휘하의 12척 군선을 제외한 조선 군선은 모두 격침되었다. 조선 수군이 완전히 와해된 이 해전을 칠천량해전이라 부른다. 조선 수군이 패전하게 된 것은 조정의 무리한 출전 강요가 주 원인이었으나 원군의 전술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이순신이 조선 군선을 집중시켜 적선이 분산되었을 때 공격하여 승리했던 것과는 달리 원군은 열세한 군선으로 다수의 적선을 분산 공격케 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는 열세한 군사력으로 우세한 적군을 공격하는 모양이 되어 그 결과는 패배로 나타났던 것이다.

선조 30년(1597) 7월 21일 원군 함대의 패보에 접한 선조는 잔재해 있는 군선을 수습하고 결원된 통제사의 후임을 결정하여 충청·전라도에 대한 방비책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수군의 잔존 함선이 12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세력으로는 일본 수군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군을 과하고 육전에 참가하라”고 명하였다.²⁶⁾ 그러나 통제사에 재부임된 이순신은 조정의 해양방위 포기론을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²⁷⁾

첫째 임진왜란 5, 6년간 왜군이 충청·전라도를 침범치 못한 것은 수군이 해안 요충지를 방어했기 때문이다.

둘째 현존한 전선이 12척에 불과하지만 사력을 다하면 전라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방위를 포기하게 되면 왜군은 수륙으로 전라·충청도를 거쳐 서울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충청·전라도를 잃게 되면 실세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순신의 해양방위 포기 반대의견에 대하여 조정은 수군력이 잔존하고 있음

26) 《李忠武公全書》 권 9, 附錄 行錄 1.

27) 위와 같음.

을 감안 수군의 해상활동을 허용하였으며, 이순신에게 수군의 재건과 방왜전략을 일임하였다.

조선 수군이 칠천량 패전으로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을 무렵, 왜군의 지상군은 남원을 점령한 후 전주에 입성함으로써 사실상 왜군이 전라도 전역을 석권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육군의 북진에 호응하기 위하여 藤堂高虎(도토 다카도라)·加藤嘉明·脇坂安治·來島通總 등이 지휘하는 함선 330여 척이 하동에서 서진하여 그들의 지상군이 직산에서 패전한 9월 7일에는 해남반도의 남단 어란포까지 진출하였다.

수군통제사에 복직된 이순신은 왜군이 어란포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수습한 군선 12척을 명량수로 서쪽의 전라우수영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일본 수군이 명량수로를 경유하여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9월 16일 아침 일본군선 130여 척이 명량수로에 진입했다는 척후선의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피란선을 주력군 선단으로 위장시켜 왜군의 수로 통과를 차단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왜군은 밀물을 이용하여 명량수로를 통과하려하였으나, 일본 선단의 선두가 수로를 통과할 무렵, 밀물이 썰물로 역류하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은 피란선 1백여 척을 배후 주력함대로 위장시켜 왜군에게 공포심을 조성시키면서 12척의 전함으로 왜군선에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조선군이 순류를 타고 공격하자 역류를 거슬러 오르면서 공격해야 하는 왜군은 항해와 화력의 구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군은 공격이 용이한 순류를 타고 왜군이 전투대형을 갖추기 전에 총통으로 선제공격을 가하여 왜군을 혼란시켰다. 조류를 이용한 조선 수군의 공격으로 왜군의 선두 선단 31척이 격침되고 뒤따르던 선박들이 서로 부딪치며 파손되자 일본 선단은 조선 수군의 본대 공격을 받을 것을 꺼려 뱃머리를 돌려 패주하였다.²⁸⁾ 명량해전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전라도 해안의 제해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왜군의 수륙양면 작전을 좌절시켰으며, 해체 위기에 있던 조선 수군을 재건하여 왜군에 대한 공세작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선의 지상군도 9월 7일 직산전투에서 명군과 연합하여 왜군을 패퇴시킨 후, 퇴주하는 왜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28) 張學根, 앞의 글(1992), 102쪽.

압박하고 조선침략의 원흉 풍신수길(이) 병사하자 왜군 장수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왜군의 철수를 예측한 조선 수군은 여수반도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소서행장군의 해상퇴로를 막을 계획을 수립하고 군선을 나로도도로 이동시켰다. 이 때 명장 陳璘이 인솔하는 명의 수군이 조선 수군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해전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진린군을 설득하여 먼저 일본의 구원군을 격멸하기로 하고, 함대를 노랑해역으로 이동시켜 일본 수군이 통과할 길목을 차단하였다. 진린군은 죽도 부근에, 이순신군은 관음포에 진을 치고 일본의 함대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²⁹⁾ 소서행장의 구원 요청에 따라 거제의 立花宗茂(다치바나 무네시게)軍과 부산의 高橋直次(다카하시 나오텔루)軍까지 가세한 일본 함선 5백여 척이 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의 지휘하에 19일 노랑해상에 나타났다. 왜선이 나타났다는 척후선의 보고에 조·명 연합함대는 왜군의 항로를 차단하면서 화포를 이용하여 협공하였다. 조·명 연합함대의 협공을 받은 일본 수군은 2백여 척의 대소 전함과 5백여 명의 병력을 상실하고 퇴주하였다. 조·명 연합함대가 島津의 일본 함대를 협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소서행장군은 왜교성을 탈출하여 남해의 남단을 경유하여 거제도의 도진의흥·宗義智軍과 합류, 부산으로 퇴각하였다. 왜군이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7년간의 지루한 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다.

(2) 수군의 전승요인

제반 전비태세, 군선과 전투요원, 군수지원체제, 그리고 전투요원의 정예도 등 왜군에 비해 전투력이 열세했던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연전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였다.

첫째는 조선 군선이 왜군에 비해 장대하고 견고하였다. 전쟁 중반기에 조정에서 해전을 논의할 때, 대신 중의 한 사람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왜적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배가 멀리서 왔고 선체가 견고하고 장대하지 못하여 그 위에 대포를 안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에 제압된 것입니다(《宣祖實錄》권 61, 선조 28년 3월 신유).

29) 《壬辰倭亂史》(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264~267쪽.

즉 왜선은 조선 군선에 비하여 견고 장대하지 못하여 그 위에 대포를 안치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때 육군 중심의 침략군을 편성하고 수군은 수송의 임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군선에 대포를 적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黃愼은 “왜인들도 배부림을 일찌기 익혀온 것이지만 가볍고 빠른 것만이 좋은 줄 알고, 완전하고 두꺼운 것이 믿음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제를 배울 줄 모릅니다. 대포는 없고 항상 조총을 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³⁰⁾ 장대하고 견고하여 선상에 화포를 적재할 수 있었던 조선 수군의 주력군선은 板屋船과 거북선이었다.

판옥선은 소형 경쾌선을 추구하던 조선이 三浦·蛇梁·乙卯倭亂을 겪으면서 ‘소형 쾌속선으로 왜선을 추격하였으나 화포를 적재하지 못하고, 전투원이 부족하여 오히려 패하고 돌아왔다’는 점이 지적되어 다시 대형 군선제로 전환되면서 출현한 신형군선이었다. 판옥선은 당시 명과 일본의 군선 중 선체에 屋을 설치하여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채용하였다.³¹⁾ 그 결과 적이 돌입해 들어올 수 없고 선체가 높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한 반면, 조선 수군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화포를 구사하는 판옥선을 운영하였던 것이다.³²⁾ 군선이라는 측면에서 판옥선의 우수성은 선체가 커 많은 전투원과 화포 그리고 각종 군수품을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선체에 판옥을 설치함으로써, 주갑판에 있는 노요원과 射手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갑판에서 화포의 구사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승조원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화포를 구사케 하여 전투효율을 높였다는 것이 바로 전승 요인이 되었다. 판옥선의 단점으로 ‘속도가 느리고 선체가 무겁다’는 지적이 있긴 하였으나 ‘우리 군선은 순풍·횡풍·역풍을 구사할 수 있는데 왜선은 순풍만 사용한다’는 황신의 평가가 예시하듯 돛을 사용하여 속력을 보완하였던 것이다.³³⁾ 즉 판옥선은 명과 일본의 군선을 모방하였지만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군선으로 개량하여 선체가 높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고 높은

30) 《宣祖實錄》 권 83, 선조 29년 계미.

31) 《中宗實錄》 권 104, 중종 39년 9월 갑진.

32) 《中宗實錄》 권 42, 중종 16년 5월 무오.

33) 《宣祖實錄》 권 141, 선조 33년 정월 갑술.

곳에서 내려다 보며 화포를 구사함으로써 적을 제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군선이었다.

거북선은 돌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란 직전에 제작된 군선이다.³⁴⁾ 해전 상황에서 이순신이 염려한 것은 숫적으로 우세한 적 선단의 진형을 어떻게 혼란·와해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투국면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과감히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갈 수 있는 군선이어야만 적의 진형을 혼란·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고안해 낸 것이 거북선이었다. 거북선은 판옥선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판옥선의 단점을 보완한 군선이었다. 판옥선의 장점이란 선체가 높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고 포좌를 상갑판에 설치하여 화력의 효율을 높였다는 점이다. 거북선은 이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주갑판 위에 상갑판을 설치하고 노요원과 사수를 주갑판에, 포요원을 상갑판에 위치케 하고, 상갑판 위를 덮개로 씌워 전투요원까지 안전을 보장하려 하였다.³⁵⁾ 그리고 판옥선의 단점인 선체가 무겁고 속력이 느린 점을 보완키 위해 선체를 판옥선보다 작게 만들었다. 해전 상황에서 항해 요원과 전투원의 안전을 보장한 군선은 임란 당시 조선 군선인 거북선이 유일한 것이었다. 거북선의 활약은 두드러져 임란 당시 거북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호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水戰은 우리 나라가 보유한 장점이요, 거북선 제도는 더욱 승첩에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이 끼리는 바가 바로 이 거북선에 있습니다 … 거북선이 부족하면 밤낮으로 더 만들어 대포·불랑기·화전 등을 싣고 바닷길을 막아 끊는 계책이 곧 위급함을 막는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宣祖實錄》권 68, 선조 28년 10월 병인).

거북선이 전승의 한 요인이라는 평가는 바로 돌격선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승조원의 용감성을 유도해낸 船制의 장점에 있었던 것이다. 판옥선과 거북선 이외에 조선의 군선으로 포작선과 사후선 등이 있었는데 승조원이 5명에서 15명이 되는 선박으로 첩보와 보급선의 역할을 하였다.

34) 《李忠武公全書》권 2, 狀啓 1, 唐浦破倭兵狀.

35) Joe Evangelsta, “The Turtle Ship Admiral,” *Surveyor*(뉴욕; 미선박국, 1993), 2~6쪽.

둘째, 선상무기의 우세였다. 왜군은 조선 침략 당시 해상전투보다는 지상전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왜군은 장창·장검·조총 등 개인 무기로 무장하였다.³⁶⁾ 이를 대비한 조선 수군은 銃筒과 화살을 위주로 한 선상 무기와 장창·요도·철칠려와 같은 개인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³⁷⁾ 즉 훈련과 실전 경험이 있는 왜군은 개인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 수군에 접근, 선내로 돌입해 들어오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조선 수군은 선체를 높게 하고 방패를 부착하여 왜군의 돌입을 막고 적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총통과 화살을 이용하여 적선을 불태워 격침시키는 전법을 구사하였다.³⁸⁾ 다행히도 왜선은 폭이 좁고 선체가 견고하지 못하여 선상화기를 적재하지 못하였다. 단지 조총을 이용하여 공격해 왔지만 두꺼운 판자로 건조된 조선군선을 관통하거나 파괴시킬만한 위력을 갖지 못하였다. 반면 조선의 총통은 적선을 격파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었으며 화살은 화공전법을 구사하여 적선을 불태워 격침시킬 수 있었다.

셋째 전술운용의 우수성이다. 군선의 수, 군선의 속도, 군수지원체제, 전투원의 정예도 및 전투원의 수 그리고 조선의 총통과 활을 일본의 조총과 비교할 때 포의 사정거리 및 정확도 등에 있어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열세하였다. 따라서 함대함 전투를 할 경우 조선 수군에게 절대 불리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순신이 주축이 된 조선 수군은 해전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 전술을 구사하였다. 첫째 적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기습공격을 가할 것,³⁹⁾ 둘째 판옥선으로 공격할 수 없는 해역에서는 포작선과 사후선을 이용하여 적선을 유인하고, 본대로 학익진을 편성하여 적선을 포위 섬멸할 것,⁴⁰⁾ 셋째 대양에서 적 선단을 만나게 되면 거북선을 이용하여 적 진영을 와해시켜 적으로 하여금 지휘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후 집중 공격을 가할 것,⁴¹⁾ 넷째 아군의 군선수가 적 선단보다 적을 때는 적이 분산될 때까지

36) 《宣祖實錄》권 25, 선조 24년 5월 을축.

37) 宋奎斌, 《風泉遺響》配定遠近器械(奎章閣 藏書) 참조.

38) 《李忠武公全書》권 3, 狀啓 2, 條陳水陸戰事狀.

39) 《宣祖實錄》권 25, 선조 25년 6월 기유.

40)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所藏〈鶴翼陣圖〉참조.

41) 《李忠武公全書》권 2, 狀啓 1, 釜山破倭兵狀.

기다린 후 적 선단을 차례로 공격할 것,⁴²⁾ 다섯째 신속한 선단의 구성과 원활한 기동항해를 위해 사전에 지역별로 선단 위치를 부여할 것⁴³⁾ 등이었다.

이순신이 주축이 된 조선 수군은 위와 같은 전략·전술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열세한 함대 세력으로 제해권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임란 전기간을 통하여 이순신의 함대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전략·전술을 적절히 운용하였다는 점과 지형·지물에 밝은 연해민을 이용하여 주변환경을 전투에 응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명중율이 낮은 총통을 학익진을 형성하여 탄착점을 중앙에 모으게 함으로써 명중율을 높였다는 점이다.⁴⁴⁾ 이와는 반대로 용감성면에서 국왕인 선조에게 신임을 받아 통제사가 된 원균은 휘하 장병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함대함 전투를 선호하여 적세가 아군보다 강할 때 공격함으로써 적의 협공을 받아 패했던 것이다.⁴⁵⁾

국난의 위기에서 전국회복을 가져오게 한 동력은 수군의 승리였다. 수군의 승리를 이순신의 영웅적 활동으로 집약하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다. 그러나 이순신의 영웅적 활동은 조선 군선과 화포 그리고 전술전략의 응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투요원의 책임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전승의 요인이기도 하다.

〈張學根〉

42) 《宣祖實錄》권 25, 선조 25년 6월 기유.

43) 海軍士官學敎 博物館 所藏 〈戰艦圖〉 참조.

44) 위와 같음.

45) 李舜臣, 《亂中日記》, 정유 7월 18일.